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문화 해외 전파조사 및 DB구축」 사업 국제학술회의

# 실크로드와 한국불교문화

:: 2012년 10월 12일(금) ~ 13일(토)  
::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

주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고려대학교 BK21 한국사학교육연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K  
국립중앙도서관

경국사



## 목 차 Contents

일 정 표	_004
개 회 사	_009
정태헌(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소장)	
환 영 사	_011
김병철(고려대학교 총장)	
축 사	_013
최광식(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축 사	_015
지원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기조강연 「실크로드와 한국불교문화」 연구사업의 방향과 필요성	_017
정산스님(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中国境内 " 丝绸之路 " 的相关考古发现与研究	_023
중국 경내 '실크로드' 관련 고고학 발견 및 연구	_045
冉萬里(中國 西北大學 文化遺產學院 教授)	
日本におけるシルクロード研究の過去、現在、未来—キシル・プロジェクトの事例を中心に—	_061
일본 실크로드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키질프로젝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_071
中川原育子(日本 名古屋大學 文學研究科 助教)	
Khorezm and the Silk Road	_083
호레즘과 실크로드	_089
Janbekov Kakajan(Academy of Sciences of Turkmenistan)	
古代 韓國의 鳥羽冠과 실크로드	_095
조운재(인제대 역사고고학과 교수)	
古代韓國の東西文化交流の様相	_121
고대 한국의東西文化 교류양상	_129
篠原啓方(日本 關西大學 文學部 準教授)	
근대 조선과 실크로드	_137
최덕수(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실크로드 지역 조사를 통한 불교문화사적 고찰 —실크로드 고대국가의 불교문화—	_151
문무왕(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7-10세기 실크로드 東端에 있어서 불교문화의 역류	_167
석길암(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동아시아 古城의 형성과 불교전래의 연관성 재고 —실크로드 서남남도와 동아시아의 고성 비교—	_183
한지연(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高僧法顯傳』의 刊本에 관하여	_197
임상희(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魏晉南北朝时期的西域佛教	_209
위진남북조 시기의 서역불교	_219
王 欣(中國 陝西師範大學 西北民族研究中心 教授)	
Taxila—Gateway to Sub—Continent—	_233
亞大陸으로 가는 관문—타실라	_241
Abdul Nasir Khan(Pakistan Taxila Museum curator)	

## 국제학술회의 진행일정

## 10월 12일(금)

10:00-10:30	개회사 / 정태현_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소장 환영사 / 김병철_고려대 총장 축 사 / 최광식_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축 사 / 지원스님_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기조강연 / 정산스님_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제1부	사회 / 박대재 _고려대 한국사학과	
10:30-11:00	中国境内 "丝绸之路" 的相关考古发现与研究 중국 경내 ‘실크로드’ 관련 고고학 발견 및 연구	/ 冉萬里 _中國 西北大學 文化遺產學院
11:00-11:30	日本におけるシルクロード研究の過去、現在、未来 -キジル・プロジェクトの事例を中心に- 일본 실크로드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키질프로젝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 中川原育子 _日本 名古屋大學 文學研究科
11:30-12:00	Khorezm and the Silk Road 호레즘과 실크로드	/ Janbekov Kakajan _Academy of Sciences of Turkmenistan
12:00-14:00	점심식사	
14:00-14:30	古代 韓國의 鳥羽冠과 실크로드	/ 조윤재 _인제대 역사고고학과
14:30-15:00	古代韓國の東西文化交流の様相 고대 한국의 東西文化 교류양상	/ 篠原啓方 _日本 關西大學 文學部
15:00-15:30	근대 조선과 실크로드	/ 최덕수 _고려대 한국사학과
15:30-16:00	휴식	
제2부	사회 / 박윤진 _고려대 한국사연구소	
16:00-16:30	실크로드 지역 조사를 통한 불교문화사적 고찰 -실크로드 고대국가의 불교문화-	/ 문무왕 _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16:30-17:00	7-10세기 실크로드 東端에 있어서 불교문화의 역류	/ 석길암 _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17:00-17:30	동아시아 古城의 형성과 불교전래의 연관성 재고 -실크로드 사막남도와 동아시아의 고성 비교-	/ 한지연 _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18:00-	만찬	

## 10월 13일(토)

제3부		사회 / 박대재 _고려대 한국사학과	
09:30-10:00	ㅣ	『高僧法顯傳』의 刊本에 관하여	/ 임상희 _고려대 한국사연구소
10:00-10:30	ㅣ	魏晉南北朝時期的西域佛教 위진남북조 시기의 서역불교	/ 王 欣 _中國 陝西師範大學 西北民族研究中心
10:30-11:00	ㅣ	Taxila-Gateway to Sub-Continent- 亞大陸으로 가는 관문-타식라	/ Abdul Nasir Khan _Pakistan Taxila Museum
11:00-11:10	ㅣ	휴식	
종합토론		좌장 / 문명대 _한국미술사연구소	
11:10-13:00	ㅣ	패널 / 권영필 _상지대	박대재 _고려대 한국사학과
		김복순 _동국대 국사학과	전경욱 _고려대 국어교육과
		허인섭 _덕성여대 철학과	홍윤희 _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박윤진 _고려대 한국사연구소	발표자 전원
		통역 / 김현덕 동국대	김서리 동국대 정광훈 고려대



## 12th Oct(Fri)

10:00-10:30	Opening Address / Jung, Tae-Hern _Chief of Center for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Welcoming Address / Kim, Byoung-Chul _President of Korea University Congratulatory Address / Choe, Kwang-Shik _Minister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Congratulatory Address / Ven. Jiwon _Director of Buddhist Propagating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Basis lecture / Ven. Jeongsan _Research Prof. of Center for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Part 1	Chair / Park, Dae-Jae _Dep. Korean History, Korea Univ.
10:30-11:00	Archaeological Discoveries and Studies Related to the Silk Road within Chinese Border / Ran Wan li _Northwest Univ., China
11:00-11:30	Past, Present and Future of Japanese Research of the Silk Road -Concentrated on the Case of <i>Kyzyl Project</i> - / Nakagawara Ikuko _Nagoya Univ., Japan
11:30-12:00	Khorezm and the Silk Road / Janbekov Kakajan _Academy of Sciences of Turkmenistan
12:00-14:00	Lunch
14:00-14:30	Official Hats with feathers(鳥羽冠) and the Silk Road in Ancient Korea / Cho, Yun Jae _Inje Univ.
14:30-15:00	Aspects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East and West in Ancient Korea / Shinohara Hirokata _Kansai Univ., Japan
15:00-15:30	The Silk Road and Modern Chosŏn Korea / Choi, Deok-Soo _Korea Univ.
15:30-16:00	Break
Part 2	Chair / Park, Yun-Jin _Center for Korean History, Korea Univ.
16:00-16:30	Consideration of Buddhism Culture through a Regional Survey -Buddhist Culture of Ancient States near the Silk Road- / Moon, Mu-Wang _Dongguk Univ.
16:30-17:00	The Countercurrent of Buddhist Culture in Eastern Extremity of Silk Road in 7th to 10th Century / Seok, Gil-am _Geumgang Univ.
17:00-17:30	Rethinking on the Association between Formation of Ancient Cities and Introduction of Buddhism in East Asia -comparing the dessert southern route of silk road and the ancient cities of East Asia- / Han, Jee-Yeon _Geumgang Univ.
18:00-	Dinner

## 13th Oct(Sat)

Part 3	Chair / Park, Dae-Jae _Dep. Korean History, Korea Univ.
09:30-10:00	About Printings of 『 <i>A Record of Buddhistic Kingdoms</i> 』 / Lim, Sang-Hee _Korea Univ.
10:00-10:30	Western Buddhism during Six Dynasty Period / Wang xin _Shanxi Normal Univ., China
10:30-11:00	Taxila-Gateway to Sub-Continent- / Abdul Nasir Khan _Pakistan Taxila Museum
11:00-11:10	Break
General Discussion	Chair / Moon, Myung-Dae _The Arthistor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11:10-13:00	Panel / Kwon, Young-Pil _Sangji Univ. Park, Dae-Jae _Dep. Korean History, Korea Univ. Kim, Bok-Soon _Dep. Korean History, Dongguk Univ. Jeon, Kyeong-Uk _Dep.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 Univ. Huh, In-Sup _Dep. Philosophy, Duksung Women's Univ. Hong, Yun-Hee _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 Park, Yun-Jin _Center for Korean History, Korea Univ. All presenters Translator / Kim, Hyun-Deok _Dongguk Univ., Kim, Seo-Li _Dongguk Univ. Jung, Gwang-Hun _Korea Un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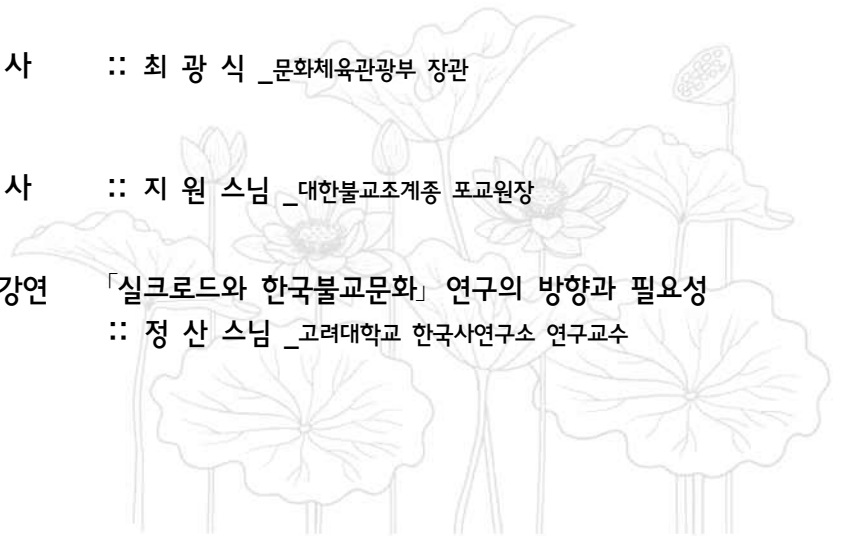
개회사        :: 정 태 헌 \_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소장

환영사        :: 김 병 철 \_고려대학교 총장

축 사        :: 최 광 식 \_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축 사        :: 지 원 스님 \_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기조강연      「실크로드와 한국불교문화」 연구의 방향과 필요성  
                  :: 정 산 스님 \_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 개 회 사

정 태 현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소장 정태현입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의 주관으로 「실크로드와 한국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기쁩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올해부터 한국사연구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주관하고 있는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문화 해외 전파조사 및 DB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한국사연구소는 최근 교내에서 ‘도약’연구소로 선정될 만큼 괄목상대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러한 도약은 이번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연구 성과를 하나하나 축적해 감으로써 가능했습니다. 현재 한국사연구소는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고대사, 고려시대사, 조선시대사, 근대사, 현대사 등 전시기에 걸쳐 빠짐없이 각각 중요한 연구테마를 설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주연구비가 연간 20여 억 원에 이를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연구소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훌륭한 연구 성과를 통해 세계 한국학 연구의 중심 센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한국사연구소가 한국사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불교문화와 세계문화로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 문화와 종교를 아우르는 ‘실크로드’는 세계 보편의 문화유산으로서 어느 특정 학문의 전유물일 수 없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역사, 철학, 문학 등을 통섭하는 ‘인문학의 소통로’인 실크로드를 통해 역사학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통섭적 접근을 통해 인문학의 새로운 연구 시야가 개척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사연구소는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소기의 목적 이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실크로드’는 그 분포 범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1~2년의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정부 지원으로 처음 시도되는 실크로드

프로젝트인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성과와 새로운 연구방법론이 나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기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회의와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신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이하 종무실 담당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 축사를 위해 왕림해주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환영사

김 병 철  
\_고려대학교 총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와 BK21 한국사학교육연구단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 “실크로드와 한국불교문화”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학술회의의 참석을 위해 본교를 방문해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간 우리 고려대학교는 인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확립해 왔으며 한국학의 국제화에 있어서도 많은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 또한 그 연장선에서 한국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내학계의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는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연구와 더불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동서교통 교차점인 ‘둔황’의 고문서와 유물을 연구하는 국제둔황프로젝트(IDP)에도 이미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최근 국제둔황프로젝트 서울센터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 유치된 것은 실크로드 연구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본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실크로드에 관해서는 아직 학문적으로 탐구해야 할 방대한 자료와 역사적 사실들이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해외 선진 국가들은 19세기말부터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전하여진 교류의 흔적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종지와 향료, 비단과 도자기, 보석 등의 물질문명뿐만 아니라 종교와 학문, 기술 등 정신문명에 이르는 총체적인 교류의 산물들은 우리 주변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소중한 문명적 자산입니다.

오늘 ‘실크로드와 한국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는 실크로드에서의 교류가 아시아와 유럽의 특정한 나라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고, 서역과의 문명적 조화와 소통으로 다시금 이어졌음을 고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고대사는 물론 불교문화사에 있어서도 뜻 깊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풍성한 학술적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주관하는 본교 한국사학연구소와 BK21 한국사학교육연구단은 각각 2011 고려대학교 ‘도약’ 연구소와 한국연구재단의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될 만큼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교가 한국학 분야의 세계적인 구심점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개최를 후원해주신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이 자리에 친히 참석해 주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 축 사

최 광 식  
\_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가 주관하는 「실크로드와 한국불교문화 국제학술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대 한국불교문화의 원류와 전파 양상을 조명하기 위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한국문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불교뿐만 아니라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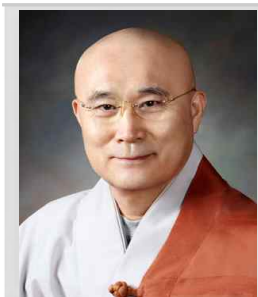
그동안 실크로드는 서역의 문물을 고대 한국에 전해준 통로로만 이해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대 한류의 루트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문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으로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서역으로 전파되어 나간 문화도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줍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 다루어질 고대 삼국시대의 鳥羽冠이나 신라 승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실크로드에 남아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우리 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 지역에서 매일 매일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의 ‘한류’는 우리 문화가 세계 문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류의 전통은 고대 삼국시대 사람들의 동서양을 넘나드는 활약상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세계 4대 여행기 중 하나인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불과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다와 사막을 가로질러 인도와 중앙아시아, 중국 서북지방을 여행하고 남긴 미증유의 기록입니다. 타클라마칸사막과 파미르고원을 넘어 카스피해 연안의 우즈베키스탄까지 갔던 고구려인의 기상은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한국인의 광활한 기상은 오늘날 ‘한류’의 밑바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는 곧 현재 한류의 원류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된 고대의 한류를 복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선진 문화 국가로서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고대 한국문화의 원류와 전파 양상을 조사하는 이 연구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결실을 얻어 한국 문화의 역사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준비하신 박대재 교수를 비롯한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님들과 김병철 총장님 이하 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번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축 사

지 원 스님  
\_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결실의 계절 10월은 학문적으로도 풍성한 연구 결과를 맺어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풍요의 계절에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주관으로 ‘실크로드와 한국불교문화’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고대부터 빛을 발한 불교문화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래되고 그것이 또 한반도로 유입, 전파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간 실크로드와 관련한 불교문화를 주제로 여러 차례 학술대회가 치뤄졌으나, 오늘의 학술대회는 특히 한국불교문화의 원형을 찾아내고 그 가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크로드와 한국불교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 깊은 발걸음을 옮기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여러분께 무한한 영광과 학술적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이 학술대회가 개최되기까지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정부 당국과 고려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께도 대한불교조계종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불교문화의 연구는 곧 우리전통문화에 대한 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불교는 이 땅에 전래되어 깊은 사상과 문화를 꽃 피워왔습니다. 철학과 이념을 심어주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살찌워 팍팍한 삶에 한 줄기 푸른 시냇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것이 전통문화로 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의 문화는 불교를 통해 그 가치를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원류는 실크로드를 통해 다양하고 아름다운 스펙트럼을 토해내고 층위의 깊이를 더해 나갔습니다.

불상과 불화, 불탑과 승방, 그리고 그와 어울린 여러 가지 문화적 조형물들이 실크로드와 더불어 살아 움직였으며 우람한 나무로 우뚝 서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를 전래하는데 스님들과 불자들이 큰 가교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를 전해준 묵호자나 마라

난타 같은 분들은 모두가 실크로드의 스님들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실크로드의 스님들이 우리나라에 불교정신과 불교문화를 전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시하다시피 서역을 중심으로 한 실크로드는 척박한 땅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 문화를 흐르게 한 것이 불교이며 그 불교문화는 아름다운 정신의 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조명을 통해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오늘날 이 시대의 새로운 문화 창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과 독창성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된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울러 멀리 외국으로부터 본 학술대회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학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조강연::

## 「실크로드와 한국불교문화」 연구의 방향과 필요성

원 영 만(정산)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문화의 해외 전파를 조사하여 DB를 구축하고 연구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한국불교문화의 원형과 교류를 밝히는 사업은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역사학계에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보 전진하여 오늘 그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이하 담당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후원에 답하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 연구팀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향후 다년간의 연구를 거쳐 밝혀질 내용은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일찍이 없었던 대단위 연구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사업을 통해 고·중세시대 한국불교문화 형성기에 우리 문화가 중국,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서역 세계로 전파되어 남긴 유적 및 문헌 자료를 조사하여 한국 불교문화의 해외전파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적인 DB를 구축하고, 실크로드와 불교문화라는 공유점을 근거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의 전파과정에 대한 연구는 불교문화의 이동 경로를 밝히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민족 문화의 기원을 찾는 것으로서, 그간 미술사적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는 있었지만 문헌과 현지조사를 병행한 역사학적 접근은 미미하였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실크로드 지역의 고대 유적에 대한 현장 조사와 문헌자료 분석을 종합하여 한국문화의 전파 흔적을 찾고, 불교문화의 유입과정을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佛國記』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5세기 법현의 『高僧法顯傳』을 분석하여 고대 실크로드의 주요 경로를 정리하고, 이후 7세기 현장의 『大唐西域記』를 분석하여 고대 실크로드의 전모를 종합적으로 밝힐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8세기 신라 승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 빠져 있는 잃어버린 고대 실크로드의 연결고리를 복원할 것입니다. 현존하는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1908년 프랑스학자 폴 펠리오에 의해 돈황 막고굴 장경동에서 발견된 앞뒤가 잘려나간 殘本으로서 사료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존 『왕오천축국전』의 남은 기록을 분석하고 이것을 앞선 법현과 현장의 순례기와 비교하면 고대 실크로드의 경로와 문화의 이동과정을 파악하는 데 커다란 시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종합하여 『신왕오천축국전』을 완성하는 학문적 성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왕오천축국전』의 소실된 부분을 복원하는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거기에는 겨레

의 열과 뉘, 슬기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한국인 혜초스님이나 『왕오천축국전』은 우리 속에 제대로 자리 매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100년 넘게 낡은 무연고지에서 幽閉된 채 잊혀져 ‘반환목록’에 조차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혜초와 그의 여행기가 지닌 민족사적 업적과 세계사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기초는 현존 자료의 역주를 통해 번역의 오류를 찾아 주석 작업의 완결이 병행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연구 성과물은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왕오천축국전』을 국내로 반입하게 되는 학술적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실크로드에 대한 폭 넓은 연구를 위해서 서역지역 연구단체와의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현지 학자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풍부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중국 및 서역지역에서 이번 학술대회와 같이 다양한 학자들이 참가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계획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중요한 추진전략은 현장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헌자료 조사만으로는 실크로드 불교문화의 전모를 밝힐 수 없기에 현장 조사를 통해 현지에 잔존하고 있는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헌자료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장 조사는 다방면에 걸친 실크로드 불교문화를 통한 한국불교문화의 원형을 살피게 해주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현장 조사는 오아시스 루트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미답사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데 고 해상도 사진촬영과 GPS 데이터를 정리하며 비디오촬영과 GPS를 활용한 GIS지리정보시스템도 동시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2년 조사지역은 쿠알러-누란-미란-체르첸-니야-호탄-카슈가르 등 주로 사막남로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니야는 타클라마칸 사막 중앙 남부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로, 옛날에는 물이 풍부해 『대당서역기』에 ‘큰 늪지대가 있으므로 건너가기가 어렵고 갈대가 우거져 있어서 길조차 없다. 성으로 향하는 외길만이 걸어 다닐 수 있다’고 기록될 정도였는데, 현재는 말라버린 사막의 강 주변에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지만 우리 조사단은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해 그 유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니야지역에는 현재 불탑 1기, 불탑 주변의 승방지, 마을유적 등이 존재하는데, 누란 지역과는 달리 유적이 밀집되지 않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형태입니다. 불탑의 높이는 6.5m로 현재 잘 보존되어 있는 편으로 기원전 2세기에서 서기 8세기경까지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흔적입니다. 1994년 조사에서 키로쉬티語로 씌어진 30개의 書板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고대 문화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2차 년도인 2013년에는 하서회랑지역과 천산남로, 즉 사막북로를 중심으로 서안-난주-둔황-쿠차-악수-카슈가르-훈자-길기트-라호르에 이르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교가 고대 한국문화에 끼친 영향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전파와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우리 손으로 직접 실크로

드 지역 자료를 조사 발굴하는 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소위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습니다만 본 연구팀은 우리 손으로 직접 실크로드 유적을 조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학계와 정부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연구 과정에서 정부 당국 및 학계 대중의 많은叱正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진을 대표하여 定山 화남





## 제1부

발표 1. 中国境内 "丝绸之路" 的相关考古发现与研究  
중국 경내 '실크로드' 관련 고고학 발견 및 연구  
:: 冉萬里 \_中國 西北大學 文化遺產學院 教授

발표 2. 日本におけるシルクロード研究の過去、現在、未来  
-キジル・プロジェクトの事例を中心に-  
일본 실크로드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키질프로젝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 中川原育子 \_日本 名古屋大學 文學研究科 助教

발표 3. Khorezm and the Silk Road  
호레즘과 실크로드  
:: Janbekov Kakajan \_Academy of Sciences of Turkmenistan

발표 4. 古代 韓國의 鳥羽冠과 실크로드  
:: 조운재 \_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발표 5. 古代韓國の東西文化交流の様相  
고대 한국의東西文化 교류양상  
:: 篠原啓方 \_日本 關西大學 文學部 準教授

발표 6. 근대 조선과 실크로드  
:: 최덕수 \_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 中国境内“丝绸之路”的相关考古发现与研究

冉 萬 里 | 中國 西北大學 文化遺產學院 教授

“丝绸之路”一词是由德国地理学家李希霍芬在其著作《中国》一书中首先提出来的。“丝绸之路”的研究，主要是通过考古发现的与外来文化相关的遗迹和遗物，探讨以下两个问题：一是阐述中外文化交流的内容及历史影响；二是恢复古代交通线。数十年来，中国境内发现了大量的与“丝绸之路”相关的遗迹与遗物，以下对主要的发现和研究成果进行简要论述。

### 壹、汉代——“丝绸之路”的开通

#### 一、玻璃器

西汉时期的外来玻璃器，在广州横枝岗2061号西汉中期（公元前1世纪）墓出土3件罗马玻璃碗，它们是目前所知中国发现的最早的罗马玻璃器<sup>1)</sup>。

东汉时期的外来玻璃器，在河南洛阳东汉墓葬中出土1件玻璃瓶（图一），被认为是典型的罗马搅胎吹制玻璃器<sup>2)</sup>。另外，在江苏邳江县甘泉2号东汉墓（67年）出土了3块玻璃残片，其化学成分与罗马玻璃的钠钙玻璃基本相同<sup>3)</sup>。

#### 二、凸瓣银盒与铜盒

凸瓣纹银盒在山东淄博西汉齐王墓陪葬坑中出土1件（图二，1）<sup>4)</sup>，广州南越王墓中也出土1件（图二，2）<sup>5)</sup>，在山东西辛西汉墓葬中也出土2件（图二，3）<sup>6)</sup>。另外，在云南昆明石寨山滇墓出土了4件铜质凸瓣盒<sup>7)</sup>。它们可能是通过海上丝绸之路传入中国的安息器物<sup>8)</sup>。

#### 三、带扣

云南昆明石寨山7号滇墓（西汉晚期）出土了1件银质带翼虎纹带扣，与古代希腊的所谓亚述式翼兽颇为近似<sup>9)</sup>。童恩正认为从印度直接输入的可能性不能否定<sup>10)</sup>。汉墓中还常见一种北方草原地带

1) 广州市文物管理委员会、广州市博物馆：《广州汉墓》，文物出版社，1981年。

2) 安家瑶：《中国的早期玻璃器皿》，《考古学报》1984年第4期。

3) 南京博物院：《江苏邳江甘泉二号汉墓》，《文物》1981年第11期。

4) 山东省淄博市博物馆：《西汉齐王墓随葬器物坑》，《考古学报》1985年第2期。

5) 广州市文物管理委员会等：《西汉南越王墓》，文物出版社，1991年。

6) 国家文物局主编：《2004中国重要考古发现》，文物出版社，2005年。

7) 张增祺：《晋宁石寨山》，云南美术出版社，1998年。

8) 孙机：《凸瓣纹银器与水波纹银器》，《中国圣火》，辽宁教育出版社，1996年。

9) 张增祺：《战国至西汉时期滇池区域发现的西亚文物》，见《古代西南丝绸之路研究》第一辑，四川大学出版社，1990年。

10) 童恩正：《古代中国南方与印度交通的考古学研究》，《考古》1999年第4期。

流行的带扣。

#### 四、多面金珠和金花泡

多面金珠在湖南零陵东门外东汉初期墓<sup>11)</sup>、湖南长沙五里牌9号东汉墓<sup>12)</sup>、广西合浦北插江盐堆1号墓(图三)<sup>13)</sup>、江苏邗江甘泉2号东汉墓<sup>14)</sup>、广西合浦风门岭10号墓和合浦北插江4号墓<sup>15)</sup>都有发现。金花泡饰在广州南越王墓曾经出土32件<sup>16)</sup>。这些多面金珠、金花泡及其制造方法可能是从海路输入中国的<sup>17)</sup>。但也有人指出,不排除有些是对西方原型作了改进的中国制品<sup>18)</sup>。

#### 五、蚀花肉红石髓珠

在云南石寨山13号墓(西汉中期)曾经发现过1颗自印度输入的蚀花肉红石髓珠<sup>19)</sup>。这类珠子最早发现于公元前3千纪的印度哈拉巴文化(Harappa)<sup>20)</sup>。关于其输入路线,张增祺、童恩正均认为在云南和印度之间有一条不被人所知的商道<sup>21)</sup>。

#### 六、非洲象牙

1983年,在广州南越王墓发现非洲象牙,它们是通过海上丝绸之路输入的<sup>22)</sup>。

#### 七、青金石

在江苏徐州东汉墓中出土了1件兽形鎏金铜砚盒,其上青金石等(图四)<sup>23)</sup>。而青金石主要产于阿富汗、巴基斯坦,这件鎏金铜砚盒的出土,说明公元2世纪时青金石已传入中国,并且很可能是经海路传入的。

#### 八、纺织品

1959年,在新疆民丰县古尼雅遗址一座东汉晚期(2世纪)墓葬中出土了两块蓝白印花棉布残片<sup>24)</sup>。其中一块棉布的左下角有一个方框,框内画有一个半身女神像,女神手中持有一个盛满果实的角状容器(图四)。最初推测图中女神为佛教的菩萨像,并认为是从印度输入的<sup>25)</sup>。有学者则认为角状容器是希腊神话中的丰饶之角,图中女神是希腊神话中的丰收女神<sup>26)</sup>。也有人认为她是希腊

11) 湖南省文物管理委员会:《湖南零陵东门外汉墓清理简报》,《考古通讯》1957年第1期。

12) 湖南省博物馆:《长沙五里牌古墓葬清理简报》,《文物》1960年第3期。

13) 蒋廷瑜等:《汉代合浦及其海上交通的几个问题》,《广西环北部湾文化研究》,广西人民出版社,2002年;邓兰、梁旭达:《汉代合浦港及有关问题探讨》,《海上丝绸之路研究——中国·北仑港合浦海上丝绸之路始发港理论研讨会论文集》,科学出版社,2006年。

14) 南京博物院:《江苏邗江甘泉二号汉墓》,《文物》1981年第11期。

15) 蒋廷瑜等:《汉代合浦及其海上交通的几个问题》,《广西环北部湾文化研究》,广西人民出版社,2002年。

16) 广州市文物管理委员会等:《西汉南越王墓》,文物出版社,1991年。

17) 岑蕊:《试论东汉魏晋墓葬中的多面金珠用途及其源流》,《考古与文物》,1990年第3期。

18) 孙机:《建国以来西方古器物在我国的发现与研究》,《文物》1999年第10期。

19) 作铭:《我国出土的蚀花的肉红石髓珠》,《考古》1974年第6期;张增祺:《战国至西汉时期滇池区域发现的西亚文物》,见《古代西南丝绸之路研究》第一辑,第235页,四川大学出版社,1990年。

20) Agrawal, D. P., The Archaeology of India, 146, London: Curzon Press, 1982.

21) 张增祺:《战国至西汉时期滇池区域发现的西亚文物》,见《古代西南丝绸之路研究》第一辑,第235页,四川大学出版社,1990年;童恩正:《古代中国南方与印度交通的考古学研究》,《考古》1999年第4期。

22) 麦英豪:《汉代番禺的水上交通与考古发现》,《广州外经贸两千年》,广州文化出版社,1989年。

23) 夏鼐:《无产阶级文化大革命中的考古新发现》,《考古》1972年第1期;《新中国出土文物》,外文出版社,1972年。

24) 新疆维吾尔自治区博物馆:《新疆民丰县北大沙漠中古遗址墓葬区东汉合葬墓清理简报》,《文物》1960年第6期;新疆维吾尔自治区博物馆:《新疆出土文物》,外文出版社,1975年。

25) 夏鼐:《中国文明的起源》,文物出版社,1985年。

26) 余太山:《西域文化史》,中国友谊出版公司,1992年。

神话中的大地女神该亚与谷物女神得墨忒耳的混合体<sup>27)</sup>。另有学者认为图中的女神应是波斯女神<sup>28)</sup>。孙机认为是中亚的丰收女神阿尔多克洒，并认为是从贵霜传入的<sup>29)</sup>。

1984年，在新疆洛浦县山普拉墓地1号东汉墓中出土1件彩色毛织物，经复原其上部为人首马身图案，实际上是希腊罗马神话中的马人（Centaur），下部为执矛武士具有典型的希腊文化特征<sup>30)</sup>。

1995年，在新疆尉犁县营盘遗址清理发掘一处汉晋时代大型墓地，获得文物约400件<sup>31)</sup>。其中15号墓的时代为东汉中期<sup>32)</sup>，棺内所葬男子身穿一件红地对人对兽树木纹罽袍，整个图案把希腊艺术与中亚、西亚艺术有机地融合在一起，当是西方所产。关于其墓主，有学者认为是墨山国贵族<sup>33)</sup>，发掘者认为可能是一位来自西方从事贸易的富商<sup>34)</sup>。

### 九、一些外来文化因素

在汉代的遗物中，还有一些器物本身表现出浓郁的外来文化色彩。

1. 汉代石雕和玉雕中，常见狮子和带翼神兽。先秦文献中的狻猊就是指狮子<sup>35)</sup>。狮子雕像在陕西、四川、河南和山东等地都有发现，有些是写实的，有的则带有双翼。梁思成认为狮子及翼兽的出现是受了西亚影响<sup>36)</sup>。

2. 胡人和骆驼形象在汉墓雕刻上开始出现，反映了西域胡人在汉代进入中国进行文化交流的史实<sup>37)</sup>。

3. 在徐州汉画像石上雕刻的双头鹰形象，被认为是格里芬形象（图五，1、2）<sup>38)</sup>。

4. 在西安十里铺和红庙坡东汉墓中曾经分别出土1件肩生双翼的小铜人（图五，3）<sup>39)</sup>，其形象与西方神话中的Eros相似，极有可能是通过“丝绸之路”传入中国的。

5. 中国早期的佛像，最早出现于四川地区东汉崖墓雕刻及钱树上，并常与西王母等土著宗教人物相混杂。据宿白研究，早期佛像多为胡人形象，反映了当时当地胡人奉佛的情况，也说明当时佛教尚未在汉人之间展开<sup>40)</sup>。

6. “丝绸之路”开通之后，葡萄、苜蓿、石榴等植物也随之传入中国，如其在汉代纺织品上已经开始出现葡萄图案（图六）<sup>41)</sup>。

27) Silk Road, The History Collection. British Museum, 1993.

28) 赵丰：《丝绸艺术史》，浙江美术学院出版社，1992年。

29) 孙机：《建国以来西方古器物在我国的发现与研究》，《文物》1999年第10期。

30) 新疆维吾尔自治区博物馆：《洛浦县山普拉古墓发掘报告》，《新疆文物考古新收获(1979—1989)》，新疆文物考古研究所编，新疆人民出版社，1995年；李吟屏：《洛普县山普拉古墓出土缂毛裤图案马人考》，《文物》1990年第11期。

31) 新疆文物考古研究所：《新疆尉犁县营盘墓地15号墓发掘简报》，《文物》，1999年第1期。

32) 童恩正：《古代中国南方与印度交通的考古学研究》，《考古》1999年第4期。

33) 林梅村：《墨山国贵族宝藏的重大发现》，《古道西风：考古新发现所见中西文化交流》，三联书店，2000年。

34) 新疆文物考古研究所：《新疆尉犁县营盘墓地15号墓发掘简报》，《文物》，1999年第1期。

35) 林梅村：《汉唐西域与中国文明》，文物出版社，1998年。

36) 梁思成：《中国雕塑史》，百花文艺出版社，1997年。

37) 四川省文物考古研究所：《四川中江塔梁子崖墓发掘简报》，《文物》2004年第9期；王煜：《“车马出行——胡人”画像试探——兼谈汉代墓葬艺术中胡人形象的意义》，《考古与文物》2012年第1期。

38) 杨孝军、郝利荣：《徐州新发现的汉画像石》，《文物》2007年第2期。

39) 雒忠如：《西安十里铺东汉墓清理简报》，《考古通讯》1957年第4期；西安市文物保护考古所：《西安文物精华·青铜器》，世界地图出版社，2005年。

40) 宿白：《四川钱树和长江中下游部分器物上的佛像——中国南方发现的早期佛像札记》，《文物》2004年第10期。

## 貳、魏晋南北朝时期——“丝绸之路”的发展

### 一、外来移民墓葬的发现

外来移民的墓葬在陕西西安发现了几座，均属北周时期，主要有粟特人安伽墓<sup>42)</sup>、史君墓<sup>43)</sup>、康业墓<sup>44)</sup>，以及鬲宾人李诞墓<sup>45)</sup>。另外，在新疆吐鲁番交河故城发掘了一处康氏家族墓地，其中出土有墓志，表明墓主人是来自康国的粟特人<sup>46)</sup>。

### 二、外来遗物的发现

#### 1. 金银器

##### (1) 萨珊朝波斯

山西大同小站村北魏封和突墓（504年）出土有萨珊朝波斯狩猎纹银盘（图七）、银长杯、银高足杯<sup>47)</sup>。其中的银盘最为学者们关注<sup>48)</sup>，有学者考证盘上的人物是萨珊朝第四代君主巴赫拉姆一世<sup>49)</sup>。

新疆焉耆七个星乡老城村出土的银碗圈足上篆刻有铭文，经西姆斯—威廉姆斯(N.Sims-Williams)释读为中古波斯文，意为“125德拉克马。”<sup>50)</sup>说明这件器物也应该是萨珊朝波斯产品。

##### (2) 大夏（巴克特里亚）

宁夏固原北周李贤墓出土的鎏金银胡瓶<sup>51)</sup>，吴焯认为制作者是罗马占领区内的土著工匠或者客籍于此地区的罗马手艺人<sup>52)</sup>；罗丰<sup>53)</sup>、齐东方<sup>54)</sup>认为属于中亚产品；孙机认为是嚙哒产品<sup>55)</sup>。

甘肃省靖远出土的鎏金银盘（图八）<sup>56)</sup>，初师宾认为银盘装饰的12个神像应是希腊神话中的“奥林匹斯山十二神”，盘内底正中的男神可能是阿波罗，也可能是酒神巴卡斯或希腊神话中的酒神狄俄尼索斯，其“时代约在4~5世纪，最晚不过6世纪前半期，其产地大约不会超出意大利、希腊和土

41) 武敏：《新疆出土汉—唐丝织品初探》，《文物》1962年第7、8期。

42) 陕西省考古研究所：《西安北周安伽墓》，科学出版社，2003年。

43) 西安市文物保护考古所：《北周凉州萨宝史君墓发掘简报》，《文物》2003年第3期。

44) 国家文物局主编：《2004中国重要发现》，文物出版社，2005年；西安市文物保护考古所：《北周康业墓——2004年中国十大考古发现申报材料》，2005年。

45) 国家文物局：《2005中国主要考古发现》，文物出版社，2006年。

46) 吐鲁番地区文物局：《吐鲁番交河故城沟西墓地康氏家族墓清理简报》，《吐鲁番学研究》2005年第2期。

47) 大同市博物馆、马玉基：《大同市小站村花圪塔台北魏墓清理简报》，《文物》1983年第8期。

48) 夏鼐：《北魏封和突墓出土萨珊银盘考》，《文物》1983年第8期。

49) 马雍：《北魏封和突墓及其所出的波斯银盘》，《文物》1983年第8期。

50) 林梅村：《中国境内出土带铭文的波斯和中亚银器》，《文物》1997年第9期。

51) 宁夏回族自治区博物馆、宁夏固原博物馆：《宁夏固原北周李贤夫妇墓发掘简报》，《文物》1985年第11期。

52) 吴焯：《北周李贤墓出土鎏金银壶考》，《文物》1987年第5期。

53) 齐东方：《中国古代的金银器皿与波斯萨珊王朝》，《伊朗学在中国论文集》，北京大学出版社，1993年；罗丰：《北周李贤墓中亚风格的鎏金银瓶》，《考古学报》2000年第3期。

54) 齐东方：《唐代金银器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9年。

55) 宁夏回族自治区博物馆、宁夏固原博物馆：《宁夏固原北周李贤夫妇墓发掘简报》，《文物》1985年第11期。

56) 初师宾：《甘肃靖远新出东罗马鎏金银盘略考》，《文物》1990年第5期。

耳其<sup>57)</sup>。日本学者石渡美江认为是公元2~3世纪罗马东方行省北非或西亚的产品<sup>58)</sup>；法国学者史蒂文森认为是公元3~4世纪罗马帝国东部行省所产<sup>59)</sup>；林梅村释读出银盘上的一行大夏文铭文，意为“价值490斯塔特”或“价值490金币”，并认定是大夏银器<sup>60)</sup>。

山西大同北魏107号墓出土的银高足杯、银碗<sup>61)</sup>，大同南郊北魏平城遗址发现的银碗、多曲银长杯<sup>62)</sup>，学界普遍认为它们是巴克特里亚一带的产品。而其中的多曲银长杯，夏鼐认为是萨珊朝波斯制品<sup>63)</sup>，孙培良认为是5世纪后期萨珊朝波斯北部地区的产品<sup>64)</sup>。1993年，林梅村在美国访学时，在熊存瑞处得到此长杯的铭文摹本，经松德(W.Sundermann)释读，确认为其为大夏文，意为“xošo (也可能是xašo, 大概是器主之名) 拥有”，从而确认了该件器物属于大夏产品<sup>65)</sup>。

### (3) 粟特

广东遂溪南朝窖藏中出土1件十二瓣银碗<sup>66)</sup>，其上刻有铭文，据吉田丰释读，其内容为：“(瓷碗属于)石国的……SP.(重)42个币。”<sup>67)</sup>说明这件银碗来自于粟特的石国。另外，在青海上孙家寨魏晋墓葬中也曾发现1件粟特带把银壶<sup>68)</sup>。

## 2. 铜器

山西大同北魏平城遗址窖藏中出土铜高足杯3件(图九)，被认为具有强烈的希腊化色彩，其制造地很可能就是大夏(巴克特利亚)<sup>69)</sup>。

## 3. 货币

关于外来货币的研究，中国考古学的奠基者夏鼐先后发表《综述中国出土的波斯萨珊朝银币》等论文，为外来货币的研究奠定了基础。

### (1) 东罗马金币

东罗马金币的发现数量不多。河北赞皇东魏李希宗夫妇合葬墓发现3枚，分别为狄奥多西斯二世(408-450年)、查士丁尼一世和查士丁尼二世舅甥共治时期所铸造<sup>70)</sup>；河北磁县东魏茹茹公主墓出土2枚<sup>71)</sup>；西安北周李诞墓出土1枚，为查士丁尼一世时期铸造<sup>72)</sup>；宁夏固原北周田弘墓出土5枚<sup>73)</sup>，其中1枚列奥一世时期(457-474年)铸造、1枚为查士丁尼一世(518-527年)时期铸

57) 初师宾：《甘肃靖远新出东罗马鎏金银盘略考》，《文物》1990年第5期。

58) 石渡美江：《甘肃靖远出土鎏金银盘的图像与年代》，《古代オリエント 博物馆纪要》第13册，1992年。

59) 史蒂文森(M.P.T'serstevens)：《外部世界文化对中国的贡献——交流与融合》，《北京大学塞克勒考古艺术博物馆——“迎接二十一世纪的中国考古学”国际学术讨论会》论文，1993年。

60) 林梅村：《汉唐西域与中国文明》，文物出版社，1998年。

61) 山西省考古研究所、大同市博物馆：《大同南郊北魏墓群发掘简报》，《文物》1992年第8期。

62) 孙培良：《略谈大同市南郊出土的几件银器和铜器》，《文物》1977年第9期。

63) 夏鼐：《近年中国出土的萨珊朝文物》，《考古》1978年第2期。

64) 孙培良：《略谈大同市南郊出土的几件银器和铜器》，《文物》1977年第9期。

65) 林梅村：《中国境内出土带铭文的波斯和中亚银器》，《文物》1997年第9期。

66) 遂溪县博物馆：《广东遂溪县发现南朝窖藏金银器》，《考古》1986年第3期。

67) 吉田丰：《〈中国和印度的粟特商人〉补记》，《唐研究》第三卷，年。

68) 齐东方：《唐代金银器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9年。

69) 夏鼐：《近年中国出土的萨珊朝文物》，《考古》1978年第2期；孙培良：《略谈大同市南郊出土的几件银器和铜器》，《文物》1977年第9期。

70) 石家庄地区革委会文化局文物发掘组：《河北赞皇东魏李希宗墓》，《考古》1977年第6期。

71) 磁县文化馆：《河北磁县东魏茹茹公主墓发掘简报》，《文物》1984年第4期。

72) 国家文物局：《2005年中国重要考古发现》，文物出版社，2006年。

73) 原州联合考古队：《北周田弘墓》，勉诚出版(株)，2000年。

造、2枚为查士丁尼一世和查士丁尼二世（527—565年）舅甥共治时期（527年）铸造、1枚为查士丁尼二世（527—565年）时期铸造。

## （2）萨珊朝波斯银币

北方地区发现的萨珊朝波斯银币，主要集中在“丝绸之路”沿线的城址或墓葬。如新疆吐鲁番高昌古城遗址出土20枚，其中沙普尔二世时期的10枚、阿尔达希二世时期的7枚、沙普尔三世时期的3枚<sup>74)</sup>；河北定县北魏塔基出土的石函中发现了41枚萨珊朝波斯银币<sup>75)</sup>，属于耶斯提泽德二世时期（438—457年）的4枚，卑路斯时期的37枚<sup>76)</sup>。其中1枚耶斯提泽德二世的银币边缘压印有一行嚧哒文字，所以，有些银币可能是经由嚧哒而流通到中国，反映了当时波斯、嚧哒和中国三者之间的关系<sup>77)</sup>。

南方地区的南朝窖藏、墓葬等也出土有萨珊朝波斯银币，反映了当时海上丝绸之路繁荣的情景。如广东遂溪南朝窖藏中出土约20枚<sup>78)</sup>；广东英德南齐墓出土3枚<sup>79)</sup>；广东曲江南华寺南朝墓中出土了9枚被剪过的萨珊朝银币<sup>80)</sup>。

## 4. 玻璃器的发现

魏晋南北朝时期的外来玻璃器，主要来自罗马玻、萨珊朝波斯和印度。

### （1）罗马玻

北燕冯素弗墓中出土的5件罗马玻璃器，有鸭形水注（图一〇，1）、侈口直筒形凹底杯（图一〇，2）、圜底小钵、圈足碗、残高足器等<sup>81)</sup>。此外，河北景县封氏墓群发现的网目纹玻璃碗和杯（图一〇，3）<sup>82)</sup>、南京象山7号东晋墓出土的直筒形刻纹玻璃杯（图一〇，4）<sup>83)</sup>、南京大学东晋墓出土的玻璃杯<sup>84)</sup>、南京市石门坎六朝早期墓出土的碗盏残片<sup>85)</sup>等，都是罗马玻璃器。

### （2）萨珊朝波斯

魏晋南北朝时期的萨珊朝波斯玻璃器的发现主要有：湖北鄂城西晋墓出土玻璃碗1件<sup>86)</sup>；北京西晋华芳墓出土1件钉钹玻璃碗<sup>87)</sup>；湖北鄂城西晋墓出土的圜底玻璃碗<sup>88)</sup>；江苏南京仙鹤观东晋墓（M6）出土玻璃碗1件（图一〇，7）<sup>89)</sup>；山西大同南郊第107号墓出土1件玻璃碗（图一〇，6）<sup>90)</sup>；江苏句容春城南朝宋墓中出土1件玻璃碗（图一〇，5）<sup>91)</sup>；宁夏固原北周李贤墓出土1件

74) 夏鼐：《综述中国出土的波斯萨珊朝银币》，《考古学报》1974年第1期。

75)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队：《河北定县出土北魏石函》，《考古》1966年第5期。

76) 夏鼐：《河北定县塔基舍利石函中波斯萨珊朝银币》，《考古》1966年第5期。

77) 孙机：《中国圣火》，辽宁教育出版社，1996年。

78) 遂溪县博物馆：《广东遂溪县发现南朝窖藏金银器》，《考古》1986年第3期。

79) 广东省文物管理委员会等：《广东英德、连阳南齐和隋唐古墓的发掘》，《考古》1961年第3期。

80) 广东省文物管理委员会：《广东曲江东晋、南朝墓简报》，《考古》1959年第9期。

81) 黎瑶渤：《辽宁北票西官营子北燕冯素弗墓》，《文物》1973年第3期。

82) 张季：《河北封氏墓群调查记》，《考古通讯》1957年第3期。

83) 南京市博物馆：《南京象山5号、6号、7号墓清理简报》，《文物》1972年第11期。

84) 南京大学历史学考古组：《南京大学北园东晋墓》，《文物》1973年第4期。

85) 李鉴华、屠思华：《南京石门坎六朝墓清理记》，《考古通讯》1958年第9期。

86) 安家瑶：《北周李贤墓出土的玻璃碗——萨珊玻璃器的发现与研究》，《考古》1986年第2期。

87) 安家瑶：《北周李贤墓出土的玻璃碗——萨珊玻璃器的发现与研究》，《考古》1986年第2期。

88) 安家瑶：《北周李贤墓出土的玻璃碗——萨珊玻璃器的发现与研究》，《考古》1986年第2期。

89) 南京市博物馆：《江苏南京仙鹤观东晋墓》，《文物》2001年第3期。

90) 山西大学历史文化学院等：《大同南郊北魏墓群》，科学出版社，2006年。



玻璃碗（图一〇，8、9）<sup>92)</sup>；陕西咸阳北周王士良墓出土1件玻璃碗（图一〇，10）<sup>93)</sup>；江苏南京富贵山M2出土1件玻璃碗（图一〇，11）<sup>94)</sup>；新疆楼兰一座5—6世纪墓葬中出土的玻璃碗和玻璃残片<sup>95)</sup>；新疆巴楚4—5世纪的脱库孜萨来佛寺遗址中出土的玻璃残片<sup>96)</sup>等。

### （3）印度

1994年，在汉魏洛阳城北魏永宁寺的西门遗址发掘时，发现了15万余枚小玻璃珠<sup>97)</sup>。这批玻璃珠的产地是印度<sup>98)</sup>。

## 5. 其他

### （1）金刚石

南京象山7号东晋墓出土1件镶嵌有金刚石的戒指<sup>99)</sup>。这件戒指素面无纹，镶嵌的金刚石可能用作削玉，作为贸易品或贡品由南海输入中国。

### （2）青金石和碧玺

镶嵌青金石的戒指在魏晋南北朝时期墓葬多次发现。如河北赞皇东魏李希宗墓中出土1件<sup>100)</sup>；宁夏固原北周李贤夫妇合葬墓出土1件<sup>101)</sup>等。

山西太原北齐徐显秀墓也曾经出土1件镶嵌碧玺（电气石）的金戒指，其上所刻人物形象与希腊神话中人物有关，被认为是希腊文化东传至中亚，与粟特艺术结合后，又继续东传的结果<sup>102)</sup>。

## 叁、隋唐时期——“丝绸之路”的繁荣与发达

隋唐五代时期，中国的国际交往非常活跃。通过丝绸之路到达帕米尔高原以西至地中海沿岸的广大中亚、西亚及欧洲地区；通过“海上丝绸之路”扩大了同北部湾以西直至埃及沿海国家的联系。

### 一、外来宗教的遗迹与遗物

#### 1. 景教遗物

唐代信仰景教的信众都是来自波斯和中亚的胡人<sup>103)</sup>。

#### （1）大秦景教流行中国碑

收藏于西安碑林博物馆，建立于建中二年（781年），碑文颂扬景教在中国传播的盛况，是研究

91) 安家瑶：《北周李贤墓出土的玻璃碗——萨珊玻璃器的发现与研究》，《考古》1986年第2期。

92) 宁夏回族自治区博物馆、宁夏固原博物馆：《宁夏固原北周李贤夫妇墓发掘简报》，《文物》1985年第11期。

93) 袁安志：《北周墓葬出土的珍贵文物》，陕西人民美术出版社，1992年。

94) 南京市博物馆、南京市玄武区文化馆：《江苏南京市富贵山六朝墓地发掘简报》，《考古》1998年第8期。

95) 安家瑶：《北周李贤墓出土的玻璃碗——萨珊玻璃器的发现与研究》，《考古》1986年第2期。

96) 安家瑶：《北周李贤墓出土的玻璃碗——萨珊玻璃器的发现与研究》，《考古》1986年第2期。

97)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北魏洛阳永宁寺1979—1994年考古发掘报告》，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96年。

98) 安家瑶：《玻璃考古三则》，《文物》2000年第1期。

99) 南京市博物馆：《南京象山5号、6号、7号墓清理简报》，《文物》1972年第11期。

100) 石家庄地区革委会文化局文物发掘组：《河北赞皇东魏李希宗墓》，《考古》1977年第6期。

101) 宁夏回族自治区博物馆等：《宁夏固原北周李贤夫妇墓发掘简报》，《文物》1985年第11期。

102) 太原市文物考古研究所：《太原北齐徐显秀墓发掘简报》，《文物》2003年第10期；张庆捷、常一民：《北齐徐显秀墓出土的嵌蓝宝石金戒指》，《文物》2003年第10期。

103) 罗昭：《洛阳新出土〈大秦景教宣元至本经及幢记〉石幢的几个问题》，《文物》2007年第6期。

唐代景教的珍贵资料。

### (2) 景教经幢

2007年,在河南洛阳发现1件《大秦景教宣元至本经及幢记》。经幢为一不规整的八棱(面)石柱,以石灰岩质青石制成。每面宽14—16、残高60—85厘米(图一一)<sup>104)</sup>。据《经幢记》记载,此幢建于唐宪宗元和九年(814年)。

### (3) 高昌景教壁画

20世纪初,德国探险队曾经在高昌附近发掘了一处景教寺院遗址,并发现一幅描绘复活节前星期日祭祀场景的壁画,其年代大约在9世纪晚期<sup>105)</sup>。

### 2. 摩尼教的遗迹与遗物

20世纪初,德国人在吐鲁番一带发现了数千件佛教与摩尼教的写本、旗幡和其他遗物,但仅确认了四五个摩尼教石窟。中国学者晁华山对吐鲁番地区的3个石窟群进行研究,确认摩尼教石窟39个,主要分布在:吐峪沟11个、柏孜克里克19个、胜金口9个<sup>106)</sup>。

另外,在吐鲁番柏孜克里克石窟发现了用回鹘文书写的摩尼教文献《美味经》,其时代约在9世纪至10世纪,是重要的回鹘文摩尼教写经<sup>107)</sup>。对于新疆拜城克孜尔石窟出土的1件陶祖,有学者认为是摩尼教性观念中的暗魔形象<sup>108)</sup>。

### 3. 祆教遗迹与遗物的发现

隋唐时期为数不少祆教遗物已经被发现,如甘肃天水发现的隋末唐初石棺床以及山西太原隋虞弘墓石椁等,都雕刻有与祆教有关的内容,为祆教的深入研究提供了实物资料<sup>109)</sup>。

## 二、外来货币的发现和研究

考古发现的隋唐五代外国钱币,包括波斯萨珊朝银币、东罗马金币、阿拉伯金币以及日本的和同开宝银钱和铜钱,其中以波斯萨珊朝银币数量最多。

### 1. 萨珊朝波斯银币

波斯萨珊朝银币的发现地点主要分布在丝绸之路沿线,以及国内交通干线附近。包括萨珊朝波斯4世纪初至7世纪中期先后12个王的铸币,而以库思老二世时期银币最多。其中一部分或曾作为流通货币使用过,另一部分则是墓葬随葬品、礼佛的施舍品、古钱和外币爱好者的收藏品<sup>110)</sup>。

### 2. 东罗马金币

在隋唐时期遗址或墓葬中发现的东罗马金币共10余枚,主要为东罗马皇帝利奥一世、查士丁尼二世、安那斯泰喜埃斯、福克斯、希拉克略等时期的铸币。同时,在墓葬中还发现大量东罗马金币仿制品。

### 3. 日本货币

104) 罗昭:《洛阳新出土〈大秦景教宣元至本经及幢记〉石幢的几个问题》,《文物》2007年第6期。

105) (德)勒柯克著,赵崇民译:《高昌——吐鲁番古代艺术珍品》,新疆人民出版社,1998年;(日)羽田亨著,耿世民译:《西域文明史概论》,中华书局,2005年。

106) 晁华山:《初寻高昌摩尼寺的踪迹》,《考古与文物》1993年第1期。

107) 吐鲁番地区文物管理所:《柏孜克里克千佛洞遗址清理记》,《文物》1995年第8期。

108) 葛承雍:《试论克孜尔石窟出土陶祖为摩尼教艺术品》,《考古》2008年第3期。

109) 荣新江、张志清:《从撒马尔罕到长安——粟特人在中国的文化遗迹》,北京图书馆出版社,2004年。

110) 夏鼐:《综述中国出土的波斯萨珊朝银币》,《考古学报》1974年第1期。

在西安何家村窖藏中出土日本和同开宝银钱5枚<sup>111)</sup>；和同开宝铜钱也曾有在渤海上京龙泉府城址出土。

#### 4. 阿拉伯金币

阿拉伯金币在新疆曾有发现，但多为本地所仿制，且仿制的时间较晚。1964年在西安市西窑头村1座中晚期唐墓中出土阿拉伯金币3枚<sup>112)</sup>。

### 三、外来玻璃器的发现

#### 1. 萨珊朝波斯

目前在中国境内发现的隋唐时期可以肯定为萨珊玻璃器的有4件<sup>113)</sup>：陕西西安清禅寺地宫也出土1件凸纹玻璃瓶；洛阳樊林唐墓出土1件细颈玻璃瓶；西安何家村窖藏发现1件凸圈纹玻璃杯；陕西临潼庆山寺塔基地宫出土1件玻璃瓶。

#### 2. 伊斯兰

在江苏扬州一处唐代中晚期住宅遗址曾经出土了一批伊斯兰玻璃残片<sup>114)</sup>；在陕西扶风法门寺塔基地宫出土伊斯兰玻璃器18件<sup>115)</sup>。

### 四、波斯釉陶器

中国境内发现的波斯釉陶器，主要集中在扬州和两广、福建地区。如福建省福州市莲花峰五代刘华墓<sup>116)</sup>、江苏扬州<sup>117)</sup>、广西桂林和容县<sup>118)</sup>、广州中山四路<sup>119)</sup>等地，它们应当都是通过海路从伊朗输入的<sup>120)</sup>。

### 五、西方金银器

唐代金银器皿受到了诸多外来因素的影响，并将这些外来因素归纳为粟特、萨珊、罗马——拜占廷等三个系统，同时还指出唐代金银器皿中还存在印度、贵霜、嚧哒、突厥及阿拉伯等多种文化因素<sup>121)</sup>。

### 六、西方铜器

隋唐时期的西方铜器发现较少。陕西临潼庆山寺塔基地宫出土1件人面铜胡瓶，发掘者认为是印度产品<sup>122)</sup>，也有人认为是中亚产品<sup>123)</sup>。

### 七、青金石

隋唐时期也发现一些以青金石装饰的戒指或项链。如内蒙古土默特右旗毕可齐镇发现1枚<sup>124)</sup>、宁

111) 陕西省博物馆等：《西安南郊何家村发现唐代窖藏文物》，《文物》1972年第1期。

112) 陕西省文物管理委员会：《西安市西窑头村唐墓清理记》，《考古》1965年第8期；夏鼐：《西安唐墓出土阿拉伯金币》，《考古》1965年第8期。

113) 安家瑶：《中国早期的玻璃器皿》，《考古学报》1984年第4期。

114) 扬州城考古队：《江苏扬州唐代建筑基址发掘简报》，《考古》1994年第5期。

115) 韩伟：《法门寺地宫出土琉璃器皿》，《磨砚书稿——韩伟考古文集》，科学出版社，2001年。

116) 福建省博物馆：《五代闽国刘华墓发掘报告》，《文物》1975年第1期。

117) 周长源：《扬州出土古代波斯釉陶器》，《考古》1985年第2期。

118) 李铎、封绍柱、周华：《广西出土的波斯陶及相关问题》，《文物》2003年第11期。

119) 全洪：《广州出土海上丝绸之路遗物源流初探》，《华南考古》(1)，文物出版社，2004年，北京。

120) 周长源、张浦生、张福康：《扬州出土的古代波斯釉陶研究》，《文物》1988年第12期。

121) 齐东方、张静：《唐代金银器皿与西方文化的关系》，《考古学报》1994年第2期。

122) 临潼县博物馆：《临潼县唐庆山寺舍利塔基精室清理记》，《文博》1985年第4期。

123) 孙机：《建国以来西方古器物的发现与研究》，《文物》1999年第10期。

夏固原唐史诃耽墓出土1枚<sup>125)</sup>，西安隋李静训墓出土的金项链上也镶嵌右青金石<sup>126)</sup>。

## 八、语言文字资料

### 1. 阿拉伯文字

江苏扬州唐墓中出土的瓷扁壶正面装饰一组阿拉伯文，其内容为“真主最伟大”<sup>127)</sup>；西安西窑头村唐墓出土的3枚阿拉伯金币两面都有阿拉伯文，引用《可兰经》字句，其铸造年代在8世纪前期<sup>128)</sup>。

### 2. 巴列维文

河南偃师杏园村M1920中出土1枚镶嵌紫水晶的金戒指，紫水晶上刻有文字为巴列维语（中古波斯文），意为“好极了”、“奇妙无比”<sup>129)</sup>。

### 3. 粟特文字

敦煌吐鲁番文书中以粟特语书写的经文及书信也有发现。如柏孜克里克石窟曾经发现用粟特文书写的晚唐佛经《摩诃般若陀罗尼经》残卷<sup>130)</sup>；吐鲁番新近征集到1件粟特文残片<sup>131)</sup>。

### 4. 婆罗钵文字

1955年，西安发现的苏谅妻马氏（849—874年）墓中出土一合墓志，志文以汉文和中古波斯的婆罗钵文字书写<sup>132)</sup>。

## 九、《大唐天竺使出铭》的发现

在西藏吉隆县阿瓦呷英山口摩崖上发现唐显庆三年（658年）碑文，是对唐王朝的使节王玄策出使天竺的勒石记事<sup>133)</sup>。

## 十、外来移民及其后裔墓葬的发掘

隋唐时期外来移民及其后裔墓葬的主要发现有：山西太原虞弘墓<sup>134)</sup>、甘肃天水的隋唐时期墓葬<sup>135)</sup>、宁夏固原<sup>136)</sup>和盐池<sup>137)</sup>粟特人墓地、洛阳安菩墓<sup>138)</sup>、唐太宗昭陵安元寿墓<sup>139)</sup>等。

## 十一、胡俑与昆仑俑

以胡俑作为随葬品已成为隋唐时期的普遍现象。胡俑之外，还有一些头发卷曲，肤色被描绘成黑色，上身袒裸或身披璎珞的昆仑俑。

124) 内蒙古文物工作队 内蒙古博物馆：《呼和浩特史附近出土的外国货币》，《考古》1975年第6期。

125) 宁夏回族自治区固原博物馆、罗丰：《固原南郊隋唐墓地》，文物出版社，1996年。

126)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唐长安城郊隋唐墓》，文物出版社，1980年。

127) 朱江：《扬州出土的唐代阿拉伯文背水瓷壶》，《文物》1983年第2期。

128) 夏鼐：《西安唐墓出土阿拉伯金币》，《考古》1965年第8期。

129)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河南二队：《河南偃师市杏园村唐墓的发掘》，《考古》1996年第12期。

130) 吐鲁番地区文物管理所：《柏孜克里克千佛洞遗址清理简记》，《文物》1985年第8期。

131) 荣新江、李肖、孟宪实：《新获吐鲁番出土文献概说》，《文物》2007年第2期。

132) 陕西省文物管理委员会：《西安发现晚唐祆教徒的汉、婆罗钵合璧墓志——唐苏谅妻马氏墓志》，《考古》1964年第9期；作铭：《唐苏谅妻马氏墓志跋》，《考古》1964年第9期。

133) 西藏自治区文管会：《西藏吉隆县发现唐显庆三年〈大唐天竺使出铭〉》，《考古》1994年第7期。

134) 山西省考古研究所等：《太原隋虞弘墓》，文物出版社，2005年，北京。

135) 天水市博物馆：《天水市发现隋唐屏风石棺床墓》，《考古》1992年第1期。

136) 宁夏回族自治区固原博物馆、罗丰：《固原南郊隋唐墓地》，文物出版社，1996年。

137) 宁夏回族自治区博物馆：《宁夏盐池唐墓发掘简报》，《文物》1988年第2期。

138) 宁夏回族自治区固原博物馆、罗丰：《固原南郊隋唐墓地》，文物出版社，1996年。

139) 昭陵博物馆：《唐安元寿墓发掘简报》，《文物》1988年第12期。

## 十二、图像资料中的“丝绸之路”

### 1. 马球图

马球是唐人非常喜爱的一项外来体育活动。关于其传入主要有两种看法<sup>140)</sup>：一种观点认为是从波斯传入中国的，另一种看法则认为是从吐蕃传入中国的。打马球的场景不仅见于唐墓壁画，如章怀太子墓（图一二，1、2）<sup>141)</sup>和李邕墓（图一二，3）<sup>142)</sup>中的打马球壁画。在一些墓葬中还出土有打马球陶俑群。铜镜上也有装饰，如江苏扬州唐墓出土的打马球铜镜（图一二，4）<sup>143)</sup>。

### 2. 壁画中的狩猎图

在一些墓葬壁画中出现了中亚及西亚的因素。如懿德太子墓壁画中的驯豹图、波斯犬图等，反映了中亚粟特乃至西亚波斯的影响<sup>144)</sup>。

### 3. 舞蹈

外来舞蹈的图像资料在敦煌莫高窟壁画及考古发掘中均有发现。

### 4. 鸵鸟

自唐高宗和武则天的乾陵开始，唐代帝陵前普遍立浮雕的鸵鸟，并成为定制。据文献记载，西亚和中亚诸国多次向唐王朝贡献鸵鸟，帝陵前所立的浮雕鸵鸟应该是对文献记载的佐证。

### 5. 图像资料中的外国使臣

懿德太子墓壁画中的“客使图”，其中的人物形象包括唐王朝鸿胪寺官员以及来自罗马、高丽或新罗等国的使臣（图一三，1）<sup>145)</sup>。其中头部装饰羽毛帽的形象，曾一度被认为是日本使节<sup>146)</sup>，但已经被学术界否定，认为应该是高丽或新罗的使节<sup>147)</sup>。而高丽或新罗人的形象还见于西安交通大学校园出土的唐代银盒上（图一三，2）<sup>148)</sup>以及陕西蓝田蔡家拐塔基地宫中出土的唐代舍利石函纹饰（图一三，3）<sup>149)</sup>等，这反映了唐王朝与朝鲜半岛之间密切的往来关系。

### 6. 日常生活用品中的外来因素

在一些唐代贵族墓葬壁画或葬具线刻中，常见手持外来器物的侍女形象。从她们手持器物的形制来看，属于外来器形者有来通、胡瓶、高足杯、长杯等（图一四），反映了唐王朝的贵族生活充满着异域情调。

140) 向达：《长安打球小考》，《唐代长安与西域文明》，三联书店，1987年；阴法鲁：《唐代西藏马毬戏传入长安》，《历史研究》1959年第6期；徐寿彭、王尧：《唐代马毬考略》，《中央民族学院学报》1982年第2期；崔乐泉：《古代马球起源及发展的历史回顾——兼及有关问题的考古资料分析》，《中国马球史研究》，甘肃人民出版社，2002年。

141) 周天游：《章怀太子墓壁画》，文物出版社，2002年；乾陵博物馆、乾陵旅游开发有限责任公司：《中国乾陵文物精华》，陕西旅游出版社。笔者注：原书未标记出版时间。

142) 陕西省考古研究院：《壁上丹青》，科学出版社，2009年。

143) 孔祥星、刘一曼：《中国古代铜镜图典》，文物出版社，1992年。

144) 宿白：《西安地区唐墓壁画的布局和内容》，《考古学报》1982年第2期。

145) 陕西省博物馆、乾县文教局唐墓发掘组：《唐章怀太子墓发掘简报》，《文物》1972年第7期；云翔：《唐章怀太子墓壁画客使图中“日本使节”质疑》，《考古》1984年第12期；王仁波：《从考古发现看唐代中日文化交流》，《考古与文物》1984年第3期。

146) 王仁波：《从考古发现看唐代中日文化交流》，《考古与文物》1984年第3期。

147) 云翔：《唐章怀太子墓壁画客使图中“日本使节”质疑》，《考古》1984年第12期。

148) 张达宏、王长启：《西安市文管会收藏的几件珍贵文物》，《考古与文物》1984年第4期。

149) 樊维岳、阮新正、冉素茹：《蓝田出土盩厔舍利石函》，《考古与文物》1991年第2期；樊维岳、阮新正、冉素茹：《蓝田新出土舍利石函》，《文博》1991年第1期。

## 肆、宋元明时期——“丝绸之路”的余韵

### 一、泉州宋元港与海船遗迹

北宋元祐二年(1087年)，泉州正式开港，南宋发展成为中外贸易最重要的港口之一。宋元为泉州港兴盛时期，留下了不少遗迹和遗物。如泉州的清净寺礼拜堂、开元寺东西塔及元代夜航灯塔——六胜塔等，都是反映中外交往及海上航行的著名遗迹。1973年，在泉州后渚西南海滩上发现一艘南宋海船，全长17.65米，排水量为370吨左右，很适合于海上航行<sup>150)</sup>。

### 二、泉州宗教石刻

宋元时期，泉州是“海上丝绸之路”的著名港口，外国商人、旅行家、僧侣及各行各业的人会集于此，带来各种宗教等。同时，在泉州还有大量外国人侨居，尤以阿拉伯人为多。这些居住在泉州的外国人，其宗教信仰和风俗习惯得到尊重，建有自己的寺庙、公共墓地、番学等。在泉州先后发现宗教石刻数百方，涉及到伊斯兰教、景教、摩尼教、基督教、印度教和佛教等，石刻文字有阿拉伯文、波斯文、古叙利亚文、拉丁文、蒙古八思巴文、汉文<sup>151)</sup>。

### 三、扬州拉丁文墓碑

1952年，在扬州发现两块拉丁文墓碑(图一五)<sup>152)</sup>，一块属死于至正二年(1342年)的多密尼·伊利翁尼的女儿喀德邻，墓碑上部刻着“圣喀德邻殉教”图像；另一块属死于至正四年(1344年)的多密尼·伊利翁尼的儿子安东尼，墓碑上部刻着“末日审判图”。

### 四、海南岛穆斯林墓群

在海南岛三亚、陵水一带发现唐宋以来的4个穆斯林墓葬群<sup>153)</sup>。从这些墓葬的特点来看，它们的墓主人可能来自东非和阿拉伯半岛。

### 五、伊斯兰玻璃器和罗马玻璃器

宋辽时期的塔基地宫和墓葬中出土了大量外来玻璃器，以产于西亚的伊斯兰玻璃器为主。这些玻璃器主要用作佛教的供养品或墓葬的随葬品。发现地点表明，当时伊斯兰玻璃器输入中国大约有两条路线：一是从陆路而且主要是通过草原丝绸之路输入；二是通过海上丝绸之路输入。

### 六、外来货币

1964年，在广州明太监韦眷墓中出土了15世纪中叶的3枚外国银币，包括1457—1462年铸造的威尼斯银币、1459年铸造的满刺加国(今孟加拉国)银币<sup>154)</sup>。

1971—1973年，在福建泉州地区先后发现了5批西班牙银币<sup>155)</sup>，它们是西班牙在南美墨西哥铸

150) 泉州湾宋代海船发掘报告编写组：《泉州湾宋代海船发掘简报》，《文物》1975年第10期。

151) 白寿彝总主编：《中国通史》，上海人民出版社，2000年。

152) 耿鉴庭：《扬州城根里的元代拉丁文墓碑》，《考古》1963年第8期；夏鼐：《扬州城拉丁文墓碑和广州威尼斯货币》，《考古》1979年第6期。

153) 海南省文物保护管理委员会：《海南省的考古发现与文物保护》，《文物考古工作十年(1979~1989)》，文物出版社，1990年。

154) 广州市文物管理处：《广州东山明太监韦眷墓清理简报》，《考古》1977年第4期。

造，是明末清初由西班牙人从美洲运到亚洲，然后经菲律宾的华侨商人之手流入的。

## 结语

以上所述，仅是中国境内与“丝绸之路”相关的部分考古发现与研究成果。由于时间关系，所述挂一漏万在所难免。总而言之，“丝绸之路”的开通是一件世界意义的大事，人类因“丝绸之路”增加了交流的机会，从而不断地获得进步。

---

155) 泉州市文物管理委员会等：《福建泉州地区出土的五批外国银币》，《考古》1975年第6期。



图1. 河南洛 出土 璃



1)



2)



3)

图2. 1) 山东西汉齐王墓陪葬坑出土  
2) 广州南越王墓出土  
3) 山东西辛西汉墓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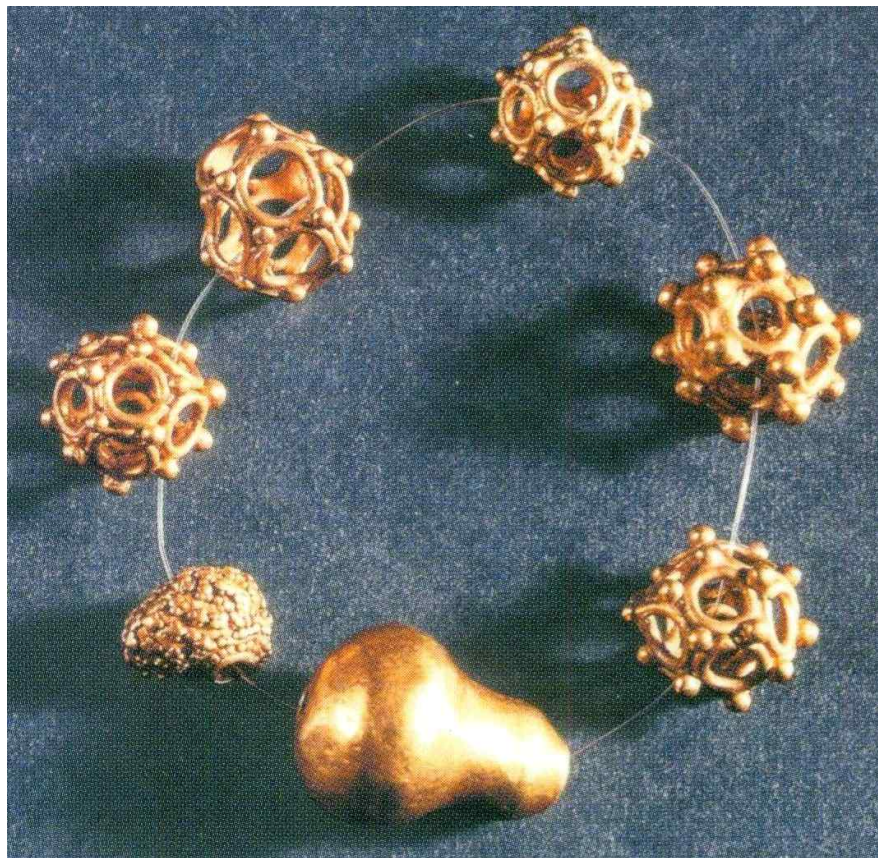


图3. 西合浦北江堆1墓出土多面金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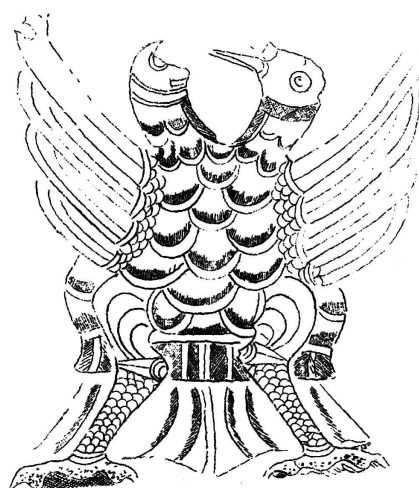


图4. 印花棉布





1)



2)



3)

图5. 1, 2) 徐州汉画像石墓雕刻  
3) 西安红庙坡汉墓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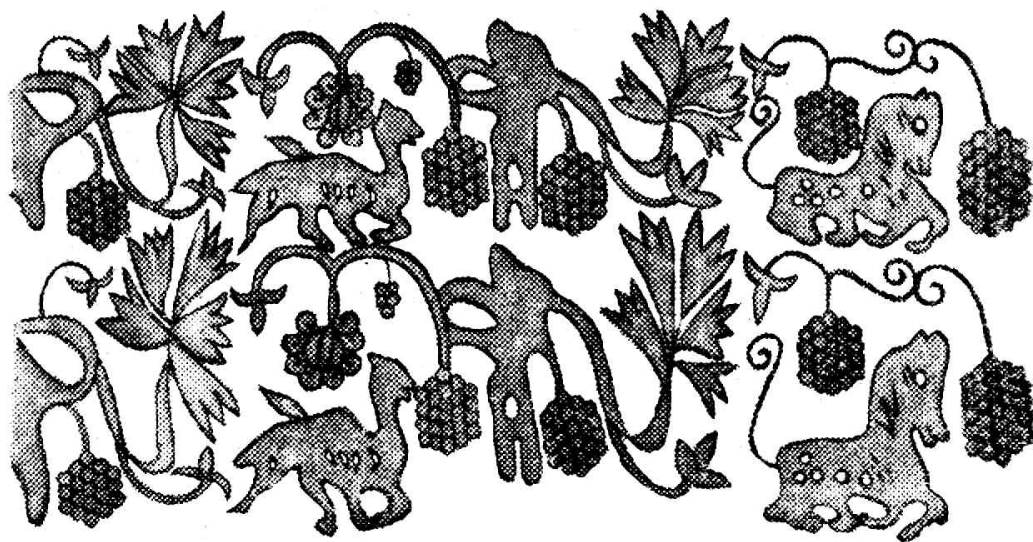


图6. 新疆民 尼雅 址出土 葡萄



图7. 北魏封和 墓出土波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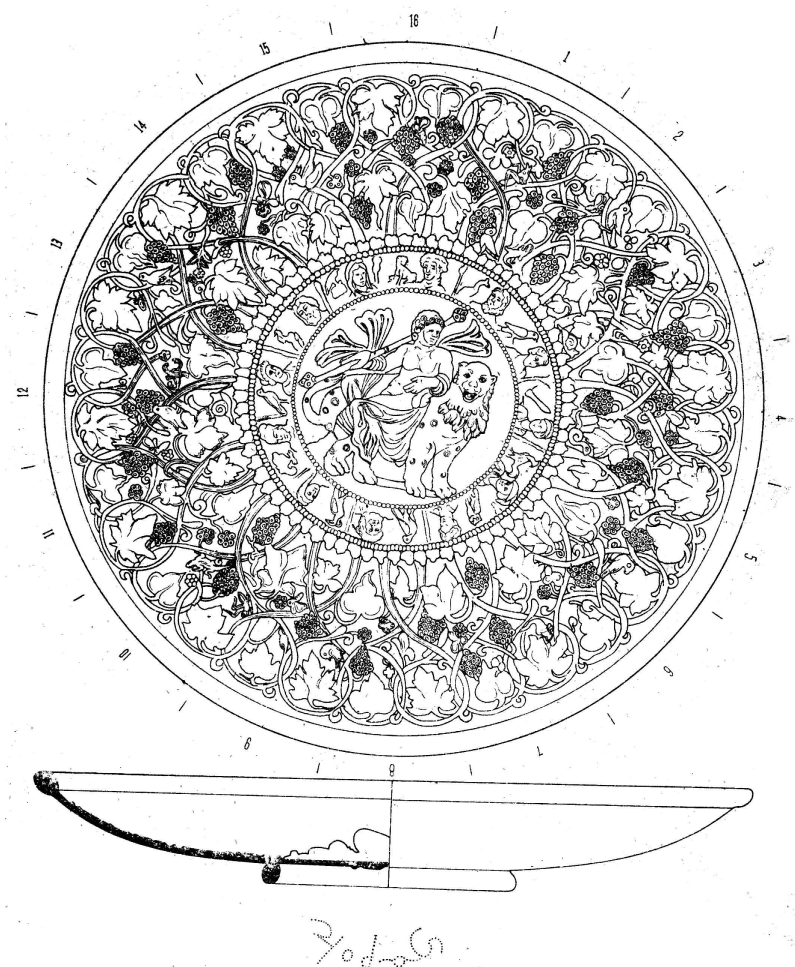


图8. 甘 靖 出土





图9. 山西大同北魏平城遗址出土铜器



图10. 玻璃器

1), 2) 北燕冯素弗墓出土

5) 江苏省句容春城刘宋墓出土

8, 9) 北周李贤墓出土

3) 河北景县北朝封氏家族墓群出土

6) 山西大同南郊北魏107号墓出土

10) 陕西咸阳北周王士良墓出土

4) 江苏南京象山7号王氏墓出土

7) 南京仙鹤观东晋墓(M6)出土

11) 南京富贵山南朝M2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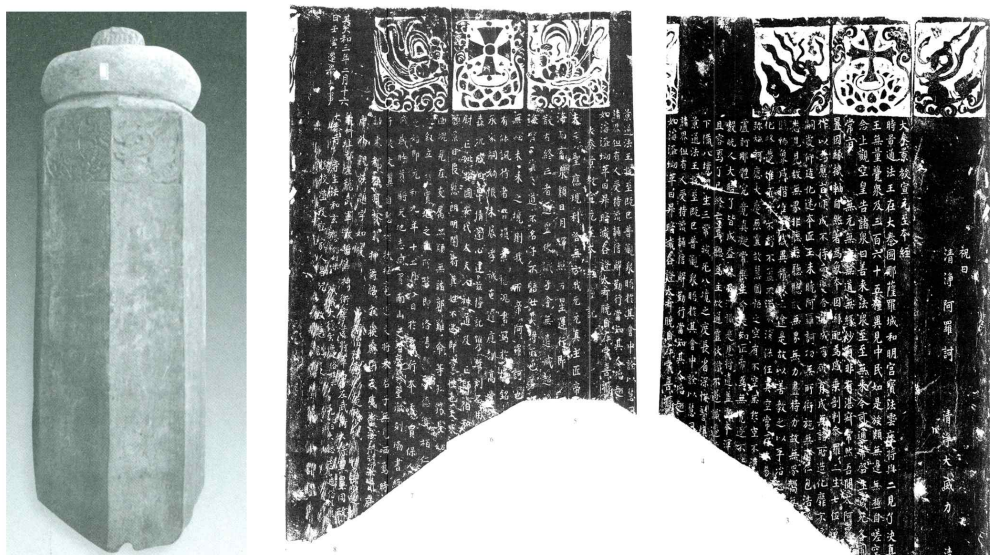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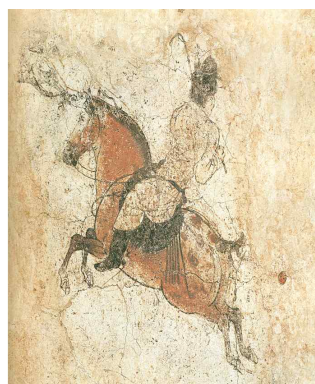


图11. 河南洛阳出土景教经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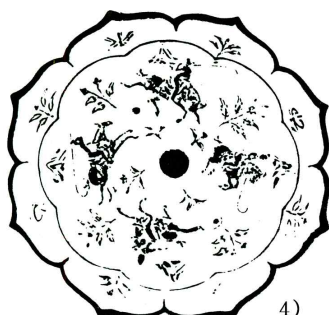
1)



2)



3)



4)

图12. 鸟球图

- 1,2) 唐章怀太子墓壁画
- 3) 唐李邕墓壁画
- 4) 江苏唐墓出土铜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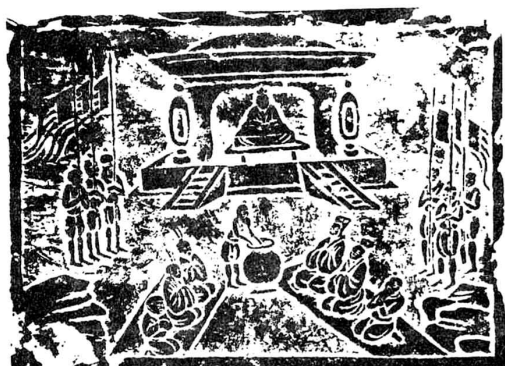




1)



2)



3)

图13. 1) 唐章怀太子墓壁画  
2) 西安交通大学唐代窖藏出土银盒纹饰  
3) 陕西蓝田蔡拐村塔基地宫出土石函纹饰



1)



2)



3)



4)



5)

图14.

- 1) 唐李寿墓石椁线刻  
4) 房陵大长公主墓壁画

- 2) 永泰公主墓石椁线刻  
5) 安元寿墓壁画

- 3) 章怀太子墓壁画



图15. 扬州城出土拉丁文墓碑



## 중국 경내 ‘실크로드’ 관련 고고학 발견 및 연구

염 만 리 | 중국 서북대학 문화유산학원 교수

‘실크로드’라는 단어는 독일 지리학자 리히트호펜이 자신의 저서 『중국』에서 가장 먼저 제시했다. ‘실크로드’ 연구는 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외래문화 관련 유적과 유물을 통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탐구해왔다. 하나는 中外 문화 교류의 내용과 역사적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교통선의 회복이다. 지난 몇십 년에 걸쳐 중국 경내에서는 ‘실크로드’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아래는 주요 발견과 연구 성과에 대한 간략한 논의이다.

### 1. 漢代—‘실크로드’의 개통

#### 1) 유리그릇

서한 때에 외국에서 들어온 유리그릇은 廣州 橫枝崗 2061호 서한 중기 묘에서 출토된 세 점의 로마 유리 주발이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로마 유리그릇이다.<sup>1)</sup>

동한 때에 외국에서 들어온 유리그릇은 河南 洛陽 동한 묘에서 출토된 유리병 한 점이다 (그림1). 이 유리병은 로마의 전형적인 攪胎 방식에 바람을 불어 만든 유리그릇이다.<sup>2)</sup> 그밖에 江蘇 邗江縣 甘泉 2호 동한 묘(67년)에서는 세 개의 유리 파편이 발견되었는데, 그 화학 성분이 로마 유리의 소다석회 유리와 기본적으로 같았다.<sup>3)</sup>

#### 2) 돈을꽃잎 은합과 동합

돈을꽃잎 무늬 은합은 산둥 濰博의 서한 齊王 무덤의 순장 구덩이에서 1점이 발견되고<sup>4)</sup> (그림2-1), 廣州 南越王의 묘에서도 1점이 발견되고<sup>5)</sup> (그림2-2), 산둥 서쪽 辛西의 한대 무덤에서도 2점이 발견되었다(그림2-3)<sup>6)</sup>, 그밖에 雲南 昆明 石寨山 滇墓에서는 4점의 구리 돈을꽃잎 합이 출토되었다.<sup>7)</sup> 이것들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온 페르시아 기물로 보인다.<sup>8)</sup>

1)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廣州市博物館：《廣州漢墓》，文物出版社，1981年。

2) 安家瑤：《中國的早期玻璃器皿》，《考古學報》1984年第4期。

3) 南京博物院：《江蘇邗江甘泉二號漢墓》，《文物》1981年第11期。

4) 山東省濰博市博物館：《西漢齊王墓隨葬器物坑》，《考古學報》1985年第2期。

5)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等：《西漢南越王墓》，文物出版社，1991年。

6) 國家文物局主編：《2004中國重要考古發現》，文物出版社，2005年。

7) 張增祺：《晉甯石寨山》，雲南美術出版社，1998年。

## 3) 버클

운남 곤명 석채산 7호 전묘(西漢 말기)에서는 날개 달린 호랑이 무늬가 있는 은 버클 1점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소위 아시리아 식 날개 달린 짐승과 흡사하다.<sup>9)</sup> 童恩正은 인도에서 직접 수입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sup>10)</sup> 한대 무덤 중에는 북방 초원 지역에서 유행한 버클도 흔히 보인다.

## 4) 다면 금구슬과 금화포

다면 금구슬은 湖南 零陵 東門 밖 東漢 초기 묘<sup>11)</sup>, 湖南 長沙 五里牌 9호 동한 묘<sup>12)</sup>, 廣西 合浦 北插江 鹽堆 1호묘(그림3)<sup>13)</sup>, 江蘇 邗江 甘泉 2호 동한 묘<sup>14)</sup>, 廣西 合浦 風門嶺 10호 묘와 合浦北插江 4호묘<sup>15)</sup>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금화포 장식은 廣州 南越王 무덤에서 32점이 출토된 바 있다.<sup>16)</sup> 이들 다면 금구슬과 금화포 및 그것의 제조방법은 바닷길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왔을 것이다.<sup>17)</sup> 그러나 혹자는 서방의 원형을 개선한 중국제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sup>18)</sup>

## 5) 꽃을 부조한 肉紅색 石髓 구슬

운남 석채산 13호묘(서한 중기)에서는 꽃을 부조한 육홍색 석수 구슬이 한 알 발견되었다. 이는 인도에서 수입한 것이다.<sup>19)</sup> 이런 종류의 구슬은 기원전 3천년의 인도 하라파(Harappa) 문화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sup>20)</sup> 이것의 수입 경로와 관련하여 張增祺, 童恩正은 모두 운남과 인도 사이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商道가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sup>21)</sup>

## 6) 아프리카 상아

1983년, 廣州 南越王 무덤에서 아프리카 상아가 발견되었다.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수입된 것들이다.<sup>22)</sup>

## 7) 靑金石

江蘇 徐州 東漢 묘에서 짐승 모양 도금 銅硯盒이 한 건 출토되었는데, 위가 청금석 등이었다.<sup>23)</sup> 청금석은 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주로 생산되며, 이 도금 銅硯盒의 발견 출

8) 孫機：《凸瓣紋銀器與水波紋銀器》，《中國聖火》，遼寧教育出版社，1996年。

9) 張增祺：《戰國至西漢時期滇池區域發現的西亞文物》，見《古代西南絲綢之路研究》第一輯，四川大學出版社，1990年。

10) 童恩正：《古代中國南方與印度交通的考古學研究》，《考古》1999年第4期。

11) 湖南省文物管理委員會：《湖南零陵東門外漢墓清理簡報》，《考古通訊》1957年第1期。

12) 湖南省博物館：《長沙五里牌古墓葬清理簡報》，《文物》1960年第3期。

13) 蔣廷瑜等：《漢代合浦及其海上交通的幾個問題》，《廣西環北部灣文化研究》，廣西人民出版社，2002年；鄧蘭、梁旭達：《漢代合浦港及有關問題探討》，《海上絲綢之路研究——中國·北合港合浦海上絲綢之路始發港理論研討會論文集》，科學出版社，2006年。

14) 南京博物院：《江蘇邗江甘泉二號漢墓》，《文物》1981年第11期。

15) 蔣廷瑜等：《漢代合浦及其海上交通的幾個問題》，《廣西環北部灣文化研究》，廣西人民出版社，2002年。

16)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等：《西漢南越王墓》，文物出版社，1991年。

17) 岑蕊：《試論東漢魏晉墓葬中的多面金珠用途及其源流》，《考古與文物》，1990年第3期。

18) 孫機：《建國以來西方古器物在我國的發現與研究》，《文物》1999年第10期。

19) 作銘：《我國出土的蝕花的肉紅石髓珠》，《考古》1974年第6期；張增祺：《戰國至西漢時期滇池區域發現的西亞文物》，見《古代西南絲綢之路研究》第一輯，第235頁，四川大學出版社，1990年。

20) Agrawal, D. P., The Archaeology of India, 146, London: Curzon Press, 1982.

21) 張增祺：《戰國至西漢時期滇池區域發現的西亞文物》，見《古代西南絲綢之路研究》第一輯，第235頁，四川大學出版社，1990年；童恩正：《古代中國南方與印度交通的考古學研究》，《考古》1999年第4期。

22) 麥英豪：《漢代番禺的水上交通與考古發現》，《廣州外貿兩千年》，廣州文化出版社，1989年。

토는 서기 2세기 때 청금석이 이미 중국에 전해졌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유입된 경로는 바닷길이었을 것이다.

#### 8) 방직품

1959년, 新疆 民豐縣 古尼雅 유적의 동한 말기(2세기) 무덤에서 꽃이 인화된 藍白색의 면포 조각이 출토되었다.<sup>24)</sup> 그중 한 면포는 왼쪽 아래 모서리에 사각 틀이 하나 있었다. 틀 안에는 半身의 여신상이 그려져 있었고, 여신의 손에는 과실이 가득 담긴 빨 모양의 용기가 쥐어져 있었다(그림4). 처음에는 그림 속 여신을 불교의 보살상이라고 추측하여 이것이 인도에서 왔다고 여겼다.<sup>25)</sup> 어떤 학자는 빨 모양의 용기가 그리스 신화 속 풍요의 빨이고, 그림 속 여신은 그리스 신화속 수확의 여신이라고 보았다.<sup>26)</sup> 또 어떤 학자는 그녀가 그리스 신화의 대지 여신 가이아와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의 혼합체라고 했다.<sup>27)</sup> 그밖에 어떤 학자는 그림 속 여신을 페르시아의 여신으로 보았다.<sup>28)</sup> 孫機는 중앙아시아의 수확의 여신 알드커사로 貴霜(쿠산)에서 전해진 것이라고 여겼다.<sup>29)</sup>

1984년, 新疆 洛浦縣 山普拉 묘지 1호 동한 무덤에서 채색 모직물 1건이 출토되었다. 복원을 통해 보니 그 상부는 人首馬身의 도안으로 사실상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말사람(Centaurs)이고, 아래는 창을 든 무사로 전형적인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하고 있었다.<sup>30)</sup>

1995년, 新疆 尉犁縣 營盤 유적을 정리하던 중 漢晉 시대의 대형 묘지를 발견하고 약 400건의 문물을 획득했다.<sup>31)</sup> 그중 1호묘의 시대는 동한 중후기이며,<sup>32)</sup> 관 속의 남자는 붉은 바탕에 사람과 짐승이 들어간 나무 무늬 용단 도포를 입고 있었다. 이 도포는 전체 도안이 그리스 예술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놓았으며 서방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무덤 주인과 관련하여 어떤 학자는 墨山國의 귀족이라고 하고,<sup>33)</sup> 발굴자는 서방에서 와서 무역에 종사한 富商일 것이라고 했다.<sup>34)</sup>

#### 9) 몇 가지 외래문화 요소

漢代의 유물 중에는 그 자체가 외래문화의 색채를 진하게 가진 기물들이 있다.

a. 漢代의 석조상과 옥조각상 중에는 사자와 날개 달린 神獸가 흔히 보인다. 先秦 문헌 중의 狻猊가 바로 사자를 가리킨다.<sup>35)</sup> 사자 조각상은 陝西, 四川, 河南, 山東 등지에서 모두

23) 夏鼐:《無產階級文化大革命中的考古新發現》,《考古》1972年第1期;《新中國出土文物》,外文出版社,1972年。

24) 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新疆民豐縣北大沙漠中古遺址墓葬區東漢合葬墓清理簡報》,《文物》1960年第6期;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新疆出土文物》,外文出版社,1975年。

25) 夏鼐:《中國文明的起源》,文物出版社,1985年。

26) 余太山:《西域文化史》,中國友誼出版公司,1992年。

27) Silk Road, The History Collection. British Museum, 1993

28) 趙豐:《絲綢藝術史》,浙江美術學院出版社,1992年。

29) 孫機:《建國以來西方古器物在我國的發現與研究》,《文物》1999年第10期。

30) 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洛浦縣山普拉古墓發掘報告》,《新疆文物考古新收穫(1979-1989)》,新疆文物考古研究所編,新疆人民出版社,1995年;李吟屏:《洛浦縣山普拉古墓出土緋毛褲圖案馬人考》,《文物》1990年第11期。

31) 新疆文物考古研究所:《新疆尉犁縣營盤墓地15號墓發掘簡報》,《文物》,1999年第1期。

32) 童恩正:《古代中國南方與印度交通的考古學研究》,《考古》1999年第4期。

33) 林梅村:《墨山國貴族寶藏的重大發現》,《古道西風:考古新發現所見中西文化交流》,三聯書店,2000年。

34) 新疆文物考古研究所:《新疆尉犁縣營盤墓地15號墓發掘簡報》,《文物》,1999年第1期。

발견된다. 그중 어떤 것들은 원래의 모습이고, 어떤 것은 두 날개를 가지고 있다. 梁思成은 사자와 날개 달린 짐승의 출현이 서아시아의 영향이라고 보았다.<sup>36)</sup>

b. 胡人과 낙타의 형상은 한대 묘의 조각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는 서역 호인이 한대에 중국에 들어와 문화교류 활동을 벌였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sup>37)</sup>

c. 徐州의 한대 화상석 위에 조각된 쌍두매 형상은 그리핀 형상으로 여겨진다(그림 5-1,2).<sup>38)</sup>

d. 西安 十裡鋪와 紅廟坡 동한 무덤에서는 어깨에 두 날개가 자란 작은 銅人이 각각 한 점씩 발견되었다(그림 5-3)<sup>39)</sup>. 이 동인의 형상은 서양 신화의 에로스와 비슷하며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e. 중국 초기 불상은 四川 지역 동한 언덕 무덤의 조각과 錢樹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으며, 항상 西王母 등의 토착 종교 인물과 혼합된 모습이었다. 宿白의 연구에 의하면, 초기 불교는 대부분 胡人의 형상이었다. 이는 당시 胡人이 부처를 신봉한 상황을 반영하며, 당시 불교가 아직 漢人들 사이에서는 널리 퍼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sup>40)</sup>

f. ‘실크로드’가 개통된 후 포도, 거여목, 석류 등의 식물도 중국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한대 방직품에 포도 도안이 출현하기 시작한다(그림 6).<sup>41)</sup>

## 2. 魏晉南北朝時期—‘실크로드’의 발전

### 1) 외국 이주민 무덤의 발견

외국 이주민 무덤 몇 곳이 陝西 西安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모두 北周 시기의 것들로 粟特인 安伽墓<sup>42)</sup>, 史君墓<sup>43)</sup>, 康業墓<sup>44)</sup> 그리고 罽賓인 李誕墓<sup>45)</sup> 등이 주된 묘들이다. 그밖에 新疆 투루판 交河 故城에서는 康氏 가족의 묘지가 발견되었다. 여기서 출토된 墓誌는 무덤의 주인이 康國에서 온 粟特人임을 보여주고 있다.<sup>46)</sup>

### 2) 외래 유물의 발견

35) 林梅村: 《漢唐西域與中國文明》, 文物出版社, 1998年.

36) 梁思成: 《中國雕塑史》, 百花文艺出版社, 1997年.

37) 四川省文物考古研究所: 《四川中江塔梁子崖墓發掘簡報》, 《文物》2004年第9期; 王煜: 《“車馬出行——胡人”畫像試探——兼談漢代喪葬藝術中胡人形象的意義》, 《考古與文物》2012年第1期.

38) 楊孝軍、郝利榮: 《徐州新發現的漢畫像石》, 《文物》2007年第2期.

39) 雒忠如: 《西安十裡鋪東漢墓清理簡報》, 《考古通訊》1957年第4期;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西安文物精華·青銅器》, 世界地圖出版社, 2005年.

40) 宿白: 《四川錢樹和長江中下游部分器物上的佛像——中國南方發現的早期佛像札記》, 《文物》2004年第10期.

41) 武敏: 《新疆出土漢—唐絲織品初探》, 《文物》1962年第7、8期.

42) 陝西省考古研究所: 《西安北周安伽墓》, 科學出版社, 2003年.

43)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北周涼州薩寶史君墓發掘簡報》, 《文物》2003年第3期.

44) 國家文物局主編: 《2004中國重要發現》, 文物出版社, 2005年;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北周康業墓——2004年中國十大考古發現申報材料》, 2005年.

45) 國家文物局: 《2005中國主要考古發現》, 文物出版社, 2006年.

46) 吐魯番地區文物局: 《吐魯番交河故城溝西墓地康氏家族墓清理簡報》, 《吐魯番學研究》2005年第2期.

## (1) 금은 기물

## a. 사산조 페르시아

山西 大同 小站村的 北魏 封和突 무덤(504年)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수렵 무늬 은쟁반(그림 7), 몸통이 긴 은잔, 다리가 높은 은잔이 발견되었다.<sup>47)</sup> 그중에서도 은쟁반은 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으며,<sup>48)</sup> 한 학자는 쟁반 위의 인물이 사산조 페르시아 제4대 군주 바흐라마 1세라고 고증했다.<sup>49)</sup>

新疆 焉耆의 7개 星鄉 마을에서 출토된 은주발의 테두리 다리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심스 윌리엄스(N.Sims-Williams)는 이 명문이 중고시대 페르시아어이고, 그 뜻은 ‘125 드라흐마(Drachma)’라고 했다.<sup>50)</sup> 이는 이 기물이 사산조 페르시아의 것임을 말해준다.

## b. 大夏(박트리아)

寧夏 固原의 北周 李賢 묘에서 도금 銀胡瓶이 출토되었다.<sup>51)</sup> 吳焯은 이 병의 제작자가 로마 점령구역 내의 토착 장인 혹은 이곳에 적을 둔 로마 수공업자라고 보았다.<sup>52)</sup> 羅豐<sup>53)</sup>, 齊東方<sup>54)</sup>은 이것을 중앙아시아 생산품이라 보고, 孫機는 嚙嚙의 산물이라고 했다.<sup>55)</sup>

甘肅省 靖遠에서 출토된 도금 은쟁반(그림8)<sup>56)</sup>에 대해 初師賓은 은쟁반에 장식된 12개 신상은 그리스 신화 속의 ‘올림푸스산 12신’일 것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쟁반 안 바닥 한가운데의 남신은 아폴로일 수도 있고 주신 바카스 혹은 그리스 신화 속 주신 디오니소스일 수도 있다. 시대는 대략 4-5세기이고 가장 늦은 것도 6세기 전반을 넘지 않는다. 산지는 대략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sup>57)</sup> 일본 학자 石渡美江은 서기 2-3세기 로마의 동방 행성 북아프리카 혹은 서아시아의 생산품이라고 보았고<sup>58)</sup>, 프랑스 학자 스티븐슨은 서기 3-4세기 로마제국의 동부 행성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았다.<sup>59)</sup> 그리고 林梅村은 은쟁반 위의 박트리아어 명문 한 줄을 ‘490스타트의 가치’ 혹은 ‘490금화의 가치’라고 해석하며 이를 박트리아의 은 기물이라고 주장했다.<sup>60)</sup>

山西 大同의 北魏 107호 무덤에서는 긴 다리 은잔과 은주발이<sup>61)</sup>, 大同 남쪽 교외의 북위 平城 유적에서는 은주발과 多曲銀長杯<sup>62)</sup>가 발견되었다. 학계에서는 이 유물을 박트리아 일대

47) 大同市博物館、馬玉基：《大同市小站村花圪塔台北魏墓清理簡報》，《文物》1983年第8期。

48) 夏鼐：《北魏封和突墓出土薩珊銀盤考》，《文物》1983年第8期。

49) 馬雍：《北魏封和突墓及其所出的波斯銀盤》，《文物》1983年第8期。

50) 林梅村：《中國境內出土帶銘文的波斯和中亞銀器》，《文物》1997年第9期。

51) 寧夏回族自治區博物館、寧夏固原博物館：《寧夏固原北周李賢夫婦墓發掘簡報》，《文物》1985年第11期。

52) 吳焯：《北周李賢墓出土鎏金銀壺考》，《文物》1987年第5期。

53) 齊東方：《中國古代的金銀器皿與波斯薩珊王朝》，《伊朗學在中國論文集》，北京大學出版社，1993年；羅豐：《北周李賢墓中亞風格的鎏金銀瓶》，《考古學報》2000年第3期。

54) 齊東方：《唐代金銀器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9年。

55) 寧夏回族自治區博物館、寧夏固原博物館：《寧夏固原北周李賢夫婦墓發掘簡報》，《文物》1985年第11期。

56) 初師賓：《甘肅靖遠新出東羅馬鎏金銀盤略考》，《文物》1990年第5期。

57) 初師賓：《甘肅靖遠新出東羅馬鎏金銀盤略考》，《文物》1990年第5期。

58) 石渡美江：《甘肅靖遠出土鎏金銀盤의 圖像と年代》，《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紀要》第13冊，1992年。

59) 史蒂文生(M.P.T'serstevens)：《外部世界文化對中國的貢獻——交流與融合》，《北京大學塞克勒考古藝術博物館——“迎接二十一世紀的中國考古學”國際學術討論會》論文，1993年。

60) 林梅村：《漢唐西域與中國文明》，文物出版社，1998年。

61) 山西省考古研究所、大同市博物館：《大同南郊北魏墓群發掘簡報》，《文物》1992年第8期。

에서 생산된 것들이라고 본다. 夏鼐는 그중에 多曲銀長杯를 사산조 페르시아의 제품으로 보았으며,<sup>63)</sup> 孫培良은 5세기 후기 사산조 페르시아 북부 지방의 생산품이라고 주장했다.<sup>64)</sup> 199년에 林梅村은 미국에 방문학자로 가 있는 동안 熊存瑞가 있는 곳에서 이 긴 잔의 명문 모사본을 얻었다. W.Sundermann의 해석에 따르면 이 명문은 박트리아어이고 의미는 “xošo(xašo 일 수도 있으며 기물 주인의 이름으로 보인다) 소유”이다. 이런 식으로 이 기물이 박트리아의 산품임을 확인했다.<sup>65)</sup>

### c. 粟特

廣東 遂溪의 南朝 시대 지하창고에서 열두 꽃받침의 은주발이 출토되었다.<sup>66)</sup> 그 위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吉田豐의 따르면 그 의미는 “(도자기 주발은) 石國(의 것이고)……SP. (무게는) 동전 42개이다”라고 해석된다.<sup>67)</sup> 이는 이 은주발이 粟特의 석국에서 온 것임을 말해준다. 그밖에 青海 上孫家寨의 魏晉 무덤에서도 손잡이가 달린 粟特의 은주전자가 한 점 발견되었다.<sup>68)</sup>

### (2) 銅器

山西 大同에 있는 北魏 平城 유적의 지하창고에서는 발이 높은 銅杯 세 건이 발견되었다. (그림9). 이 기물은 그리스의 색채가 대단히 강하다고 여겨지며, 제조 지역은 박트리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sup>69)</sup>

### (3) 貨幣

외국 화폐에 대한 연구는 중국 고고학의 설립자 夏鼐가 「중국에서 출토된 페르시아 사산조 은화에 대한 종합적 서술(綜述中國出土的波斯薩珊朝銀幣)」 등의 논문을 통해 외국 화폐 연구에 대한 기초를 세웠다.

### a. 동로마 금화

동로마 금화는 발견된 양이 많지 않다. 河北 贊皇의 東魏 시대 李希宗 부부의 합장묘에서 3개가 발견되었는데, 각각 狄奧多西斯 2세(408-450년), 삼촌과 조카인 查士丁尼 1세와 查士丁尼 2세의 공동 통치 시기에 주조된 것이다.<sup>70)</sup> 河北 磁縣의 東魏 시대 茹茹公主 무덤에서 2개가 발굴되었고<sup>71)</sup>, 西安의 北周 李誕 무덤에서 한 개가 발견되었는데, 查士丁尼 1세 시기에 주조된 것이다.<sup>72)</sup> 寧夏 固原의 北周시대 田弘의 무덤에서는 5개가 출토되었다.<sup>73)</sup> 그중 하나

62) 孫培良: 《略談大同市南郊出土的幾件銀器和銅器》, 《文物》1977年第9期。

63) 夏鼐: 《近年中國出土的薩珊朝文物》, 《考古》1978年第2期。

64) 孫培良: 《略談大同市南郊出土的幾件銀器和銅器》, 《文物》1977年第9期。

65) 林梅村: 《中國境內出土帶銘文的波斯和中亞銀器》, 《文物》1997年第9期。

66) 遂溪縣博物館: 《廣東遂溪縣發現南朝窖藏金銀器》, 《考古》1986年第3期。

67) 吉田豐: 《〈中國和印度的粟特商人〉補記》, 《唐研究》第三卷。

68) 齊東方: 《唐代金銀器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年。

69) 夏鼐: 《近年中國出土的薩珊朝文物》, 《考古》1978年第2期; 孫培良: 《略談大同市南郊出土的幾件銀器和銅器》, 《文物》1977年第9期。

70) 石家莊地區革委會文化局文物發掘組: 《河北贊皇東魏李希宗墓》, 《考古》1977年第6期。

71) 磁縣文化館: 《河北磁縣東魏茹茹公主墓發掘簡報》, 《文物》1984年第4期。

72) 國家文物局: 《2005年中國重要考古發現》, 文物出版社, 2006年。

73) 原州聯合考古隊: 《北周田弘墓》, 勉誠出版(株), 2000年。

는 列奧 1세 시기(457-474年) 주조되었고, 하나는 查士丁尼 1세(518-527年) 때 주조되었으며, 두 개는 查士丁尼 1세와 2세(527-565年)가 함께 통치하던 시기(527年)에 주조되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查士丁尼 2세(527-565年) 때 주조된 것이다.

#### b. 사산조 페르시아 은화

북방 지역에서 발견된 사산조 페르시아 은화는 주로 '실크로드'를 따라 있는 성터와 무덤에서 발굴되었다. 예를 들어 新疆 투루판 고창의 古城 유적에서는 20개가 출토되었는데, 그중 10개는 沙普爾 2세 때 것이고, 7개는 阿爾達希 2세 때 것이고, 3개는 沙普爾 3세 때 것이다.<sup>74)</sup> 河北 定縣의 北魏시대 탑의 기반에서 출토된 石函에서는 사산조 41개의 사산조 페르시아 은화가 출토되었다.<sup>75)</sup> 그중에 耶斯提澤德 2세(438-457年) 시기의 것이 4개, 卑路 시대의 것이 37개이다.<sup>76)</sup> 그중 耶斯提澤德 2세 시기의 은화 하나는 테두리에 嚙嚙 문자 한 줄이 새겨져 있다. 따라서 어떤 은화들은 嚙嚙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페르시아, 嚙嚙, 中國 세 나라의 관계를 설명해준다.<sup>77)</sup>

남방 지역의 남조 지하창고와 무덤 등에서도 사산조 페르시아 은화가 출토되었다. 이는 당시에 해상실크로드도 상당히 번영했음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廣東 遂溪의 南朝 지하창고에서는 20개의 은화가 출토되고,<sup>78)</sup> 廣東 英德의 南齊시대 무덤에서는 3개가 출토되고,<sup>79)</sup> 廣東 曲江 南華寺의 남조 무덤에서는 잘려나간 사산조 페르시아 은화 9개가 발굴되었다.<sup>80)</sup>

#### (4) 유리 기물의 발견

위진남북조 시대의 외국 유리 기물은 주로 로마, 사산조 페르시아, 인도에서 온 것들이다.

##### a. 로마 유리

北燕 馮素弗 무덤에서 출토된 5건의 로마 유리 기물 중에는 오리 모양 주전자도 있고(그림 10-1), 입이 넓은 통 모양에 바닥이 들어간 잔도 있으며(그림 10-2), 둥근 바닥의 작은 주발, 둥근 발 주발, 높은 발의 깨진 기물 등도 있었다.<sup>81)</sup> 이외에도 河北 景縣의 封氏 무덤군에서 발견된 網目 무늬 유리 주발과 잔(그림 10-3),<sup>82)</sup> 南京 象山 7호 東晉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직통형 무늬새김 유리잔(그림 10-4),<sup>83)</sup> 南京大學 東晉 무덤에서 출토된 유리잔,<sup>84)</sup> 南京市 石門檻의 六朝 초기 무덤에서 출토된 깨진 주발 조각<sup>85)</sup> 등은 모두 로마의 유리 기물이다.

##### b. 사산조 페르시아

魏晉南北朝 시기의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 기물로는 주로 다음의 것들이 발견되었다. 湖北

74) 夏鼐: 《綜述中國出土的波斯薩珊朝銀幣》, 《考古學報》1974年第1期。

75)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河北定縣出土北魏石函》, 《考古》1966年第5期。

76) 夏鼐: 《河北定縣塔基舍利石函中波斯薩珊朝銀幣》, 《考古》1966年第5期。

77) 孫機: 《中國聖火》, 遼寧教育出版社, 1996年。

78) 遂溪縣博物館: 《廣東遂溪縣發現南朝窖藏金銀器》, 《考古》1986年第3期。

79) 廣東省文物管理委員會等: 《廣東英德、連陽南齊和隋唐古墓的發掘》, 《考古》1961年第3期。

80) 廣東省文物管理委員會: 《廣東曲江東晉、南朝墓簡報》, 《考古》1959年第9期。

81) 黎瑤渤: 《遼寧北票西官營子北燕馮素弗墓》, 《文物》1973年第3期。

82) 張季: 《河北封氏墓群調查記》, 《考古通訊》1957年第3期。

83) 南京市博物館: 《南京象山5號、6號、7號墓清理簡報》, 《文物》1972年第11期。

84) 南京大學歷史學考古組: 《南京大學北園東晉墓》, 《文物》1973年第4期。

85) 李鑒華、屠思華: 《南京石門檻六朝墓清理記》, 《考古通訊》1958年第9期。

鄂城의 西晉 무덤에서 출토된 유리 주발 1점<sup>86)</sup>, 北京의 西晉시대 華芳 무덤에서 출토된 유리 주발 1점<sup>87)</sup>, 湖北 鄂城의 西晉 무덤에서 출토된 둥근 바닥 유리 주발<sup>88)</sup>, 江蘇 南京 仙鶴觀의 東晉 무덤(M6)에서 출토된 유리 주발 한 점(그림10-7)<sup>89)</sup>, 山西 大同 남쪽 교외 제 107호 무덤에서 출토된 유리주발(그림10-6<sup>90)</sup>), 江蘇 句容春城의 南朝 宋나라 무덤에서 출토된 유리 주발 한 점(그림10-5)<sup>91)</sup>, 寧夏 固原의 北周 李賢 무덤에서 출토된 유리 주발 한 점(그림 10-8,9)<sup>92)</sup>, 陝西 咸陽의 北周 王士良 무덤에서 출토된 유리 주발 한 점(그림10-10)<sup>93)</sup>, 江蘇 南京의 富貴山(M2)에서 출토된 유리 주발 한 점(그림10-11)<sup>94)</sup>, 新疆 樓蘭의 5-6세기 무덤에서 출토된 유리 주발과 유리 조각<sup>95)</sup>, 新疆 巴楚의 4-5세기 脫庫孜薩來 사원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조각 등<sup>96)</sup>.

### c. 인도

1994年 漢魏 洛陽城 北魏 永寧寺의 西門 유적을 발굴할 때 15만여 개의 작은 유리구슬이 발견되었다.<sup>97)</sup> 이 유리구슬은 인도에서 생산한 것들이다.<sup>98)</sup>

### (5) 기타

#### a. 다이아몬드

南京 象山の 東晉 7호 무덤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상감한 금반지가 출토되었다.<sup>99)</sup> 이 반지는 표면에 무늬가 없으며, 상감된 금강석은 옥을 갈 때 썼던 것으로 보인다. 무역품 혹은 공물로 남해에서 중국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 b. 靑金石과 碧璽

청금석을 상감한 반지는 위진남북조 시대 무덤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河北 贊皇의 東魏시대 李希宗 무덤에서 한 점이 발굴되고<sup>100)</sup>, 寧夏 固原의 北周시대 李賢 부부의 합장묘에서 한 점이 출토되었다.<sup>101)</sup>

山西 太原의 北齊시대 徐顯秀 무덤에서도 碧璽(電氣石)를 상감한 금반지 한 점이 발굴되었다. 반지에 새겨진 인물의 형상이 그리스 신화 속 인물과 관련이 있어서, 그리스 문화가 동쪽의 중앙아시아까지 전해져서 粟特의 예술과 결합한 후 다시 계속 동쪽으로 전해졌다고 여겨

86) 安家瑤: 《北周李賢墓出土的玻璃碗——薩珊玻璃器的發現與研究》, 《考古》1986年第2期。

87) 安家瑤: 《北周李賢墓出土的玻璃碗——薩珊玻璃器的發現與研究》, 《考古》1986年第2期。

88) 安家瑤: 《北周李賢墓出土的玻璃碗——薩珊玻璃器的發現與研究》, 《考古》1986年第2期。

89) 南京市博物館: 《江蘇南京仙鶴觀東晉墓》, 《文物》2001年第3期。

90) 山西大學歷史文化學院等: 《大同南郊北魏墓群》, 科學出版社, 2006年。

91) 安家瑤: 《北周李賢墓出土的玻璃碗——薩珊玻璃器的發現與研究》, 《考古》1986年第2期。

92) 寧夏回族自治區博物館、寧夏固原博物館: 《寧夏固原北周李賢夫婦墓發掘簡報》, 《文物》1985年第11期。

93) 賁安志: 《北周墓葬出土的珍貴文物》, 陝西人民美術出版社, 1992年。

94) 南京市博物館、南京市玄武區文化館: 《江蘇南京市富貴山六朝墓地發掘簡報》, 《考古》1998年第8期。

95) 安家瑤: 《北周李賢墓出土的玻璃碗——薩珊玻璃器的發現與研究》, 《考古》1986年第2期。

96) 安家瑤: 《北周李賢墓出土的玻璃碗——薩珊玻璃器的發現與研究》, 《考古》1986年第2期。

9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北魏洛陽永寧寺1979—1994年考古發掘報告》,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年。

98) 安家瑤: 《玻璃考古三則》, 《文物》2000年第1期。

99) 南京市博物館: 《南京象山5號、6號、7號墓清理簡報》, 《文物》1972年第11期。

100) 石家莊地區革委會文化局文物發掘組: 《河北贊皇東魏李希宗墓》, 《考古》1977年第6期。

101) 寧夏回族自治區博物館等: 《寧夏固原北周李賢夫婦墓發掘簡報》, 《文物》1985年第11期。



진다.<sup>102)</sup>

### 3. 隋唐 시대—'실크로드'의 번영과 발달

隋唐五代는 중국의 국제 교역이 매우 활발했던 시기이다. 실크로드를 통해 파미르 고원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이어져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및 유럽까지 광대하게 교역이 이루어졌다.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는 北部灣에서 서쪽으로 직접 이어져 이집트 연해 국가들과 연결되었다.

#### 1) 외래 종교의 유적과 유물

##### (1) 景教 유물

唐代에 景教를 믿던 신도들은 모두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민족들이었다.<sup>103)</sup>

##### a. 大秦景教流行中國碑

西安 碑林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建中 2년(781년)에 세워졌으며, 비문에서는 景教가 중국에서 성황을 이룬 정황을 찬양하고 있다. 唐代 景教를 연구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 b. 景教 경문을 새긴 돌기둥(經幢)

2007년 河南 洛陽에서 「大秦景教宣元至本經及幢記」 1건이 발견되었다. 經幢은 불규칙한 팔각형의 돌기둥으로, 석회암 재질의 靑石으로 제작되었다. 각 면은 너비 14~16센티미터, 높이 60~85센티미터다(그림 11)<sup>104)</sup>. 『經幢記』의 기록에 따르면 이 돌기둥은 唐 憲宗 元和 9년(814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 c. 高昌 景教 벽화

20세기 초, 독일 탐험대가 高昌 부근에서 景教 사원을 발굴할 때 발견했다. 부활절 전 주일에 예배를 올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연대는 대략 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sup>105)</sup>

##### (2) 마니교의 유적과 유물

20세기 초, 독일인들은 투루판 일대에서 수천 점의 불교, 마니교 사본과 旗幡 및 기타 유물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들이 확인한 마니교 석굴은 4~5개뿐이었다. 중국학자 晁華山은 투루판 지역의 3개 석굴군을 연구하면서 마니교 석굴 39개를 확인했다. 주요 분포 지역은 吐峪溝 11곳, 베제클리크(Bezeklik) 19곳, 勝金口 9곳 등이다.<sup>106)</sup>

그밖에도 투루판 베제클리크 석굴에서는 回鶻文으로 된 마니교 문헌 『美味經』이 발견되었다.

102) 太原市文物考古研究所: 《太原北齊徐顯秀墓發掘簡報》, 《文物》2003年第10期; 張慶捷、常一民: 《北齊徐顯秀墓出土的嵌藍寶石金戒指》, 《文物》2003年第10期。

103) 羅紹: 《洛陽新出土〈大秦景教宣元至本經及幢記〉石幢的幾個問題》, 《文物》2007年第6期。

104) 羅紹: 《洛陽新出土〈大秦景教宣元至本經及幢記〉石幢的幾個問題》, 《文物》2007年第6期。

105) (德) 勒柯克著, 趙崇民譯: 《高昌——吐魯番古代藝術珍品》, 新疆人民出版社, 1998年; (日) 羽田亨著, 耿世民譯: 《西域文明史概論》, 中華書局, 2005年。

106) 晁華山: 《初尋高昌摩尼寺的蹤跡》, 《考古與文物》1993年第1期。

제작 시기는 약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로, 매우 중요한 回鶻文 마니교 寫經 자료이다.<sup>107)</sup> 新疆 拜城의 키질 석굴에서는 陶祖(도기로 만든 남근상) 1점이 발견되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마니교 성 관념 속의 악마 형상으로 보고 있다.<sup>108)</sup>

### (3) 조로아스터교 유적과 유물의 발견

隋唐 시기에 만들어진 상당한 양의 조로아스터교 유물들도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甘肅 天水에서 발견된 隋末唐初의 石棺床과 山西 太原의 隋代 虞弘 묘에서 발견된 石槨 등에는 모두 조로아스터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새겨져 있다. 이는 조로아스터교의 연구에 대단히 귀중한 실물 자료들이다.<sup>109)</sup>

### 2) 외국에서 전해진 화폐의 발견과 연구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수당 오대의 외국 화폐에는 페르시아 사산조의 은화, 동로마의 금화, 아라비아의 금화 그리고 일본의 和同開寶 은화와 동화가 포함되며, 그중에서 페르시아 사산조 은화의 수량이 가장 많다.<sup>110)</sup>

#### (1) 사산조 페르시아의 은화

페르시아 사산조 은화의 발굴지는 주로 실크로드와 접한 길 그리고 중국 내 교통 간선 부근을 따라 분포한다. 여기에는 4세기 초에서 7세기 중엽까지 사산조 페르시아 열 두 왕의 동전이 포함되며, 庫思老 2세 때의 은화가 가장 많다. 그중 일부는 유통 화폐로도 사용되었고, 다른 일부는 무덤의 수장품이나 예물을 위한 보시물, 옛날 동전과 외국 동전 애호가들의 소장품으로도 사용되었다.

#### (2) 동로마 금화

수당 시대의 유적에서 발견된 동로마 금화는 모두 10여개에 이르며, 주로 동로마 황제 利奧 1세와 查士丁尼 2세, 安那斯泰喜埃斯, 福克斯, 希拉克略 시기에 주조된 화폐이다. 같은 시기 무덤에서도 대량의 동로마 금화 모조품이 발견되었다.

#### (3) 일본 화폐

西安 何家村의 지하창고에서는 일본 和同開寶 동전 5개가 발견되었다.<sup>111)</sup> 和同開寶 동전은 발해 上京 龍泉府의 성터에서도 출토된 적이 있다.

#### (4) 아라비아 금화

아라비아 금화는 新疆에서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그 지역에서 모조한 것들이며 모조한 시간 역시 상당히 늦다. 1964년에 西安 서쪽 窯頭村이 당대 중후기 무덤에서 아라비아 금화 3개가 출토되었다.<sup>112)</sup>

107) 吐魯番地區文物管理所：《柏孜克裡克千佛洞遺址清理記》，《文物》1995年第8期。

108) 葛承雍：《試論克孜爾石窟出土陶祖為摩尼教藝術品》，《考古》2008年第3期。

109) 榮新江、張志清：《從撒馬爾罕到長安——粟特人在中國的文化遺跡》，北京圖書館出版社，2004年。

110) 夏鼐：《綜述中國出土的波斯薩珊朝銀幣》，《考古學報》1974年第1期。

111) 陝西省博物館等：《西安全郊何家村發現唐代窖藏文物》，《文物》1972年第1期。

112)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西安市西窯頭村唐墓清理記》，《考古》1965年第8期；夏鼐：《西安唐墓出土阿拉伯金幣》，《考古》1965年第8期。

### 3) 외국 유리 기물의 발견

#### (1) 사산조 페르시아

현재 중국 경내에서 발견된 수당 시기 기물 중 사산조 페르시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의 4점이 있다.<sup>113)</sup> 陝西 西安 清禪寺 地宮에서 출토된 요철 무늬 유리병, 洛陽 關林的 당대 무덤에서 출토된 가는 목 유리병, 西安 何家村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둥근 요철 무늬 유리잔, 陝西 臨潼 慶山寺塔 기반의 지궁에서 출토된 유리병이다.

#### (2) 이슬람

江蘇 揚州的 당대 중후기 주택 유적에서는 이슬람 유리조각들이 발견되었고<sup>114)</sup>, 陝西 扶風 法門寺塔 기반의 지궁에서는 이슬람 유리 기물 18점이 출토되었다.<sup>115)</sup>

#### 4) 페르시아 유약 도기

중국 경내에서 발견된 페르시아 유약 도기는 주로 揚州와 광둥, 광서, 복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福建省 福州市 蓮花峰의 五代 劉華墓<sup>116)</sup>와 江蘇 揚州<sup>117)</sup>, 廣西 桂林 和容縣<sup>118)</sup>, 廣州的 中山四路<sup>119)</sup> 등지가 그렇다. 이들 도기는 해로를 통해 이란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sup>120)</sup>

#### 5) 서방의 금은 기물

당대의 금은 기물은 여러 외래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들 외래 요소는 粟特, 薩珊, 羅馬—拜占廷 등의 세 체계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기물은 당대 금은 기물 중에 인도, 貴霜, 嚙噠, 突厥 및 아라비아 등지의 각종 문화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증명해준다.<sup>121)</sup>

#### 6) 서방의 銅器

수당 시기의 서방 동기는 발견된 양이 비교적 적다. 陝西 臨潼 慶山寺塔 기반의 지궁에서는 人面銅胡瓶이 한 점 발굴되었다. 발굴자들은 인도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했으나,<sup>122)</sup> 혹자는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한다.<sup>123)</sup>

#### 7) 청금석

수당 시대에는 청금석으로 장식한 반지와 목걸이도 발견되었다. 內蒙古 土默特右旗 畢可齊鎮에서 한 점이 발굴되고,<sup>124)</sup> 寧夏 固原의 唐史訶耽 무덤에서도 한 점이 발견되었으며,<sup>125)</sup> 西安의 隋代 李靜訓 묘에서도 청금석을 상감한 금목걸이가 출토되었다.<sup>126)</sup>

113) 安家瑤: 《中國早期的玻璃器皿》, 《考古學報》1984年第4期。

114) 揚州城考古隊: 《江蘇揚州唐代建築基址發掘簡報》, 《考古》1994年第5期。

115) 韓偉: 《法門寺地宮出土琉璃器皿》, 《磨硯書稿——韓偉考古文集》, 科學出版社, 2001年。

116) 福建省博物館: 《五代閩國劉華墓發掘報告》, 《文物》1975年第1期。

117) 周長源: 《揚州出土古代波斯釉陶器》, 《考古》1985年第2期。

118) 李鐸、封紹柱、周華: 《廣西出土的波斯陶及相關問題》, 《文物》2003年第11期。

119) 全洪: 《廣州出土海上絲綢之路遺物源流初探》, 《華南考古》(1), 文物出版社, 2004年, 北京。

120) 周長源、張浦生、張福康: 《揚州出土的古代波斯釉陶研究》, 《文物》1988年第12期。

121) 齊東方、張靜: 《唐代金銀器皿與西方文化的關係》, 《考古學報》1994年第2期。

122) 臨潼縣博物館: 《臨潼縣唐慶山寺舍利塔基精室清理記》, 《文博》1985年第4期。

123) 孫機: 《建國以來西方古器物的發現與研究》, 《文物》1999年第10期。

124) 內蒙古文物工作隊 內蒙古博物館: 《呼和浩特史附近出土的外國貨幣》, 《考古》1975年第6期。

125) 寧夏回族自治區固原博物館、羅豐: 《固原南郊隋唐墓地》, 文物出版社, 1996年。

12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唐長安城郊隋唐墓》, 文物出版社, 1980年。

## 8) 언어문자 자료

## a. 아라비아 문자

江蘇 揚州의 唐墓에서 출토된 자기 주전자에는 아라비아 문자가 장식되어 있다. 내용은 “眞主께서 가장 위대하시다”이다.<sup>127)</sup> 西安 西窯頭村의 唐墓에서 출토된 아라비아 금화 3점은 양면에 아라비아 문자가 있다. 『코란경』의 문구를 인용한 것이며 주조 연대는 8세기 전기이다.<sup>128)</sup>

## b. 巴列維文

河南 偃師 杏園村M1920에서는 자수정을 상감한 금반지 1점이 출토되었다. 자수정에는 “최고로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라는 뜻의 巴列維語(중고시대 페르시아어)가 쓰여 있다.<sup>129)</sup>

## c. 粟特文字

둔황 투루판 문서 중에서는 粟特語로 쓴 경문과 서신이 발견되었다. 베제클리크 석굴에서는 粟特文으로 쓴 만당 시대 불경 『摩訶般若陀羅尼經』 잔권이 발견되었고<sup>130)</sup>, 투루판 新近에서는 粟特文 잔편 한 점을 수집했다.<sup>131)</sup>

## d. 婆羅鉢文字

1955년에 西安에서 발견된 蘇諒妻 馬氏(849-874年) 무덤에서는 묘지 하나가 발굴되었다. 이 묘지는 漢文과 중고시대 페르시아의 婆羅鉢 文字로 쓰여졌다.<sup>132)</sup>

## 9) 『大唐天竺使出銘』의 발견

티베트 吉隆縣 阿瓦呷 英山口의 마애에서는 唐 顯慶 2년(658)의 碑文이 발견되었다. 이는 당 왕조의 사절 왕현책이 천축의 石勒으로 사신을 나간 것에 대한 기록이다.<sup>133)</sup>

## 10) 외래 이주민과 그 후손들의 무덤 발굴

수당 시대 외래 이주민과 그 후손들의 무덤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로 발굴되었다. 山西 太原의 虞弘墓<sup>134)</sup>, 甘肅 天水의 隋唐시대 무덤<sup>135)</sup>, 寧夏 固原<sup>136)</sup> 和鹽池<sup>137)</sup>의 粟特人 무덤, 洛陽 安菩墓<sup>138)</sup>, 唐太宗 昭陵의 安元壽墓<sup>139)</sup> 등.

## 11) 胡俑과 昆侖俑

胡俑을 수장품으로 삼는 것은 수당 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胡俑 이외에 昆侖俑도 있었는데, 이 인형들은 머리카락이 둥글게 말리고, 피부색은 검게 칠하고, 상반신은 드러내거나

127) 朱江：《揚州出土的唐代阿拉伯文背水瓷壺》，《文物》1983年第2期。

128) 夏鼐：《西安唐墓出土阿拉伯金幣》，《考古》1965年第8期。

12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河南二隊：《河南偃師市杏園村唐墓的發掘》，《考古》1996年第12期。

130) 吐魯番地區文物管理所：《柏孜克裡克千佛洞遺址清理簡記》，《文物》1985年第8期。

131) 榮新江、李肖、孟憲實：《新獲吐魯番出土文獻概說》，《文物》2007年第2期。

132)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西安發現晚唐祆教徒的漢、婆羅鉢合璧墓誌——唐蘇諒妻馬氏墓誌》，《考古》1964年第9期；作銘：《唐蘇諒妻馬氏墓誌跋》，《考古》1964年第9期。

133) 西藏自治區文管會：《西藏吉隆縣發現唐顯慶三年〈大唐天竺使出銘〉》，《考古》1994年第7期。

134) 山西省考古研究所等：《太原隋虞弘墓》，文物出版社，2005年，北京。

135) 天水市博物館：《天水市發現隋唐屏風石棺床墓》，《考古》1992年第1期。

136) 寧夏回族自治區固原博物館、羅豐：《固原南郊隋唐墓地》，文物出版社，1996年。

137) 寧夏回族自治區博物館：《寧夏鹽池唐墓發掘簡報》，《文物》1988年第2期。

138) 寧夏回族自治區固原博物館、羅豐：《固原南郊隋唐墓地》，文物出版社，1996年。

139) 昭陵博物館：《唐安元壽墓發掘簡報》，《文物》1988年第12期。

몸에 영락을 걸치고 있다.

## 12) 도상 자료 속의 ‘실크로드’

### a. 馬球圖

馬球은 당나라 사람들이 무척 좋아한 일종의 외래 체육활동이다. 그것의 전래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sup>140)</sup> 하나는 페르시아에서 중국으로 전해졌다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吐蕃에서 중국으로 전해졌다는 의견이다. 打馬球의 장면은 당대 무덤의 벽화에서도 보인다. 章懷太子 무덤(그림12-1,2)<sup>141)</sup>과 李邕 무덤(그림12-3<sup>142)</sup>) 중의 打馬球 벽화가 그 예이다. 어떤 무덤들에서는 打馬球을 하는 도용들도 발굴되었다. 銅鏡에도 관련 장식이 있는데, 江蘇揚州의 唐墓에서 출토된 打馬球銅鏡이 그 예이다.(그림 12-4)<sup>143)</sup>

### b. 벽화 속 수렵도

일부 벽화에서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요소가 보인다. 懿德太子 무덤 벽화 중의 馴豹圖와 페르시아 개 그림은 중앙아시아의 粟特과 서아시아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한다.<sup>144)</sup>

### c. 춤

외래 춤의 도상 자료는 둔황 막고굴 벽화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 d. 타조

唐高宗과 武則天의 乾陵부터 당대의 帝陵 앞에 부조된 타조가 들어서며, 이는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관련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은 당 왕조에 타조를 바쳤다고 한다. 제릉 앞에 선 부조된 타조가 이런 문헌 기록을 증명한다.

### e. 도상 자료 중의 외국 사신

懿德太子 무덤 벽화 속 ‘客使圖’의 인물 형상에는 唐王朝 鴻臚寺의 관원과 로마, 고려, 혹은 신라 등지에서 온 사신이 보인다(그림 13-1)<sup>145)</sup>. 그중에 깃털 장식 모자를 쓴 형상을 예전에는 일본 사절로 인식한 적이 있으나<sup>146)</sup>,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 반론을 제기하여 고려 혹은 신라의 사절인 것으로 판명되었다.<sup>147)</sup> 고려 혹은 신라인의 형상은 西安 交通大學 교정에서 출토된 唐代 銀盒에도 보이며(그림13-2)<sup>148)</sup>, 陝西 藍田 蔡家拐塔 기반의 지궁에서

- 140) 向達：《長安打球小考》，《唐代長安與西域文明》，三聯書店，1987年；陰法魯：《唐代西藏馬毬戲傳入長安》，《歷史研究》1959年第6期；徐壽彭、王堯：《唐代馬毬考略》，《中央民族學院學報》1982年第2期；崔樂泉：《古代馬球起源及發展的歷史回顧——兼及有關問題的考古資料分析》，《中國馬球史研究》，甘肅人民出版社，2002年。
- 141) 周天遊：《章懷太子墓壁畫》，文物出版社，2002年；乾陵博物館、乾陵旅遊開發有限公責任公司：《中國乾陵文物精華》，陝西旅遊出版社。筆者注：原書未標記出版時間。
- 142) 陝西省考古研究院：《壁上丹青》，科學出版社，2009年。
- 143) 孔祥星、劉一曼：《中國古代銅鏡圖典》，文物出版社，1992年。
- 144) 宿白：《西安地區唐墓壁畫的佈局和內容》，《考古學報》1982年第2期。
- 145) 陝西省博物館、乾縣文教局唐墓發掘組：《唐章懷太子墓發掘簡報》，《文物》1972年第7期；雲翔：《唐章懷太子墓壁畫客使圖中“日本使節”質疑》，《考古》1984年第12期；王仁波：《從考古發現看唐代中日文化交流》，《考古與文物》1984年第3期。
- 146) 王仁波：《從考古發現看唐代中日文化交流》，《考古與文物》1984年第3期。
- 147) 雲翔：《唐章懷太子墓壁畫客使圖中“日本使節”質疑》，《考古》1984年第12期。
- 148) 張達宏、王長啟：《西安市文管會收藏的幾件珍貴文物》，《考古與文物》1984年第4期。

출토된 사리 석함 무늬 등에서도 보인다(그림13-3)<sup>149)</sup>. 이는 당 왕조와 조선반도가 서로 밀접하게 왕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 f. 일상생활 용품 중의 외래 요소

당대 기족 무덤 벽화 혹은 수장품 중에는 손에 외래의 기물을 든 시녀의 형상이 자주 보인다. 이 기물들의 모양을 보면 외래의 기물에 속하는 것들로 來通, 胡瓶, 高足杯, 長杯 등이 있다(그림 14). 이는 당왕조의 귀족 생활에 이국의 풍취가 가득했음을 보여준다.

### 4. 宋元明 시대—‘실크로드’의 여운

#### 1) 泉州 宋元 항구와 海船 유적

北宋 元祐 2年(1087), 泉州가 정식으로 개항하면서 남송의 가장 중요한 항구 중 하나로 발전한다. 宋元은 泉州港이 가장 흥하던 시기로서 많은 유적과 유물을 남겼다. 泉州 淸淨寺의 예배당과 開元寺의 동서 탑 그리고 元代의 夜航燈塔—六勝塔 등은 모두 중국과 외국의 활발히 왕래하고 또 해상으로 그 왕래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1973년에 泉州 後渚 서남쪽 바닷가에서 남송 때의 배가 한 척 발견되었다. 전체 길이 17.65미터, 배수량은 370톤 정도로 항해에 매우 적합한 크기였다.<sup>150)</sup>

#### 2) 泉州의 宗教 石刻

宋元 시기 泉州는 ‘해상 실크로드’의 유명 항구였다. 외국의 상인, 여행가, 승려, 각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갖가지 종교와 함께 모두 이곳에 모여들었다. 뿐만 아니라 泉州에는 대량의 외국인 거주지가 있었으며, 특히 아라비아인들이 많았다. 이들 거주지에 사는 외국인들은 종교 신앙과 풍속 습관이 모두 존중을 받아서 자신들의 사원과 공공 묘지, 학교 등을 지었다. 泉州에서는 宗教石刻 수백 개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이슬람교, 경교, 마니교, 기독교, 인도교, 불교 등과 연관된 것들이었으며, 石刻文字에는 아라비아어, 페르시아어, 고대 시리아어, 라틴어, 몽고 八思巴文, 漢文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sup>151)</sup>

#### 3) 揚州의 라틴어 묘비

1952년에 揚州에서는 두 개의 라틴어 묘비가 발견되었다(그림15)<sup>152)</sup>. 하나는 至正 2년(1342)에 사망한 多密尼·伊利翁尼의 딸 커더린의 것인데, 이 묘비에는 ‘聖喀德鄰殉教’라는 도상이 새겨져 있었다. 또 하나는 至正 4년(1344)에 죽은 多密尼·伊利翁尼의 아들 안토니의 것으로, 묘비에는 ‘末日審判圖’라고 새겨져 있었다.

#### 4) 海南島의 무슬림 무덤군

149) 樊維岳、阮新正、冉素茹：《藍田出土盃頂舍利石函》，《考古與文物》1991年第2期；樊維岳、阮新正、冉素茹：《藍田新出土舍利石函》，《文博》1991年第1期。

150) 泉州灣宋代海船發掘報告編寫組：《泉州灣宋代海船發掘簡報》，《文物》1975年第10期。

151) 白壽彝總主編：《中國通史》，上海人民出版社，2000年。

152) 耿鑒庭：《揚州城根裡的元代拉丁文墓碑》，《考古》1963年第8期；夏鼐：《揚州城拉丁文墓碑和廣州威尼斯貨幣》，《考古》1979年第6期。

海南島 三亞, 陵水 일대에서는 당송 이래의 4개 무슬림 무덤군이 발견되었다<sup>153)</sup>. 이 무덤들의 특징을 보면, 무덤의 주인은 동아프리카와 아리비아 반도에서 왔을 것이다.

#### 5) 이슬람 유리 기물과 로마 유리 기물

宋遼 시대 탑 기초의 지궁과 무덤에서는 외래의 유리 기물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들 기물은 서아시아 이슬람 유리 기물이 주가 된다. 이들 유리 기물은 주로 불교의 공양품과 무덤의 수장품으로 쓰였다. 발견 지역으로 보건대, 당시 이슬람 유리 기물은 두 가지 루트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하나는 육로 특히 초원 실크로드를 통한 수입이고, 하나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수입이다.

#### 6) 외래화폐

1964년에 廣州의 明 太監 韋眷의 무덤에서 15세기 중엽의 외국 은화 3점이 출토되었다. 여기에는 1457-1462년에 주조된 베니서의 은화와 1459년에 주조된 滿刺加國(지금의 방글라데시) 은화도 포함되어 있다.<sup>154)</sup>

1971-1973년에 福建 泉州 지역에서는 스페인 은화 5벌이 발굴되었다.<sup>155)</sup> 이 은화들은 스페인이 남미 멕시코에서 주조한 것들이다. 명말 청초에 스페인 사람이 미주에서 아시아로 가져온 후 필리핀의 화교 상인을 거쳐 유입된 것이다.

## 5. 결 론

이상의 내용은 중국 경내의 '실크로드'와 관련된 고고학적 발견과 그 연구 성과이다. 시간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내용도 부족하고 빠진 부분도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크로드'의 개통은 세계적인 의미의 대사였고, 인류는 '실크로드' 덕분에 교류의 기회를 크게 늘릴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부단히 발전할 수 있었다.

번역 : 정광훈

153) 海南省文物保護管理委員會：《海南省的考古發現與文物保護》，《文物考古工作十年（1979~1989）》，文物出版社，1990年。

154) 廣州市文物管理處：《廣州東山明太監韋眷墓清理簡報》，《考古》1977年第4期。

155) 泉州市文物管理委員會等：《福建泉州地區出土的五批外國銀幣》，《考古》1975年第6期。





## 日本におけるシルクロード研究の過去、現在、未来 —キジル石窟プロジェクトの事例を中心に—

中川原育子 | 日本 名古屋大学 文学研究科 助教

### 一 はじめに

私に与えられた発表テーマは日本におけるシルクロード研究の紹介です。考古学、歴史学、文化人類学、宗教学、芸術学など、広範な領域と多岐にわたる研究分野に目配りしてまとめあげることは現在の私の能力を大きく超えるものです。しかし、主催者側の意向もあり、前半に日本のシルクロード研究の流れについて簡単に述べた後、後半に現在私自身が関わっているキジル壁画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 二 日本におけるシルクロード研究の大まかな流れ

日本でのシルクロード研究は20世紀初頭の大谷探検隊の調査とその収集品の研究から出発します。第二次世界大戦の敗戦と日中戦争の責任により、中国国内で調査できない時期がしばらく続き、代わって中国以外の地域で調査研究が行われました。たとえば、戦前の雲岡石窟調査で知られる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は、1959年からアフガニスタン、パキスタンのガンダーラ遺跡、バーミヤーン石窟の考古発掘調査と研究を行っています<sup>1)</sup>。私が所属する名古屋大学も1964年、1968年にバーミヤーン石窟調査を行いました<sup>2)</sup>。

終戦から20年以上中国とは国交がなかったわけですが、1972年9月29日日中間で国交が結ばれました。しかし、この時期は文革中であつたため目立った動きはなく、研究交流が進むのは1977年文化大革命が収束して以降からになります。1980年代初めには、中日共同出版として中国石窟シリーズが刊行され、中国の最新の石窟研究が日本語に翻訳され紹介されました<sup>3)</sup>。日本人研究者の中国訪問も次第に増えていき、中国に留学する学生や若手研究者も現れてきました。1980年代末には中国新疆の考古局と日本の佛教大学が合意書を交わし、国家文物局の許可を得て、ニヤ

- 
- 1)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シルクロード発掘70年—雲岡からガンダーラまで—』京都大学総合博物館2008年秋季企画展図録、2008年。研究報告や概要報告については、上掲書、pp.102-103を参照のこと。
  - 2) 柏瀬清一郎「バーミヤーン35メートル大仏の仏龕大構図の図像について」『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No.42、1966、pp.61-76。柏瀬清一郎「バーミヤーンN洞発見報告」『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No.45、1967、pp.93-120。『バーミヤーン—1969年度の調査—』名古屋大学、1971年。
  - 3) 『中国石窟』文物出版社、平凡社、全17巻（敦煌莫高窟、鞏県石窟寺、キジル石窟、クムトラ石窟、龍門石窟、麦積山石窟、雲岡石窟、炳靈寺石窟、安西榆林窟）、1980年11月～1990年10月。

遺跡の発掘と共同研究を行うまでになりました<sup>4)</sup>。いまや中国新疆の現地調査は当たり前という時代になり現在に至っております。

日本ではシルクロードというと仏教や中国と結びつくイメージが強く、実際、大谷探検隊は西本願寺門主大谷光瑞氏によって組織されたものですし、先にのべた中日共同研究が行われた背景には、シルクロードの文化財に情熱を傾けた仏教僧侶の小島康誉氏<sup>5)</sup>の働きかけが大きかったことが知られています。

西本願寺の学寮から出発した龍谷大学は、大学の特色を生かし、シルクロード研究の拠点として、大谷探検隊に関する総合的研究、西域文化研究の新局面というテーマで調査研究を行っています<sup>6)</sup>。近年の流れを示すものとして、2011年9月8日に開催された国内シンポジウム「大谷探検隊をめぐる新研究」において配布された入澤孝氏作成のハンドアウトを参考として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すなわち、

2002 年より旅順博物館との共同研究開始

2004 年より国際敦煌プロジェクト (IDP) 日本支部として活動開始

2004 年より仏教西漸に関わる調査開始

2009 年より大谷探検隊モンゴル調査の検証開始

2010 年よりアジア仏教文化研究センター (ユニット2 中央アジア地域班) 始動

2011 年龍谷ミュージアム開館

特に注目すべきは、2010年度から始動したアジア仏教文化研究センター (文部科学省私立大学戦略的研究基盤形成支援事業) の活動です。これは、仏教伝播の地理的、歴史的実態に即して三つのユニットにわけ、ユニットごとに、海外調査を行い、国内シンポジウム、国際シンポジウム、ワークショップを活発に開催しています<sup>7)</sup>。

龍谷大学の活動とは対照的なのは、敦煌絵画を専門とする百橋明穂氏を中心とする神戸大学の活動です。長期にわたって一つの研究機関と交流を続けてきたケースです。今年の8月に神戸大学で神戸大学と蘭州大学を中心とする10年余りにわたる日中交流の集大成ともいえるシンポジウ

4) 中日共同尼雅遺跡学術考察隊 (佛教大学アジア宗教文化情報研究所、佛教大学ニヤ遺跡学術研究機構) 編『中日・日中共同尼雅遺跡学術調査報告』全3巻、1996年—2007年。佛教大学アジア宗教文化情報研究所、佛教大学ニヤ遺跡学術研究機構編『中日・日中共同丹丹烏里克遺跡学術調査報告』、2007年。

5) 小島康誉「新疆での世界的文化遺産保護研究事業と国際協力の意義—キジル・ニヤ・ダンドゥンウイリク—」『佛教大学宗教文化ミュージアム研究紀要』第7号、佛教大学宗教文化ミュージアム、平成23年、pp.63-164。

6) 龍谷大学アジア仏教センターHP、URL:<http://barc.ryukoku.ac.jp/outline/>、2011年度 第1回 国内シンポジウム 「大谷探検隊をめぐる新研究」2011年度活動報告。

7) 国内シンポジウムとしては「中央アジアにおける仏教と異宗教の交流」(2011年2月26日)、「大谷探検隊をめぐる新研究」(2011年9月8日)、「美術と文献から見るガンダーラの仏教」(2012年7月15日)などが開催され、国際シンポジウムとしては、「中央アジア出土の仏教写本」(2011年10月10-11日)、「大仏破壊から10 年、世界遺産バーミヤーン遺跡の現状と未来」(2011年12月11日、龍谷ミュージアム、東京文化財研究所、奈良文化財研究所共催)が開催されております。今年の11月には「国際シンポジウム シルクロードの仏教文化 —ガンダーラ・クチャ・トルファン—」(2012年11月3日~5日)の開催が予定されています。

ム「敦煌・絲綢之路国際研討会」が開催されました<sup>8)</sup>。敦煌研究院院長の樊錦詩氏をはじめとして、蘭州大学の若手研究者と神戸大学美学美術史出身の博物館、美術館で職を得ている研究者が中心となって研究発表が行われたのですが、今までの傾向とは異なる新しい視点による発表が数多くなされました。参加した中国、日本の研究者の多くが相手国の言語の運用能力が高く、発表を聞いている方も発表する方も生き生きとしていたのが印象に残っています。百橋氏は今年度で神戸大学を定年退職し、敦煌と唐時代のホータン絵画の関係、張彦遠の『歴代名画記』に記されるホータン出身の尉遲(うっち)派の画法の実態解明などに領域を広げていくとのことです。

従来のシルクロード研究は中国の新疆やガンダーラ・アフガニスタンを対象として、歴史学、宗教学、考古学、美術史学が中心となって研究がすすめられてきましたが、近年、理化学手法を導入した文化財の保存・修復に関する研究が注目を集めています。貴重な文化遺産である遺跡や遺物の価値を長く後世に伝えるためには、モノそれ自体の材質や特質、技法について正しい情報を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際、理化学の手法を用いて非破壊、あるいは微量サンプルの分析によって解明し、その結果を保存修復に役立てることが出来ます。たとえば、東京文化財研究所では、2003年よりバーミヤーン遺跡の保存事業が推進されておりますが、その成果はアフガニスタン文化遺産調査資料集として刊行されました<sup>9)</sup>。韓国国立中央博物館と東京国立が所蔵する大谷探検隊将来壁画に対して、韓国国立中央博物館と東京文化財研究所と共同で調査研究が行われ<sup>10)</sup>、顔料の推定や技法について明らかにされました。2006年には国際文化財保存修復協力センター主催で、シルクロード絵画の保存・修復に特化した国際研究者集会が開催されました(2006年1月24日—26日)<sup>11)</sup>。その後、敦煌、アジャンター、タジキスタンとシルクロード沿線の遺跡の保存修復事業に力を注いできました<sup>12)</sup>。バーミヤーンの保存修復支援事業は現在も継続しておりますし、タジキスタンでのプロジェクトは一段落して、キルギスでの活動にシフトしています。

西トルキスタンでは創価大学の加藤九祚氏が中心になって考古発掘を行っています。加藤氏は第二次世界大戦中にシベリアに抑留された経験の持ち主で、帰国後抑留中に身に着けたロシア語

8) 神戸大学文学部美術史学・百橋研究室主催「敦煌・絲綢之路国際研討会」2012年8月20-21、神戸大学理学部Z103教室にて開催。

9) 独立行政法人文化財研究所国際保存修復協力センター他『アフガニスタン文化遺産調査資料集』第1巻～第5巻、2004年～2011年他。

10) 独立行政法人文化財研究所東京文化財研究所『大谷探検隊将来西域壁画の保存修復に関する総合研究』(解題番号: 14380052、平成14-16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2005年3月。

11) 文化財研究所東京文化財研究所文化遺産国際協力センター『シルクロードの壁画シルクロードの壁画—東西文化の交流を探る』2007、言叢社。

12)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研究所・敦煌研究院編『敦煌壁画の保護に関する日中共同研究』(2006、2007) 他;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研究所・インド考古局編『アジャンター壁画保存修復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2008)、『アジャンター遺跡の保存修復にむけた専門家会議』(2009)、『アジャンター壁画の保存修復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第2窟、第9窟壁画のデジタル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2012) 他;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研究所・タジキスタン共和国科学アカデミー歴史・考古・民族研究所編『タジキスタン国立博物館所蔵壁画断片の保存修復』(2008、2009、2010)、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研究所・タジキスタン共和国科学アカデミー歴史・考古・民族研究所編『アジナ・テバ仏教寺院考古学調査報告』(2006～2008)、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研究所・タジキスタン共和国科学アカデミー歴史・考古・民族研究所編『カライ・カフカハI遺跡出土壁画資料集』(2010) 等。

を駆使して、旧ソ連の考古発掘成果を日本語に翻訳して紹介する啓蒙活動を行い、後年自身でクラスナヤレーチカ、ダルベルジェンテパの発掘を行っています<sup>13)</sup>。創価大学からは、本年、ダルヴェルジンテパ仏教寺院址の発掘調査報告書が刊行されました<sup>14)</sup>。

歴史学、宗教学、言語学の成果にも目を配る必要があります。特に、シルクロードの商人とも称され、東西の交易を独占していたソグド人が中央アジア美術に果たした役割は大きく、今後注目を集める分野となるでしょう。昨年、『ソグド人の美術と言語』（臨川書店、2011年）<sup>15)</sup>が刊行されました。これは、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曾布川寛氏を中心になって主催した「人文研アカデミーの」講演会の内容をまとめたもので、一般向けの体裁をとっていますが、専門的な欲求にも充分答えた密度の濃い書籍で、今後の研究の基準となる1冊です。

中国やトルファンではソグド人を介してマニ教信仰が広まっていきましたが、近年、吉田豊氏の考察により日本でもマニ教絵画の発見と再解釈が行われ、7点のマニ教絵画が現存す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sup>16)</sup>。仏教絵画としてのみ解釈されてきた引路菩薩、六道図などにマニ教絵画として、あるいはその影響を想定すべきかもしれませんし、仏教絵画からマニ教絵画への影響も当然あったものと考えられます。中央アジアの仏教をよりよく理解するためにも他宗教へのまなざしを忘れてはなりません。

### 三 キジル石窟プロジェクト

次に、私が関わっているキジル石窟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ご存知のようにキジルは中国新疆ウイグル自治区拜城县にある仏教石窟寺院です。古代亀茲国領内には、22の石窟寺院の存在が知られていますが、キジル石窟は窟数236窟を数え、新疆最大規模を誇り、最も豪華で、宗教的、芸術的にみて価値高いもの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このプロジェクトは、日本学術振興会科学研究費、基盤研究（B）（研究代表者：佐藤一郎）の採択をうけて実施された研究です。すなわち、第一次キジルプロジェクト「シルクロード・キジル石窟壁画の材料・技法の研究」（2009－2011年）；第二次キジルプロジェクト「シルクロード：キジル壁画の絵画材料・絵画技術の研究」（2012－2014）です。

#### （1）日本におけるキジル石窟研究の流れ

まず、美術史を中心に日本におけるキジル石窟研究の流れをご紹介します。この内

13) 加藤九祚編『中央アジア北部の仏教遺跡の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Vol.4、1997年。

14) ウズベキスタン共和国科学アカデミー芸術学研究所、創価大学シルクロード研究センター『ダルヴェルジンテパ仏教寺院址』清水工房（揺籃社）、2012年。

15) 曾布川寛・吉田豊『ソグド人の美術と言語』臨川書店、2011年。

16) 泉武夫「景教聖像の可能性—栖霞寺藏伝虚空藏画像について—」『國華』2006年8号、pp. 7-17.；吉田豊「寧波のマニ教画 いわゆる「六道図」の解釈をめぐって」『大和文華』119、2009、pp. 3-15.；吉田豊「新出マニ教絵画の形而上」『大和文華』121、2010、pp. 3-34.等。

容は現在ベルリンのアジア美術館で開催されている「グリュンヴェーデルの足跡」(Auf Grünwedels Spuren)に寄稿したものです<sup>17)</sup>。

日本におけるキジル石窟研究は、大きく三つの世代に分けられます。すなわち、第一世代は、現地調査が不可能ながら国内外の探検隊の調査記録、研究書を丁寧に読み込み研究します。また、大谷コレクションを調査研究することで、現地調査が不可能な条件を埋めます。第二世代は、実物調査が可能になった世代です。利用できる情報、資料が格段に増え、地域相互の比較研究が充実しています。方法論的にもいろんな手法が試みられ、影響力も大きいです。現在のシルクロード研究を牽引している世代といえます。第三世代は、中国留学、欧米留学の経験者で、通訳を介さず直接中国人研究者と交流し、現地調査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諸経典の記述を手掛かりにしながら説話図の主題解釈を行う伝統的な図像解釈の方法を用いた研究の他に、実地調査によって得られた知見を重視し、これまでの手法によらないユニークな研究も出てきています。第一世代としては熊谷宣夫、松本栄一の両氏の研究を挙げることができます。第二世代としては、上野アキ、宮治昭、中野照男の三氏が挙げられます。第三世代は、筆者を含め以下の研究者がいます。すなわち、井上豪、森美千代、濱田珠美、檜山智美の四名が挙げられます。

このほかに注目すべき研究としては、東京農業大学の山部能宜氏が研究代表者となって行っている「デジタル画像復元技術を用いた中央アジアの禅観の研究」(研究課題番号21420014 2009年度～2011年度)があります。山部氏は観仏三昧海経の研究で知られる仏教学者であり、禅観をキーワードに研究を進めております。この研究では、キジルだけではなく、トゥルファン、トク石窟などでも調査が行われてします。中国との共同研究のため、詳細は中国国内での正式な成果発表ののちに公開されることと思われます。キジルを含め西域北道における禅観の流行の様相を知る重要な研究として位置づけられます。

中国人民大学国学院西域歴史語言研究院の荻原裕敏氏と北京大学の慶昭蓉氏は、中国の科研費を取得し、クチャ地域の石窟に残された銘文の記録と解説研究を精力的に進めており、研究の全貌が公開されればキジル研究を新たな段階に推し進め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

## (2) キジル壁画プロジェクト計画概要

### 研究の背景<sup>18)</sup>

研究の発端は、バーミヤーンの大仏破壊に象徴されるアフガニスタンにおける内乱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文化財破壊により、いかに破壊から立直り、民族の遺産ともいえる文化財を修復し後世に残していくのかという問題に直面したことから始まります。

研究代表者である佐藤一郎は、当時、東京芸術大学学長であった平山郁夫氏の指導のもと、

17) Toralf Gabsch/ Staatliche Museum zu Berlin(Hrsg.) *Auf Grünwedels Spuren: Restaurierung und Forschung an zentralasiatischen Wandmalereien*, Koehler & Amelang, 2012, pp.180–181 ; 「キジル研究の現在—キジル石窟の現場と日本におけるキジル研究を中心に—」『張愛紅シルクロード亀茲石窟壁画模写展覧会』東京芸術大学美術研究科油画技法材料研究室、2010年3月、pp.25–29。

18) 佐藤一郎「キジル石窟壁画—東京芸術大学プロジェクトにおけるバーミヤーンからキジル石窟研究の概要」『亀茲石窟保護と研究国際学術研究会論文集』新疆亀茲研究院編、2012年刊行予定。

2003年に東京芸術大学アフガニスタン文化支援調査団長として、アフガニスタンに赴き、カーブル博物館、バーミヤーンなどの文化財破壊状況の視察を行いました。2004-2005年には、アフガニスタン・バーミヤーンから内戦中に流出した壁画片を対象に文化遺産の保護活動、研究活動として、日本にもたらされた41点のバーミヤーン壁画片を対象に、東京芸術大学油画技法材料研究室を中心に開発してきた高精細デジタル撮影法による写真記録、紫外線・赤外線を用いた記録、特殊な画像合成による側光線撮影を行い、壁画片に後世加えられた改変等を明らかにしました。

さらに、これらの壁画片41点は、文部科学省科学研究費（研究代表者：木島隆康、2007-2009）および文化財保護・芸術研究振興財団からの助成により、将来的に安全に展示することができ、またアフガニスタンへ返却できるように、保存修復処置がなされました。これは、従来の方針とは異なり、脆弱な土壁部分であってもオリジナルな情報を含んでいるという観点から、その部分を削り落とさずに全体を補強するという斬新な修復方法を採用しました。そのために、宇宙開発分野等で注目を集めている三軸織物を特殊な加工を施したレーヨン素材で作成したものを利用しています。また、彩色についても、東京芸術大学の保存修復油画研究室と壁画研究室と共同により、制作された当初の彩色技術を復元する試みが行われています。

筑波大学の谷口陽子らにより、シンクロトロン放射光を使用した微小部の無機物質／有機物質の同時測定法を使用した中央アジアの壁画についての技法・材質自然科学的分析を行い、バーミヤーン仏教壁画の一部が、少なくとも7世紀半ばまで遡る、最古の油彩技法を採用していたことを明らかにしております。

中央アジアに見られる壁画は、もともとの岩盤である支持体に、スサを混ぜた粘土層を塗り重ね、顔料と水性媒剤を混ぜたものによって彩色されています。この技法は西洋の壁画技術である乾いた漆喰壁に水性絵具で描かれるセッコ技法に似ています。スサの混じった粘土層や地塗りの処方箋、下素描、転写の有無、彩色手順や構図法、絵画材料などについて、さらに調査研究が進展すれば、シルクロードにおける東西文化交流、絵画技術交流について明らかになることが期待できます。壁画片41点に関する調査研究は、バーミヤーンの、そして中央アジアの壁画研究について、非常に重要な出発点となっています。

以上、アフガニスタンの流出文化財に対して行ってきた研究の蓄積と研究・分析の手法をキジル千仏洞壁画に対しても応用し、絵画材料学、絵画技術史の観点から、キジル石窟壁画研究に一石を投ずることができればと、日本学術振興会による科学研究費（研究代表者：佐藤一郎、2009-2011）を取得し、調査研究を開始しました。

## 目的と方法

キジル石窟壁画およびベルリン・アジア美術館所蔵キジル石窟壁画片を対象に、高精細デジタル画像撮影を行い、それによって得られたデータをもとに以下の基層研究を行います。すなわち、①壁画に使用された絵画材料の自然科学的な調査・分析、②地塗り、彩色技法などの絵画技

術調査、および美術史的再解釈、③壁画の支持体、地塗り、絵画層まで含む彩色壁画復元、です。これらの調査研究を通して、シルクロードの絵画技術の観点から技術、文化、歴史的交流の様相を具体的に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ます。

### 組織

日本チームは東京芸術大学、筑波大学、名古屋大学の3つの研究機関の研究者によって組織されます。すなわち、

#### 壁画画像記録班

佐藤一郎（研究代表者、東京芸術大学油画技法材料研究室）

木島隆康（東京芸術大学保存修復油画研究室）

高精細デジタル画像（ノーマル、赤外線、紫外線、測光線による）

の作成、記録を行う。

壁画材質構造研究班 谷口陽子（筑波大学人文・文化学類）

壁画材質に関する自然科学的な調査

#### 壁画彩色復元班

工藤晴也（東京芸術大学壁画研究室）他

壁画が制作された当初の色彩を、その当時の材料、技法を用いて

復元する。

壁画様式研究班 中川原育子（名古屋大学文学研究科）

美術史の立場から様式研究の再検討、年代測定を行う。

現地の石窟を管理する亀茲研究院、ドイツのベルリン・アジア美術館、ならびにラトゲン研究所の研究員と共同でキジル壁画の材質技法について研究を行います。

### （3）第一次キジル壁画プロジェクトの経過

第一次キジル壁画プロジェクトの際には、新疆の情勢が不安定なことを受けて、海外との共同研究について、新疆に特化した法律改正が度重なり行われ、厳しい条件が課されなくなり、研究期間内に許可を得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以上のような理由から、第一次キジル壁画プロジェクトでは、キジル石窟での調査は予備的な段階にとどまっています。

そのかわりにベルリン・アジア美術館、およびラトゲン研究所と協定を結び、2010年から共同研究を行っております。キジルにおいて調査を希望している石窟に関連した6窟（007窟、013窟、038窟、171窟、207窟、224窟）のデジタル撮影を行いました。高精細デジタル画像データとしては、正常光線、側光線、赤外線、紫外線蛍光のデジタル画像データです。なお、側光線写真データと反転させた正常光写真データを重ね合わせ、壁画片表面の凹凸だけを抽出した画像

データも作成しました。撮影した画像データは、ドイツ側にもすべて渡しております。その成果は、ベルリン・アジア美術館で開催中の特別展「グリュンヴェーデルの足跡」の展覧会カタログに一部公開されました<sup>19)</sup>。アジア美術館に所蔵される壁画のうち、08窟(III8425)、038窟(III8700)、171窟(III8793、III8891)、207窟(III9148b(d))、224窟(III8865(a))の壁画片から各1箇所ずつ、6点の蘘スサ試料を採取しました。採取した試料は、将来的に得られた結果を相互に比較検討するため、2分割してドイツと日本においてそれぞれ測定を行うこととしました。

以上の調査の過程で、以下の問題が明らかとなりました。

### 年代測定

測定は、名古屋大学年代総合研究センターで行い、6点の試料のうち、カーボンの含有量の多い3つのサンプルを測定し、次のような結果を得ることができました<sup>20)</sup>。得られた値(a)と比較するために、過去に名古屋大学の調査によってキジル石窟から採取した試料の測定結果(b, c)も合わせて参照しました。今回の測定結果(a)では、 $\pm 1-\sigma$ において、第8窟でcal AD128~216年、第171窟でcal AD255~306年およびcal AD 312~342年、第224窟で90~70 cal BCおよび60 cal BC~cal AD 2年の較正年代値が得られました。中国、ドイツで測定された放射性炭素年代の結果と比較すると、第8窟は6世紀~7世紀、第171窟は4世紀~6世紀、第224窟は3世紀~6世紀であり、今回測定した3点すべてが数百年古い年代を示す結果となりました。とくに、第224窟の年代は紀元前にまで遡り、従来の年代観と大きな齟齬が生じました。

従来の中央アジアの壁画下塗り層に含まれる蘘スサを用いた年代測定と比較して、キジル壁画に含まれる蘘スサ等の植物繊維を用いた放射性年代測定では、年代値に大きなばらつきがみられるだけではなく、場合によっては美術史、考古学の編年よりも数百年古く遡る値が得られる場合がある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これは、今回の測定に限ったものではなく、中国、ドイツによる放射性炭素年代測定にも同様の傾向がみられることがわかっています。この不確実性が、キジル研究において美術史や文化史のなかで放射性炭素年代測定の結果を素直に採用してこなかった原因ともなっ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今まで名古屋大学年代測定総合研究センターにおいて同じ手法を用いて測定を行ったバーミヤーンや敦煌莫高窟壁画の事例では、このような年代が古く得られるような傾向は全く見られませんでした。つまり、古い年代が得られるということは、キジル壁画に見られる特徴のひとつと考えられます。

現段階で想定される要因は、1. 美術館所蔵の資料がなんらかの改変によるコンタミネーションを受けている、2. 壁画が描かれた時期より数百年古い蘘スサを材料として使用している、3. 古い下塗り層の上に、後世壁画を描いている、4. 壁画の年代が実際に古い可能性がある、と

19) Op.cit., Toralf Gabsch/ Staatliche Museum zu Berlin(Hrsg.)2012.

20) 中川原育子、谷口陽子、佐藤一郎、中村俊夫「ベルリン・アジア美術館所蔵のキジル将来壁画の放射性炭素年代」『名古屋大学加速器質量分析計業績報告書』(XXIII)、2012年3月、pp.127-137.



いったものが挙げられます。今回は3試料のみの測定から得られた値であり、キジルの年代全体について、何がしかの統一した見解を打ち出すということは当然不可能です。今回測定した試料にはいわゆる「第1様式」の壁画資料が含まれていませんが、研究の進展によっては既存の学説である「第1様式」が「第2様式」より古いというパラダイム自体を再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ます。

### 箔の使用

バーミヤーンでは、金箔部分を規則的に削り取った凹みの存在と金箔の代用として金属箔が使用された事例が報告されていますが、キジルにおいてはより広範囲に規則的に削り取った凹みの存在と金箔と金属箔の使用痕跡が確認されました。探検隊によって切り取られた切除痕は、支持体の岩盤にまで鑿跡が生々しく残されていますが、それとは異なった削り取りの箇所です。そこには規則性がみられ、菩薩や天人たちの装身具など、文字通り金製品の表現として使用された部分と仏陀の衣や光背部分に見られます。金箔、金属箔が使用されている窟は、青の顔料として使用されているラピスラズリの純度が高く、また王侯供養者像が描かれていることが多いという特徴があります。背景に王家が積極的に資材を投じて、金箔、金属箔、ラピスラズリなど高価な材料を用いて描かせたことを窺わせます。

### 毛髪の色としての黒と壁画様式

現在黒く見える場所は、1. 本来は黒ではなく、赤、緑、黄色の変色の結果黒に見える、2. 黒色として用いられた“黒”、が考えられます。今回の調査で明らかになったのは、黒色として用いられたが、現在は経年の劣化によって消えてしまう、もう一つの黒、いわゆる“消える黒”が確認されたことです。この“消える黒”についてみていくと、絵画様式と関係があることがわかってきました。すなわち、第1様式の壁画では、黒髪に用いられている黒は、はっきりと残るのに対し、第2様式の壁画では“消える”という点です。たとえば、第2様式のキジル壁画において、黒色が塗られていたと推測される天人や国王の髪の一部は、劣化によって本来の黒色が退色し、顔料の下の下地層の色が見えています。これに対し、第1様式の壁画では、天人の黒い髪の色は黒々としており、第2様式のように“消える”黒は使用せず、“消えない”黒を使用しています。

黒色顔料の種類については、成分分析によって今後明らかになると思いますが、このような“消える黒”は敦煌莫高窟最初期窟から、北魏、西魏、北周、隋頃まで見られます。つまり、“消える黒”という一部の顔料について、キジル第2様式と敦煌の初期窟（北魏～隋）で共通して使用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今後、第2様式の画工集団と敦煌莫高窟の初期窟の画工集団との交流、ないし移動の問題も視野に置いて検討すべき課題と思われます。

### 第1様式の画工集団と第2様式の画工集団の共同制作の可能性

現在、ベルリン・アジア美術館で、Auf Grünwedels Spuren（グリュンヴェーデルの足跡）と

いう、グリュンヴェーデルの業績と保存修復に焦点を当てた展覧会が開催されています（2011年12月～2012年12月末）。その中で、アジア美術館に所蔵されるキジル第8窟から切り取ったことが判明した壁画のほとんどが展示されました。1983年に日中共同出版の『中国石窟 キジル石窟』において第77窟とされていた壁画<sup>21)</sup>や地下のスタディ・ルームに展示され、どの石窟から将来されたか長らく不明であった壁画が、第8窟のものとして初めて公開されました。

その中の2枚、IB8642 (ca.238×504cm)、IB8837 (ca.180 ×106cm) は第8窟後廊の天井と側壁上部から切り取られたもので、子細に観察した結果、第1様式のスタイルで壁画を描く画家と第2様式のスタイルで描く画家とが共同で一枚の壁画を描いていることに気づきました。

たとえば、IB8642の壁画は釈迦の涅槃に参集した諸天讃嘆図と天象図を描いているのですが、天人たちの肌の色は白、グレー、濃い褐色に塗られ、人体の立体感を出すためにレッド・オーカーで隈取を施しています。ラピスラズリが用いられているので、典型的な第2様式の壁画とみなすことができますが、左下の天人の風貌を見ると、顔の輪郭は丸く、目、鼻は顔の中央に集められ、丸くふっくらとした唇、黒く塗られた髪表現は、第1様式の壁画として典型的なキジル第77窟、第207窟の天人の顔と類似しています。一方身体は重量感たっぷりに描かれ第2様式の画法と容易に判断できますが、頭部は第1様式で描かれ、そのせいか人体と頭部の接続もやや不自然な感じがします。このことから、首から上の部分だけを第1様式の画家が描き、そのほかは第2様式の画家が描いた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以上のことから、第8窟において、中心的に絵画を仕上げていた画家たちは、第2様のスタイルをもったグループといえますが、部分的に第1様式の画家のグループがかかわ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

#### 四 まとめ 今後の課題と展望

私自身がかかわるキジル壁画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紹介してきました。なによりも、望まれるのはキジルの現地での調査です。美術館に収められている壁画は後世に加えられた保存処理の影響をどうしても蒙っています。できるだけ手が加わっていないオリジナルの壁画の調査を実現したい。

このような共同研究で何よりも大切なのは、各国の研究グループが対等な立場で、作業を分担し、相互に協力し、共同でプロジェクト研究を完成させることです。専門性を持った（言語学、歴史学、宗教学、考古学、技法・材質学、保存科学、美術史学等）複数の集団が、それぞれの得意分野を生かし相互に情報交換と技術協力、技術移転を行い、後継者を育て、継続的に研究を進めることがこの領域の研究にとって何よりも望まれることと思います。今後の展開に期待したい。

21) 文物出版社、平凡社編『中国石窟 キジル石窟』第3巻、1985年、図189。

## 일본 실크로드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키질프로젝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나카가와라 이쿠코 | 일본 나고야대학 문학연구과 조교

### 1. 들어가며

본 발표자가 소개할 테마는 일본의 실크로드 연구이다. 고고학, 역사학, 문화 인류학, 종교학, 문예학 등과 같은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시야에 넣은 정리는 발표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주최 측의 의향에 따라, 전반은 일본의 실크로드 연구의 흐름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고 후반은 현재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키질 벽화 프로젝트에 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 2. 일본 실크로드 연구의 전반적 동향

일본의 실크로드 연구는, 20세기 초두의 오오타니(大谷) 탐험대의 조사와 그 수집품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중일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중국 내에서의 조사가 불가능한 시기가 얼마간 계속되어, 대신에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전쟁 전 운강석굴(雲岡石窟)을 조사하였던 교토대학 인문과학 연구소(京都大学 人文科学研究所)는 1959년부터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의 간다라 유적, 바미안 석굴에 대한 고고발굴 조사와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sup>1)</sup> 발표자가 소속된 나고야 대학도 1964년과 68년에 바미안 석굴을 조사하였다.<sup>2)</sup>

중전 후 20년 이상 중국과의 교류가 없었지만, 1972년 9월 29일 중국과 일본 간에 국교가 성립된다. 하지만 이 시기는 문화혁명기였던 관계로, 연구 교류가 활발해진 것은 1977년 문화혁명이 일단락된 이후가 된다. 1980년대 초기에는 중국과 일본의 공동 출판으로 중국 석굴 시리즈가 간행되어, 중국의 최신 석굴 연구가 일본어로 번역 소개되었다.<sup>3)</sup> 일본인 연구자의 중국 방문도 점증하였고 중국으로 유학하는 학생이나 젊은 연구자도 나타나게 된다. 1980년대 후반에는 중국 신강(新疆) 考古局과 일본 佛教大学이 合意書を 교환하여, 国家文物局의 허

1) 京都大学 人文科学研究所, 『シルクロード発掘70年—雲岡からガンダーラまで—』, 京都大学総合博物館2008年秋季企画展図録, 2008年. 연구 보고서 개요 보고에 관해서는 상계서 pp. 102-103 참조.

2) 카시와세 세이이치로(柏瀬 清一郎), 「バーミヤン35メートル大仏の仏龕大構図の図像について」『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No. 42, 1966, pp. 61-76. 카시와세 세이이치로, 「バーミヤンN洞発見報告」『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No. 45, 1967, pp. 93-120. 『バーミヤン—1969年度の調査—』, 名古屋大学, 1971年.

3) 『中国石窟』文物出版社, 平凡社, 全 17卷(敦煌莫高窟, 鞏鼎石窟寺, キジル石窟, クムトラ石窟, 龍門石窟, 麦積山石窟, 雲岡石窟, 炳靈寺石窟, 安西榆林窟), 1980年11月~1990年10月.

가를 얻어 니야(尼雅) 유적의 발굴과 공동 연구를 시행하기까지 하였다.<sup>4)</sup> 이제는 중국 신강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는 당연시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일본에서는 ‘실크로드’라고 하면 불교나 중국과 연결되는 이미지가 강하다. 실제로 오오타니 탐험대는 니시 혼간지(西本願寺)의 주지(문주 門主)였던 오오타니 코우주이(大谷光瑞) 선생에 의해 조직된 것이고, 앞서 서술한 중일 공동 연구가 시행된 배경에는 실크로드 문화재에 정열을 기울였던 불교 승려 코지마 야수타카(小島康譽) 선생<sup>5)</sup>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도 유명한 이야기다.

니시 혼간지의 학림(學寮)에서 출발한 류우코쿠 대학(龍谷大学)은 대학의 특성을 살려 실크로드 연구의 거점으로서 오오타니 탐험대에 관한 종합적 연구, 서역 문화 연구의 신국면이라는 테마로 조사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sup>6)</sup> 최근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2011년 9월 8일에 개최된 국내 심포지엄 「오오타니 탐험대를 중심으로 한 신 연구(大谷探検隊をめぐる新研究)」에서 배포된 것으로 이리사와 타카시(入澤孝) 선생이 작성한 자료이다.

2002년부터 旅順博物館과 공동연구 시작.

2004년부터 국제 돈황 프로젝트(IDP) 일본 지부로서 활동 개시.

2004년부터 불교의 서점(西漸)에 관한 조사 시작.

2009년부터 오오타니 탐험대 몽고 조사에 대한 검증 개시.

2010년부터 아시아불교문화연구센터(UNIT 2 중앙아시아 지역반) 시동.

2011년 류우코쿠 박물관 개관.

특히 주목할 점은, 2010년부터 시작된 아시아불교문화연구센터(문부과학성 사립대학 전략적 연구기반형성 지원 사업)의 활동이다. 이 센터는 불교 전파의 지리적, 역사적 실태에 맞추어 3 유닛으로 나뉘어, 각 유닛 별로 해외 조사를 시행하여 국내 심포지엄, 국제 심포지엄, 워크숍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sup>7)</sup>

류우코쿠 대학의 활동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돈황 회화를 전문으로 하는 도노하시 아키호

4) 中日共同 尼雅遺跡 學術考察隊 (佛敎大學アジア宗教文化情報研究所, 佛敎大學ニヤ遺跡學術研究機構)編 『中日・日中共同尼雅遺跡學術調査報告』全 3巻, 1996年—2007年. 佛敎大學アジア宗教文化情報研究所, 佛敎大學ニヤ遺跡學術研究機構 編 『中日・日中共同丹丹烏里克遺跡學術調査報告』, 2007年.

5) 코지마 야수타카(小島康譽), 「新疆での世界的文化遺産保護研究事業と国際協力の意義—キジル・ニヤ・ダンダンウイリク—」 『佛敎大學宗教文化ミュージアム研究紀要』 第7号, 佛敎大學宗教文化ミュージアム, 平成23年, pp.63-164.

6) 龍谷大學アジア仏敎センター HP, URL: <http://barc.ryukoku.ac.jp/outline/>, 2011年度 第1回 国内シンポジウム, 「大谷探検隊をめぐる新研究」 2011年度活動報告.

7) 국내 심포지엄으로서는 「중앙아시아에서의 불교와 異宗教의 교류」(2011년2월26일), 「大谷探検隊をめぐる新研究」(2011년9월8일), 「美術과 文献을 통해 본 간다라 불교」(2012년7월15일) 등이 개최되었고, 국제 심포지엄으로서는 「중앙아시아 출토 불교사본」(2011년10월10-11일), 「大仏 파괴로부터 10년, 世界遺産 바미얀 유적의 現状 과 未来」(2011년12월11일, 龍谷ミュージアム, 東京文化財研究所, 奈良文化財研究所共催)가 개최되었다. 올 11월에는 「국제 심포지엄 실크로드의 불교문화-간다라-쿠차-투르판」(2012년11월3일~5일)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百橋明穂) 선생을 중심으로 한 코우베 대학(神戸大学)의 활동이 있다. 이는 하나의 연구기관과 장기간에 걸쳐 교류를 계속해 온 케이스이다. 올해 8월, 코우베 대학과 란저우 대학(蘭州大学)을 중심으로 한 10여년에 걸친 중일 교류의 집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심포지엄 「돈황·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敦煌・絲綢之路國際研討會)」가 코우베 대학에서 개최되었다.<sup>8)</sup> 敦煌研究院 원장인 樊錦詩 선생을 비롯하여 란저우 대학의 젊은 연구자와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우베 대학의 미학미술사(美学美術史) 출신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연구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의 경향과는 다른 새로운 시점에서의 발표가 많았다. 대회에 참가한 양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상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대단히 활기 넘쳤던 점이 인상 깊다. 올해 코우베 대학을 정년퇴직하게 되는 도노하시 선생은, 돈황과 당나라 시대 호탄 회화와의 관계, 張彦遠의 『歷代名畫記』에 기술되어 있는 호탄 출신 웃치파(尉遲派) 화법의 실태 해명 등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 간다고 한다.

종래의 실크로드 연구는 중국 신장이나 간다라·아프가니스탄을 대상으로 하여, 역사학, 종교학, 고고학, 미술사학이 중심이 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최근 理化学 수법을 도입한 문화재의 보존·복구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귀중한 문화유산인 유적이거나 유물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자체의 재질이나 특질, 기법에 관한 바른 정보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이화학 수법을 사용한 비파괴, 혹은 극소량의 샘플 분석을 통한 해명 결과를 보존·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경 문화재 연구소에서는 2003년부터 바미얀 유적의 보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아프가니스탄 문화유산 조사 자료집으로 간행되었다.<sup>9)</sup> 또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동경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오타니 탐험대가 가져온 벽화에 대한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동경 문화재 연구소 간의 공동 조사 연구로<sup>10)</sup>, 안료의 추정이나 기법이 명백히 드러났다. 2006년에는 국제 문화재 보존·복구협력센터의 주최로 실크로드 회화의 보존·복구를 전문으로 한 국제 연구자 집회가 개최되었다(2006년 1월 24-26일).<sup>11)</sup> 이후, 돈황, 아잔타, 타지키스탄과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지역의 유적에 대한 보존·복구사업에 힘을 기울여 왔다.<sup>12)</sup> 바미얀의 보존·복구 지원 사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8) 神戸大学文学 部美術史学 百橋研究室 主催 「敦煌・絲綢之路國際研討會」 2012年8月20-21, 神戸大学 理学部 Z103 教室에서 開催.

9) 独立行政法人 文化財研究所 國際保存修復協力センター 他 『アフガニスタン文化遺産調査資料集』 第 1 卷~ 第 5 卷, 2004年~2011年 他.

10) 独立行政法人 文化財研究所 東京文化財研究所 『大谷探検隊 将来 西域壁画の保存修復に関する総合研究』 (解題番号: 14380052, 平成14-16年度 科学研究費 補助金基盤研究(B), 2005年3月.

11) 文化財研究所 東京文化財研究所 文化遺産 國際協力センター 『シルクロードの壁画・シルクロードの壁画—東西文化の交流を探る』, 2007, 言叢社.

12) 独立行政法人 國立文化財機構 東京文化財研究所・敦煌研究院 編 『敦煌壁画の保護に関する日中共同研究』 (2006,2007) 他: 独立行政法人 國立文化財機構 東京文化財研究所・インド考古局 編 『アジャンター壁画保存修復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 (2008), 『アジャンター遺跡の保存修復にむけた専門家会議』 (2009), 『アジャンター壁画の保存修復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第 2 窟, 第 9 窟壁画のデジタル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 (2012) 他: 独立行政法人 國立文化財機構 東京文化財研究所・タジキ스탄共和国 科学アカデミー歴史・考古・民族研究所 編 『タジキ스탄国立博物館所蔵壁画断片の保存修復』 (2008, 2009, 2010), 独立行政法人 國立文化財機構 東京文化財研究所・タジキ스탄共和国 科学アカデミー歴史・考古・民族研究所 編 『アジナ・テパ仏教寺院考古学調査報告』 (2006~2008), 独立行政法人 國立文化財機構 東京文化財研究所・タジキ스탄共和国 科学アカデミー歴史・考古・民族研究所 編 『カライ・カフカハI 遺跡出土壁画資料集』 (2010) 등.

타지키스탄에서의 프로젝트는 일단락되어 키르기스탄에서의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 투르키스탄에서는 소우카 대학(創価大学)의 카토우 큐우쥔(加藤九祚) 선생이 중심이 되어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토우 선생은 제 2차 세계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된 경험이 있어, 귀국 후 억류 중 익힌 러시아어를 구사하여 舊 소련의 고고학 발굴 성과를 일본어로 번역·소개하는 계몽활동을 벌였으며, 후에는 직접 쿠라스나야레치카, 다르벨젠테파 발굴을 시행하였다<sup>13)</sup>. 소우카 대학은 올해, 다르벨젠테파 仏教 寺院址 발굴조사 보고서를 간행하였다.<sup>14)</sup>

역사학, 종교학, 언어학에서의 성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실크로드의 상인’이라고도 일컬어지며 동서 교역을 독점해 왔던 소그드 인이 중앙아시아 미술에 끼친 영향은 큰 바, 이후 주목을 받는 분야가 될 것이다. 작년 『소그드인의 미술과 언어』(臨川書店, 2011年)<sup>15)</sup> 간행되었다. 이것은 교토대학 인문과학 연구소 소후카와 히로시(曾布川寛) 선생이 중심이 되어 주최한 「人文研 아카데미」 강연회의 내용을 모은 것으로, 비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전문적인 욕구에도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충실한 내용의 서적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기준이 되는 책이다.

중국이나 투루판에서는 소그드인을 통한 마니교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최근 요시다 유타카(吉田豊) 선생의 고찰에 의해 일본에서도 마니교 회화의 발견이나 재해석이 이루어져, 7점의 마니교 회화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sup>16)</sup> 불교 회화로만 해석되어 왔던 引路菩薩, 六道図 등에 대한 마니교 회화로서 혹은 그 영향을 상정해야 할지도 모르며, 불교 회화의 마니교 회화에의 영향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아시아 불교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타 종교에 대한 시선을 잊어서는 안 된다.

### 3. 키질 석굴 프로젝트

다음으로 본 발표자가 관계하고 있는 키질 석굴 프로젝트에 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키질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배성현에 있는 불교 석굴사원이다. 고대 쿠차국(龜茲) 영내에는 22개의 석굴사원의 존재가 알려져 있는데, 총 236개의 굴로 구성된 키질 석굴은 신장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가장 호화롭고 종교적, 예술적으로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 학술진흥회 과학연구비, 기반연구(B)[대표 연구자: 사토우 이치로우(佐藤一郎)]의 채택을 받아 실시된 연구이다. 즉, 제 1차 키질 석굴 프로젝트

13) 加藤九祚 編 『中央アジア北部の仏教遺跡の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 Vol.4, 1997年.

14) ウズベキスタン共和国科学アカデミー芸術学研究所, 創価大学シルクロード研究センター 『ダルヴェルジン테パ仏教寺院址』清水工房(揺籃社) 2012年.

15) 소후카와 히로시(曾布川寛)·요시다 유타카(吉田豊) 『ソグド人の美術と言語』臨川書店, 2011年.

16) 이주미 타케오(泉武夫), 「景教聖像の可能性—栖雲寺藏伝虚空藏画像について—」『國華』2006年 8号, pp. 7-17.  
요시다 유타카(吉田豊), 「寧波のマニ教画, いわゆる「六道図」の解釈をめぐる」『大和文華』119, 2009, pp. 3-15. ; 吉田豊, 「新出マニ教絵画の形而上」『大和文華』121, 2010, pp. 3-34. 등.

「실크로드·키질 석굴 벽화의 재료·기법 연구(シルクロード・キジル石窟壁画の材料・技法の研究)」(2009-2011년); 제 2차 키질 석굴 프로젝트 「실크로드: 키질 벽화의 회화 재료·회화 기술 연구(シルクロード:キジル壁画の絵画材料・絵画技術の研究)」(2012-2014년)이다.

### (1) 일본 키질 석굴 연구의 동향

우선 미술사를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키질 석굴 연구의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현재 베를린의 아시아 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그륄베델의 족적(Auf Grünwedels Spuren)」에 기고한 것이다.<sup>17)</sup>

일본의 키질 석굴 연구는, 크게 3 세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 1세대는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여 국내외 탐험대의 조사기록, 연구서를 꼼꼼히 읽어가며 연구하는 세대이다. 또한 오오타니 컬렉션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불가능한 현지조사와의 차이를 메꾼다. 제 2세대는 실물조사가 가능하게 된 세대이다. 이용 가능한 정보, 자료가 현격하게 증가하여 지역 상호간의 비교연구가 충실하다. 방법론적으로도 다양한 수법이 시도되어 영향력도 크다. 현재의 실크로드 연구를 견인하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제 3세대는 중국유학, 구미유학의 경험자로, 통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중국인 연구자와 교류하고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는 세대이다. 제 경전의 기술을 실마리로 설화도(說話図)의 주제 해석을 시행하는 전통적인 도상 해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 외에, 실지조사에 의해 획득한 식견을 중시하여 지금까지의 수법에 의존하지 않는 독특한 연구도 나오고 있다. 제 1세대로서는 쿠마가이 노부오(熊谷宣夫), 마즈모토 에이이치(松本栄一) 선생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제 2세대로서는 우에노 아키(上野アキ), 미야지 아키라(宮治昭), 나카노 테루오(中野照男) 선생을 들 수 있다. 제 3세대는, 발표자를 포함해서 이노우에(井上豪), 모리 미치요(森美千代), 하마다 타마미(濱田珠美), 히야마(檜山智美) 등의 연구자들이다.

그 밖의 주목할 만한 연구로서는, 東京 農業大学の 야마베 노부요시(山部能宜) 선생이 대표 연구자가 되어 행하고 있는 「디지털 화상 복원 기술을 이용한 중앙아시아 禪觀 연구」(研究課題番号 21420014, 2009년도~2011년도)가 있다. 야마베 선생은 觀仏三昧海經의 연구로 유명한 불교학자로, 禪觀을 키워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키질뿐만 아니라 투르판의 토욕 석굴 등에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과의 공동 연구인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중국 국내에서의 정식 성과 발표회가 있는 후에 공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키질을 포함한 서역 북도에서의 禪觀 유행의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중국 인민대학 국학원 서역 역사언어 연구원의 오기와라(荻原裕敏) 선생과 북경대학의 慶昭蓉 선생은 중국의 과학연구비를 취득하여 쿠차 지역의 석굴에 남아 있는 명문(銘文)의 기

17) Toralf Gabsch/ Staatliche Museum zu Berlin(Hrsg.) *Auf Grünwedels Spuren: Restaurierung und Forschung an zentralasiatischen Wandmalereien*, Koehler & Amelang, 2012, pp.180-181 「キジル研究の現在—キジル石窟の現場と日本におけるキジル研究を中心に—」『張愛紅シルクロード亀茲石窟壁画模写展覧會』東京芸術大学 美術研究科 油画技法材料 研究室, 2010年3月, pp.25-29.

록과 해독 연구에 매진하고 있어 연구의 전모가 공개되면, 키질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 (2) 키질 벽화 프로젝트 계획의 개요

### 연구의 배경<sup>18)</sup>

연구의 발단은, 바미얀 대불파괴로 상징되는 아프가니스탄 내의 문화재 파괴로부터, 어떻게 그 파손을 극복하고 민족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를 복구하여 후세에 남길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 점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표 연구자인 사토우 이치로우(佐藤一郎)는, 당시 동경 예술대학 학장이었던 히라야마 이쿠오(平山郁夫) 선생의 지도하에, 2003년에 동경 예술대학 아프가니스탄 문화지원 조사단장으로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 카불 박물관, 바미얀 등의 문화재 파괴 상황을 시찰한다. 2004-2005년에는, 아프가니스탄·바미얀으로부터 내전 중 유출된 벽화 조각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활동,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일본으로 옮겨진 41점의 바미얀 벽화 조각을 대상으로 동경 예술대학 유화 기법 재료 연구실을 중심으로 개발한 고정밀 디지털 촬영법에 의한 사진 기록, 자외선·적외선을 사용한 기록, 특수한 화상 합성에 의한 측광선 촬영을 실시하여 벽화 조각에 후세에 가해진 改変 등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이들 벽화 조각 41점은, 문부과학성 과학연구비(대표연구자: 키지마 타카야수(木島隆康), 2007-2009) 및 문화재 보호·예술연구진흥재단으로부터의 조성에 의해 장래 안전하게 전시할 수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반환될 수 있도록 보존·복구처리가 이루어졌다. 이는 종래의 방침과는 다른 것으로, 취약한 토벽 부분이라 할지라도 원형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 부분을 깎아 내지 않고 전체를 보강하는 참신한 복구 방법을 채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주 개발 분야 등에서 주목 받고 있는 三軸 직물을, 특수 가공을 통해 레이온 소재로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색채에 관해서도, 동경 예술대학의 보존복구 유화연구실과 벽화연구실이 공동으로, 제작 당시의 색채 기술을 복원하고자 시도 하고 있다.

츠쿠바 대학(筑波大学)의 타니구치 요우코(谷口陽子) 등의 연구자가, 중앙아시아 벽화에 대해 싱크로트론 방사광을 사용한 微小部の 무기·유기 물질 동시 측정법을 사용하여 그 기법·재질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바미얀 대불 벽화의 일부가 적어도 7세기 중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유채 기법을 채용하고 있던 점이 분명해 졌다.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벽화는, 애초 岩盤인 支持体에 풀(草)등의 재료를 혼합한 점토층을 덧발라 안료와 수성 媒劑를 혼합한 물감으로 칠한 것이다. 이 기법은 서양의 벽화 기술인 회반죽을 바른 벽에 수성 그림도구로 그린 세코(Secco) 기법과 비슷하다. 풀 등의 재료를 넣은 점토층이나 바닥칠의 처리법, 기초 소묘, 전사(轉写) 유무, 채색 순서나 구도법, 회화 재료

18) 佐藤一郎, 「キジル石窟壁画-東京藝術大学プロジェクトにおけるパーミヤーンからキジル石窟研究の概要」『亀兹石窟保護与研究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新疆龟兹研究院編, 2012年 간행 예정.



등에 관해 조사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실크로드에서의 동서문화 교류, 회화기술 교류에 관해 드러날 점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벽화 조각 41점에 관한 조사 연구는 바미얀, 그리고 중앙 아시아 벽화 연구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상, 아프가니스탄 유출 문화재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의 축적과 연구·분석 방법을 키질 천 불동 벽화에 대해서도 응용하여 회화 재료학, 회화 기술사의 관점에서 키질 석굴 벽화 연구에 과문을 불러일으키길 바라며, 일본 학술진흥회로부터 과학 연구비(대표연구자: 사토우 이치로우, 2009-2011)를 취득하여 조사연구를 개시하였다.

### 목적과 방법

키질 석굴 벽화 및 베를린·아시아 미술관 소장 키질 석굴 벽화 조각을 대상으로 실시된 고정밀도 디지털 화상 촬영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기층 연구를 시행한다. 즉, 1. 벽화에 사용된 회화 재료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조사·분석, 2. 바닥칠, 색채 기법 등의 회화 기술 조사 및 미술사적 재해석, 3. 벽화의 지지체, 바닥칠, 회화층까지 포함한 채색 벽화 복원이다. 이 같은 조사 연구를 통해, 실크로드의 회화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기술, 문화, 역사적 교류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조직

일본 팀은 동경 예술대학, 츠쿠바 대학, 나고야 대학의 3개 연구 조직에 소속된 연구자들로 구성된다. 즉,

#### 벽화 화상 기록반

사토우 이치로우(佐藤一郎)(대표 연구자, 동경 예술대학 유화기법 재료 연구실)

키지마 타카야수(木島隆康)(동경 예술대학 보존복구 유화연구실)

고정밀도 디지털 화상(일반, 적외선, 자외선, 측광선에 의한)의 작성, 기록.

#### 벽화 재질 구조 연구반

타니구치 요우코(谷口陽子) (츠쿠바 대학 인문·문화학류)

벽화 재질에 관한 자연과학적 조사

#### 벽화 채색 복원반

쿠도 하루야(工藤晴也) (동경 예술대학 벽화 연구실) 외

벽화가 제작될 당시의 색채를 그 당시의 재료, 기법을 사용하여 복원.

#### 벽화 양식 연구반

나카가와라 이쿠코(中川原育子)(나고야 대학 문학연구과)

미술사의 입장에서 양식 연구를 재검토, 연대 측정을 실시.

현재의 석굴을 관리하고 있는 亀茲 研究院, 독일의 베를린·아시아 미술관, 그리고 라트젠

연구소의 연구인과 공동으로 키질 벽화의 재질 기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

### (3) 제 1차 키질 벽화 프로젝트의 경과

제 1차 키질 벽화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는, 신강의 정세가 불안정하여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에 있어 신강지역에 특화된 특별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여러모로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어 연구기간 내에 허가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제 1차 프로젝트는 키질 석굴에 대한 예비 조사 단계에 머물렀다.

대신, 베를린·아시아 미술관 및 라트겐 연구소와 협정을 맺어 2010년부터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키질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석굴과 관련된 6개의 굴(007, 013, 038, 171, 207, 224굴)에 대한 디지털 촬영을 실시하였다. 고정밀도 디지털 화상 데이터로서는, 정상 광선, 측광선, 적외선, 자외선 형광 디지털 화상 데이터이다. 한편, 측광선 사진 데이터와 반전시킨 정상광 사진 데이터를 중첩시켜, 벽화 조각 표면의 요철만을 추출한 화상 데이터도 작성하였다. 촬영한 화상 데이터는 독일 측에도 모두 전달되었다. 그 성과는 베를린·아시아 미술관에서 개최 중인 특별전 「그뤼네베델의 족적」의 전람회 카탈로그에 일부가 공개되었다.<sup>19)</sup> 아시아 미술관에 소장되는 벽화 중, 08굴(III 8425), 038굴(III 8700), 171굴(III 8793, III 8891), 207굴(III 9148b(d)), 224굴(III 8865(a))의 벽화 조각에서 각기 1곳 씩, 6점의 짚여물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앞으로 얻게 될 결과를 상호 비교 검토하기 위해, 이분하여 독일과 일본에서 각각 측정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의 점들이 분명해졌다.

### 연대 측정

측정은 나고야 대학 연대 종합연구 센터에서 실시되어, 6점의 시료 중 카본 함유량이 많은 3개의 샘플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sup>20)</sup> 획득한 수치(a)와 비교하기 위해서 과거 나고야 대학의 조사를 통해 키질 석굴에서 채취한 시료의 측정 결과(b,c)도 함께 참조하였다. 이번 측정 결과(a)에서는  $\pm 1-\sigma$ 에 있어서, 제 8굴에서 cal AD 128~216년, 제 171굴에서 cal AD 255~306년 및 cal AD 312~342년, 제 224굴에서 90~70 cal BC 및 60 cal BC~cal AD 2년의 교정 연대치를 얻었다. 중국, 독일에서 측정된 방사성탄소연대의 결과와 비교하면, 제 8굴은 6世紀~7世紀, 제 171굴은 4世紀~6世紀, 제 224굴은 3世紀~6世紀로, 이번에 측정한 3점 모두가 수백 년 오래된 연대를 나타내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제 224굴의 연대는 기원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종래의 年代觀과 크게 차이가 난다.

중앙아시아 벽화의 초벌칠 층에 포함된 짚여물을 사용한 종래의 연대측정과 비교해서, 키질 벽화에 포함된 짚여물 등의 식물 섬유를 사용한 방사성연대측정에서는 年代値에 편차가 클

19) Op.cit., Toralf Gabsch/ Staatliche Museum zu Berlin(Hrsg.) 2012.

20) 中川原育子, 谷口陽子, 佐藤一郎, 中村俊夫 「ベルリン・アジア美術館所蔵のキジル将来壁画の放射性炭素年代」 『名古屋大学加速器質量分析計業績報告書』(XXIII), 2012年 3月, pp.127-137.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미술사, 고고학의 編年보다도 수백 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수치가 얻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번 측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독일에 의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다. 이 불확실성이, 키질 연구에 있어서 미술사나 문화사에서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고야 대학 연대측정 종합연구센터가 같은 수법으로 측정을 실시하였던 바미얀이나 돈황 막고굴 벽화의 경우에는, 이 같이 오래된 연대치가 얻어지는 경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오래된 연대가 측정된다는 것은 키질 벽화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상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첫째 미술관 소장 자료가 어떠한 형태로든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벽화가 그려진 시기보다 수백 년 오래된 짚여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오래된 초벌칠 층 위에 후대에 벽화가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벽화의 연대가 오래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번 결과는 3개의 시료만을 대상으로 해서 얻어진 수치인만큼 키질 연대 전체에 관한 통일된 견해로서 꺼내 들 수는 없다. 이번에 측정한 시료에는 소위 말하는 ‘제 1양식’의 벽화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의 진전에 따라서는 기존의 학설인 ‘제 1양식’이 ‘제 2양식’보다 오래되었다는 패러다임 자체가 재검토 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 박(箔)의 사용

바미얀에서는 금박 부분을 규칙적으로 깎아낸 함몰부위의 존재와 금박 대응으로 금속박이 사용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키질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규칙적으로 깎아낸 함몰부위와 금박과 금속박의 사용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탐험대가 잘라낸 후 남은 切除痕은 지지체인 암반에까지 파낸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깎아낸 부위이다. 거기에는 규칙성이 발견되는데, 보살이나 天人의 장신구 등, 말 그대로 금제품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부분이나 부처의 가사, 광배 부분 등에서 볼 수 있다. 금박, 금속박이 사용된 굴은 푸른색의 안료로 사용된 라피스라줄리(lapislazuli)의 순도가 높고, 또한 왕후 공양자상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王家가 적극적으로 금박·금속박·라피스라줄리 등과 같은 고가 재료를 투입하여 벽화를 그리게 하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모발 색깔로서의 黒과 벽화 양식

현재 검게 보이는 장소는, 1. 원래는 검은색이 아니라 적, 녹색, 황색이 변색되어 검게 보이는 경우, 2. 검은 색깔로서 사용된 ‘黒’을 생각할 수 있다. 이번 조사로 명확해진 것은, 검은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라져 버린 또 하나의 검정, 소위 ‘사라지는 黒’이 확인된 점이다. 이 ‘사라지는 黒’에 관해 살펴보면, 회화 양식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제 1양식 벽화에서는 黒髮에 사용되고 있는 검정은 확실히 남아 있는데 반해 제 2양식의 벽화에서는 ‘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 2양식의 키질 벽화에서는, 검은색이

칠해져 있었다고 추정되는 天人이나 국왕의 머리카락 부분은 본래의 검은색이 퇴색되어 안료 밑에 있는 기초 층의 색이 드러나 있다. 이에 비해 제 1양식의 벽화에서는, 천인의 검은 머리카락이 새까맣게 남아 있으며, 제 2양식과 같이 ‘사라지는’ 검은 색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검정을 사용하고 있다. 이점은 종래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제 1양식과 제 2양식을 구분하는 표식의 하나로써, 검은색이 그 열쇠가 될 듯하다.

흑색 안료의 종류에 관해서는 성분 분석을 통해 이후 분명해 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처럼 ‘사라지는 검정’은 돈황 막고굴 최초기 굴에서부터 北魏, 西魏, 北周, 隋 시기에 이르기 까지 보이고 있다. 즉 ‘사라지는 검정’이라는 일부 안료가, 키질 제 2양식과 돈황의 초기 굴(북위~수)에서 공통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제 2양식의 畵工집단과 돈황 막고굴 초기 굴의 화공집단과의 교류 내지는 이동문제도 시야에 넣고 검토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제 1양식의 화공집단과 제 2양식의 화공집단의 공동제작 가능성

현재 베를린·아시아 미술관에서 Auf Grünwedels Spuren(그뤼네베델의 족적)이라는 그뤼네베델의 업적과 보존복구에 초점을 맞춘 전람회가 개최되고 있다(2011년 12월-2012년 12월말). 여기서 아시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키질 제 8굴에서 잘라낸 것으로 확인된 벽화의 대부분이 전시되었다. 1983년에 일중 공동으로 출판한 『중국석굴 키질 석굴』에서 제 77굴이라고 소개한 벽화<sup>21)</sup>나 그간 어느 석굴로부터 가져 왔는지 알 수 없이 지하 스터디 룸에 전시되어 있던 벽화가 제 8굴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그 중 2장, IB8642(ca.238×504cm), IB8837(ca.180×106cm)은 제 8굴 뒤쪽 회랑의 천정과 측벽 상부에서 잘라낸 것으로, 상세히 살펴본 결과 제 1양식 스타일로 벽화를 그리는 화가와 제 2양식 스타일로 벽화를 그리는 화가가 공동으로 작업한 벽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IB8642 벽화는 석가모니의 열반에 모인 諸天讚嘆圖와 天象圖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天人들의 피부색은 백색, 회색, 짙은 갈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인체의 입체감을 보여주기 위해 적황색으로 음영을 드러내고 있다. 라피스라줄리가 사용되고 있어 전형적인 제 2양식 벽화로 간주할 수 있지만 왼쪽 밑에 위치한 天人의 풍모를 보면 얼굴 윤곽은 둥글고 눈과 코는 얼굴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둥글고 뭉뚱한 입술, 검게 칠해진 머리카락 표현은 전형적인 제 1양식 벽화인 키질 제 77굴과 207굴의 천인의 얼굴과 비슷하다. 한편 신체는 중량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제 2양식의 화법이라고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머리 부분은 제 1양식으로 묘사되어 있는 탓에 인체와 두부의 접속부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목 위 부분은 제 1양식의 화가가, 나머지 부분은 제 2양식의 화가가 그린 것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제 8굴의 경우, 회화를 완성시킨 중심적인 화가들은 제 2양식 스타일을 지닌 집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제 1양식의 화가 집단도 관여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21) 文物出版社, 平凡社 編『中国石窟 キジル石窟』第 3卷, 1985年, 図 189.

#### 4.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이상 발표자가 관여하고 있는 키질 벽화 프로젝트에 관해 소개하였다. 무엇보다도 요망되는 것은 키질 현지에서의 조사이다.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벽화는 아무래도 후대에 가해진 보존 처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능한 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원형의 벽화에 대한 조사를 실현시키고 싶다.

이 같은 공동연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국 연구 그룹이 대등한 입장에서 작업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여 프로젝트 연구를 공동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전문성을 가진(언어학, 역사학, 종교학, 고고학, 기법·재질학, 보존과학, 미술사학 등) 복수의 집단이 각기 특성을 살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 협력과 기술 이전을 실시하고, 후계자를 육성시켜 연구를 지속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전개를 기대한다.

번역 : 김현덕



## Khorezm and the Silk Road

Janbekov Kakajan | Academy of Sciences of Turkmenistan

The Great Silk Road is a system of caravan trade routes crossing the steppes, seas and deserts of the ancient and medieval times that played a prominent role in establishing contacts between peoples of diverse places, and the cross-fertilization of different cultures and civilizations. The Great Silk Road has a total length of about 7,000 kilometers and for a thousand and a half years (2nd century BC–15th century AD) connected the countries of the Mediterranean Sea with China. The term “Silk Road” appeared in history after the publication of work “China” in 1877 by the German historian baron Ferdinand von Richthofen (1833–1905).

The main commodities on the Silk Road were silk fabrics and raw silk. These products are convenient in that, along with a high price (for example, in Rome, silk was more expensive than gold), it was lightweight and did not have any problems with its transport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in addition to silk there was trade of other goods.

In the formation of the Great Silk Road played a major role diplomat Zhang Qian, who in BC 138 went with the mission of the Han Empire (206–220) to the Yuezhi. Along the way he was captured by the Huns (Xiongnu), but eventually managed to get to Bactria, where the Yuezhi lived at that time. Having been in the cities of Central Asia, he collected a considerable amount of information, including the huge demand for Chinese goods. Returning to his homeland in BC 126, he presented the Emperor a report on the benefits of direct trade between China and the Central Asian states.

A description of the trade routes from Rome to China is given in Claudius Ptolemy (2nd century AD), “Guide to Geography” : the path goes from the Roman border city of Hierapolis on the Euphrates River, across Mesopotamia, Media, Parthiana, Antioch Margiana, Bactry(Balkh), and the Tarim Basin to the capital of Sers(Chinese). In the Middle Ages the way from Europe to China via the North Caucasus began to actively develop, where the main transit point was Gurganj. In the future the road network became wider, incorporating more and more branches.

As already noted, from Amul one of the paths went to Gurganj (now the ruins of Koneurgench), which at the beginning of the 1st century AD in Chinese written sources

is mentioned as Yue-gan. Later this town was often mentioned in connection with major political events. Arab-Persian historians, geographers and travelers left a lot of information about Gurganj, in particular, the Arab historian Yakut al-Hamawi (1179-1229). The main town of Khorezm he named Djurdjania, and locals named it Kurkanj, Arabized Gurganj. After the Mongol conquest the town name of Gurganj changed into Urgench. The author of the 14th century Al-Umari left interesting information on the hospitality of Khorezmians. According to him, if the inhabitants of this country met a traveller, they would argue because of him and compete in hospitality, spending money as other people compete in money accumulation.

The famous Arab traveler of the 14th century Ibn Battuta wrote about Urgench: "This is the largest, most considerable, important, beautiful and majestic city of the Turks with fine bazaars and broad streets, numerous buildings and spectacular views. In the city life is in full swing and it seems a perturbing sea because of such a great number of citizens. Once crossing the city, I came to the market, and when I approached the middle ... I could not move either forward or backward."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Koneurgench as a market between nomads and sedentary oases promoted its economic growth. This, in turn, strengthened its political influence as the center of Khorezm. Scientists consider that Gurganj had regular trade ties with Khorasan, from the one side, and Northern Iran, from other side, already in the middle of the 6th century AD.

The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of the town increased after the Arab conquest in AD 712. As the result of trade contacts with Eastern Europe its influence on the Khazar and Bulgar Volga regions strengthened.

The historian of the 10th century Istakhri wrote, "Urgench is the largest city in Khorezm after its capital (Kyat), and a place of trade with Guzs and from here caravans leave to Jurjan (Gurgan), Khazar and Khorasan.

Before AD 996 Khorezm was divided into two parts – the south with the capital Kyat, and the north – with the capital Gurganj. In AD 996 the ruler of Northern Khorezm Mamun ibn Muhammad united the country into a single state, then took the title Khorezmshah and made Gurganj the capital.

Mamun ibn Muhammad (995-997) and his son Ali ibn Mamun (997-999) headed the strengthening of the independence and military power of Khorezm. After the death of Ali ibn Mamun the throne passed to his brother Mamun ibn Mamun (999-1017). During his government the famous "Mamun's Academy" was founded, in which together with the outstanding scholar-encyclopedist Abu Reihan Biruni scholars invited from different



countries were engaged in science. Among them were the great scientists of the East Abu Ali ibn Sina (Avicenna), Abu Sahl Masih, a scientist, and the physician Abul-Hasan Hammar, etc. This was the bloom time of Gurganj and other cities of Khorezm, which became large economic and cultural centers.

In the town there were monumental civic and cultural facilities, a lively trade and craft centers. Gurganj became one of the largest cities in the East.

At the end of the 11th century Qutb ad-din Muhammad founded a new dynasty of the great Khorezmshahs. During the reign of Ala ad-din Tekesh (1172–1200) and his son Muhammad II (1200–1220) extensive construction work was carried out.

At the time of Khorezmshah Ala ad-din Muhammad Khorezm was attacked by the hordes of Genghis Khan. For the conquest of Gurganj Genghis Khan sent special troops under the command of his sons Jochi and Chaghatay. The population of Urgench struggled with their enemy with great resistance. In spite of the army's numbers, the Mongols had to begin a siege that lasted 7 months. In April, 1221 Gurganj surrendered. When the division of the lands subjugated by the Mongols occurred between Genghis Khan's sons, Gurganj became the possession of Jochi, the eldest son.

After the death of the Golden Horde Khan Uzbek (1312–1341) Urgench briefly again became the capital of Khorezm. In the years of 1372–1388 Timur made several campaigns to Urgench and conquered the town.

In the 17th century Khiva Khans ordered the move of all the inhabitants of the Urgench to New Urgench, and after that life in the old town came to a standstill.

In the territory of Koneurgench numerous architectural monuments have been preserved, which are of considerable scientific and cultural value.

The mausoleum of Il-Arslan (or Fakhr ad-din Razi) is located east of the other architectural monuments of Koneurgench. The estimated date of construction of the mausoleum is the 12th–13th centuries. The mausoleum is a small, almost square building, crowned with twelve facets for a tent-like cupola. The eastern facade wall with a door has an excellent decorative trim, full of ornamental masonry from burnt and carved polished bricks. The relief inscription is on the contours of the upper part of the facade and interlaced with the graceful figure of vegetable ornament.

The mausoleum is associated with the name of the scientist Fakhr ad-din Razi, who died in Herat (Afghanistan) in 1208. Fakhr ad-din Razi by his religiously-motivated activities was for a time connected with Gurganj. However, the question of ownership of the mausoleum to Fakhr ad-din Razi is controversial and some scholars are inclined to associate the mausoleum with the father of Khorezmshah Tekesh, who had the name

Il-Arslan (1156–1172).

The mausoleum of Tekesh (1172–1200) is 0.5 km north–west of the mausoleum of Fakhr ad–din Razi. The local population refers to his mausoleum as Sharap–baba, or Sheikh Sheref. According to legend, the sheikh, though he lived in Urgench, was buried in the aul (village) Nohur (southern Turkmenistan).

Presumably, the mausoleum belongs to Khorezmshah Tekesh. It is explained by two factors. Firstly, the construction of the mausoleum and ornamental motifs allow us to date it to the beginning of the 13th century, while sheikh Sheref lived at the beginning of the 14th century. Secondly, the historian of the 13th century Juzjani wrote that the Mongols destroyed all the buildings, except for the Koshki–Ahchak and the mausoleum of sultan Tekesh.

The mausoleum has a semi cubical structure, topped with a high conical cupola. The sixteen facets serve as the basis of an internal spherical cupola. In the center of the facade there is the exit niche decorated with a stalactite semi cupola with a large arched doorway leading inside. The inner cupola is surrounded by a richly decorated ribbed drum, on which the outer conical cupola rests. On the outer surface of the under cone drum it has in plan a view of the correct twenty–fourth ends star with an octagonal interior cupola contour. The cupola height from the floor is about 18 m, room dimensions are of 11.45 x 11.45 m.

The mausoleum of Tyurabek Hanum is associated with the name of the governor's wife of Urgench Kutlug Timur. The building consists of twelve facets of large bulk with a high portal adjoining from the south, and to the north is a small rectangular building. Over the bulk is a round drum bearing cupola of the central hexagonal room. Twenty–four edges maintain the outer cupola of the mausoleum having a diameter of 12 m. Blue, white, turquoise, black, green, yellow, red, and brown colors with gold create the unusual mosaic pattern of the cupola.

By the definition of art historians, the mausoleum of Tyurabek Hanum is unique, inimitable, highly artistic and beautiful because of the accuracy of proportions, the execution of architectural design and richness of decoration.

The ensemble of mausoleums of Nejm ad–din Kubra and Sultan Ali is situated at the center of the local cemetery. Mausoleum Nejm ad–din Kubra dates back to the first half of the 14th century. In addition to the tomb, on the perimeter of the old cemetery the domed mausoleum of Sultan Ali is located, who was one of the rulers of Urgench in the 16th century. A small building has burials of Piryar–Wali sheikh Attar–Wali, Duyar–Wali and Daniyar–Wali, and mazar of Atchapar Malim Hoja.

The mausoleums of Nejm ad-din Kubra and Sultan Ali have domed ceilings. They are located one against the other and are unique for their architecture. The mausoleum of Nejm ad-din Kubra has external decor tracks, the sub portal stalactite cornice and beautiful tile stripes of Arab inscriptions with white on a blue background above the arch and in its depths. Nejm ad-din Kubra, author of one of the Sufi orders, was killed in Gurganj during the Mongol invasion. His heroic death is preserved in folk memory.

There are also two minarets – one of the pre-Mongol period which is now completely destroyed, the other preserved in the town center. The minaret has the names of Golden Horde ruler Uzbek Khan (1312–1341) and his regent in Khorezm Kutlug Timur (1321–1336). It was built in approximately the years of 1320–1330. The minaret has a height of 60 m and 145 steps inside the spiral staircase that begins at the entrance, at a height of about 7 meters above the ground.

On the site Dash-Kala is preserved a portal of caravan-serai that dates back to the 14th century. There are other monuments, such as the mausoleum of Ibn-Hajibey (17th century), the mausoleum of Sayyid Ahmad (19th century), the mausoleum of Yusuf Beg (14th century) and others. Koneurgench is one of the medieval political and cultural centers of the East which was included in the list of the World Heritage Sites of UNESCO in 2005.

The decline of the Great Silk Road is linked primarily with the development of merchant shipping along the coasts of the Middle East, South and South-East Asia. In the 14th–15th centuries maritime trade became more attractive than dangerous overland caravan routes. In addition, the sea route from the Persian Gulf to China was considerably shorter. As a result of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in the 16th century the Great Silk Road finally ceased to exist. However, parts of it continued to function. For example, caravan trade between Central Asia and China stopped only in the 18th century.



## 호레즘과 실크로드

잔베코프 카카잔 | 투르크메니스탄 과학아카데미 고문연구소

이옥련 | 한중앙아친선교류협회 회장

현원숙 | 한중앙아친선교류협회 부설 중앙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소장

실크로드는 고대와 중세시대에 대초원지대와 바다, 그리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 무역로로서 다양한 곳의 사람들이 접촉하고 다른 문화와 문명이 상호 교류하는데 있어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다. 실크로드의 길이는 약 7000km에 달하며, 이것은 1500년(기원전 2세기-기원후 15세기)동안 지중해 국가들과 중국을 연결하였다. “실크로드”라는 용어는 독일인 역사학자 리히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 남작(1833-1905)이 1877년에 “China”라는 저서를 출간한 이후에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

실크로드의 주요 물품은 비단직물과 생사(生絲)였다. 이런 물건은 고가일 뿐만 아니라(예를 들어, 로마에서는 비단이 금보다 더 비쌌다), 가볍고 또 운반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좋았다. 비단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품 거래도 있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실크로드의 개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교관 장건(Zhang Qian)은 기원전 138년에 한 나라(206-220)의 사절단을 이끌고 월지(Yuezhi)로 향하였다. 가는 도중에 흉노(Xiongnu)에게 붙잡혔으나, 결국에는 당시에 월지가 살았던 대하(大夏, Bactria)에 간신히 당도하게 되었다. 장건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에 있으면서 중국 물품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비롯한 상당한 가치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는 기원전 126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황제에게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직접 무역에 있어서의 이점에 대해 보고하였다.

프톨레미(Claudius Ptolemy, 기원후 2세기)의 『지리학 입문(Guide to Geography)』에 로마에서 중국으로 가는 무역로가 묘사되어 있다. 그 경로는 히에라폴리스(Hierapolis)라는 로마 국경 도시에서 출발하여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를 지나 메디아(Media), 파르티에나(Parthiana), 안티오크 마르기아나(Antioch Margiana), 발흐(Balkh), 그리고 타림(Tarim) 분지를 가로질러 장안(Sers, 지금의 시안/서안)의 수도에 이른다.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 북부 코카서스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오는 길은 활발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주요 경유 지점이 구르간즈(Gurganj)였다. 훗날 그 도로망은 점점 더 많은 지선도로를 포함시키면서 더 넓어졌다.

경로 중 하나였던 아물(Amul)에서도 구르간즈(현재 Koneurgench의 유적)로 갔었는데, 기원후 1세기 초에 한문으로 기록된 자료에 Yue-gan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훗날 이 도시는 주요한 정치적 사건들과 얽혀 자주 언급되었다. 아랍-페르시아 역사학자들, 지리학자들, 여행자들은 구르간즈에 관한 많은 자료를 남겼는데, 특히 아랍 역사학자 Yakutal-Hamawi(1179-1229)가 큰 기여를 하였다. 그는 호레즘(Khorezm)의 주요도시의 이름을 Djurdjania라고 하고, 지방의 이름은 구르간즈를 아라비아어한 Kurkanj라고 하였다. 몽골의 정복 이후에

구르간즈의 도시이름은 우르겐치(Urgench)라고 바뀌었다. 14세기의 작가 Al-Umari는 호레즘 사람들의 환대에 대한 흥미 있는 이야기를 남겼다. 그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데에 서로 경쟁하는데, 그곳 주민들은 여행자를 만나면 여행자를 서로 환대하려고 돈을 쓰는 데에 경쟁하였다.

14세기의 유명한 아랍 여행자 Ibn Battuta는 우르겐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 곳은 가장 넓고 가장 중요하며 아름답고 위엄 있는, 터키인의 도시로서 멋진 시장과 넓은 도로, 수많은 건물들, 그리고 훌륭한 경치를 갖추고 있다. 이 도시의 삶은 생기가 넘치며, 엄청난 인파로 인해 흔들리는 바다처럼 보인다. 나는 도시를 지나면서 시장에 갔던 적이 있는데, 시장 한 가운데에 갔을 때... 나는 앞뒤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유목민과 오아시스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과도 같은 코네우르겐치(Koneurgench)의 지리적 위치는 그것의 경제적인 성장을 촉진시켰고 또한 호레즘의 중심지로서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강화하였다. 과학자들은 기원후 6세기 중엽에 구르간즈가 한 쪽으로는 호라산(Khorasan)과 또 다른 한 쪽으로는 북부 이란과 정기적인 무역 유대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구르간즈의 교역과 경제적 관계는 기원후 712년에 있었던 아랍의 정복 이후에 더 발전하게 되었다. 동부 유럽과의 교역 관계로 인하여 Khazar와 Bulgar 지역에 구르간즈의 영향력은 강화되었다.

10세기의 역사학자 Istakhri가 기록하기를, 우르겐치는 호레즘의 수도인 Kyat 다음으로 호레즘에서 가장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Guzs와의 교역 장소였으며, 이곳에서부터 대상(隊商)들은 Jurjan(Gurgan)과 Khazar, 그리고 Khorasan을 남기게 되었다.

기원후 996년 이전에는 호레즘이 남부의 수도 Kyat과 북부의 수도 구르간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기원후 996년에 북부 호레즘의 Mamun ibn Muhammad가 이 지역들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고 호레즘샤(Khorezmshah)라고 이름 붙이고 구르간즈를 수도로 정하였다.

Mamun ibn Muhammad(995-997)와 그의 아들 Ali ibn Mamun(997-999)은 호레즘의 자립심과 병력 강화를 가장 우선시하였다. Ali ibn Mamun의 사망 이후에 그의 동생 Mamun ibn Mamun(999-1017)이 왕권을 잡았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유명한 “마문 학교(Mamun's Academy)”가 설립되었는데, 탁월한 학자이자 백과사전편집자인 Abu Reihan Biruni와 과학 분야의 학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초빙되었다.

그들 가운데에 동양의 훌륭한 과학자였던 Ali ibn Sina(Avicenna)와 Abu Sahl Masih, 그리고 과학자이자 의사였던 Abul-Hasan Hammar 등도 있었다. 이때가 호레즘의 구르간즈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의 번영기였고, 이 도시들은 경제와 문화의 큰 중심지가 되었다.

그 도시에는 거대한 도시 시설과 문화 시설, 그리고 활발한 거래와 기술 센터가 있었다. 구르간즈는 동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다.

11세기 말에 Qutb ad-din Muhammad가 Khorezmshahs의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였다. Ala

ad-din Tekesh(1172-1200)와 그의 아들 Muhammad 2세(1200-1220)의 통치 기간 동안 광범위한 건설 공사가 행해졌다.

Khorezmshah Ala ad-din Muhammad Khorezm 때에 징기스칸(Genghis Khan) 대군이 공격하였다. 구르간즈의 정복을 위해 징기스칸은 그의 아들들인 Jochi와 Chaghatay의 지휘 하에 있는 군대를 보내었다. 우르겐치의 주민들은 완강히 저항하여 그들의 적과 맞섰다. 몽골군의 엄청난 수에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이나 포위 공격이 계속되었다. 1221년 4월에 구르간즈는 마침내 항복하였다. 징기스칸의 아들들이 몽골군에 의해 정복된 땅을 분할할 때, 구르간즈는 장남이었던 Jochi가 소유하게 되었다.

킵자크 한국(Golden Horde)의 Khan Uzbek(1312-1341)의 사망 이후에 잠시 동안 우르겐치는 다시 호레즘의 수도가 되었다. 1372년에서 1388년 사이에 티무르(Timur)는 우르겐치에 여러 번 출정하여 정복하였다.

17세기 Khiva Khans는 구 우르겐치에 살던 모든 주민들을 신 우르겐치로 이주하게 하였고, 그 이후로 구 우르겐치에서의 활동이 정지되었다.

코네우르겐치의 영토 내에 다수의 건조물 문화재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과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상당하다.

Il-Arslan(또는 Fakhr ad-din Razi)의 영묘는 코네우르겐치의 다른 건조물 문화재의 동쪽에 위치한다. 영묘 건축의 추정 시기는 12세기와 13세기 사이이다. 크기가 작은 이 영묘는 거의 정방형 건조물이고 천막 같은 반구형 천장은 12면으로 되어있다. 문이 있는 동쪽 정문의 벽은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그을리고 새기고 다듬은 벽돌로 만들어진 석조장식이 가득하다. 돌을새김을 한 명문(銘文)은 건조물의 정면 상단의 가장자리에 있고, 우아한 무늬의 식물 장식으로 엮여 있다.

그 영묘는 1208년에 아프가니스탄의 헤라트(Herat)에서 죽은 과학자 Fakhr ad-din Razi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 종교적인 동기가 부여된 활동으로 인해 Fakhr ad-din Razi는 한동안 구르간즈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Fakhr ad-din Razi가 그 영묘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논란이 많고, 어떤 학자들은 Il-Arslan(1156-1172)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Khorezmshah Tekesh의 아버지와 그 영묘를 연관 지으려고 한다.

Tekesh(1172-1200)의 영묘는 Fakhr ad-din Razi의 영묘에서 북서쪽으로 0.5km에 위치한다. 그 지역의 주민은 그의 영묘를 Sharapbaba 또는 Sheikh Sheref라고 말한다. 전설에 따르면, 비록 Sheikh가 우르겐치에 살았어도 그는 투르크메니스탄 남부에 있는 마을인 Nohur에 묻혔다.

짐작컨대, 그 영묘는 Khorezmshah Tekesh의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첫째로, 그 영묘의 건축과 장식 디자인을 통해 13세기 초라고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데, Sheikh Sheref는 14세기 초에 살았었던 인물이었다. 둘째로, 13세기의 역사학자 Juzjani는 몽골이 Koshki-Ahchak와 술탄 Tekesh의 영묘를 제외한 모든 건조물을 파괴했다고 기록하였다.

그 영묘는 원뿔 모양의 높은 지붕이 있는 반 입방체의 구조이다. 16면은 내부 구면의 반구(半球)형 천장의 기본원리이다. 건물 정면의 중앙에는 종유석 모양의 둥근 천장으로 장식된 출구 벽감(壁龕)이 있는데, 거기에 내부로 향하는 큰 아치형의 출입구가 있다. 내부의 반구형 천장은 화려하게 장식된 늑재 드럼(돔 지붕을 받치는 원통형 건조물)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위에 원뿔 모양의 외부 둥근 지붕이 있다. 바닥에서부터 반구 천장까지의 높이는 약 18m에 달하고, 방의 면적은 11.45평방미터이다.

Tyurabek Hanum의 영묘는 우르겐치의 지방영주였던 Kutlug Timur의 아내 이름과 연관이 있다. 이 건축물은 거대한 크기의 12면으로 되어있고, 남쪽에 높은 정문이 접해있고, 북쪽에는 작은 직사각형 건물이 있다. 그 위에는 원통형 드럼이 있는데, 중앙의 6각형 방의 반구형 천장을 지탱하고 있다. 24개의 모서리들은 지름이 12m인 영묘의 외부 둥근 지붕을 지탱한다. 푸른색, 흰색, 청록색, 검은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갈색, 그리고 금색은 반구 천장의 진귀한 모자이크 양식을 만들어낸다.

미술 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Tyurabek Hanum의 영묘는 비율의 정확도, 건축 디자인의 기술, 그리고 장식의 화려함 때문에 진귀하고 독특하며 상당히 예술적이고 아름답다.

Nejm ad-din Kubra와 술탄 Ali의 영묘들은 그 지방의 묘지 중앙에 위치한다. Nejm ad-din Kubra 영묘의 시기는 14세기 전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묘뿐 아니라, 오래된 묘지 주변에 16세기의 우르겐치 통치자 중 한 사람이었던 술탄 Ali의 영묘가 있다. 작은 건물에는 Piryar-Wali, 교주 Attar-Wali, Duyar-Wali, 그리고 Daniyar-Wali이 매장되어 있고, Atchapar Malim Hoja의 성묘(聖墓)가 있다.

Nejm ad-din Kubra와 술탄 Ali의 영묘는 반구형의 천장을 가지고 있다. 이 영묘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건축양식에 있어서도 독특하다. Nejm ad-din Kubra의 영묘는 외부 장식 통로와 종유석 모양의 처마 돌림띠가 있는 보조문이 있고, 그리고 안쪽까지 푸른색 바탕인 반구형 천장에 흰색 아랍 명문(銘文)의 아름다운 타일이 줄지어 있다. 한 수피(Sufi)교단의 저술가였던 Nejm ad-din Kubra는 몽골이 침입했을 때 구르간즈에서 살해되었다. 그의 영웅적 죽음은 민중의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다.

두 개의 침탑이 있는데, 하나는 몽골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에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다른 하나는 시내 중심에 보존되어 있다. 그 침탑은 킵자크 한국(Golden Horde)의 통치자였던 Uzbek Khan(1312-1341)과 그를 대신해서 섭정하던 호레즘의 Kutlug Timur(1321-1336)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대략 1320에서 1330년 사이에 세워졌다. 이 침탑의 높이는 60m이고, 입구에서 시작되어 죽 이어진 나선형 계단은 안쪽으로 145보폭으로 지면에서 7m의 높이이다.

Dash-Kala의 유적지에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상(隊商) 숙소의 정문이 보존되어 있다. 거기에는 Ibn-Hajibey(17세기)의 영묘, Sayyid Ahmad(19세기)의 영묘, Yusuf Beg(14세기)의 영묘 등과 같은 다른 유적들도 있다.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코네우르겐치는 동양에서 중세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



실크로드의 쇠퇴는 근본적으로 중동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남동아시아의 해안을 따라 해상운송이 발달한 것과 관련이 있다. 14세기에서 15세기에 위험한 육로를 통한 대상 무역보다 해상 무역이 더 각광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페르시아만에서 중국까지의 해로는 훨씬 더 짧다. 16세기에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실크로드는 결국 쇠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크로드의 일부 길은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중앙아시아와 중국 사이에 오가던 대상 무역이 18세기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이 그 일례이다.

번역 : 김서리



## 古代 韓國의 鳥羽冠과 실크로드 -鳥羽冠 관련 연구사 검토를 중심으로-

조 윤 재 | 인제대 역사고고학과 교수

### I. 서론

실크로드의 지향점은 서역이었으며 서역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증폭은 바로 동서문명교류의 확장을 가져왔다. ‘西域’은 고대 중국의 漢魏晉南北朝時期 正史에서 사용된 지리적 개념으로 주로 玉門關, 陽關 以西地域을 汎稱하여 서역지역으로 인식하였다<sup>1)</sup>. 그러나 현재 서역의 정의는 단순히 중화적 세계관을 벗어나 동서 문명을 연계했던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지역을 공간적 범주에 포함하여 논의되고 있다. 서한시기 張騫의 ‘西域鑿空’으로 중국은 본격적으로 서방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확장해나갔다. 이후 東漢, 魏晉南北朝, 隋唐時期까지 중국과 對西域 교섭은 일정시기 단속을 거듭하였으나 서역에 대한 관심과 접촉을 포기한 적이 없다. 물론 상대적으로 西域諸國들도 중국에 대한 동경과 실리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이러한 세계문명의 자생적 흐름은 실크로드라는 세계문명사적 교통로의 형성을 가져오게 하였고 이러한 교통로를 통해서 西端의 문물이 한반도는 물론 일본열도의 東端까지 漸入되는 미증유의 현상을 출현케 하였다.

한편 한반도에 출현한 당시의 각 정치체들은 다양한 목적과 요인으로 중국의 왕조와 군사적 혹은 외교적 접촉을 진행하면서 중국내지에 유입된 서역의 문물을 접하게 되면서 점차 서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게 된다. 특히 삼국시대 중국에서 유입된 불교는 한반도 내부사회에 심대한 문화적 파동을 가져오면서 국가운영 및 당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체계를 조성하게 된다. 불교의 번성으로 승려들의 求法求學 행렬이 중국 내지는 물론 서역지역에까지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한반도의 고대국가들도 서역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진행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생성된 고고자료 및 회화자료에 재현된 조우관을 조명해보고 관련 연구 성과도 아울러 정리해 보려한다. 이를 통해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한반도 고대국가들의 對西域 교류 정황을 살펴보고 동시에 당시 국제관계 속에서 발생한 서역 및 중국의 한반도 고대 국가들에 대한 인식도 觀注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II. 鳥羽冠의 기원문제

1) 余太山, 1995, 『兩漢魏晉南北朝與西域關係史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조우관의 원류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sup>2)</sup>. 한반도 조우관의 기원은 북방 시베리아 문화권역에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보다 이른 시기에 조우관의 전통이 보이는 중국도 북방문화, 특히 스키타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sup>3)</sup>. 그러나 한국의 조우관이 직접 북방문화권에 소급시켜 그 원류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며 중국의 조우관 전통이 재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인 청동기시대에 조우를 이용한 관식의 흔적이 보이고 있어 조우관의 내재적 발전도 배제할 수 없다. 전 대전 출토 농경문 청동기에서 보이는 경작하는 인물의 머리에는 뒤로 길게 늘어진 깃털 모양의 머리장식이 보이고 있으며 기물의 앞면에는 새를 숭상하는 솟대의 형상이 표현되어 있어 한반도 선사시기 문호에도 새를 신성시 여기는 토템이 반영되고 있다<sup>4)</sup>.



도 1. 좌) Hun족 조우관(남시베리아 Uibat강 Kizil Kaya 출토)  
중) 河南 洛陽 金村 出土 金銀象嵌鏡 刺虎圖 文樣  
우) 河南 洛陽 出土 空心磚 模印磚畫



도 2. 전 대전 출토 농경문 청동기

- 2) 신경섭, 2000, 「한국의 鳥羽冠과 中國의 鷩冠 비교연구」, 『복식』 제50권4호, 한국복식학회.  
김문자, 2005, 「고대 조우관의 원류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학회』 8권, 한국문화학회.  
임영애, 2002, 「서역불교미술에서의 鳥翼冠과 冠帶」, 『중앙아시아연구』 제11호, 중앙아시아학회.  
李漢祥, 2000, 「新羅 冠 연구를 위한 一試論」, 『考古學誌』 11.  
권오영, 1999, 「한국 고대의 새(鳥) 관념과 제의」, 『역사와 현실』 32.  
申大坤, 1997, 「羽毛附冠飾의 始末」, 『考古學誌』 8.  
3) 김문자, 2005, 「고대 조우관의 원류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학회』 8권, 한국문화학회.  
4) 권오영, 1999, 「한국 고대의 새(鳥) 관념과 제의」, 『역사와 현실』 32.

### Ⅲ. 중앙아시아 및 중국 발견 繪畫資料에서 보이는 조우관

중앙아시아, 둔황 지역의 한반도관련 자료는 영성한 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한반도 출신의 인물이 벽화에 재현된 사례는 중국 내지에서 발견된 章懷太子墓의 묘도 벽화인 客使人物圖에서 보이는 조우관을 쓴 인물형상과 이 대표적이다. 또 중앙아시아 지역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 벽화에서도 조우관을 쓴 인물이 포착된다. 마지막으로 둔황 막고굴 제220굴, 제237굴, 제335굴 등의 벽화에서도 조우관을 쓴 한반도계 인물이 보인다. 이들 벽화에 출현하는 인물의 구체적인 출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반도계의 인물인 것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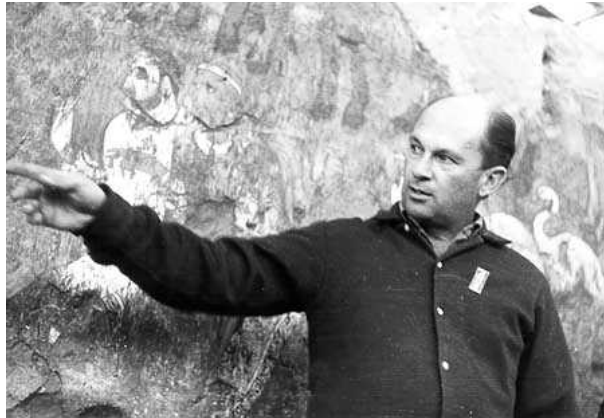
아프라시압 벽화에서 보이는 조우관 인물에 대한 논쟁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최근까지의 관련 연구 성과를 집성하고 검토한 작업으로는 권영필의 저술이 대표적이다<sup>5)</sup>. 아프라시압 벽화 중의 조우관 인물의 출자문제에 대한 논쟁을 연구자 별로 검토하여 정리하였고 고구려 사절에 대한 필자 자신의 견해도 함께 개진하였다.

#### 1.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서 보이는 조우관

사마르칸트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제 2의 도시이며, 사마르칸트주의 주도(州都)이다. ‘동방의 에덴’, ‘중앙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이곳은 수많은 모스크(사원)와 탑들이 있으며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최대의 도시였으며, 원래 소그드인들이 대상으로 번영을 누리던 오아시스의 국제 무역 도시로 고대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지였다. 12세기에는 칭기스칸의 침입을 받아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바로 이곳에서 한반도 고대국가의 遺痕이 1965년 아프라시압 궁전 유지(遺址)에서 발견되었다. 3년간에 걸쳐 발굴된 ‘사신도(使臣圖)’에는 단아한 체구에 새 깃털 같은 것을 두 개 꽂은 관(조우관)을 쓰고 M자형 장식을 단 칼집에 들어있는 긴 환두도(環頭刀)를 찬 두 명의 사신이 중국·유럽·아랍 사신들과 함께 서있다. 이 발굴을 주도한 우즈베키스탄의 고고학자 라자르 알바움(Lazar Al'baum, 1921-1997)은 중앙아시아고고학계에서는 ‘황금의 손(golden hands)’으로 불리는데 이는 고고학자로서 평생 조우하기 어려운 중요유적을 여러 번 조사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라자르는 아프라시압 유적 외에도 남부 우즈베키스탄의 발라릭테페(Balalyk-tepe)와 파야즈테페(Fayaz-tepe) 등의 유적도 조사하는 개가를 올렸다. 특히 라자르는 벽화속의 조우관 착용 인물의 출자를 한반도계 인사로 추정함으로써 국내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5) 권영필, 2008, 「아프라시압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에 관한 연구」,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도 3. 라자르 알바움(Lazar Al'ba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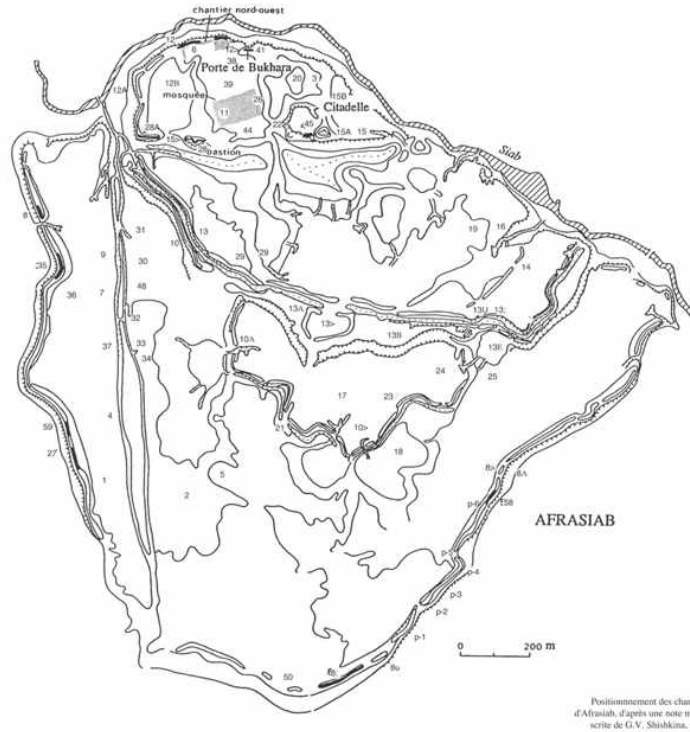
벽화는 바르흐만 왕 재위기(650~670년)에 제작됐으며 당시 나·당 연합군의 압력을 받던 고구려가 당을 견제하기 위해 초원길을 따라 멀고 먼 서역으로 사신을 파견했던 것으로 추단된다. 고구려는 대제국답게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의연한 자세로 능수능란한 외교정책과 전략전술에 의거해 독자적인 대외활동을 펴나가며 대제국으로 성장했다. 고구려의 뛰어난 외교정책이 없었다면 700년이라는 긴 역사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 백제, 신라 번갈아 동맹관계를 맺고 상호 견제 하였으며 중국의 '중원왕조', 서북방 초원지대의 여러 민족이나 국가들과도 다중적(多重的) 외교관계를 맺고 동아시아 질서의 한 축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이러한 고구려의 대외정책을 반영한 유물이 40년 전 중앙아시아의 한 고분 벽화에서 발견되었다. 당으로부터의 압박에 대항해 멀리 서역제국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파견된 고구려 사절로 추단된다. 아프리카시압 궁전 벽화에서의 사신의 당당한 모습이 당시 700여년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축으로서 국제성을 확보하고 있던 고구려의 정체이며, 국제질서의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당당한 권력행위의 주체로서 고구려가 누린 의젓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벽화는 축축한 공기 속에 박락이 가속화돼 색채는 거의 벗겨졌고 형체만 알아볼 수 있는 상태이며 안내판에는 두 사신을 'Coreens'(한국인)로 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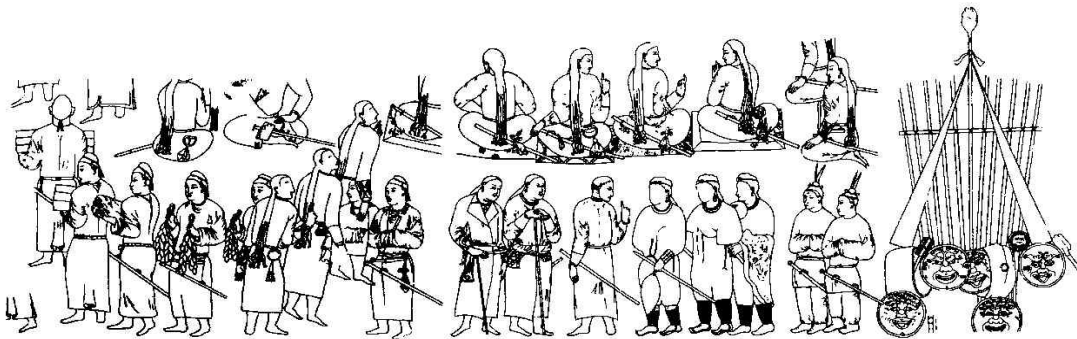


도 4. 아프리카시압 궁전유적 전경과 복원도





도 5. 아프라시압 궁전유적 평면도



도 6.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서벽벽화

아프라시압 궁전벽화 조우관 인물에 대한 출처는 고구려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지만<sup>6)</sup>, 최근

6) 穴澤和光·馬目順一, 1976, 「アフラシヤブ都城址の出土壁畫にみられる朝鮮人使節について」, 『朝鮮學報』第81輯, 東京.

연구 성과에 의하면 조우관 삼식방식이 변형된 후대의 것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조우관 형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sup>7)</sup>.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자들이 벽화 속 조우관 착용 인물에 대한 출자를 언급하거나 그 배경에 관한 견해를 다양하게 제기하였다. 유적조사자 및 국가별로 분류하여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를 일별해보도록 하겠다.

### 1) 유적조사자

먼저 당시 벽화유적의 발굴을 담당한 현지 고고학자 알바움(Lazar Al'baum, 1921-1997)의 보고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sup>8)</sup>. 라자르 알바움은 보고서에서 조우관을 쓴 인물의 출자를 고구려인으로 추정하고 동시에 722년 신라승의 서역방문 기록과 벽화의 연대가 정합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인물의 출자에 대한 결론은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고구려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알바움을 제외한 그 외 현지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도 국내에 소개되었다<sup>9)</sup>.

### 2) 일본학자

벽화 자료<sup>10)</sup>의 공표 이후 일본 학계도 이를 주목하면서 한국 고대사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하였다. 특히 아나자와(穴澤)는 자신의 논문<sup>11)</sup>에서 벽화에 출현하는 문양과 복식을 지적하며 7세기 중엽 전후와 연동되는 시기성을 언급하였다. 또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언급하면서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를 주시하고 나아가 고구려와 소그드의 접촉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벽화에 표현된 한반도계 인물의 출자를 고구려로 추정하였다. 고구려의 서역행의 동기를 구체적으로 논급하면서 고구려 정세가 혼란에 빠진 666년 이전을 건사의 하한 시점으로 상정하고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북방의 스텝루트를 통해 사마르칸트로 건사하는 교통로를 이용하였다고 추

田水常雄, 1978, 「古新羅古墳出土のローマ系文物」,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7.

김원룡, 1979, 『한국미의 탐구』, 열화당.

高炳翊, 1984, 『東아시아 傳統과 近代史』, 三知院.

張廣達 等, 1986, 「中亞中世紀早期粟特壁畫」, 『中國大百科全書·考古學』,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노태돈, 1989, 「高句麗·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關한 一考察」, 『대동문화연구』 23.

이은창, 1991, 「신라문화와 가야문화의 비교연구」, 『신라와 주변제국의 문화교류』, 서경문화사.

정수일, 1992,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학교출판부.

박춘순, 2002,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압 궁전벽화복식의 문양 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권-제5호, 한국의류산업학회.

우덕찬, 2003, 「6-7세기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교섭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4-2호, 한국중동학회.

권영필, 2008, 「아프라시압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에 관한 연구」,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김용문, 2010, 「아프라시압 벽화에 나타난 복식연구」, 『복식』 제60권7호, 한국복식학회.

7) 김문자, 2005, 「고대 조우관의 원류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학회』 8권, 한국문화학회.

8) 알바움의 1975년 발굴보고서로서 穴澤和光이 日文中으로 번역하였다. 穴澤和光·馬目順一, 1976, 「アフラシヤブ都城址の出土壁畫にみられる朝鮮人使節について」, 『朝鮮學報』 第81輯, 東京.

9) 권영필, 2008, 「아프라시압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에 관한 연구」,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10) L. I. Albaum, 1975, 『ЖИВОПИСЬ АФРАИИБА』, Tashkent.

11) 穴澤和光·馬目順一, 1976, 「アフラシヤブ都城址の出土壁畫にみられる朝鮮人使節について」, 『朝鮮學報』 第81輯, 東京.



단하였다.

### 3) 한국학자

알바움의 보고서가 간행된 후 한국 학자 최초로 벽화자료를 입수하여 이에 대한 고찰을 진행한 이는 김원룡이었다<sup>12)</sup>. 그는 보고서와 아나자와의 자료를 참고로 벽화의 연대를 7세기말-8세기초로 추정하고 벽화속의 인물을 신라인 혹은 발해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자료에 입각하여 벽화 조성 연대가 7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면서 고구려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정수일은 벽화 인물의 복식과 패착기물을 근거로 제시하며 인물의 출자를 고구려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고구려벽화고분에서 보이는 환두대도를 거론하며 아프라시압 벽화의 패착 환두대도와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다<sup>13)</sup>. 또 건사의 연대를, 고구려가 당에 대한 강경노선을 취한 연개소문시대(642-666)의 말엽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영필은 최근까지 아프라시압 벽화에 대해 다수의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학자이다. 1991년 최초로 아프라시압 벽화를 답사하고 알바움과 벽화연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 벽화연대와 한반도계 인물의 출자를 언급하였다. 초기 구리아모프의 연대관을 수용하며 벽화 인물의 출자를 발해로 상정하였다<sup>14)</sup>. 이후 아프라시압 벽화에 대한 외국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며 벽화의 인물에 대한 출자는 고구려라는 학설에 동의하였다<sup>15)</sup>. 최근 연구에서 다시 벽화제작의 연대와 고구려가 활용한 교통로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의견을 언급하였다<sup>16)</sup>.

노태돈은 1989년 논문<sup>17)</sup>을 통해 이미 아프라시압 벽화 인물의 출자를 고구려로 추단하였다. 이후 고구려의 국제외교, 즉 유연, 돌궐, 설연타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축적된 북방교통로의 인식을 바탕으로 돌궐루트를 거쳐 소그드와 직접 통교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바로 이러한 배경으로 아프라시압 벽화에 고구려 사절이 등장하였다고 보고 있다<sup>18)</sup>.

### 4) 서양학자

아프라시압 벽화 연구는 주로 서양학자와 현지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특히 벽화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마르샤크(Mrshak)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sup>19)</sup>. 1981년에 발표된 그의 논문에서는 벽화의 연대를 7세기 3/4분기로 추정하였으나 2001년에는 660년으로 수정하였다. 또 벽화 인물에 대한 국적을 연구 초기부터 고구려인으로 확신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

12) 김원룡, 1976,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의 사절단」, 『고고미술』, 고고미술사학회.

13) 정수일, 1992,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학교출판부.

14) 권영필, 1997, 『실크로드의 미술-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 열화당.

15) 권영필, 2003, 『렌투스 양식의 미술』, 사계절.

16) 권영필, 2008, 「아프라시압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사절’에 관한 연구」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17) 노태돈, 1989, 「高句麗·渤海人と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관한 一考察」, 『대동문화연구』 23.

18)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 Belenitskii&Marshak(1981), "The Paintings of Sogdiana", Sogdian Painting, The Pictorial Epic in Oriental Art,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다. 고구려 건사 배경에 대한 논지 중 주목할 것은 중국의 협조 없이 소그드 지방과의 직접적인 통교를 배제하고 있다<sup>20)</sup>. 이외의 중요 학자들의 견해도 국내에 소개된 바 있다<sup>21)</sup>.

## 2. 敦煌 莫高窟 壁畫에서 보이는 조우관

돈황 막고굴의 존재와 가치는 이미 주지하고 있듯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고 그 중요성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東西文明의 십자로에 위치한 돈황은 막고굴의 중요성을 제외하더라도 그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생성 요인 등 현세의 연구자들에게는 실로 寶庫와 같은 자료의 집성지역이다. 이러한 돈황 석굴에 고대 한반도인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藏經洞 출토 往五天竺國傳殘卷이 그 기원일 것이다.(도5, 6) 이와 함께 돈황 개별 석굴의 벽화에 고대 한국인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우리의 촉각을 세우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역사적 자료이다<sup>22)</sup>. 이는 한반도가 중국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서역문화와 접촉한 매우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 벽화의 존재를 최초로 언급한 학자는 敦煌文物研究院長을 역임한 段文杰이었다. 그는 자신의 논문집 『敦煌石窟藝術論集』<sup>23)</sup>에서 220호 동벽에 그려진 유마거사 변상도에 조우관을 쓴 고대 한국인의 실체를 지적하였다. 이후 권영필에 의해 335호 벽화에도 동일한 주제의 변상도에 고대 한국인이 그려져 있음이 학계에 보고되었다<sup>24)</sup>. 이를 계기로 서역과 고대 한반도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들 인물에 대한 구체적 출자문제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나 당시의 국제정세와 정치·외교적 역학관계에 대한 탐색은 여러 각도로 진행되었다. 특히 돈황 막고굴의 불교관련 벽화에서 당시 당의 번국에서 내사한 각국의 사절 혹은 객사들이 유마거사 변상도를 중심으로 주변에 배치된 것은 불법을 찬양케 하는 종교적 코스몰로지(cosmology)의 측면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지적<sup>25)</sup>과 같이 당을 중심으로 국제질서에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도 참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동아시아라는 틀에서 본다면 6-7세기 한반도 각 정권의 대중교섭은 수당 정권의 수도인 서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sup>26)</sup>. 당시 삼국 각국은 수당정권과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매우 복잡한 착종관계를 형성한 시기였다. 당 고종(660-668)초기에 이르러 백제와 고구려는 차례대로 멸망하고 패수(대동강) 이남지역은 신라의 지배권에 놓이게 되었다. 신라는 唐王朝와 더욱 확장된 인적 물적 교류를 진행하였다. 이는 수도 長安과 주변 근기지역에서 확인된 관련 고고자료를 통해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長安과 近畿地域에는 비단 한반도 각국의 인원

20) 권영필, 2008, 「아프라시아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사절’에 관한 연구」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21) 권영필, 2008, 「아프라시아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사절’에 관한 연구」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22) 권영필, 2001, 「河西回廊에서 敦煌으로」, 『중앙아시아연구』, 중앙아시아학회.

23) 段文杰, 1988, 『敦煌石窟藝術論集』, 人民美術出版社.

24) 권영필, 1992, 「유라시아의 한국」, 『조선일보』 9월2일.

25) 권영필, 2001, 「河西回廊에서 敦煌으로」, 『중앙아시아연구』, 중앙아시아학회.

26) 李健超, 2007, 「唐兩京及畿內の高麗, 百濟人」, 『漢唐兩京及絲綢之路歷史地理論集』, 三秦出版社.

李健超, 2007, 「西安附近新發現的高句麗人, 新羅人遺迹」, 『漢唐兩京及絲綢之路歷史地理論集』, 三秦出版社.

들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長安은 강력한 팽창력과 수용성을 가진 唐王朝의 수도로서 이미 국제적 대도시로 자리매김하였을 때이다. 唐은 서역제국과도 빈번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물론 서역제국의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인한 來貢과 商團의 대규모 貿易行爲를 통한 교류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그 규모와 빈도수는 東端과의 교류 규모를 압도하였다<sup>27)</sup>. 그러나 관련 문헌기록과 기년을 구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까지 결핍된 관계로 이들의 구체적 출자를 가려내는 것은 향후의 연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우관 인물도 외에 벽화 중에 보이는 신라승탑의 발견도 역시 고대 한반도와 서역간의 관계를 재차 확인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돈황 제61굴은 전체 둘레가 14m에 이르는 대형굴이다. 동, 남, 벽에 벽화를 그려 놓고 있고 굴 중앙의 서벽에 완전한 五臺山縮小圖가 그려져 있어 더욱 유명해진 석굴이다. 서벽화를 보면 中臺는 벽화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광선이 차단된 암실상태였기에 벽화의 도색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벽화의 상부는 龍宮蘭若을 묘사하고 있고 가운데에는 중대의 지붕과 대현지사, 大建安之寺 등이 표현되어 있다. 벽화 하부에는 五臺縣의 情景를 배치하였다. 大建安之寺의 오른쪽 하단에 바로 신라승탑이 그려져 있다. 이는 아마도 신라의 승려가 입적하여 세운 사리공양탑일 가능성이 높아 혜초의 오대산 입적과 연관 지어 보는 견해도 있다. 만약 신라승탑의 주인이 慧超라면 780년 혜초의 오대산 乾元菩提寺 입적의 문헌기록과 정합하는 것이다.

표 1. 돈황 막고굴 벽화 중의 조우관 인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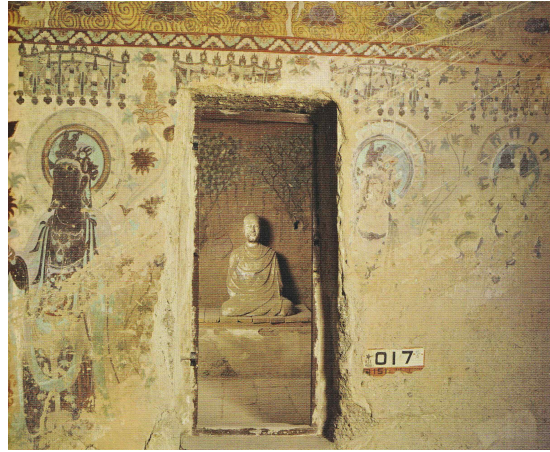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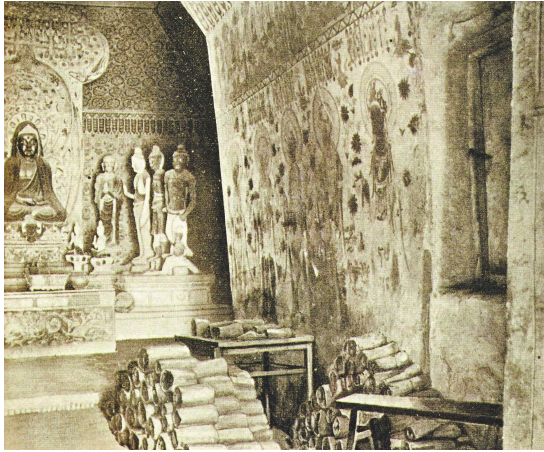
번호	해당벽화 및 조성연대	제시자
1	220굴(貞觀十六年, 642)	段文杰, 1988, 『敦煌石窟藝術論集』, 人民美術出版社.
2	335굴(垂拱二年, 686)	권영필
3	332굴(初唐)	권영필, 1999년 조사
4	237굴(中唐)	권영필, 1999년 조사

27) 樊錦詩·劉永增, 2009, 『敦煌』, 江蘇美術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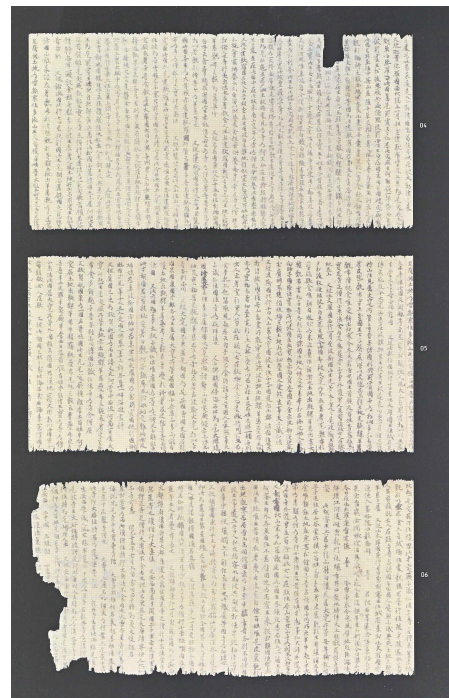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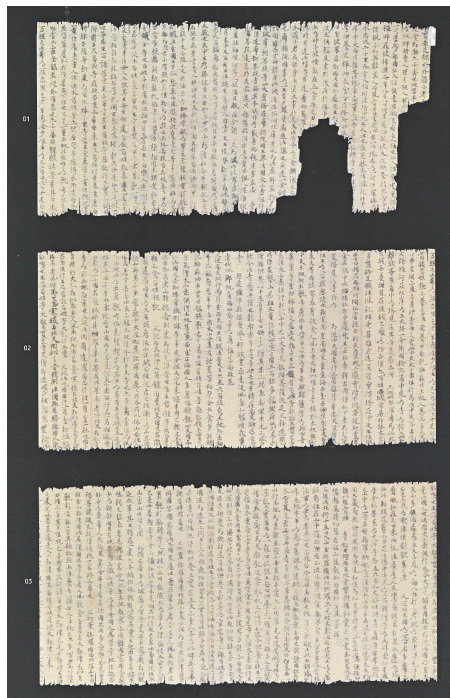
樊錦詩, 1998, 『敦煌石窟』, 世界文化出版社.

敦煌市博物館, 2002, 『敦煌文物』, 甘肅人民美術出版社.

敦煌研究所, 2011, 『敦煌舊影晚清民國老照片』, 上海古籍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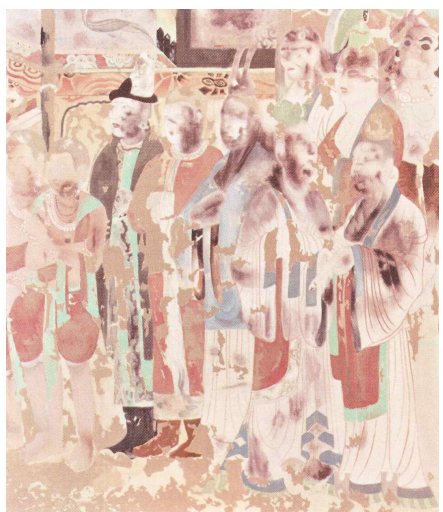


도 7. 돈황 막고굴 제16굴, 제17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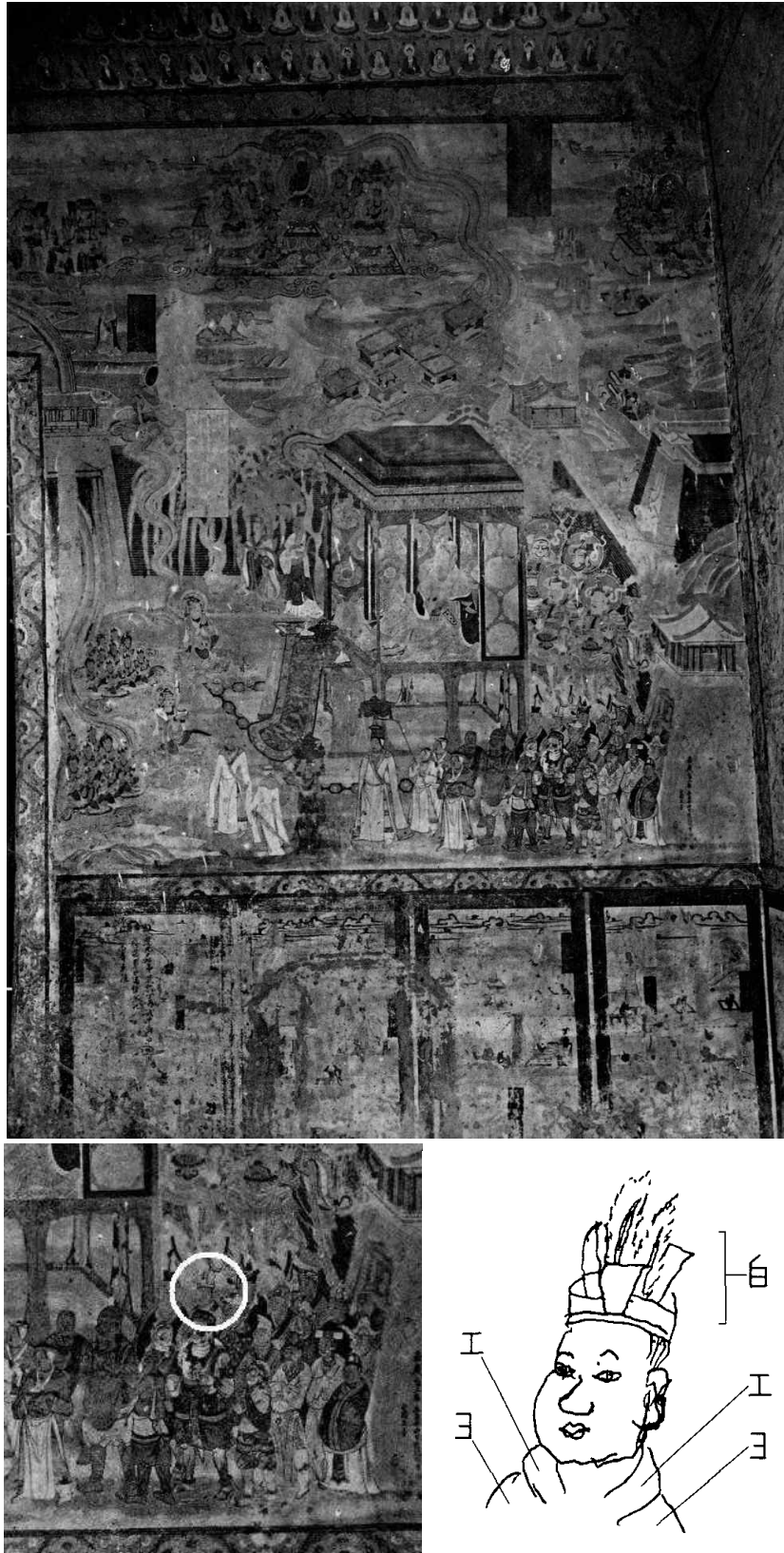


도 8. 돈황 제17굴 출토 혜초 往五天竺國傳 殘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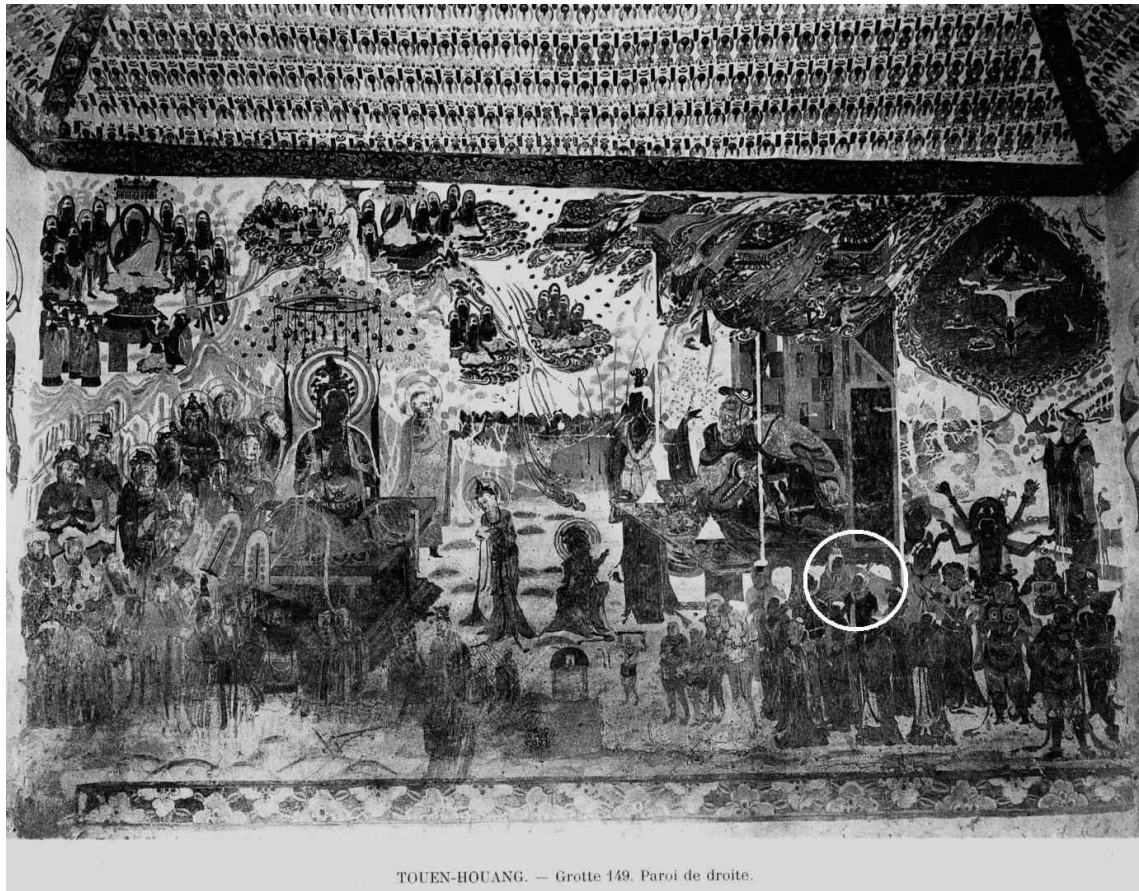




도 9. 돈황 막고굴 제220굴 조우관 인물도(『실크로드와 돈황』, 『敦煌石窟藝術論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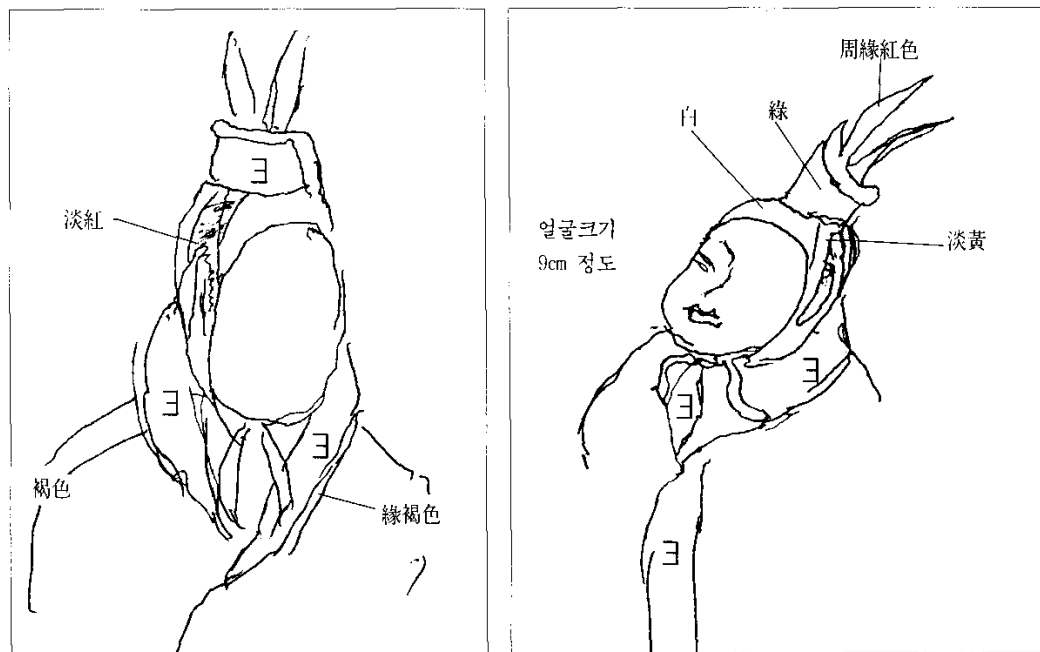


도 10. 돈황 막고굴 제237굴 조우관 인물도(좌: 권영필 스케치, 2001, 『河西回廊에서 敦煌으로』)  
(출처: 펠리오, CAVE SHRINES ABOVE CH. III, 'CAVE OF THE THOUSAND BUDDHAS', TUN-HUANG.)



도 11. 돈황 막고굴 제335굴 조우관 인물도  
(출처: 펠리오, CAVE SHRINES ABOVE CH. III, 'CAVE OF THE THOUSAND BUDDHAS', TUN-HUANG.)





도 12. 돈황 막고굴 335호굴 조우관 인물도(권영필 스케치, 2001, 「河西回廊에서 敦煌으로」)



도 13. 돈황 막고굴 제61굴 新羅僧塔  
(출처: 펠리오, CAVE SHRINES ABOVE CH. III, 'CAVE OF THE THOUSAND BUDDHAS', TUN-HUANG.)



### 3. 中國 出土 古墳壁畫에서 보이는 조우관

1971년 陝西省 西安의 乾陵 東南 약 3km 지점에서 唐 初期 황실 구성원의 墓葬이 확인되었다. 이 묘장은 묘주는 唐 高宗 李治와 武則天의 둘째 아들 李賢, 즉 章懷太子墓로 판명되었다. 그런데 묘도 동벽 벽화 중 각국 사절을 접견하는<sup>28)</sup> 客使圖가 발견되면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벽화의 위치는 묘도 동벽 중앙부분으로 3인의 唐王朝 鴻羅사 관원이 세 명의 외국사절을 접견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3인의 鴻羅사 관원은 아마도 鴻羅사를 관장하는 長官卿과 小卿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바로 뒤에 서 있는 심목고비의 형상을 지닌 번사는 동로마인으로 추측하고 있다. 동로마 사신과 연결해 자리하고 있는 사신이 바로 한반도에서 파견된 사절로서 鳥羽冠을 쓰고 拱手를 하고 있다. 벽화 발견 초기 使節의 구체적 출자에 대해 다수의 연구자들이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 학설은 크게 新羅人說<sup>29)</sup>과 高句麗人說<sup>30)</sup>로 대별되는데 현재까지 신라인설이 다소 유력하다. 초기 관련 논문 중에는 일본인<sup>31)</sup>과 발해인<sup>32)</sup>으로 추정된 예가 있었으나 이 후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

이들 논쟁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노태돈의 고구려인설이다<sup>33)</sup>. 최근의 논저에서 당과 고구려의 정치·외교적 관계, 신라의 官服改定, 고구려인에 대한 당의 인식 등 기존의 신라인설에 대한 반론을 진행하며 여타 불교미술품에서 보이는 조우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동시기 미술자료 및 공예자료에서 포착되는 조우관의 실체를 바탕으로 국가의 공적의례에 당시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사절인 고구려의 客使를 표현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하였다.

28) 陝西省博物館 等, 1972, 「唐章懷太子墓發掘簡報」, 『文物』 7期.

29) 金元龍, 1974, 「唐 李賢墓의 新羅使(?)에 대하여」, 『考古美術』 123-124.

문명대, 1990, 「실크로드上의 新羅使節像 考察」, 『李載堉博士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권영필, 2002, 『렌투스 양식의 그림(상)』, 사계절.

30) 金理那, 1994, 「唐 美術에 보이는 鳥羽冠飾의 高句麗人-敦煌벽화와 西安 출토 은합을 중심으로」,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노태돈, 2003,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 서울대학교출판부.

31) 剛 崎敬, 1974, 「漢唐古墳壁畫のながれ」, 『北九州市立美術館開館紀念 中華人民共和國漢唐壁畫展』(圖錄).

武伯綸 編著, 1797, 『西安歷史述略』, 陝西人民出版社.

王仁波, 1984, 「從考古發現看唐代中日文化交流」, 『考古與文物』 3期.

雲翔, 1984, 「唐章懷太子壁畫客使圖中日本使節質疑」, 『考古』 12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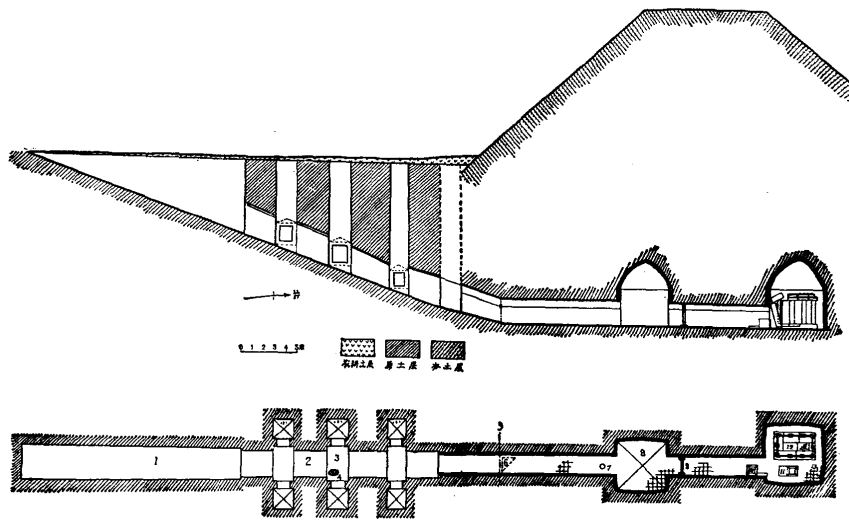
王維坤, 1996, 「唐章懷太子壁畫墓“客使圖”辨析」, 『考古』 1期.

王世平, 2000, 『唐壁畫與唐代中日文化交流國際學術講演會文集』, 陝西省博物館.

32) 西谷正, 1991, 「唐章懷太子李賢墓の禮賓圖おめぐて」, 『兒島隆仁先生喜壽紀念論叢』.

김희정, 1992, 「章懷太子墓 禮賓圖 중 우리나라 使臣 服飾」, 『服飾』 19호, 한국복식학회.

33) 노태돈, 2003,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 서울대학교출판부.



도 14. 陝西省 西安 出土 章懷太子墓 및 禮賓圖 壁畫

#### IV. 中國 出土 考古資料에서 보이는 조우관

고대 한국인의 조우관은 상술한 자료 외에 中國 內地에서 출토된 考古資料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들 출토품들은 주로 佛教美術品으로 金銀器, 舍利函 등이 대종을 이룬다. 불교미술품의 특성상 불교색채가 강한 소재들이 圖像化되어 미술품에 투영되어 있는데 이들 도안에서 조우관의 실체가 보이는 것은 이채로운 현상이다. 그러나 당시 국제정세를 감안한다면 당의 중심권역에 한반도의 고대국가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은 충분한 개연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당시의 국제교류라는 네트워크에서 고대 한반도의 정치체들은 중요한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불교가 주류종교였던 당의 종교적 儀禮器物에 고구려 혹은 신라의 존재가 각인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의 외교적 입장, 출토자료의 제작연대, 그 외의 사적 배경 등에 대한 구명이 그리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이들 등장인물들의 구체적 출

자 및 신분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1. 都管七箇國六瓣銀盒의 조우관

1979년 陝西省 西安 近郊 道政坊 부근에서 출토된 唐代 金銀器 중 都管七箇國六瓣銀盒의 용기 뚜껑 부분에 장식된 문양에는 조우관을 쓴 5명의 고려국인들이 도안되어있다<sup>34)</sup>. 금은기의 형식 분류를 통한 제작연대는 9세기 경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5)</sup>. 이들 인물의 대한 출자에 대한 논의에서 몇몇 이견이 존재했으나 최종적으로 고구려 인물들을 표현한 것으로 일단락되었다<sup>36)</sup>. 은합에 도안된 고려국 명문으로 보아 이들의 출자가 고구려인 것은 분명하다. 고구려의 존재가 멸망 이후에도 당의 미술품에 재현되는 현상은 당의 권역에서 발견된 여타 조우관 인물의 출자를 결정짓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 法池寺址 玉製 舍利函

1990년 陝西省 藍田縣 蔡拐村 法池寺址에서 출토된 玉製 舍利函의 四面에 부처의 다비식과 관련된 그림이 부조되어있다. 특히 다비가 완료된 후 마치 부처의 사리를 분배하는 것과 흡사한 장면에서 조우관을 쓴 인물이 확인되고 있다<sup>37)</sup>. 이는 불교미술에서 자주 보이는 사리분배도가 주요 모티브일 것이다<sup>38)</sup>. 이들 조우관 착용 인물은 아마도 고구려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당의 국제질서에 편입된 대상국가 중 조우관의 전통을 가진 곳은 고구려가 유일하다는 논지에 기초한 것이다<sup>39)</sup>. 그러나 사리함의 제작연대가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로 설정되고 있어 신라인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당시 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신라의 실체를 배제하고 이미 멸망 직전에 있거나 멸망한 고구려와의 관계만 부각시킬 특별한 배경이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해 좀 더 개연성 있는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 3. 慶山寺址 釋迦如來舍利寶帳

1985년 陝西省 臨潼縣 新豐鎮 磚瓦廠 부근에서 취토를 하는 과정에 전실이 확인되었다. 마

34) 張達宏, 1984, 「西安市文管會收藏的幾件珍貴文物」, 『考古與文物』 4期.

韓偉, 1989, 『海內外唐代金銀器粹編』, 三秦出版社.

35) 齊東方, 1999, 『唐代金銀器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6) 雲翔, 1984, 「唐章懷太子壁畫客使圖中日本使節質疑」, 『考古』 12期.

王仁波, 1984, 「從考古發現看唐代中日文化交流」, 『考古與文物』 3期.

田中一美, 1993, 「都管七箇國盒の圖像とその用途」, 『佛教美術』 210.

37) 樊維岳等, 1991, 「藍田出土蓋頂舍利石函」, 『考古與文物』 2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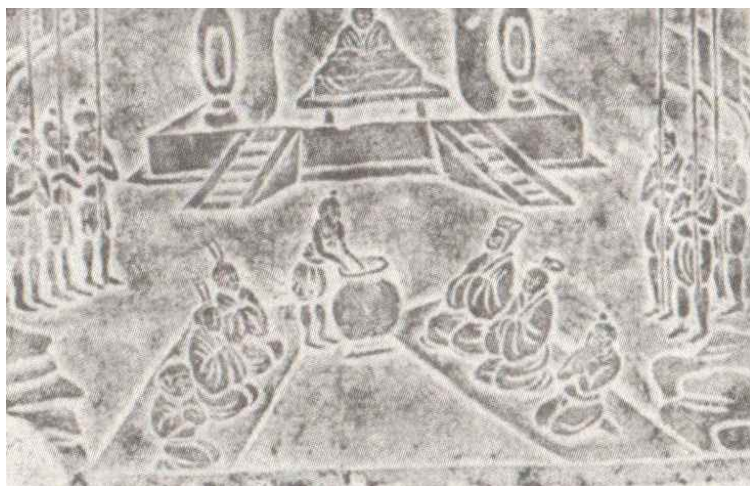
38) 초기 보고서에서는 이를 高僧說法圖라고 예시하고 있으나 사리분배도의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참조 樊維岳等, 1991, 「藍田出土蓋頂舍利石函」, 『考古與文物』 2期.

39) 노태돈, 2003,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 서울대학교출판부.

치 전실묘와 흡사한 구조를 가진 券頂形 전실에서 ‘上方舍利塔基’碑, 石門, 三彩護法獅子, 釋迦如來舍利寶帳 및 陶瓷品들이 출토되었다<sup>40)</sup>. 유적의 성격은 비문내용을 판독한 결과 ‘大唐開元慶山之寺’, 즉 慶山寺의 塔基로 판명되었다. 보장은 慶山寺 塔基에 사리를 안치하기 위해 제작된 精室에서 검출되었으며 寶帳 본체는 전체가 線刻으로 도안을 장식하고 있으며 보장의 정면 額枋에는 “釋迦如來舍利寶帳”이라는 8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다. 사주를 돌아가며 석가불의 고사들이 표현되어있는데 說法, 涅槃, 荼毘, 供奉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공봉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도안을 보면 수미산 사이에 사주로 지탱되는 圓形 蓮花頂 정자가 있고 그 아래 棺을 안치하고 있다. 棺의 左右에 侍奉者가 서있고 그 앞쪽으로 大道가 나 있으며 좌우로 供奉者들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右側 前列에 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오른쪽 첫 번째 인물은 조우관을 쓰고 있다. 관식을 보아 당시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절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인물의 국적을 고구려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조우관 외에는 달리 국적을 밝혀줄 객관적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도 15. 西安市 出土 ‘都管七國六瓣銀盒’ 高麗國 人物圖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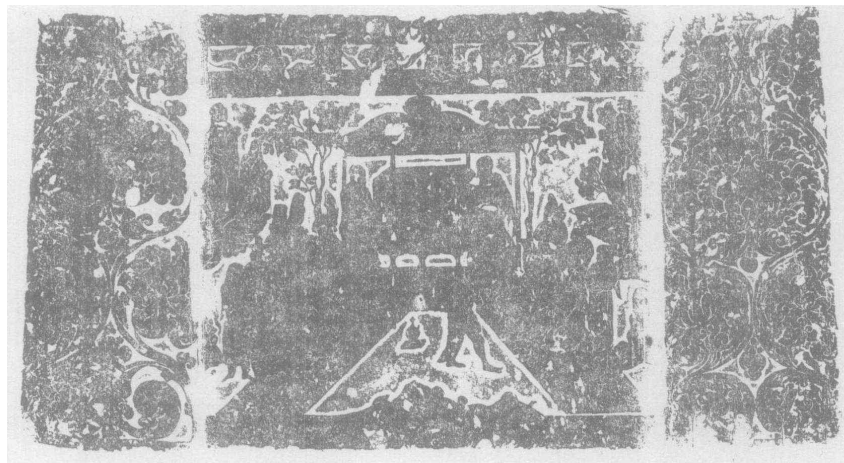


도 16. 陝西省 藍田縣 蔡拐村 法池寺址 出土 玉製 舍利函 人物圖案

40) 臨潼縣博物館, 1985, 「臨潼唐慶山寺舍利塔基精室清理記」, 『文博』 10期.

金理那, 1994, 「唐 美術에 보이는 鳥羽冠飾의 高句麗人-敦煌벽화와 西安 出土 은합을 중심으로」,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도 17. 陝西省 臨潼縣 慶山址 塔基 出土 釋迦如來舍利寶帳, 舍利分配圖

## V. 三國 服飾에 대한 中國人의 認識

상술한 자료에서 표현된 조우관 인물의 출처는 기본적으로 고대 한반도의 국가에서 出使한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인물들의 구체적 신분에 대한 논쟁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이왕의 연구 성과들에서는 회화 자료 본연에서 표현된 복식 상황과 문헌에서 보이는 당시의 교류 기사를 근거로 인물의 구체적 출처를 고구려 혹은 신라로 추단하고 있다. 이들 중 아프라시아 벽화를 제외한 조우관 인물의 출처는 모두 중국이다. 적어도 한반도 삼국의 복식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아프라시아 벽화의 그것보다는 선명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측 문헌기록에서 보이는 삼국의 복식과 관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면 일정한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다. 먼저 鳥羽冠에 관한 문헌기록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표2)

관식에 鳥羽를 착용한 예는 7건이 확인되고 있다. 이 중 “插二鳥羽”라고 명시하며 鳥羽의 수량을 명확히 기재한 예는 3건이 보이고 있다. 이로보아 鳥羽冠은 고구려의 관식의 표지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백제의 경우 ‘加翅’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전쟁에 임할 때는 ‘加翅’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신라의 경우 복식에 대한 서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주로 고구려 및 백제와 유사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梁의 『職貢圖』<sup>41)</sup>를 살펴보면 고구려의 사신은 조우관을 착용하고 있으나 백제나 신라의 사신은 조우관이 아닌 다른 관식을 착용하고 있다.

이렇듯 당시 중국인들이 인식하는 한반도 삼국의 관식은 주로 고구려의 조우관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이는 회화자료나 불교미술품에서도 조우관이 여실히 재현되고 있는 현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전술했듯이 法池寺址 玉製 舍利函이나 慶山寺址 釋迦如來舍利寶帳의 경우와 같이 고구려 혹은 신라의 출자를 밝힐 적극적인 단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당시의 현실적인 정치·외교적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추단을 내릴 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 자료에서 보이는 조우관의 반복성과 그 표현의 사실성은 당시 고구려에 대한 중국인들의 심층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표 2. 삼국의 관식 관련 문헌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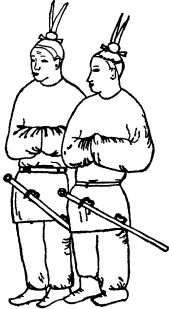



번호	출전 및 관련내용	비고
1	『三國史記』卷三十二: “高句麗樂, 『通典』云: “樂工人紫羅帽, 飾以鳥羽, 黃大袖, 紫羅帶, 大口袴, 赤皮, 五色縹繩, 舞者四人……”	鳥羽, 고구려
2	『魏書』卷一百列傳第八十八·高句麗: “其官名有謁奢、太奢、大兄、小兄之號.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鳥羽, 貴賤有差. 立則反拱, 跪拜曳一脚, 行步如走.”	鳥羽, 고구려
3	『北史』卷九十四·列傳第八十二·高句麗: “人皆頭著折風, 形如弁, 士人加插二鳥羽. 貴者, 其冠曰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	二鳥羽, 고구려
4	『北史』卷九十四·列傳第八十二·百濟: “其飲食衣服, 與高麗略同.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翅, 戎事則不. 拜謁之禮, 以兩手據地爲禮.”	加翅, 백제
5	『周書』卷四十九·列傳第四十一·異域上·高麗: “丈夫衣同袖衫、大口袴、白韋帶、黃革履. 其冠曰骨蘇, 多以紫羅爲之, 雜以金銀爲飾. 其有官品者, 又插二鳥羽於其上, 以顯異之.”	二鳥羽, 고구려
6	『周書』卷四十九·列傳第四十一·異域上·百濟: “其衣服, 男子畧同於高麗.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翅, 戎事則不. 拜謁之禮, 以兩手據地爲敬.”	加翅, 백제
7	『隋書』卷八十一·列傳第四十六·東夷·高麗: “人皆皮冠, 使人加插鳥羽. 貴者冠用紫羅, 飾以金銀. 服大袖衫, 大口袴, 素皮帶, 黃革履.”	鳥羽, 고구려
8	『隋書』卷八十一·列傳第四十六·東夷·百濟: “其衣服與高麗略同.”	불명, 백제
9	『隋書』卷八十一·列傳第四十六·東夷·新羅: “風俗·刑政·衣服, 略與高麗·百濟同. 服色尙素.”	불명, 신라
10	『舊唐書』卷一百九十九上·列傳第一百四十九上·東夷·高麗: “衣裳服飾, 唯王五綵, 以白羅爲冠, 白皮小帶, 其冠及帶, 咸以金飾. 官之貴者, 則青羅爲冠, 次以緋羅, 插二鳥羽, 及金銀爲飾, 衫筒袖,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國人衣褐戴弁, 婦人首加巾幘.”	二鳥羽, 고구려

41) 주지하다시피 『唐閻立本王會圖』와 『五代南唐顧德謙模梁元帝番客入朝圖』에는 고구려 사신이 표현되었으나 宋模本 梁職貢圖에는 고구려 사신이 결실되어 있다.

11	『新唐書』卷二百二十·列傳第一百四十五·東夷·高麗: “大臣青羅冠, 次絳羅, 珥兩鳥羽, 金銀雜釧, 衫笏袖,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庶人衣褐, 戴弁.”	鳥羽, 고구려
12	『舊唐書』卷一百九十九上·列傳第一百四十九上·東夷·百濟國: “其王服大袖紫袍, 青錦袴, 烏羅冠, 金花爲飾, 素皮帶, 烏革履. 官人盡緋爲衣, 銀花飾冠, 庶人不得衣緋紫.”	銀花飾冠, 백제
13	『舊唐書』卷一百九十九上·列傳第一百四十九上·東夷·新羅國: “其風俗·刑法·衣服, 與高麗·百濟略同, 而朝服尚白.”	불명, 신라

표 3. 고대 한국의 조우관 인물도 일람표

출처	鳥羽冠 着用 人物圖	비고
唐閻立本王會圖 고구려사신도		傳 閻立本 王會圖라는 지칭되는 職貢圖에 표현된 조우관 인물도로서 ‘高麗國’이라는 제기가 확인
五代南唐顧德謙模 梁元帝番客入朝圖 고구려사신도		南唐 顧德謙이 臨摹한 『番客入朝圖傳』라고 지칭되는 職貢圖에 표현된 조우관 인물도로서 ‘高麗國’이라는 제기가 확인
唐章懷太子墓 고구려(?) 사신도		唐 高宗 李治와 武則天의 둘째 아들 李賢의 묘인 章懷太子墓의 묘도 동벽 벽화 중 各국 사절을 접견하는 客使圖 중의 조우관 인물도

<p>아프라시압벽화 사신도</p>		<p>1965년 아프라시압 궁전 유지(遺址)에서 발견. 3년간에  걸쳐 발굴된  ‘사신도(使臣圖)’에는 새 깃털  같은 것을 두 개 꽂은  관(조우관)을 쓰고 M자형  장식을 단 칼집에 들어있는 긴  환두도(環頭刀)를 찬 두 명의  인물이 중국·유럽·아랍  사신들과 배열.</p>
<p>쌍영총벽화 고구려 조우관</p>		<p>고구려 쌍영총 벽화에서  확인된 전형적인 고구려인들의  복식.</p>
<p>무용총벽화 고구려 조우관</p>		<p>고구려 무용총 벽화에서  확인된 전형적인 고구려인들의  복식.</p>
<p>돈황제220굴벽화 조우관 인물도</p>		<p>돈황 제220굴 유마경변도에서  확인된 조우관을 착용한  인물도. 고구려인으로 추정.</p>



<p>돈황제335굴벽화 조우관 인물도</p>		<p>돈황 제335굴 유마경변도에서 확인된 조우관 착용 인물도. 고구려인으로 추정.</p>
<p>法池寺址 舍利函</p>		<p>陝西省 藍田縣 蔡拐村 法池寺址 출토 玉製 舍利函 人物圖案</p>
<p>都管七國六瓣銀盒 高麗國 人物圖案</p>		<p>서안 근교에서 출토된 금은기인 都管七國六瓣銀盒의 盒蓋에 장식된 ‘高麗國’ 인물도안.</p>

## VI. 결어

한반도와 서역의 교류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었는지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지만 돈황 220호 벽화에서 조우관을 착용한 가장 이른 시기의 고대 한국인이 등장함으로써 벽화의 조성연대인 642년(唐 貞觀年間) 즈음을 교류 개시 시점의 하한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sup>42)</sup>. 당 제국의 서역 교통로 咽喉地域인 돈황에서 고대 한국인의 등장은 한반도와 실크로드라는 관계를 논급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물론 실크로드를 통한 東西文明의 교차라는 문명사적 큰 흐름에 한반도의 고대 국가도 관여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한반도와 실크로드와의 관계 및 그 개연성을 적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우관이라는 실체는 고대 한국인의 정체성을 현시적으로 보여주는 차별적 문화이기에 이를

42) 권영필, 2001, 「河西回廊에서 敦煌으로」, 『중앙아시아연구』, 중앙아시아학회.

통해 실크로드와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유효한 매개체를 담보하게 되는 것이다.

조우관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자료의 축적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진행된다면 좀 더 새로운 시각의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은 크다 하겠다.

## Official Hats with feather(鳥羽冠) and the Silk Road in Ancient Korea

—focusing on review of Jou-gwan related research history—

Cho, Yun Jae | Dep. History and Archaeology, Inje Univ.

The costume cultures of ancient nations in Korean peninsula have very symbolic characters as they have uniqueness quite different from surrounding areas. Among them, a crown ornament so called as Jou-Gwan(鳥羽冠) has been identified not only from literature records but also from archeological specimens, being evaluated as a very useful resource for restoration of the social situation of the time. Such crown ornament of ancient nations in Korean peninsula had been found from the ancient ruins remaining on the silk road so that they were spot-lighted as evidences to identify linkage between Korean peninsula and the silk road of the time. The emergence of crown ornament would be possible of course, only when the physical substance of the one who wore it should be involved. This provides a chance for more actualization of the circumstances of exchange between the silk road area and the ancient Korean peninsula by interlocking the emergence background of people who wore such crown ornament and their appearances. The text had aimed to cast light upon the exchange with the silk road via the ancient Korea's Jou-Gwan and in addition to review the research performances of existing studies so that it can have a significance as a precedent study for future consideration on the exchange between both parties.



## 古代韓国の東西文化交流の様相

篠原啓方 | 日本 關西大學 文學部 準教授

はじめに

日本におけるシルクロードへの関心は、全盛期（80～90年代）に比べるとやや薄れたように思われるが、それでも書店のウェブサイトで「シルクロード」と入力すると、シルクロードにかかわる多様なジャンルの新刊が毎年10冊以上でている。このようにシルクロードは、いぜん人々の魅力をひきつけるテーマであると言える。

報告者は韓国古代史の一研究者として、古代韓国の東西交流にもいくらか関心をもってきたが、先学の多くの業績をまとめあげるにはあまりに力不足である。そこで本稿では、古代韓国の東西交流について、筆者が関心を抱いているテーマを中心に、近年の研究成果や新資料を簡単に紹介することにしたい。

### 1. シルクロード研究と古代韓国

日本においては、シルクロードの終着点（延長線）という位置づけのもと、奈良を中心とする古代文化が注目された。1993年、なら・シルクロード博覧会（1988）の開催を記念して設立された記念国際交流財団の内部に設置されたシルクロード学研究センターは、15年以上にわたってシルクロードにかかわる多くの研究成果を支援してきたが、奈良県の財政悪化を受けて2010年3月に廃止された。日本経済の低迷は海外調査の支援にも少なからぬ影響を与えているようである。本稿では特に古代に関連のあるものを挙げておく。

- ・『古代ホラズムの研究：アムダリヤ下流部を中心として』（シルクロード学研究2, 1996）
- ・『仏伝美術の伝播と変容：シルクロードに沿って』（シルクロード学研究3, 1997）
- ・『中央アジア北部の仏教遺跡の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4, 1997）
- ・『隊商都市パルミラの東南墓地の調査と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5, 1998）
- ・『ガンダーラにおける仏教寺院の復原と整備に関する調査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9, 2000）
- ・『中国・新疆トルファン交河故城城南區墓地の調査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10, 2000）
- ・『観音菩薩像の成立と展開：変化観音を中心にインドから日本まで』（シルクロード学研究11, 2001）
- ・『中国・青海省におけるシルクロードの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14, 2002）
- ・『装飾意匠にみる東西交流：東漸と西漸の事例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18, 2003）
- ・『新疆出土のサーサーン式銀貨：新疆ウイグル自治区博物館蔵のサーサーン式銀貨』（シルクロード学研究19, 2003）

- ・『中国・シルクロードにおける舍利莊嚴の形式変遷に関する調査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21, 2004）
- ・『古シルクロードの軍事・行政システム：河西回廊を中心にして』（シルクロード学研究22, 2005）
- ・『四川省における南方シルクロード(南伝仏教の道)の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24, 2005）
- ・『中日石造物の技術的交流に関する基礎的研究：宝篋印塔を中心に』（シルクロード学研究27, 2007）
- ・『長城地帯青銅器文化の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29, 2008）
- ・なら・シルクロード博記念国際交流財団『中国出土のソグド人墓誌の考古学的研究』（2010）

一方、シルクロードと韓国古代史との関係でみれば、2009年に新羅の東西文化交流を中心とする特別展『ユーラシアの風 新羅へ』が日本の美術館で巡回展示され、多くの日本人に新羅の貴重な文物が紹介された<sup>1)</sup>。特に5-6世紀の新羅の東西交流を示す文物は、金属・ガラス製品において顕著であるが<sup>2)</sup>、それを扱ったものとして、由水常雄の著作が挙げられる<sup>3)</sup>。ガラス工芸を中心とする東西交流史の研究者であり、ガラス工芸家でもある著者は、実験考古学的手法によって当時のガラス製品の復元を試み、そこから得た知見をもとに、先学の見解のいくつかが誤りであると指摘する。また5-8世紀におけるアジア出土のローマングラスを比較しつつ、中国製のガラスは酸化鉛を加えて作る鉛ガラスであり、アルカリ石灰ガラスは中央アジアや西アジア産であること、新羅出土の製品の多くはアルカリ石灰ガラスであるが、その一部は西および中央アジアではなく、新羅で製作された可能性があるという興味深い指摘も行っている。

これ以外にも、筆者が把握しきれない数多くの研究があると思われるが、例えば韓半島の文化を視野に入れた西域と中国文化の比較研究を収めた論著<sup>4)</sup>や、三次元レーザー撮影による新羅王陵石像彫刻の比較研究に収録された新羅の東西文化交流に関する論考<sup>5)</sup>なども一例として紹介しておく。

## 2. 馬の文化

漢の武帝が張騫からの情報にもとづき、大宛（フェルガナ）に使者を送って汗血馬を求めた話

1) 山本孝文『ユーラシアの風 新羅へ』（MUSAEA JAPONICA, 2009）

2) 土器においては角杯の東西交流も指摘されている。本稿では近年の論文をあげるにとどめておく。

岩崎仁志2006「日韓の角杯形土器」『日韓交流史理解促進事業調査研究報告書』日韓交流史理解促進事業実行委員会

木下亘2010「日本列島出土角杯をめぐる」『日本基層文化論叢』雄山閣

巽善信1997「角杯にみられる西方の影響ーリュトン東方伝播試論ー」『宗教と考古学』

山田俊輔「角杯に見るユーラシアの東西交流」(『中国シルクロードの変遷』, 雄山閣, 2007)

井上主税「朝鮮半島に於ける角杯の導入と展開過程について」(ヘレニズム〜イスラーム考古学研究会『第18回 ヘレニズム〜イスラーム考古学研究報告書』, 2011)

3) 由水常雄『ローマ文化王国-新羅(改訂新版)』(新潮社, 2005)。『正倉院ガラスは何を語るか』(中公新書, 2009)

4) シルクロード調査研究所編『中国シルクロードの変遷』(雄山閣, 2007)

5) 『三次元計測技術を用いた新羅王陵石像彫刻の総合的比較研究』(2006-2008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 基盤研究(B), 代表: 木下亘)。一例として、ササン朝ペルシアに由来するとされる連珠文と新羅石造物に彫られた獅子孔雀連珠文との関係を指摘した木下亘「国立慶州博物館蔵獅子孔雀連珠円文石造物について」, 掛陵の新羅王陵石造の服飾に見られる西域的要素について述べた宮下佐江子「新羅王陵の石像に見られる服飾品について」がある。

は有名であるが、シルクロードは中国側の絹と、草原（中央アジア）側の馬を交易することが本質であったとする指摘（絹馬交易）もあり<sup>6)</sup>、馬は中国において重要な交易品でもあった。

前述のように、金製品やガラス製品といった文物を通じ、韓半島と中央アジア・西アジアを結ぶ道が開けていたことは自明であるが、馬の文化についてはどうであろうか。韓半島から日本列島へと続く騎馬の風習は、高句麗の南下に伴うものと考えられてきたが、特に馬具の系譜においては、その淵源が前燕にまでつながることは、中国東北部における発掘調査によって解明されつつある。

こうした馬の文化は、韓半島を経て日本にももたらされた。日本に馬の文化が入ってきたのは4世紀後半頃以降とされており、各地で馬具が見つかるが、近年、大阪で馬の全身骨格が見つかり、その復原作業が行われた<sup>7)</sup>。

馬の全身骨格が見つかったのは、大阪府の四條畷市にある葦屋北遺跡である<sup>8)</sup>。同遺跡は、現在の地形では内陸に位置しているが、当時は気候の温暖化により海水が内陸部まで入りこんで形成された河内湖（かわちこ）の近くにあった。5カ所の居住域に竪穴住居67棟、掘立柱建物74棟、井戸23基という大規模な集落遺跡であり、馬具数点（鐙、轡、鞍）をはじめ<sup>9)</sup>、韓半島系とされる土器（韓式土器）、そして牧場の存在をうかがわせる遺構も見つかっている。こうした点から同遺跡は渡来人系の集落と考えられている。

馬の骨格は、埋葬土壌から見つかった。時期は古墳時代中期（5世紀後半頃）と考えられている。おおよそ5-6歳とされ、人間でいうと20代にあたる。

復原にあたっては、日本の在来種が参考とされた。日本には現在、在来種（日本に入ってきてから、外来種との交配がない種）として、平均体高132cm程度の中型馬（北海道和種、木曾馬、対州馬、御崎馬）、平均体高115cm程度の小型馬（トカラ馬、宮古馬、与那国馬、野間馬）などがある。馬の骨を計測・複製して組み立てた結果、体高は127cm（馬の体高は、肩胛骨で計測するという）で、在来種としては御崎馬に近いが、頭部は木曾馬に近いことが分かり、両者を合わせた形で骨格を復原し、2012年には肉付けされた馬の模型を製作した。この模型を基準と考えれば、日本列島の古代馬は、決して大きいとはいえない。

中国においては古くから多くの馬俑が見つかるが、その中には非常に大型のものや、脚が短く中型のものもある。いっぽう記録によると、高句麗の馬は小さく登山に適しているとある<sup>10)</sup>。実際に高句麗の壁画を見ても、例えば三室塚の騎馬戦闘図は、現在のサラブレッドほどの体軀ではなく、中型馬程度のようにみえる。ただ高句麗は南朝にも馬を送るなど、馬の産出、提供国としての一面も見せており、高句麗の馬が国際的にも評価されていたことをうかがわせる<sup>11)</sup>。こうした点からみれば、馬具だけでなく、馬もまた高句麗と韓半島南部、そして倭へと伝

6) 松田壽男『東西文化の交流』（講談社、2005）

7) 小浜成「古墳時代馬の骨格復原」（『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館報』12、2009）

8) 大阪府教育委員会『葦屋北遺跡1』（大阪府埋蔵文化財調査報告2009-3、2010）

9) 同遺跡からは馬具も確認されており、これについては5世紀前～中葉とする意見がある（諫早直人『東北アジアにおける騎馬文化の考古学的研究』、雄山閣、2012）。

10) 『三国志』魏書高句麗伝。「其馬皆小、便登山」

わっていたことが考えられる。

日本ではかつて、韓半島南部や日本で突如として馬具が登場することから、騎馬民族征服説が登場したが、それぞれの馬具の製作技術やデザインに独自性がみられ、ある集団の移動に伴う一律的な変化とは言えず、騎馬民族の移動や伝播は想定しがたいという<sup>12)</sup>。また前燕においては馬具装飾を身分表象として用いており、その観念が高句麗や韓半島南部、倭にも影響を及ぼしたとする見解がある<sup>13)</sup>。

このように、現時点における研究成果からみれば、5世紀以降の馬や馬具の文化は、東北アジア一帯でひとつの文化圏を形成しており、中国-西域間のような東西交流の様相はあまり見られない。

韓国では近年も慶州のチョクセムで半島最古とされる馬甲が見つかるなど、馬文化の痕跡を多く残している。今後馬の全身骨格が見つかる可能性もあり、復原作業への期待が高い。

### 3. アフラシアブ都城遺跡に見られる韓国人使節

韓国古代史において、東西交流の痕跡を外国に残した代表的な例が、アフラシアブ (Afrasia b) 都城遺跡の壁画に登場する「古代韓国人使節」である。1965年にウズベキスタン共和国 (当時はウズベク・ソビエト社会主義共和国) のサマルカンドで発見されて以来、多くの論者が西壁の鳥羽冠をかぶった二人の人物を「古代韓国人使節」だと指摘してきた。その国籍については、近年は高句麗人説を指示する研究者が多いように思われるが、彼らが古代韓国人であるという点は、ほぼ定説になりつつある。

本稿では、壁画の調査を踏まえた最近の成果として、フランス国立高等研究院 (EPHE) のフランツ・グルネ (F.grenet) の見解を紹介しておく。彼は、壁画の内容を次のようにまとめている<sup>14)</sup>。

壁画の主人公は、サマルカンド (康国) 王のワルフマーン (拂呼縵) である。サマルカンドは永徽年間 (650-655) に唐と国交をむすび、658年にはワルフマーン王が高宗から康居都督府の都督に任命された。

壁画のある部屋は、東壁の中央に入口がある。壁画の題材は、右手 (北壁) は中国、東壁はインド、奥壁 (西壁) と左手 (南壁) はサマルカンドに関する内容である。北壁にはワルフマーン王に匹敵する大きさで描かれた男性像があり、これは唐の皇帝 (高宗) だとする。この二つのうち西壁は、ノールーズ (nowruz) に行われる王への謁見の儀式である。ノールーズとは、ゾロアスター教の暦では一

11) 『宋書』巻97, 列伝57, 高句麗國璉每歲遣使。「十六年, 太祖欲北討, 詔璉送馬, 璉献馬八百匹」

12) 諫早直人, 前掲書。

13) 諫早直人, 前掲書。

14) フランツ・グルネ「サマルカンド出土「使節の壁画」に関する最新の研究」(文化財研究所東京文化財研究所文化遺産国際協力センター編『シルクロードの壁画—東西文化の交流を探る』, 言叢社, 2007)



年の始まりにあたり、伝統的に春分にあたるが、この当時のノールーズは夏至にあたる<sup>15)</sup>。

このようにアフラシアブの壁画は、各地から訪れた使者がワルフマーン王の偉大さを讃える構図で製作されており、古代韓国人がそのひとつとして登場するのである。壁画製作の中心年代は7世紀中～後半であり、壁画の内容は唐との交流が盛んであった650年代とみられている。これが高句麗人であり、当時の状況に鑑みれば「高句麗末期における唐との熾烈な対立の中で展開された高句麗の西方諸国への外交活動の一端」という指摘<sup>16)</sup>も、首肯されよう<sup>17)</sup>。

しかしその一方で、この壁画から史実を読み取ることに疑念を呈する指摘がある。それは構図の定型化という点においてである。影山悦子<sup>18)</sup>によると、中国の壁画における外国使節の構図を例にとり、中国においては外国使節到来の場面を描く際に、韓国人使節を描くことがかなり一般化しており、使節の到来の有無には関係なく描かれる可能性がある。その論拠となるのが敦煌莫高窟の維摩詰経変相図である。莫高窟には67例の維摩詰経変相図が知られているが、そこに描かれている維摩詰のまわりには必ず外国使節（蕃王）がいる。ほとんどの場合、蕃王の集団の前列に並んでいるのは数人の南方系民族であり、半裸で肌の色が濃く裸足であるのが特徴で、彼らの後方に並んでいる人々は、容貌、冠や衣服が明確に区別して描かれていて、様々な国々の人々が維摩詰の見舞いにつけつけたことが一目で分かるようになっている。

影山は維摩詰経変相図のうち唐代以降の作品を15例見だし、そのうち11例に韓国人使節またはその変形と思われる人物像を確認したとする。そして三分の二以上に韓国人使節の図が描かれるというのは、外国使節を描く際に決まって手本にする図というものが存在し、その図の使節の一人が韓国人使節であったことを推測させるとする。こうした定型化した外国使節の図が中国の中心部において生み出され、それが敦煌壁画に活用されたと考えるのである。

一方、アフラシアブの壁画と中国唐代の壁画にも、類似した題材があるという。その例として、影山は唐李賢（章懷太子）墓、永泰公主墓（706）の前室東壁の宮女、蘇思勗墓（745）などを挙げ、特に狩獵図（北壁）、外国使節（西壁）、船遊び（北壁）が李賢墓と題材が一致していることを指摘する。

無論、高句麗や新羅と中央アジア・西アジアとの関係については、多くの遺物から裏づけられており、影山もそうした東西の人的交流を否定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だがこうした指摘を認めるのであれば、この壁画を根拠に、当時の国際情勢と関連づけて高句麗人使節の来訪、高句麗の東西交流を述べるのは困難となる<sup>19)</sup>。

15) 本文中で、グルネは中世の学者ビールーニー（al-Biruni）の記録（The Chronology of Ancient Nations, translated by C.E. Sachau 1879, London）を多く引用している。

16) 李成市『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国家』（岩波書店、1998）

17) ちなみにグルネは、この高句麗人を高句麗からの使節ではなく、中国使節団の一員（護衛）と考えている。

18) 影山悦子「サマルカンド壁画に見られる中国絵画の要素について—朝鮮人使節はワルフマーン王のもとを訪れたか—」（『西南アジア研究』49、1998）。「煌莫高窟維摩詰経変相図中の外国使節について」（『神戸市外国語大学研究科論集』1、1998）

19) 同章の内容は、金英二「西域と朝鮮—「朝鮮人使節」は実際にサマルカンドを訪れたのか—」（河合文化教育研究所『研究論集（特集 アジアの歴史と近代（6）シルクロードと東西文化交流—一日中の歴史、文化と教育—）』6、2009）の多く

#### 4. 龍江洞古墳の墓誌からみた異国人

龍江洞は慶州市の中心街から北川を越え、北東におよそ2キロ離れた場所にある。この一帯では、7世紀以降の古墳が多く分布しているが、異国文化を思わせる墳墓が数例見つかっている。ここで紹介するのは、大邱カトリック大学校（発掘当時は暁星女子大学校）が調査した龍江洞古墳群である。同大学における龍江洞古墳群の調査は1991年に行われ、2010年になってその報告書が刊行された<sup>20)</sup>。

報告書によると、墳丘墓は20基、無墳丘墓は数十基が見つかった。これらのうち大型・中型古墳は、遺物の編年などからみて、おおよそ古新羅末期～統一新羅期にあたるという。

特に注目されるのは、6号墳である。6号墳は両袖式の羨道をもつ大型の横穴式石室墳で、玄室の規模は320×260と同調査においては最大で、出土遺物も多数確認された。6号墳の特徴として次の3つがあげられる。

1. 遺骸を置く床面に磚がしかれている点
2. 褐色の釉がかかった有蓋両耳壺（1点）が見つかった点
3. 墓誌（1点）が見つかった点

いわゆる屍床台に磚を用いたのは、同調査では6号墳と9号墳があり、石で屍床台を設ける例が圧倒的に多い新羅古墳の中では珍しい。また褐色釉の有蓋両耳壺は6号墳のみから出土し、報告書では隋唐代の長沙窯製である可能性を指摘している。同遺物が新羅において貴重なものであり、被葬者はそうした中国からの搬入品を所有できる身分であったことを示すものといえよう。

墓誌は、玄室の前壁（入口）である南壁と東壁が会合する隅で見つかった。材質は石（花崗岩）で、誌石に蓋石をかぶせた状態で発見された。6世紀には墨書の例があるが、7世紀以降の新羅墳墓から出土した唯一の墓誌である。規格は縦横37cm×37cm×厚さ約8cmで、墓誌は刻字ではなく朱書である。肉眼での判読は困難であるが、70字ほどが確認でき、1、2行の文字、字間は、3～7行の文字、字間に比べ大きい。文字は残念ながら文字の字画がきれいに残っているものがほとんどなく、内容を読み取るのは極めて困難である。

以上が報告書の内容であるが、いくつかの所見を付け加えておきたい。まず朱丹や朱書は、字を刻むための前段階として行われるものとされるが、朱書や墨書で記すだけの墓誌も多く見つかっている。最も出土例が多いのは、高昌国をはじめとする新疆ウィグル地域の墳墓であり、内地においては隋唐代にもわずかながら例がある。こうした点からみれば、新疆との類似性が指摘

を参考にしている。

20) 大邱가톨릭大学校 『慶州堽花女中高新築敷地内慶州龍江洞古墳群Ⅰ(第1区間)』および『慶州堽花女中高新築敷地内慶州龍江洞古墳群Ⅱ(第2区間)』(2010)

できるが、ただ同地域の墓誌（墓表）は塼製であり、ほとんどが蓋をもたない。蓋を有する墓誌は、南北朝期をへて北朝の墓誌を中心とする様式として定型化する。縦横37cmというサイズは、隋唐代の墓誌としては小型に属し、新疆出土の墓誌（墓表）には一般的なものである。いずれにせよ、龍江洞古墳の墓誌は典型的な中国の墓誌様式とみてよく、製作者は、そうした中国の墓誌文化を熟知した人物であったことが分かる。

ただ、こうした墓誌が新羅において類例のないことを考えると、墓誌が新羅国内における見聞にもとづいて製作できたとは考えにくい。また被葬者のために墓誌を残すという例もまた新羅においては特殊である。こうした特殊性から、被葬者は新羅人ではなく、中国からの新羅に到来し、新羅で死亡した人物であった可能性も想定すべきである。

龍江洞では、文化財研究所（1990）が調査した別の古墳から異国風の土俑と青銅製の十二支像（龍江洞古墳）が見つかった。十二支像は隋唐代の墓の副葬品として登場するもので、異国風の人物俑は、龍江洞と隣接した陸城洞古墳からも見つかった。

7世紀以降の新羅には、中国や西域から多くの文物がもたらされた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が、この墓誌は、中国文化になじんだ渡来人集団の存在をうかがわせる好資料であると同時に、新羅を中心とする東西文化交渉の直接の担い手を考える上で貴重な資料である。

## おわりに

以上、近年の著作や資料を中心に、古代韓国における東西交流研究の例を紹介した。これまで大まかに中国・西域起源とされてきた外来文化も、今後は現地の研究成果をもとに、より具体的かつ精緻な分析が進展するものと期待される。



## 고대 한국의 동서문화 교류양상

시노하라 히로카타 | 일본 간사이대학 문학부 준교수

### 들어가며

실크로드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왕년의 전성기(80~90年代)에 비하면 줄어든 것 같다. 그러나 서점 웹사이트 검색창에 “シルクロード(실크로드)”를 입력하면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매년 10권 이상 출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실크로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발표자는 한국고대사 전공자로서 고대 한국의 동서교류에도 관심을 가지고 왔으나, 선학들의 훌륭한 연구업적을 소개,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대 한국의 동서교류 양상과 관련해, 발표자가 관심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근년의 연구 성과와 새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토론거리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 1. 실크로드 연구와 고대 한국

일본에서는 나라(奈良)를 중심으로 한 고대문화를 실크로드의 종착점(연장선)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실크로드의 위상을 부각시켜왔다. 1988년에 개최된 나라·실크로드 박람회를 계기로 나라·실크로드기념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되었으며 1993년에는 재단 안에 실크로드학 연구센터가 마련되었다. 이 연구센터에서는 15년 이상 실크로드와 관련된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으나, 나라현의 재정악화로 인해 결국 2010년 3월에 폐쇄되었다. 일본경제의 침체로 인해 문화재 정책에 대한 예산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실크로드 등 해외 조사에 대한 지원 또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하다. 이 연구소에서 간행된 보고서 중 특히 고대사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古代ホラズムの研究：アムダリヤ下流部を中心として』(シルクロード学研究2, 1996)
- 『仏伝美術の伝播と変容：シルクロードに沿って』(シルクロード学研究3, 1997)
- 『中央アジア北部の仏教遺跡の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4, 1997)
- 『隊商都市バルミラの東南墓地の調査と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5, 1998)
- 『ガンダーラにおける仏教寺院の復原と整備に関する調査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9, 2000)
- 『中国・新疆トルファン交河故城城南区墓地の調査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10, 2000)
- 『観音菩薩像の成立と展開：変化観音を中心にインドから日本まで』(シルクロード学研究11, 2001)
- 『中国・青海省におけるシルクロードの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14, 2002)

- 『裝飾意匠にみる東西交流：東漸と西漸の事例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18, 2003)
- 『新疆出土のサーサーン式銀貨：新疆ウイグル自治区博物館蔵のサーサーン式銀貨』(シルクロード学研究19, 2003)
- 『中国・シルクロードにおける舍利莊嚴の形式変遷に関する調査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21, 2004)
- 『古シルクロードの軍事・行政システム：河西回廊を中心にして』(シルクロード学研究22, 2005)
- 『四川省における南方シルクロード(南伝仏教の道)の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24, 2005)
- 『中日石造物の技術的交流に関する基礎的研究：宝篋印塔を中心に』(シルクロード学研究27, 2007)
- 『長城地帯青銅器文化の研究』(シルクロード学研究29, 2008)
- なら・シルクロード博記念国際交流財団 『中国出土のソグド人墓誌の考古学的研究』(2010)

한편 실크로드와 한국고대사의 관계로 보면, 2009년에는 신라의 동서문화교류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의 바람 신라로(ユーラシアの風 新羅へ)』 특별전이 일본 미술관에서 순회 전시되어 많은 일본인들에게 신라의 귀중한 문물을 선보였다.<sup>1)</sup> 특히 5-6세기 新羅의 동서문화교류 양상은 금속·유리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sup>2)</sup> 근년 요시미즈 쓰네오(由水 常雄)가 이 문물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엮은 책이 발간되었다.<sup>3)</sup> 동서교류사 연구자이자 유리공예 작가이기도 하는 그는 실험고고학적 방법으로 유리그릇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선학들의 견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또 5-8세기 아시아 각지에서 출토된 로만글래스들의 비교를 통해, 산화연(酸化鉛)을 첨가하는 납유리를 사용하는 중국과 알칼리석회유리로 그릇을 제작하는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는 기술면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신라에서 출토된 제품은 대부분 알칼리석회유리로 제작된 것인데 그 일부는 신라에서 직접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발표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수많은 연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여기서는 한반도 문화를 포함한 서역과 중국문화의 비교연구 논문을 수록한 학술서와<sup>4)</sup> 3차원 레이저 촬영을 통한 新羅王陵石像彫刻의 비교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몇가지 논고<sup>5)</sup>만을 소개해 두고자 한다.

1) 山本孝文 『ユーラシアの風 新羅へ』(MUSAEA JAPONICA, 2009)

2) 토기 중 특히 角杯의 동서교류 양상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논문들을 소개해 놓는다.

岩崎仁志 「日韓の角杯形土器」(『日韓交流史理解促進事業調査研究報告書』, 日韓交流史理解促進事業実行委員会, 2006)

木下亘 「日本列島出土角杯をめぐる」(『日本基層文化論叢』 雄山閣, 2010)

巽善信 「角杯にみられる西方の影響ーリェトン東方伝播試論ー」(『宗教と考古学』, 1997)

山田俊輔 「角杯に見るユーラシアの東西交流」(『中国シルクロードの変遷』, 雄山閣, 2007)

井上主税 「朝鮮半島に於ける角杯の導入と展開過程について」(ヘレニズム〜イスラーム考古学研究会 『第18回 ヘレニズム〜イスラーム考古学研究報告書』, 2011)

3) 由水常雄 『ローマ文化王国-新羅(改訂新版)』(新潮社, 2005). 『正倉院ガラスは何を語るか』(中公新書, 2009)

4) 실크로드調査研究所編 『中国シルクロードの変遷』(雄山閣, 2007)

5) 『三次元計測技術を用いた新羅王陵石像彫刻の総合的比較研究』(2006-2008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 基盤研究(B), 代表: 木下亘). 한 예로서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유래된다고 하는 連珠文과 신라 석조물에 새겨진 사자궁작연주문의 관계를 지적한 기노시타(木下 亘 「国立慶州博物館蔵獅子孔雀連珠門文石造物について」), 패룡의 신라왕릉 석조물 복식에 보이는 서역적 요소에 대해 논한 미야시타(宮下 佐江子 「新羅王陵の石像に見られる服飾品について」) 등이 있다.

## 2. 말(馬)의 문화

한 무제(武帝)가 서역에서 돌아온 장건(張騫)의 정보로 인해 대원(大宛, 페르가나)에 사신을 보내어 한혈마(汗血馬)를 구하고자 했음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실크로드는 중국의 비단과 초원(중앙아시아)의 말을 교역하는 것이 본질이었다는 지적(絹馬交易)<sup>6)</sup>도 있듯이 말은 중국에서 중요한 교역품 중 하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금속이나 유리제품과 같은 문물을 통해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잇는 길이 열려 있었음은 분명하나 말 문화에 대해서는 어땠을까.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이어지는 기마 문화의 전파는 고구려의 남하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근년 중국동북지방에서 이루어진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고구려 마구(馬具)의 계보가 모용선비의 前燕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sup>7)</sup>

일본에 말 문화가 들어온 것은 4세기 후반 이후로 보이며 이후 일본 각지에서 마구가 출토되기 시작되는데, 근년 오사카에서 말 자체의 전신골격이 발견되어 그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sup>8)</sup>

말의 전신골격은 오사카의 시조나와테(四條畷)시에 있는 시토미야키타(薮屋北)유적에서 발견되었다.<sup>9)</sup> 이 유적은 현재 지형으로 보면 내륙부에 있는데 당시에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 들어온 바닷물로 형성된 카와치(河内)호의 호숫가에 있었다. 조사 지역은 5곳의 주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혈주거지 67동, 굴립주건물 74동, 우물 23기가 발견된 대규모 취락유적이다. 또 마구(鎧, 轡, 鞍)를 비롯하여<sup>10)</sup> 한반도에 연원을 찾을 수 있는 각종 토기(韓式土器), 그리고 목장을 상징케 하는 유구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출토상황을 감안하여 담당자는 이 유적을 도래인을 중심으로 한 취락으로 보고 있다.

말뼈는 토광에 매장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말의 매장시기는 일본에서 말하는 고분시대 중기(5세기 후반경)로 보이며 죽었을 때 나이는 5-6세로서 사람이면 20대에 해당된다고 한다.

복원시에는 일본의 재래종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현재 일본 재래종(일본에 들어온 후 외래종과의 교배가 없는 종)은 평균 체고(體高)가 132cm 정도가 되는 중형마(北海道和種, 木曾馬, 対州馬, 御崎馬), 평균 체고가 115cm 정도인 소형마(トカラ馬, 宮古馬, 与那国馬, 野間馬) 등이 있다. 출토된 말뼈를 계측·복제하여 조립한 결과 체고는 127cm(말 체고는 견갑골 높이를 기준으로 함)로서 재래종으로서는 미사키(御崎)馬來 가까우나 머리는 기소(木曾)馬來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와 두 말을 참고하여 골격을 복원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골격에 살을 붙인 모형을 제작하였다. 이 모형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열도에 들어온 말은 결코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말모양토기(馬俑)가 많이 출토되는데, 그 모습은 건장한 체구를 갖춘 것, 다리가 짧고 비교적 체구가 작은 것 등 다양하다. 마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6) 松田壽男 『東西文化の交流』 (講談社, 2005)

7) 諫早直人 『東北アジアにおける騎馬文化の考古学的研究』 (雄山閣, 2012)

8) 小浜成 「古墳時代馬の骨格復原」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館報』 12, 2009)

9) 大阪府教育委員会 『薮屋北遺跡 1』 (大阪府埋蔵文化財調査報告2009-3, 2010)

10) 유적에서도 출토된 마구는 5세기 전~중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諫早直人, 앞의 책).

서역과의 교류를 통해 재래종과 외래종 등 다양한 말이 존재했던 중국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료에 의하면 고구려 말은 키가 작고 산을 오를 때 좋다고 한다.<sup>11)</sup> 고구려 벽화고분 그림에서도 예컨대 삼실총(三室塚)의 기마전투도(騎馬戰鬪圖)는 현재의 서리브레드와 같은 체구가 아니라 중형마 정도로 보인다. 이처럼 고구려 말 또한 크지는 않았던 것 같으나 남조의 요구에 말을 보내는 등 말의 산지, 제공지로서의 면모도 보이고 있어 고구려 말이 외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sup>12)</sup> 그렇게 볼 때, 말 또한 마구와 함께 高句麗로부터 한반도 남부, 그리고 왜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4-5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와 일본에서 갑자기 마구가 등장하는 현상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騎馬民族이 일본으로 들어와 왕조를 세웠다는 학설이 유행하기도 하였다(기마민족정복왕조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과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연구자로서 이를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최근 마구에 대한 연구 성과에 의하면, 중국 동북부, 한반도, 그리고 일본열도의 마구 제작기술과 디자인에는 지역마다 독자적인 요소가 보여 어느 집단의 이동으로 인한 일률적인 변화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마민족의 이동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한다.<sup>13)</sup> 한편 전연(前燕)에서는 마구 장식을 신분의 表象으로서 사용했는데, 이와 같은 관념이 고구려에서도 도입되어 한반도남부, 그리고 왜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견해도 있다.<sup>14)</sup>

이처럼 현시점에서 볼 때 5세기 이후의 말 및 마구 문화는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중국-서역 간과 같은 동서교류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근년에도 경주 쪽샘유적에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馬甲이 출토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아직도 말 문화의 흔적을 많이 찾을 수 있다. 향후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말뼈 자료가 축적되면 말의 종류와 전파 양상을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아프리카시압 도성유적에 보이는 한국인 사절

한국고대사에서 동서교류의 흔적을 외국에 남긴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시압(아프라시프, Afrasiab)도성유적 벽화에 등장하는 “古代韓國人使節”이다. 1965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당시 국명은 우즈베크·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의 사라르칸트에서 발견된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이 서벽에 조우관을 쓴 두 인물을 “고대한국인 사절”이라고 지적해 왔다. 근년에는 그들을 고구려인으로 보는 연구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들이 고대한국인이라는 점은 거의 정설로서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본고에서는 벽화 조사를 통한 최근 성과로서 프랑스 국립고등연구원(EPHE)의 프란츠·그

11) 『三國志』 魏書高句麗伝. “其馬皆小, 便登山”

12) 『宋書』 권97, 열전7, 高句驪國使每歲遣使. “十六年, 太祖欲北討, 詔驪送馬, 驪獻馬八百匹”

13) 諫早直人, 앞의 책.

14) 諫早直人, 앞의 책.



르네(Frantz.grenet)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벽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15)</sup>

벽화의 주인공은 사마르칸트(康国)왕 와르후만(Varkhuman, 拂呼纒)이다. 사마르칸트는 영휘(永徽) 연간(650-655)에 당과 국교를 맺은 나라로서 658년에는 와르후만이 당 고종으로부터 강거도독부(康居都督府)의 도독으로 임명되었다.

벽화가 있는 방에는 동벽 중앙에 있는 입구에서 들어간다. 들어가면, 북벽(오른쪽)에는 중국, 동벽에는 인도, 서벽과 남벽에는 사마르칸트와 관련된 주제가 그려져 있다. 북벽에 와르후만과 비슷한 크기로 그려진 남성상은 당 황제(고종)이다. 그리고 서벽의 그림은 노우르즈(nowruz) 때 왕에게 알현하는 의식이다. 노우르즈란 조로아스터교의 역(曆)에서 한 해가 시작되는 기간을 가리키는 말로서, 일반적으로는 춘분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 노우르즈는 하지(夏至)였다.<sup>16)</sup>

이처럼 아프라시아 벽화는 주변지역에서 찾아온 사절들이 와르후만왕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구도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사절 중 하나가 고대 한국인인 것이다. 그는 벽화 제작 중심연대를 7세기 중~후반으로, 벽화 내용을 당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 650년대로 보고 있다. 이 사절을 고구려인으로 보고 당시 상황을 감안한다면, “고구려 말기 당과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고구려가 서방 각국에 대해 벌인 외교활동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sup>17)</sup>은 수긍된다.<sup>18)</sup>

한편 이와 같은 벽화 내용이 꼭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카게야마(影山 悦子)<sup>19)</sup>에 의하면, 중국 벽화에서는 외국 사절을 그릴 때,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인 사절을 그리는 구도가 일반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 근거로서 그는 돈황 막고굴의 유마힐경변상도(維摩詰經變相圖)를 들고 있다. 막고굴에는 유마힐경변상도가 67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그림에서 유마힐 주위에는 항상 외국 사절(蕃王)이 있다. 그리고 번왕 집단 앞 열(列)에는 남방계 민족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들은 옷을 입지 않고 피부색이 짙으며 맨발이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얼굴, 관복 등이 확실히 구분되는 사람들을 그림으로써 여러 나라 사람들이 유마힐을 찾아왔다는 구도를 한 눈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카게야마는 당대 이후에 제작된 유마힐경변상도 15개 사례 중 11개 사례에 한국인사절 또는 그들을 변형시킨 인물이 그려져 있다고 한다. 이처럼 3분의 2 이상 한국인 사절이 그려지는 이유는 외국사절을 그릴 때 항상 본보기로 삼는 그림이 있으며 한국인 사절 또한 그 도안

15) Frantz.grenet(フランツ・グルネ)「サマルカンド出土「使節の壁画」に関する最新の研究」(文化財研究所東京文化財研究所文化遺産国際協力センター編『シルクロードの壁画—東西文化の交流を探る』, 言叢社, 2007)

16) 본문 중에서 그르네는 중세 학자인 비루니(al-Biruni)의 기록(The Chronology of Ancient Nations, translated by C.E.Sachau 1879, London)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17) 李成市『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国家』(岩波書店, 1998)

18) 한편 그르네는 이 사절이 고구려인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들은 고구려에서 온 사절이 아니라 중국 사절단의 일원(호위)로 보고 있다.

19) 影山悦子「サマルカンド壁画に見られる中国絵画の要素について—朝鮮人使節はワルフマーン王のもとを訪れたか」(『西南アジア研究』49, 1998). 「煌莫高窟維摩詰經變相圖中の外国使節について」(『神戸市外国語大学研究科論集』1, 1998)

(圖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와 같은 정형화된 외국사절도가 중국 중심부에서 제작되어 돈황 벽화에서도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그는 아프리카와 당의 벽화에는 공통된 주제가 확인된다고 한다. 그 예로서 唐 李賢(章懷太子)墓, 永泰公主墓(706)의 전실 동벽의 궁녀(宮女), 소사옥(蘇思勗)墓(745), 그리고 특히 이현묘의 사냥(북벽), 외국사절(서벽), 뱃놀이(북벽) 그림이 아프리카 벽화와 일치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카게야마는 고구려나 신라가 중앙아시아·서아시아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적이 옳다면 이 벽화를 근거자료로 하여 당시 국제정세 등과 연결시켜 고구려인사절의 방문, 고구려의 동서교류를 논하기는 어렵다.<sup>20)</sup>

#### 4. 용강동 고분 묘지를 통해 본 이방인

용강동(龍江洞)은 경주시 중심가에서 북천을 넘어 북동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일대에서는 7세기 이후의 고분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서역의 문화를 풍기는 몇몇 무덤이 발견된 바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대구가톨릭대학교(발굴 당시 효성여자대학교)가 발굴조사한 龍江洞古墳群이다. 1991년에 이루어진 이 조사는 그 후 2010년에 보고서가 간행되었다.<sup>21)</sup>

보고서에 의하면 무덤은 분구묘가 20기, 무분구묘가 수십기 발견되었다. 이들 중 대형·중형고분은 유물 편년 등으로 보아 대략 고신라 말기~통일신라기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6호분이다. 6호분은 중앙연도식 대형 횡혈식석실분인데 현실 규모는 320×260cm로서 조사된 고분 중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출토유물이 나왔다. 6호분의 특징으로는 다음 3 가지를 들 수 있다.

1. 전돌을 깔고 시상대(屍床臺)를 만든 점
2. 갈색 유약을 입힌 有蓋兩耳壺(1점)이 발견된 점
3. 묘지(1점)이 발견된 점

시상대에 전돌이 사용된 사례는 이 조사에서는 6호분과 9호분뿐이며 일반적으로 돌로 시상대를 만드는 신라고분 중에서는 드문 사례이다. 또 褐色釉有蓋兩耳壺는 6호분에서만 출토되었으며 보고서에서는 이 유물이 수당대 장사요(長沙窯)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 유물이 신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피장자는 그러한 중국에서 들어온 귀중한 문물을 소유할 수 있는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묘지는 현실 前壁(입구)인 남벽과 동벽이 만나는 모서리에서, 지석(誌石)에 개석(蓋石)을

20) 3장의 내용은 金瑛二「西域と朝鮮—「朝鮮人使節」は実際にサマルカンドを訪れたのか—」(河合文化教育研究所『研究論集(特集 アジアの歴史と近代(6) シルクロードと東西文化交流—日中の歴史, 文化と教育—』6, 2009)의 내용을 많이 참고하였다.

21) 대구가톨릭대학교 『慶州堽花女中高新築敷地内 慶州龍江洞古墳群Ⅰ(第1区間)』 및 『慶州堽花女中高新築敷地内 慶州龍江洞古墳群Ⅱ(第2区間)』(2010)

덮어놓은 채 발견되었다. 재질은 지식과 개석 모두 화강암이다. 크기는 37cm×37cm, 두께 8cm로 글자는 생기지 않고 朱書하였다. 글자는 육안으로 판독하기 힘들으나 70자 정도가 확인되며 제1, 2행은 3~7행보다 글자, 자간 모두 크다. 유감스럽게도 자획이 온전한 문자가 없어 내용을 알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묘지는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6세기)의 목서가 있기는 하나, 7세기 이후 신라무덤에서 발견된 묘지는 6호분 출토품이 유일한 사례이다.

이상이 보고서의 내용인데, 이에 발표자의 생각을 몇 가지 덧붙여 보고자 한다. 우선 朱書 또는 朱丹은 일반적으로 묘지에 글자를 더 쉽게 새기기 위해 쓰는 것인데, 중국에서는 朱書 또는 墨書로 쓰인 묘지가 많이 발견된다. 출토사례가 가장 많은 곳이 고창(高昌)국을 비롯한 신장(新疆)위구르 지역 분묘들이며 내지(内地)에서는 수당대 묘지가 발견된 몇몇 사례가 있기는 하나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구르 지역의 묘지(또는 墓表)는 전돌로 제작된 것이 많고 蓋石을 갖춘 것은 거의 없다. 개석을 갖춘 묘지는 남북조 시기를 거쳐 북조 묘지를 중심으로 한 양식으로서 정형화된다. 6호분 묘지의 크기(37cm)는 수당대 묘지로서는 소형에 속하며 신장에서 출토된 묘지(묘표)로서는 일반적인 크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용강동 고분 묘지는 전형적인 중국의 묘지양식으로 볼 수 있으며 제작자는 그러한 중국의 묘지문화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묘지가 신라에서 아직까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임을 고려해 보면, 신라 국내에서 얻은 지식으로써 제작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또 피장자를 위해 묘지를 남긴다는 습관도 신라에서는 특수하다. 이와 같은 특수성으로 보아 피장자에 대해서는 신라인이 아니라 중국에서 신라로 들어와 생을 마감한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용강동에서의 발굴조사는 다른 기관에서도 이루어졌는데 그 중 문화재연구소(1990)가 조사한 고분에서는 중국 또는 서역풍의 인물용과 청동제 십이지상이 발견되었다. 십이지상은 수당대 무덤에 부장된 사례가 있다. 또 용강동과 가까운 隍城洞古墳에서도 이국풍의 인물용이 발견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이 일대 고분에서 신라인이 아닌 또 다른 피장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상징케 한다.

이처럼 7세기 이후 신라에는 중국문화에 친숙한 외래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그들은 신라를 중심으로 한 동서문화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6호분 피장자가 남긴 묘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까 생각된다.

## 나가며

이상 근년에 나온 연구 성과와 자료를 중심으로 고대한국의 동서교류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의 외래문화는 중국서역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만 지적되어 온 것이 많았으나, 앞으로 현지의 연구 성과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근대 조선과 실크로드

최 덕 수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 1. 머리말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 사이에 영토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를 비롯하여 지구 곳곳에 현재와 같이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분명한 선으로 그어졌던 시기는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세계는 식민지를 가진 帝國인가, 아니면 帝國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로 나뉘었다.

고대로부터 동양과 서양을 잇던 실크로드 지역은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19세기 중엽 이후 전지구적으로 전개되었던 열강 간의 세력권 다툼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이었다.<sup>1)</sup> 이 글에서 다루는 이른바 ‘이리 위기(Ili Crisis)’<sup>2)</sup> 또는 ‘伊犁 問題’<sup>3)</sup>로 표기되는 러시아의伊犁(쿨자: *Kulja*) 점령(1871년-1881년)은 제국주의 시대 영토분쟁의 정점에 위치하는 사건이었다.

이 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론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2장에서는 제국주의 시대 실크로드의 중심부에서 영국을 비롯한 열강 간의 각축이었던 이른바 ‘이리 위기’는 동시에 실크로드의 동쪽 끝에 위치한 은둔국 조선을 둘러싼 열강간의 분쟁과 직결되어있음을 밝혔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조선이 오늘날과 같은 규모의 세계로부터 개방 압력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과정이었음을 밝혔다. 자료로는 관련국가인 중국·러시아·조선 관련 자료 이외에 특히 분쟁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발 떨어져 있으면서도 당시 국제질서 형성의 주축 국가였던 영국 외무성의 기밀문서를 주요 자료로 이용하였다.

주자료인 영국의 외교문서는 제국주의 시대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전지구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수집하였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던 문서이다. 따라서 영국정부의 외교문서는 이 시대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가장 기초적인 문헌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영국외교문서는 문서의 발신지 수신지를 기준으로 국가 단위로, 동일 파일 내에서는 시기 순으로 편찬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서는 국가를 넘나들며 사건 별로 관련 사료를

1) Hopkirk, Peter. *The great game : the struggle for empire in central Asia*. New York : Kodansha International, 1994; 『그레이트 게임 :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숨겨진 전쟁(정영목 역)』, 사계절, 2008.

2) Immanuel C.Y Hsu, Late Ch'ing foreign relations, 1866-1905,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11: Late Ch'ing, 1800-1911, part. 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88-96; 임마누엘 C.Y. 쉬, 「청말의 대외관계(1866-1905년)」, 『캠브리지 중국사 11, 2부 上-청 제국 말 1800-1911』, 새물결, 2007, pp.159-164.

3) 坂野正高, 『近代中国政治外交史』, 東京大學出版會, 1982, pp.325-331.

모두 모아서 재편집한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는 외교문서 가운데 기밀을 요하는 문서이다. 즉 ‘Very confidential’로 분류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도 사료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분류 체계인 국가별 문서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밀문서 가운데서도 특정 국가로 분류하지 않은 문서군에 들어 있다. ‘이리 위기’는 영국 외무성 문서분류 담당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단순히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sup>4)</sup> 뒤집어 말하면 실크로드지역에서 발생한 중국·러시아·영국의 갈등은 곧 실크로드의 동쪽 끝에 위치한 조선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즉 이리 위기와 열강들의 근대 조선을 둘러싼 세력 다툼은 공간을 초월하여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었다.

3장은 ‘이리 위기’(1871-1881)가 특히 중·러 간의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시기 甘肅省嘉峪關에서 활동하였던 조선 상인에 관한 기록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식으로 통상조약이 체결되기 이전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조선 상인에 관한 기록은 원천적으로 영세할 수 밖에 없다. 발표문 작성을 위해 『淸季中日韓關係史料』과 『日省錄』 등을 검토한 결과, 단편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의미있는 자료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표문의 주자료로 이용한 영국외교문서 *British Foreign Office Papers* 중 기밀문서와 『淸季中日韓關係史料』는 일차적으로 자료의 편집주체가 영국과 중국이다. 제3자의 시각에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당시 조선의 국제정치적 위상과 조선인의 삶을 그려낸다는 시도는 엄격한 사료 비판이 요청되는 작업이다. 그러나 제3자의 시각에 입각한 자료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다 넓고 선명하게 보여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1880년대 실크로드,伊犁(Kulja Territory)분쟁과 조선

1871년 7월 러시아령 투르키스탄의 초대총독 카우프만(Petrovich Kaufmann)은 군대를 동원하여伊犁를 점령하였다. 이리지역은 서쪽으로 흐르는伊犁江 유역의 분지이며 수량이 풍부한 농업지대로 일찍이 준가르의 근거가 되었던 지역이었는데,淸왕조는伊犁에 장군을 두고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이민을 장려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거점으로 삼았다.<sup>5)</sup> 예를 들면 농업 노동력으로서 터키어를 말하는 무슬림을 天山山脈의 남쪽 오아시스지역으로부터 이주시켰

4) 이 시기 이리 분쟁을 다룬 영국 외교 문서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FO 881/4521, *CHINA & RUSSIA: Corres. Russo-Chinese Treaty. Kuldja Territory. Part 1, 1878-1880*; FO 881/4595, *CHINA & RUSSIA: Corres. Russo-Chinese Treaty. Kuldja Territory. Part 2, 1881*; FO 881/4738, *CHINA & COREA & RUSSIA: Corres. Russo-Chinese Treaty. Kuldja Territory. Part 3, 1881-1882*. 위의 세 문서군 가운데 특히 두 번째 문서군(FO 881/4595)에 수록된 이리 문제와 조선 문제를 연결시켜 다룬 문서를 중심으로 본 발표문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5) 이하 이리 분쟁에 관한 사실 관련 서술은 다음 책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坂野正高, 『近代中国政治外交史』, 東京大學出版會, 1982; 존 K. 페어뱅크, 데니스 트위체트 편집, 김한식 외 번역, 『캠브리지 중국사 11, 2부 상- 청 제국 말 1800-1911 : 근대화를 향한 모색』, 새물결, 2007; 吉澤誠一郎, 『淸朝と近代世界—19世紀』, 岩波書店, 2010.

고, 만주어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는 시베리아 병사들을 이리강의 남쪽에 주둔하게 하였다.伊犁강의 북쪽에 위치한 쿨자(Kulja:固勒札)는 1851년 伊犁通商條約을 체결한 이래 러시아와 청국 사이의 교역거점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런데 1864년 新疆지역의 천산남로 오아시스 지역에서 청조에 대한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농민반란은 이듬해 고칸트한국(Khanate of Kokand; 浩罕汗國)으로부터 파견되었던 야쿱 벡(Yakub Beg; 阿古柏, ?~1877)은 러시아의 남하에 밀려 남하하면서 신강의 준가르 지역과 동쪽으로 오아시스 지역으로 정복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에서 정치적 기반을 일시 확보하였다. 이를 두고 인도에 진출하였던 영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던 러시아 세력에 대한 일종의 완충지역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러시아는 야쿱 벡 정권을 영국세력의 확장으로 파악하였다.

신장지역의 소요는 러시아의 교역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러시아의 카자흐 족(Kazakhs; 哈薩克族)과 키르키스 족(Kyrgyz; 柯爾克孜族) 및 기타 소수민족들의 동요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군부와 관료, 부르주아 언론 등은 이리 점령을 주장하였고, 마침내 1871년 러시아군이 이리지역을 점령하였던 것이다.

러시아군의 이리점령을 계기로 촉발되었던 청국과 러시아 양국의 대치는 영국을 비롯한 열강이 개입함으로써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 열강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최대의 분쟁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이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청국 정부 내에서는 이른바 海防論과 陸防論이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청국 정부는 海防論을 견지하면서도 반란과 러시아의 점령이 계속되고 있는 서북지방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左宗棠(1812-1885)을 欽差大臣으로 임명하여 1875년 신강 원정을 수행하게 하였다.

좌종당은 치밀한 원정준비와 ‘천천히 출동해 빨리 싸운다’는 전략 하에 신속한 공격으로 1876년 11월경 신강 북부지역을 회복하였다. 신강 남부를 지배하고 있던 야쿱 벡 정권은 런던에 특사를 파견하여 청국의 속국을 전제로 하면서 영국의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좌종당의 군사는 런던 중재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1877년 연말 러시아 군대의 주둔지를 제외한 전지역을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청국군의 군사작전은 끝났으나 이후 이리지역 회복을 위해 청국은 崇厚(1826-1893)를 全權大臣으로 임명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로 파견하여 외교적 교섭에 들어갔다. 승후는 이른바 리바디아 조약(1879.10.2)에 서명하였으나, 조약 내용은 이리지역을 명목상 청국에 반환하는 대신, 실제로는 500만 루블의 배상금 지불을 비롯하여 전략 요충지인 터커스강 유역과 무차르트 통로를 포함해 이리 지방의 7/10을 러시아에 양도하는 것이었다.

조약의 내용이 청국 정부에 전달되자 전권대신 승후의 처형과 전쟁을 치러서라도 조약을 거부하고 청국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비등하였다. 전권대신 승후의 처형에 대해서는 동료 외교관의 비인도적인 처벌에 무관심할 수 없었던 영국 · 프랑스 · 독일 · 미국 등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청국의 강경대응책은 러시아로 하여금

해군을 청국 연해로 출동시킬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양국 사이에 전쟁이 임박한 듯이 보였다. 베이징에서는 러시아 해군은 바다로부터 쳐들어오고 러시아 육군은 시베리아에서부터 만주를 거쳐 베이징으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실제로 청국 조정은 전쟁에 대비하여 태평천국의 난 진압에 주력군이었던 회군(淮軍) 장교들을 요충지에 배치하였으며, 李鴻章(1823-1901)은 청국 海關總稅務司 로버트 하트(Sir Robert Hart, 1835-1911)를 통해 청국방어를 돕도록 찰스 고든(Charles G. Gordon, 1833-1885)을 초빙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시기 영국정부의 기밀문서를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러시아 해군이 진행한 군사작전의 최우선 점령 지점이 한반도 동해의 元山港(Port Lazareff)이었다는 사실이다. 아래 자료는 주청 영국공사 케네디(Kennedy)가 러시아 함대의 움직임에 대하여 정세보고를 영국 외무성에 보고한 기밀자료이다.

여러 종류 함선 17척 가량으로 구성된 러시아 함대가 지난 겨울 조약항인 요코하마, 고베, 나가사키에 분산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재 총사령관 레소스키 제독(Admiral Lessoksky)이 함대들이 나가사키로 모이도록 호출했다. 내외 언론들은 레소스키 제독이 그렇게 한 것이 동쪽에서 조선 해안을 급습함으로써 러시아의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 (중략).....이러한 관점을 프랑스와 벨기에 동료들과 공유했는데, 이 둘은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강력한 함대의 존재를 철수시키기 전에 Port Lazareff(원산항)을 점령하리라는 의도가 있음을 확신시켜 주었다.<sup>6)</sup> .....

주청 영국공사 케네디는 본국 외무성의 그랜빌(Granville) 외무경 앞으로 보낸 위의 문서에서 극동 러시아 해군의 동향과 이에 대한 내외의 언론의 보도, 그리고 청국 주재 프랑스·벨기에 외교관 등의 한반도 주변에 대한 인식을 보고하고 있다. 그는 이리지역에서 청국과 러시아의 무력 분쟁은 곧 러시아 함대의 원산항 점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외교문서 파일에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여 조선이 취할 정책으로 ‘親中・結日・聯美’안을 제시하였던 『朝鮮策略』의 전문을 번역해 보고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책략』은 1880년 8월 조선정부에서 파견하였던 수신사 김홍집에게 주일 청국공사관에서 작성하여 제시하였던 문건으로 이후 조선 정부의 외교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 청국과 일본에 주재하는 영국 외교관들이 이리 분쟁을 다루는 기밀문서 안에 조선 관련 문서를 편집한 것은 열강들의 입장에서 실크로드 지역과 한반도를 동일한 사건 상황으로 이해하였던 당시 상황을

6) "I have the honour to report that the Russian fleet of about seventeen ships of war of all descriptions, which during the past winter months has been dispersed in the three Treaty ports of Yokohama, Kobe, and Nagasaki, has now been summoned by Admiral Lessoksky, the Commander-in-chief, to assemble at Nagasaki. The public press, however, both foreign and native, concur in attributing to Admiral Lessoksky the intention of developing Russian designs in the East by making a descent on the coasts of Corea with the object of annexing Port Lazareff and the intermediate country to the Russian possessions. .... This view is shared by my French and Belgian colleagues, who have both assured me as a personal conviction that Russia intends to occupy Port Lazareff before the withdrawal from these seas of their existing powerful fleet.", Kennedy to Granville, Yedo, March 24, 1880(Received May 9, 1881), Confidential, No.41, FO 881/4595.



말해주고 있다.

### 3. 1883년 嘉峪關의 조선상인 聞肖雲과 조·청관계

주지하다시피 개항 이전 조선의 대외무역은 크게 두개의 통로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것은 북쪽으로는 陸路를 통한 淸과의 무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倭館을 통해 이루어진 日本과의 海路무역이었다. 청국과 육로를 통한 무역은 邊境貿易(三市무역; 중강, 회령, 경원)과 使行貿易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7)</sup> 물론 1876년 개항 직후 수년 간 이루어졌던 일본과의 무관세 교역 기간에는 일본과의 교역이 증대함에 따라 종래 전통적인 청국과의 국경무역은 차츰 위축되고 있었지만, 청국과의 육로교역은 여전히 조선 정부 및 상인에게 주요한 무역루트였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이전 서북지역을 비롯하여 청국 내에서 활동하였던 조선 상인에 관한 기록은 정치 외교 분야의 자료에 비해 대단히 영세한 편이다. 따라서 조선 상인의 어떠한 상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그리기에는 자료상으로 한계가 많다. 이 발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초운(聞肖雲)에 대해서도 대단히 간단한 기록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문초운은 다른 인물과 달리 단편적이기는 하나 청국 내에서 불법 상행위를 하다가 체포된 상황, 조선에 송환된 이후 조선정부의 처리과정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문초운의 청국 내 활동에 대한 청국측 기록은 다음과 같다.

4월 초6일 순천부(順天府)에서 올린 조선상민 문초운 1인을 돌려보낸 일에 대하여 쓴 자문을 보면 “해당 상민은 감숙성(甘肅省)에 들어가 인삼(參葯)을 사고팔았기에 연도에서 잡아 북경으로 호송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臣의 부서는 해당 상민을 사역원(四譯館)에 잡아두도록 처리할 생각입니다. 光緒 8년(1882)의 조선무역장정(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이룸)을 보면, “양국 상민이 내지에 들어와 토화를 구입하고 싶다면, 응당 상대국가의 상무위원과 지방관에게 청하여 집조를 발급받고 구입하는 장소를 밝힌다(4조의 내용)”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박이 파손되면 지방관이 구호하고, 선박 안의 사람과 화물은 근처의 항구(口岸)로 보낸 후 상대국의 상무위원으로 하여금 귀국시켜 호송의 비용을 줄인다(3조의 내용)”고 했습니다. 또한 “만약 양국의 상선이 미개항구를 몰래 왕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박의 화물을 붙잡고 조사한다(3조의 내용)”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선상민 문초운이 감숙성에 들어가 인삼을 사고판 사건에 대하여 총리아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숙성에서는 오직 가옥관(嘉峪關) 한 곳만이 러시아와의 통상구안인데, 현재는 아직 개항하지 않았습니  
다. 해당 상민 문초운을 조사해보면 그가 비록 통상이 가능한 省에서 무역을 하였지만 해당 省의 통상구안이 아직 개항하지 않았고, 또한 집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도 법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인을 순천부에서 붙잡아 천진으로 보내고 상대국의 상무위원에게 통고하여 상인의 국가로 돌려보내고자 하나, 천진에 아직 조선의 상무위원이 부임하

7) 전통시대, 특히 19세기 조선과 청의 교역에 대해서는 이하의 도서를 참고. 김종원, 『근대 동아시아 관계사 연구: 朝淸交渉과 東亞三國交易을 중심으로』, 해안, 1999; 李哲成, 『朝鮮後期 對淸貿易史 研究』, 國學資料院, 2000; 張存武 著, 金택중 외 역, 『근대한중무역사』, 교문사, 2001을 참조.

지 않았습니다. 이에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윤선을 태워 해당 상인을 돌려보내도록 명령하였습니  
다(밀줄은 필자 강조).<sup>8)</sup>

문초운은 어떻게 감숙성 지역까지 들어가 인삼매매를 하게 된 것일까. 청의 지방정부 책임  
자들은 문초운의 경우와 같은 ‘불법’ 내지 상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규칙을 제정하여 엄히  
다스릴 것을 황제에게 품청하고 있었다. 천진에서 송환되었던 문초운에 대한 기록은 그로부터  
5개월 후 『日省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록은 다음과 같다.

사헌부에서 계를 올리기를, “범월죄인 문초운이 북경에서 압송되어 왔습니다. 이에 刑曹에 그 연  
유를 밝히도록 명했습니다. 그것을 들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문초운은 ‘작년 동지사행 당시 상인이  
라는 명목으로 따라갔다. 청심환(淸心元; 약품)을 가지고 뒤따르면서 그것을 팔지는 않았다. 사행이  
귀국할 때 신병을 핑계로 따라오지 않았다. 그런데 거지의 처지가 되어서는 예부의 하숙에게 붙잡  
혀 압송되었다’고 (죄인이) 운운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사행시 인맥을 통해 (사사로이) 사절을  
따라가면서 거할 곳이 있다고 말하고서는 藥을 팔고 병을 얻었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으니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까닭없이 범월한 것과 같지는 않으나, 그것이 변경 문제를 중시하고 처벌  
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는 도리에 있으니 그대로 두는 것이 불가합니다. 본 감영에 압송해왔으니 법  
에 비추어 유배의 벌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뜻을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자문을 짓게 해  
서 (북경에)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왕이 “윤허한다”고 하였다.<sup>9)</sup>

『日省錄』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북경에서 범월인(내지의 불법 통상조선상민)에 문초운  
을 송환하면서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자문을 보내는 형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문초운이 애초에 사행을 따라간 인물이었으나 청국측 자  
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감숙성까지 진입하여 인삼을 매매 활동을 하였던 인물이라는 점  
이다. 그리고 『日省錄』의 다음 기록은 문초운이 이로부터 일년 후 유배에서 풀려나는 것을 알  
려주고 있다.

“각도의 유지(油紙) 도류안(徒流案) 중에 강원도 회양(淮陽)의 장운학(張雲學), 낭천(狼川)의 손

8)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清季中日韓關係史料』,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2, #726 與朝鮮魚允中議妥中朝  
通商章程入奏 中 附件 1, 禮部->總署, 광서 9년 4월, 1153-1154쪽, “四月初六日 准順天府送到朝鮮商民聞肖雲一  
名 據咨文內稱 該商民係赴甘肅省 售賣參葯 沿途派役護送來京等因 當經臣部將該商民交四譯館安置 查光緒八年奏准  
朝鮮貿易章程內開 兩國商民 欲入內地採辦土貨 應稟請彼此常務委員與地方官 會銜給與執照 填明採辦處所 船隻破壞  
地方官設法救護. 將船內客商水手人等 送交就近口岸 彼此商務委員 轉送回國 可省前此互相護送之費 若兩國商船 潛  
往未開口岸貿易者 查拏船貨入官等因在案 今朝鮮商民聞肖雲 前赴甘肅省 售賣參葯 經臣部查據總理各國事務衙門覆稱  
甘肅省只有嘉峪關一處 爲俄國通商口岸 現在尚未開辦等因前來 查該商民聞肖雲 雖係在通商省分貿易 惟該省口岸尚未  
開辦 且未領有執照 亦有不合 據將該商民由順天府解赴天津 交該國商務委員 解送回國 如天津尚未設立該國商務委員  
即令其附搭輪船回國 以期簡便”

9) 『日省錄』 高宗 20年 7月 14日. “府啓曰, 犯越罪人, 聞肖雲, 自北京押來, 故令秋曹查覈其委由, 則昨冬使行時, 以別  
買商名色隨入, 而所賣淸心元, 趁不放賣, 使行回還之日, 猝有身病, 不得隨來, 而丐乞之際, 見執於禮部下屬, 始爲押還  
云矣, 使行時資緣隨入, 謂有可據, 而賣藥滯病等說, 實涉駭然, 此雖與無端犯越, 有異, 其在重邊禁懲後弊之道, 有不可  
仍寬, 押付于本道監營, 照法刑配, 以此意令槐院撰咨入送何如, 答曰, 允.”

봉학(孫鳳鶴), 간성(杆城)의 배학진(裴學振), 강릉(江陵)의 유천만(柳千萬), 김화(金化)의 안정옥(安正玉), 흡곡(歙谷)의 유성렬(柳星烈), 간성의 전천여(全千汝), 삼척(三陟)의 이순흥(李淳興), 홍천(洪川)의 유태흥(柳泰興), 김화의 이순영(李順永), 금성(金城)의 이복돌(李卜丌)·오윤옥(吳允玉), 고성(高城)의 승(僧) 화산(花山), 울진(蔚珍)의 집종 필영(必永), 홍천의 김흥주(金興周), 평해(平海)의 김재득(金在得), 춘천(春川)의 김천득(金千得)·송지훈(宋芝勳), 평해의 임성록(林聖錄), 안협(安峽)의 이도익(李度益), 울진의 백경수(白慶洙), 간성의 도문환(都文煥), 양양(襄陽)의 주인식(朱仁植), 낭천의 방일문(房一文), 양구(楊口)의 이사진(李士鎭), 양양의 유상용(柳相用), 홍천의 함월룡(咸月龍), 삼척의 조태경(趙泰慶), 강릉의 강광수(姜光守), 홍천의 송상련(宋相連)·김윤택(金允澤), 통천(通川)의 이맹칠(李孟七), 양양의 이완영(李完永), 삼척의 김치백(金致伯), 회양의 김영환(金永煥), 철원(鐵原)의 문초운(聞肖雲), .....등의 이름 아래 방(放) 자를 써서 내렸습니다. 삼가 써서 내리신 대로 모두 즉시 풀어 주도록 각 해도 도신에게 분부하겠습니다. 감히 아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sup>10)</sup>

문초운에 관한 위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이 시기 실크로드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조선 상인의 활동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조선 상민이 한성을 떠나 베이징, 그리고 만리장성의 끝 가옥관(嘉峪關)에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진출하여 그들의 삶을 꾸렸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청국측 자료에 의하면 문초운 이외에도 청국내 조선 상인에 관해서는 몇 가지 기록이 있다. 예를 들면, 文天用과 張汝元은 각각 漢口, 四川省 등지에서 조선삼 등을 매매하다가 청국 지방 정부에 붙잡혀 조선으로 송환되었다.<sup>11)</sup> 이들 또한 그곳까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들어갔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후에 실크로드의 조선인, 특히 기록에서 사라진 인물들에 대한 사료 발굴과 연구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들의 활동상을 좀 더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최응 왕: 방금 러시아인들이 병선 16척을 집결시켰는데, 배마다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추위진 이후에는 그 형세가 반드시 장차 남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만약 추위진 이후에는 그 형세가 반드시 장차 남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 뜻은 진실로 헤아릴 수 없는 즉 어찌 위태롭고 급급치 않다 하겠습니까?<sup>12)</sup>

위 기록은 『承政院日記』 고종 17년 9월 8일의 기록 「大臣・政府堂上 入侍(次對) 筵說」이다. 2장에서 인용하였던 주청 영국공사 케네디가 런던의 외무경 그랜빌에게 보고하였던 기밀 문서(1880년 3월 24일 발신)의 기록과 전적으로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다. 1880년 실크로드

10)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8月 1日.

11) 황은수, 「개항기 한중일 정기 해운망과 조선상인의 활동」, 『역사와현실』 75, 2010.

12)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9월 8日; 「大臣・政府堂上 入侍(次對) 筵說」, 『개방과 예측 : 대미 수교 관련 수신사 기록(송병기 편역)』,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p.102에서 재인용.

의 중앙부 이리지역에서 청국과 러시아 그리고 영국 등이 각기 자국의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해 군사력과 열강의 외교적 합종연횡을 모색하였던 시기, 주청 영국공사의 러시아 인식과 당시 조선의 영의정 李最應의 진술은 비록 러시아 군함의 수치는 17척과 16척으로 다를지언정 같은 맥락에 있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일 차대 연설의 주제는 일본에 파견되었던 2차 수신사 金弘集의 복명과 관련된 것으로, 김홍집이 일본 체류중 주일 청국공사관원과 여러 차례 회견하고 귀국할 때 참찬관 黃遵憲이 주었던 『朝鮮策略』에 대한 것이었다. 『朝鮮策略』은 머리말 부분에서 조선을 포함한 아시아의 형세와 조선의 취해야할 방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구 위에 더할 수 없이 큰 나라가 있으니 ‘러시아’라 한다. 그 땅의 넓음이 3대주에 걸쳐 있고, 육군 정병이 1백여 만 명이며, 해군의 큰 함정이 2백여 척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위구르’ 등 여러 부족을 차츰차츰 침략하여 이제는 그것을 거의 다 차지하였다. 천하가 다 그의 뜻이 작은 데 있지 않음을 알고 이따금 서로 합종(合縱)하여 항거하였다. 러시아가 ‘터키’란 나라를 병합하려 한 지 이미 오래였으나, 영국 프랑스가 힘을 합하여 버터 나가므로 끝내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서양의 여러 대국, 예를 들면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모두 호시탐탐 단연코 한 치의 땅도 남에게 넘겨주려 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서방 공략을 할 수 없게 되자, 변연히 계략을 변경하여 동쪽 강토를 공략하려 하였다. 10여 년 이래로 사할린을 일본에서 얻고 흑룡강(黑龍江)의 동쪽을 중국에서 얻었으며, 또 도문강(圖們江) 어귀에 둔치고 있어 그 형세는 마치 높은 집에서 물병을 거꾸로 세워 놓은 듯하니, 그 경영하여 여력을 남기지 않음은 분명 아시아에서 뜻을 얻으려는 것이다.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要衝)을 차지하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中東)의 형세도 날로 위급해질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할진대,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아! 러시아가 낭진(狼秦)처럼 정벌에 힘써 경영해 온 지 3백여 년, 그 첫 대상은 유럽이었고 다음에는 중앙아시아였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다시 아시아로 옮겨져 마침 조선이 그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어떠한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自強)’을 도모할 따름이다.<sup>13)</sup>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온 『朝鮮策略』이 조정의 시원임대신 회의에서 논의되고, 조선의 대외적 위기가 러시아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국에 대한 개방이 논의될 즈음, 재야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른바 辛巳斥邪運動이었다. 다음은 이 시기 척사 상소 논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嶺南萬人疏』의 한 구절이다.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는 혐의(嫌疑)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연히 남의 이간을 듣고 우리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원교(遠交)를 핑계로 근린(近鄰)을 배척하면 행동과 조치가 전도되고 허(虛)와 정(靜)이 앞뒤가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구실삼아 분쟁을 일으킨다면 전하께서는 장차

13) 「私擬朝鮮策略」, 『朝鮮策略(조일문 역주)』, 建國大學校出版部, 1988, pp.21-23.

어떻게 이를 구제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이해(利害)가 분명한 사실의 넷째입니다.

하물며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두만강 일대는 국경이 서로 맞닿아 있는데, 저들이 일본에서 이미 시행한 예를 따라 미국이 신설한 조약을 근거로, 터전을 요구하여 거기에 와서 살고 물품을 요구하여 교역을 독점한다면 전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이를 장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분명한 사실의 다섯째입니다.

신들은 차라리 바닷물을 딛고 죽을지언정, 차마 금수견양(禽獸犬羊)과 함께 어울려서 구차히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귀신이 오늘날에 판가름되고, 중화와 오랑캐가 이번 길에 구별될 것입니다.<sup>14)</sup>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러시아와 청국이 실크로드의 중심부 이리지역을 두고 전쟁으로 치닫던 시기, 한반도를 둘러싸고 열강들 사이에서도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타협과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 동시에 조선 내부에서도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야 유생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재야지식인의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朝美修好通商條約(1882.5) · 朝英修好通商條約(1882.6) · 朝獨修好通商條約(1882.6) 등을 체결하고, 척화비 철폐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개방정책을 확고히 하였다. 지구상 최후의 ‘은둔국 조선’이 세계와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이 글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시대 세계 최대의 분쟁지역이었던 실크로드伊犁지역 위기와 한반도에서 전개되었던 열강 간의 각축이 동일한 상황 하에서 전개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같은 시기 실크로드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조선 상인 문초운에 대한 사료를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고대와 중세시대 실크로드의 험한 모래바람을 견디며 나아갔던 인간의 의지가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것처럼, 19세기 후반 조선이 오늘날과 같은 규모의 세계와 만나기 위해서도 실크로드에서 불어온 거친 모래바람을 넘어서야 했던 것이다.

14) 「嶺南萬人疏」, 『朝鮮策略(조일문 역주)』, 建國大學校出版部, 1988, pp.118-119.

[附表:19세기 후반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清	열강(露 · 英 · 美)	朝鮮 · 日本
1853년	태평천국군 南京 점령		
1855년		러일화친조약 (쿠릴열도, 사할린 공유)	
1860년	북경조약, 체결후 태평천국 진압군 파병		
1862년	甘肅省의 회교반란, 新疆의 아랍백 위그루 정권 성립		
1868년			明治維新, 書契문제 발생(서계의 부산도착)
1871년	淸日修好條規 체결	러시아,伊犁 점령	
1873년	左宗棠, 山西·甘肅省 평정, 新疆에서 아랍백과 대치.		征韓論 대두, 明治6년 전쟁 淸日修好條規 비준
1874년			일본의 臺灣 침공
1875년	↓		사할린·쿠릴 교환조약 사할린 전도, 러시아 양도(9.19) 雲楊號 조선 파견(9.20)
1876년			朝日修好條規 체결(2월)
1877년	左宗棠, 新疆 전역 회복	러시아·투르크 전쟁(4월)	일본, 류큐에 사법경찰기구 설치
1878년	崇厚를 파견, 러시아와 협상(6월)	러시아 승리 후 산스테파노 조약 체결(3월)	
1879년	丁汝昌, 李鴻章에게 조선이 열강과 조약 체결하는데 힘쓰도록 권유(8월) 이홍장, 李裕元에게 서한(8월 말):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 강조하고, 미국과 조약체결 권고	주청영국공사 웨이드, 러시아 침략 유려 권고(8월)  리바디아 조약 조인(9월 15일) 新疆의 7할을 러시아 영토로 승인, 중러전쟁 위기	일본, 류큐 병합
1880년	이홍장-슈펠트 회담, 주영청국공사 曾紀澤을 러시아 파견, 재협상(8월).	슈펠트 제독(美), 일본에 조선 수교 의뢰(4월)	金弘集, 주일청국공사 何如璋 면담, 조선책략 입수(8월) 李東仁파견, 何如璋에 수교 의뢰(10월)
188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청의伊犁회복, 新疆확보, 2월)  이홍장-슈펠트 친진회담(6월)		李容肅을 청에 파견, 대미수교 의향 전달(3월)  조선책략 반대상소운동(영남만인소), 李載先 逆謀事件(10월)
1882년	이홍장-슈펠트 회담(3월)	영국 동아시아 함대 월미도 도착, 독일공사 브란트 조선 도착(5월 20일)	조영수호통상조약(5월20일) 조영수호통상조약(6월6일) 조독수호통상조약(6월 28일) 체결

## The Silk Road and modern Chosŏn Korea

Choi, Deok-Soo | Dep. Korean History, Korea Univ.

In recent years, tension rises over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Japan and so on. The historical origin of recent conflicts came from the period at the time when the modern nation states were established, which are composed of territory with exact border, people and sovereignty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so-called the age of imperialism, the late 19<sup>th</sup> century, the world would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an empire which has its colonies, and the other is a colony ruled by empire or a protectorate state under the circumstance of degrading to colony. The region of Silk Road, the rout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in pre-modern period, is main region of extreme military conflicts among the world Powers in the age of imperialism.

This paper has two focal points. First, it aims to provide a point of view that the two regions, the inner side Silk road which underwent The Ili Crisis relating to the harsh Sino-Russian territorial conflict and Chosŏn located on the edge of the Silk road's east side, were connected on the same global circumstances and context in the late 19<sup>th</sup> century. We will see, in this presentation, how this theme is being unveiled through confidential British Foreign Office documents.

Second, it explores the meaning that the Silk road had in the modern period viewed from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merchants who brokered the Silk road and Chosŏn, as the essence of the relations among nation-states/countries in the late in the late 19<sup>th</sup> century was "commerce" which went beyond the border and region. This study mainly used the two materials as primary sources: *Ch'ing-chi Chung-Jih-Han Kuan-shi shih-liao* (『清季中日韓關係史料』) which is the basic material for the study of the history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Ilsoŏgnok* (『日省錄』) for seeing Chosŏn's stance. The relations between Silk road and Chosŏn has been transmitted to recent days beyond age and among various fie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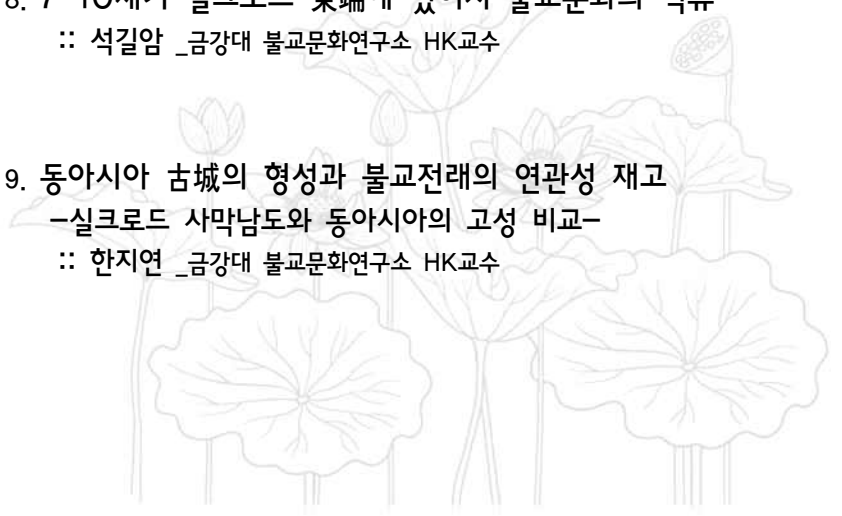


## 제2부

발표 7. 실크로드 지역 조사를 통한 불교문화사적 고찰  
-실크로드 고대국가의 불교문화-  
:: 문무왕 \_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발표 8. 7-10세기 실크로드 東端에 있어서 불교문화의 역류  
:: 석길암 \_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발표 9. 동아시아 古城의 형성과 불교전래의 연관성 재고  
-실크로드 사막남도와 동아시아의 고성 비교-  
:: 한지연 \_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 실크로드 지역조사를 통한 불교문화사적 고찰

-실크로드 고대국가의 불교문화

문 무 왕 |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2012년 학술조사를 통해 나타난 실크로드 지역 불교문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금번 조사는 2012년도 7월 10일 한국을 출발하여 7월 29일 까지 총 20일간의 조사를 실시했다. 금번조사 지역은 사막남로를 중심으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투르판지역 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지역은 쿠얼러(정절국), 누란(선선국), 체르첸(且末), 니야(정절국), 다마구유적, 호탄, 카슈가르(소록), 투르판(차사전) 등의 지역이다. 지역적으로는 타클라마칸 사막 동쪽외곽에서 남부와 서부를 잇는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실크로드 남부 지역 불교문화의 특징에 관해서는 아직 무어라 언급할 단계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까지 출토된 불교문화재들과 사서상의 기록을 중심으로 이 지역 불교문화의 특징을 살피도록 하겠다.

#### 1. 누란지역

누란(樓蘭, Loulan)은 현재 중국령인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있는 고대 국가였다. 실크로드 지역 국가의 특성상 국가의 범위는 매우 유동적이었으며 누란 지역도 이러한 특징을 띄고 있다. 위치상으로는 고대에는 돈황으로부터 직접 연결되는 실크로드상의 중요한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로브노르(羅布泊, Lop Nur) 호수근처로 투르판 분지의 남쪽 부위에 해당한다. 이 누란은 옥문-누란-체르첸-호탄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던 국가로, 한서 서역전에 따르면 1570호의 가구가 살며 인구는 14100명, 병사의 수만도 912명이며 버들 호동(胡桐)과 백초(白草)가 많은 나라였다고 한다. 또한 당나귀와 낙타도 있으며 싸움을 잘한다는 기록도 보인다.<sup>1)</sup> 중국문헌에 ‘누란’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사기』 「흉노열전」<sup>2)</sup>에 수록된 편

1) 『漢書』 「列傳」七十卷 卷九十六上 西域傳第六十六上 鄯善國 ‘鄯善國，本名樓蘭，王治扞泥城，去陽關千六百里，去長安六千一百里。戶千五百七十，口萬四千一百，勝兵二千九百十二人。輔國侯、卻胡侯、鄯善都尉、擊車師都尉、左右且渠、擊車師君各一人，譯長二人。西北去都護治所千七百八十五里，至山國千三百六十五里，西北至車師千八百九十里。地沙鹵，少田，寄田仰穀旁國。國出玉，多葭葦、檉柳、胡桐、白草。民隨畜牧逐水草，有驢馬，多橐它。能作兵，與婼羌同。

2) 『史記』 「列傳」七十卷 卷一百十 匈奴列傳第五十 ‘馬彊力，以夷滅月氏，盡斬殺降下之。定樓蘭’

지 중에서 발견된 것이 최초다. 그 편지는 흉노의 지배자 모돈 선우가 전한의 문제에게 보낸 것으로, 이 편지에서 모돈 선우는 월지에게 승리해, 누란·오손·호게 및 근처의 26국을 평정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편지는 문제 4년(BC 176년)에 보내진 것이므로, 누란은 적어도 BC 176년 이전에 형성되어 월지의 세력권에 있던 것이다. 그리고 BC 176년경 흉노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한서』 「서역전」에 의하면, 서역을 전체를 지배하에 둔 흉노는 언기, 위수, 위려의 사이에 동박도위를 두어 누란을 포함한 서역 여러 나라에 세금을 부과하고, 하서회랑에 수만의 군세를 두어 그 교역을 지배했다.

사막남도와 이어져 공작하 하류의 로프누르 호의 서안에 위치하며 비단길 교역의 중요한 지역이다. 누란의 북쪽 용성(雅丹地貌)지역은 고대 실크로드의 물길이 오가던 수상 통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실크로드의 개념이 낙타, 고행, 사막 이었다면 선선지역은 풍부한 수량을 이용한 물길이 존재 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용성지역의 한(漢) 대 고성은 고대 교역항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한 조사는 현재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유물이 산재해 있음을 볼 때 후한 시대까지는 지속적으로 교역항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누란은 기원전 77년에 한나라의 영향 아래에 산산(鄯善)으로 개칭하였지만 그 후에도 누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현재 누란고성 내에는 확인가능한 문화재는 불탑1기, 관청터 1동, 민가 3동, 봉화대 1기가 잔존하고 있다. 고대 성벽의 유적 및 문의 위치도 같이 확인된다. 현대에 이르러 발굴이 없었던 관계로 사이트는 잘 유지되고 있다. 누란지역은 풍화 및 지하수 고갈에 따른 침식으로 사이트의 조기 침식 가능성도 보인다. 고대 도시의 목재 및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 고대 동전들이 지금도 지표에 노출되어 있다.

누란지역의 불교유적은 높이 10.5m의 불탑이다. 현재 불탑은 훼손되어 있다. 기단부는 방형이며 탑신은 원주형이다. 인도로부터 유래된 탑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대형 불사의 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승방지로 추정할 만한 건물 지역에는 대형의 모재가 남아 있다.<sup>3)</sup> 풍화에 의한 침식으로 불탑 주변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불교의 전모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누란 박물관에는 누란지역에서 출토된 불상이 존재한다.



그림 1. 누란불탑

3) 新疆通志文物志 編輯委員會, 『新疆通志 第八十一卷 文物志』, p.138

『불국기』에는 승려는 4000명 소승불교를 믿으며 인도의 풍습에 따라 불교를 행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4)</sup>



그림 2. 미란의 불탑

미란은 뤼창(찰크리크)로 부터 약 80Km, 호탄까지는 약 1000Km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미란은 선선국의 영역 안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교역중심은 서기 4세기 이후에 쇠퇴하였다. 8세기 중엽 미란은 실크로드의 군사적 요충지로 요새가 되었다. 티벳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던 지역이기도 하다. 티벳인들은 9세기기 중반에 마지막 알름 문화 왕이 후계자 없이 암살될

때까지 이 지역과 관련을 맺고 있다. 현재 미란에 성곽이 남아 있다.

고고학자들은 미란은 원래 두 세개의 도시로 나뉘어져 있다가 홍수가 덮쳐서 파괴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분산된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스타인의 발굴당시 총 15개의 사지를 발굴했는데 제3사지에서는 ‘불전도’와 ‘날개달린 천사’가 출토되었으며 제5사지에서는 ‘본생도’가 출토 되었다. 조사단의 조사시에 현재 불탑을 중심으로 재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후대 티벳 지배 당시의 유적에서는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었다.

체르첸의 유적은 현재 존재 하는 것은 없다. 본래 한 대에 있었던 국가명칭은 Calmadana 번역어로는 차말(且末), 좌말(左末)로 불리운다. 누란의 세력이 강했던 5세기 경에는 선선의 영토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sup>5)</sup> 644년 현장이 통과할 당시<sup>6)</sup>나 1273년 마르코 폴로가 이 지역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황폐화 된 현장을 보기도 했다.<sup>7)</sup> 체르첸 지역은 현재 체르첸으로 부터 북쪽으로20Km 위쪽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 체르첸이다.

## 2. 니야지역

니야는 다클라마칸 사막 중앙 남부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로, 현대에는 정절국(精絕國)이라 불렸으며 ‘한서 서역전’ 등에 480호, 인구 3360명, 병사는 500으로 기록되어 있다.<sup>8)</sup> 후한

4) 『大正藏』 권51 p. 857上 (『高僧法顯傳』 권 1) ‘鄯善國 其國王奉法。可有四千餘僧。悉小乘學。諸國俗人及沙門盡行天竺法。但有精粗。從此西諸國。類皆如是。惟國胡語不同。然出家人。皆習天竺書天竺語。’

5) 『北史』 「列傳」85 ‘且末國，都且末城，在鄯善西，去代八千三百二十里。真君三年，鄯善王比龍避沮渠安周之難，率國人之半奔 且末。後役屬鄯善。’

6) 『大唐西域記』 권 12(『大正藏』 권51 p. 945 下) ‘從此東行六百餘里，至折摩馱那故國，即[且末]地也。城郭巋然，人煙斷絕。’

7) J.Bonavia, 『Illustrated Guide to the Silk Route』 (London: Collins,1988) p.92 셀리하비 리긴즈 지음 『현장법사』 (민음사 2010)에서 재인용

8) 『漢書』 「列傳」 七十卷 卷九十六上 西域傳第六十六上 ‘精絕國，王治精絕城，去長安八千八百二十里。戶四百八十，

시기에는 선선에 병합되었는데<sup>9)</sup> 국가의 규모가 작아 주변지역에 역학관계에 의해 부침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니야지역은 물이 풍부해 ‘대당서역기’에 ‘큰 늪지대가 있기로 건너가기가 어렵고 갈대가 우거져 있어서 길조차 없다. 성으로 향하는 외길만이 걸어 다닐 수 있다’<sup>10)</sup>고 기록될 정도였다. 그러나, 옛 니야지역을 향해 흐르던 니야강이 모래 속에서 물줄기가 바뀌면서 현재의 지역까지 무려 120Km나 이동을 해감에 따라 일년의 강우량이 겨우 29mm밖에 안되는 옛 니야 지역은 메마르고 말았다.

현재 니야강은 존재하고 있다. 천산의 녹은 물이 흘러내릴 때는 니야 유지의 입구 까지 물이 차기는 하지만 니야 고성 터 까지는 물이 흐르지 못한다고 한다.

『대당서역기』에는 니야의 동쪽으로는 ‘대유사’라 하여 모래가 흐르며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1)</sup> 이 대유사를 400리 건너가면 토카라의 옛터가 있고, 거기서 동으로 600리 가면 찰마다나, 즉 옛 찰마국이 나오며, 거기서 동북쪽으로 1000여리 가면 누란이 나온다고 대당 서역기에 적고 있는데, 니야를 제외하고는 현장이 인도로 가던 그 시기에 이미 사람의 흔적이 없는 버려진 도시들로 대당 서역기에 기록되어 있다.

1901~1930년 까지 스타인에 의해 발굴되었었는데 이 유물들은 The British Museum, the British Library, The National Museum in New Delhi의 스타인 컬렉션으로 반출되었다. 고성의 유지는 현재 확인가능 한 불탑으로부터 남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sup>12)</sup> 전체 유적지는 불탑을 중심으로 남북 25km 동서 5km에 달한다.<sup>13)</sup>

1996년 中-日고고학자들로 구성된 공동탐사단이 발굴할 당시 주택, 성곽, 고사(枯死)된 과목(果木)등을 발굴했다. 고성의 유적지는 동서 185m 남북 150m의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곽의 유적이 남아 있다.

조사단이 조사시에도 불탑 1기, 불탑 주변의 승방지, 마을유지, 민가터 등을 볼 수 있었다. 누란 지역과는 달리 밀집한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유물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볼 때 상당한 규모로 니야 강을 따라 성과 부속 건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탑의 높이는 6.5m로 높지는 않지만 현재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방형 기단 위에 복발형 탑신을 얹은 간다라 양식의 불탑이 보인다. 이 지역의 문화는 간다라 지역과 연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막지대의 황량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BC 2세기에서 AD 8세기경까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996년 당시 조사시 키로쉬티語로 쓰여진 30개의 서판(書板)이 발견되었다. 모래속에 깨어진 채로 묻혀 있던 향아리속에서 발견된 이들 서판(書板)은 쿠산제국에서 만들어져 타클라마칸사막지대의 고대 도시국가에서 8백여년동안이나 사

口三千三百六十，勝兵五百人。精絕都尉、左右將、譯長各一人。北至都護治所二千七百二十三里，南至戎盧國四日行，地，西通扞彌四百六十里。’

9) 『後漢書』「列傳」凡八十卷 卷八十八 西域傳第七十八 ‘小宛、精絕、戎廬、且末為鄯善所并’

10) 『大唐西域記』권 12(『大正藏』권51 p. 945 下) ‘婁摩川東入沙磧，行二百餘里，至尼[16]攘城，周三四里，在大澤中。澤地熱濕，難以履涉；蘆草荒茂，無復途徑，唯趣城路，僅得通行。故往來者莫不由此城焉。而瞿薩旦那以為東境之關防也。’

11) 『大唐西域記』권 12(『大正藏』권51 p. 945 下) ‘從此東行入大流沙，沙則流漫，聚散隨風，人行無迹，遂多迷路。’

12) 동경 82°43'25"21 북위 37°52'37"50

13) 禮小山.王 博 編著『絲綢之路.新疆高代文化』(新疆人民出版社, 2008)p.50



그림 3. 니야의 불탑

용됐던 키로쉬티 문자의 흔적 및 쿠산제국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서판에는 서선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후한서』에 나오는 데로 이 지역을 병합했던 선선의 역사가 확인되었다. 또한 선선(누란)지역에서 불교사원과 승려들이 사용하던 인도의 문자가 키로쉬티어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지역의 쿠산의 영향력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사 이 후 많은 건물을 해체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건물의 유지는 잘 보존 되어 있다. 포도장원근처에 있는 민가 터에서는 직물 및 토기편 동전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다. 포도 장원의 안쪽에는 고대에 묻은 것으로 보이는 포도 향아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현재도 아직 유지 및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고대 니야하를 건너던 다리의 흔적도 잘 유지되고 있다.

### 3. 호탄지역

호탄은 사막남로의 중심국가로서 불교가 매우 발달된 국가였다. 한서에 등장하는 기록을 보면 가구수는 3300호, 인구는 19300명, 병사는 24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옥석이 많이 난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4)</sup>

호탄국의 국가명은 양 『漢書』, 『魏書』, 『梁書』, 『周書』, 『隋書』, 『舊唐書』, 『新唐書』, 『五代史』, 『宋史』, 『明史』, 『佛國記』, 『伽藍記』, 『高僧傳』과 『續高僧傳』 및 『宋高僧傳』 등에서 모두 于闐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玄奘의 『大唐西域記』에서는 瞿薩旦那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玄奘의 표기는 “Kustana”를 음역한 것이다. 또 『大方等大積經』에서는 “于闐即優地耶那”라고 표기하고 있어 梵文의 “Udyana”를 음역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sup>15)</sup>

3세기 중반 까지는 부파불교 특히 설일체 유부의 사상이 유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5세기 경에는 대승불교가 성행했음을 살필 수 있는데<sup>16)</sup> 사막남도지역 불교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法顯傳』에서는 호탄의 ‘행상(行像)’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다. <sup>17)</sup>

14) 『漢書』卷96 「西域傳」 第 66下. “于闐 國，王治西城，去長安九千六百七十里。戶三千三百，口萬九千三百，勝兵二千四百人。輔國侯、左右將、左右騎君、東西城長、譯長各一人。東北至都護治所三千九百四十七里，南與婼羌接，北與姑墨接。于闐之西，水皆西流，注西海；其東，水東流，注鹽澤，河原出焉。多玉石。西通皮山三百八十里。”

15) 한지연, 『서역불교교류사』(은정불교문화진흥원, 2011) p.130

16) 같은 책, pp.135~145

17) 法顯, 『高僧 法顯傳』(『大正藏』 卷51 p. 857, 中). “從四月一日城裏便掃灑道路莊嚴巷陌 其城門上張大幃幕 事事嚴飾王及夫人嫁女皆住其中 瞿摩帝僧是大乘學 王所敬重 最先行像 離城二四里作四輪像車 高三丈餘 狀如行殿 七寶莊校 懸繒幡蓋 像立車中二菩薩侍 作諸天侍從 皆以金銀彫瑩懸於虛空像去門百步 王脫天冠易著新衣 徒跣持花香翼從出城



14일간에 걸친 행상에 관한 규모로 보아도 호탄지역의 불교는 매우 발달된 규모로 볼 수 있다.

### 3-1. 다마고유적

신장 위글자치구 서남부 화천(和田)시 다마구(達瑪溝)향을 중심으로 한 남북 100km의 지역에서 20여개의 6세기 이후에 건립된 불교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특히 2000년 발견된 남부 지역의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2002년부터 불교 유적지를 발굴하기 시작, 3개의 불교 유적지를 발굴했다.

이 명칭의 유래는 達瑪는 범어의 Dharma의 음사어로 추정된다. 이 불교 유적의 대다수는 6~8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유적지중 1호 사찰은 남북2m, 동서1.7m, 면적은 4.5㎡에 불과하지만 400년 동안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sup>18)</sup> 불상이 먼저 만들어지고 후에 사찰이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잔존하고 있는 불상의 높이는 0.65m이고 사면에 벽화가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벽화중의 인물



그림 4. 達瑪溝 1사원지

모양이 풍만하고 둥근 모습으로 호탄미술을 대표하는 위지파의 화풍으로 표현되어 있다. 벽화의 잔편도 120개나 출토되었는데 천불도, 비사문천등 다양한 종류의 벽화가 나왔다. 현재 유지를 그대로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크로드 문화재 중 온전한 불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로 보인다.

### 3-2. 요드칸 왕성지

요드 칸 왕성터는 현재 밭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고대 호탄왕국의 왕성터였으나 현재는 불탑지로 추정되는 언덕과 유적지를 표시하는 유물만이 남아있다. 한나라 때부터의 사막남로의 최대의 오아시스로서 실크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중개무역의 중심지였다.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거대한 곤륜산맥이 티베트와 경계를 지으며 뺨어내려 만년설의 녹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해주고, 북쪽으로는 대사막을 안고 있어서 기후가 온화하기에 예부터 과일, 곡물, 비단, 카펫이 많이 생산되어 실크로드 도시 중 가장 부유한 곳이었다. 무엇보다 이곳의 흑옥(黑玉)과 취옥(翠玉)은 멀리 로마에까지 이름을 날릴 정도로 유명하였다. 또한 대승불교 경전인 화엄경의 고향으로도 알려질 정도로 불교가 발전 했었다. 하지만 요드칸 왕성지는 이러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유물은 없다.

迎像頭面禮足散花燒香 像入城時 門樓上夫人嫖女遙散衆花紛紛而下 如是莊嚴供具車車各異 一僧伽藍則一日行像 自月一日 爲始至十四日行像乃訖 行像訖王及夫人乃還宮耳”

18) 禮小山.王 博 編著, 앞의 책, p.65



요트칸 유적은 호탄의 서쪽으로 10km 정도 지점에 있으며 기원전 60년 한나라에 복속한 유티안(Yutian)왕국의 수도가 있던 곳으로 왕궁의 사찰로 불교의 중심지였다 한다. 유티안은 호탄의 옛 이름으로 3세기~8세기 무렵까지 번영을 누렸으며 인도의 불교와 관련된 동 불상, 불경, 오래된 동전, 서적 등이 다수 출토되었고 고대 페르시아나 그리스의 영향도 받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유적이 지하에 매몰되어 있어 발굴이 필요한 곳이다. 출토되는 유물 중에 기독교와 관련된 동전과 십자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서양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였던 곳으로 보여 체계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한다.

### 3-3. 메라카와트 왕성지



그림 5. 호탄 메라카와트 유지

메라카와트 왕성터는 풀도 없는 허허벌판에 군데군데 흩터미만 몇 개 있다. 성을 알리는 안내표지석이 더 크게 보이는 이곳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는 것 같다. 마을이름을 따서 메라카와트 고성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호탄 왕국의 성터로 짐작하며 일본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현재 불탑지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몇 개의 건물지 만이 고대 호탄 왕국의 수도였음을 표시한다.

남북 길이는 1.4km 북쪽의 너비는 745m 남쪽의 너비는 450m로 현재 토괴만이 남아 있다. 1977년과 79년 조사에서 지표면에서 불상과 오수전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불사의 흔적을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불사의 규모는 추정하기 어렵다. 19)

### 3-4. 라와크 사원지

라와크(Rawak) 호탄 60km 북동쪽에 있는 불교 사원지로 20세기 초에 부분적으로 발굴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의 잘랄라바드 남쪽에 있는 하다의 스투코상(像)과 비슷한 거대한 불상(佛像)이 불탑 주위의 벽에 줄지어 있음이 판명되었다. 불탑의 평면구조는 쿠산왕조시대 후기의 간다라에서 자주 조영(造營)되었던 사면두출형(四面斗出形)으로, 규모가 크고(약 43m×49.7m) 시대가 오랜 점에서 중앙 아시아에서의 중요유적의 하나로 꼽힌다.



그림 6. 라와크 사원지

19) 新疆通志文物志 編輯委員會, 앞의 책, p.173

스타인 발굴 당시에는 탑과 그것을 둘러싼 회랑의 벽이 보인다고 했지만 현재는 외벽의 흔적만 보일 뿐이다.

#### 4. 카슈가르

카슈가르의 옛 이름은 소룩(疏勒)으로 물이 많다는 뜻이다. 사막 주변에서 물이 많다는 것은 풍요롭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카슈가르의 옛 이름은 소룩(疏勒)으로 물이 많다는 뜻이다. 사막 주변에서 물이 많다는 것은 풍요롭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漢書』 「西域傳」 에는 ‘소룩국(疏勒國)의 도성은 소룩성(疏勒城)이며 가구는 모두 1,510호, 인구는 8,647명이며 승병은 2천명으로 남으로는 莎車國까지 560리에 위치해 있다. 서로는 大月支, 大宛, 康居로 가는 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교통의 요지다. 이곳으로부터 서로 이동하면 석두성을 지나 파키스탄 지역으로 넘어간다. 현재도 중요한 육상교통의 요지다.

『법현전』에는 ‘부처님의 타호가 있는데, 돌로 만들어졌으며 색깔은 부처님의 발우와 비슷하다. 또 부처님의 치아가 하나 있는데 치아를 모셔놓기 위해 탑을 세워 놓았다.’<sup>20)</sup>라는 기록과 ‘반차월사(般遮越師)’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교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 ‘총령에서 걸어서 한 달을 가면 슈르(疎勒)에 이른다. 외국인들은 카슈가르국(伽師祇離國)라고 부른다. 이곳도 중국 군대가 지키고 있다. 절도 있고 승려도 있으며 소승이 행해진다. 고기와 과와 부추 등을 먹으며 토착인은 면직 옷을 입는다.’<sup>22)</sup>고 기록되어 있다.

인도에서 귀국하던 현장(?~664. 629~645 인도 순례)도 카슈가르를 『대당서역기』에서는 ‘거사국(카슈가르) 둘레는 5000여 리이고, 모래와 자갈이 많고 토양은 적다. 농사는 번성하고 꽃과 과일도 풍성하다. 가는 털로 짠 옷이 나며 가는 털과 양탄자를 짜는 기술은 훌륭하다. 기후는 온화하고 화창하며 비와 바람은 순조롭다. 카슈가르 사람들의 성품은 난폭하고 풍속은 남 속이기를 잘한다. 예의가 경박하고 학예도 천박하다.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굳고 부지런히 복과 이익을 베풀고 있다. 가람은 수백 곳이 있으며, 승도는 10,000여 명이 있는데, 이들은 소승의 가르침인 설일체유부를 배우고 있다. 하지만 이치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 대부분은 그저 글만을 외우고 있다.’<sup>23)</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르불탑(莫爾佛塔)은 카슈가르시(喀什市) 동북쪽 30km 지점 황토 대지에 위치하는 불탑이

20) 『高僧 法顯傳』(『大正藏』 卷51, p. 857, 下). ‘其國中有佛唾壺 以石作之 色似佛鉢 又有佛一齒 其國中人爲佛齒起塔’

21) 한지연, 앞의 책, pp.76~77

22) 『往五天竺國傳』(『大正藏』 卷51 p. 979, 上) ‘又從葱嶺步入一月 至疎勒 外國自呼名伽師祇離國 此亦漢軍馬守促 有寺有僧 行小乘法 喫肉及葱菹等 土人著疊布衣也’

23) 『大唐西域記』 권 12(『大正藏』 권51 p. 942 下) ‘佉沙國, 周五千餘里. 多沙磧, 少壤土. 稼穡殷盛, 花菓繁茂. 出細氈褐, 工織細氈毼毼. 氣候和暢, 風雨順序. 人性獷暴, 俗多詭詐, 禮義輕薄, 學藝膚淺. 其俗生子, 押頭匾匾, 容貌僂鄙, 文身綠睛. 而其文字, 取則印度, 雖有刪訛, 頗存體勢. 語言91辭調, 異於諸國. 淳信佛法, 勤營福利. 伽藍數百所, 僧徒萬餘人, 習學小乘教說一切有部. 不究其理, 多諷其文, 故誦通三藏及毘婆沙者多矣.’

위치하고 있다. 탑은 두기로 한쪽 탑은 한변 12.3m 높이 정방형 기좌(基座)에 복발을 얹은 총 높이 14m의 불탑이다. 다른 쪽의 불탑은 복두형(覆斗形)으로 높이 14m 한쪽 변은 25m 다른 쪽 변은 23.6m의 방형이다. 위로 올라가면서 너비가 줄어드는데 정상부의 너비는 14.2m와 12.5m로 북면과 서면에 불감의 흔적이 남아 있다.<sup>24)</sup> 건립시기는 위진(魏晉) 혹은 당대(唐代)로 보며 고소륙국(古疏勒國)이 남긴 실크로드상의 중요 불교유적으로 2001년 5월 중국 국무원이 중요문화유산단위로 공포했다.



그림 7. 카슈가르 모르불탑

삼선동은 차크마크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세 명의 신선이 살았다는 ‘삼선동’(三仙洞)엔 올라갈 수 없다. 동굴 역시 바닥에서 15m정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사다리가 없으면 올라가기 힘든 곳이다. 동굴 속에는 불화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진입이 어려워 확인할 수가 없었다. 삼선동이 위치한 곳은 카슈가르에서 대월지, 대원(페르가나 지방), 강거국(사마르칸트)으로 넘어가는 ‘테레크 고개’ 입구에 해당된다.

## 5. 투르판 지역

투르판지역의 중국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그 역사가 복잡하다. 『한서』 「서역전」에 차사전국(車師前國)의 ‘수도는 교하성(交河城)이고 그 강물은 성 아래에서 갈라져 흐르니 교하라 부른다. 가구는 700호에 인구는 1,500명이다. 병사는 1,865명이다.’<sup>25)</sup>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한지연은 ‘당시 중원과의 외교적인 문제에 불교경전을 헌납하거나 승려들이 함께 오는 모습이 교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투르판 지역불교의 특징을 중국과의 불교를 통한 외교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sup>26)</sup>

### 5-1. 교하고성

교하고성(交河故城)은 신장 투루판의 10km 서쪽의 야르나즈 계곡에서 발견된 고대 중국의 국가였던 차사전국의 수도 유적이다. 야르나즈 계곡 아래로는 무르투크 강이 흐르고, 이곳 교

24) 新疆通志文物志 編輯委員會, 앞의 책, p.233

25) 『漢書』卷96下, 「西域傳」. “車師前國 王治交河城 河水分流繞城下 故號交河 去長安八千一百五十里 戶七百 口六千五十 勝兵千八百六十五人 輔國侯安國侯左右將都尉歸漢都尉車師君通善君鄉善君各一人 譯長二人 西南至都護治所千八百七十里 至焉耆八百三十五里”.

26) 한지연, 앞의 책, p.105

하고성을 현지인들은 ‘야르허투’라고 부른다.

기원전 108년부터 AD 450년까지 교하는 중국 고대의 차사전국(車師前國)의 수도였다. 차사전국은 한나라, 진나라, 남송, 북송과 함께 존재하였던 고대 중국의 국가였다. 서역 실크로드 무역로에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변의 구자국(쿠얼러)과 카라샤르와 인접하였다. 450년~640년까지 교하성은 당나라 교현(交縣)으로 편입되었고, 640년에는 교하현이 만들어졌다. 640년에서 658년에는 안서도호부가 설치되었고, 서역을 다스리는 주요 본거지가 되었다.

9세기 초반 이후로는 위구르 제국의 교하현이 되었고, 840년 키르기즈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교하성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강의 중간에 거대한 섬(길이 1650m, 폭이 300m) 위에 지어졌다. 도시의 구조는 동쪽과 서쪽 거주지가 있었으며, 북쪽 지구는 불교 사원과 탑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에 따라 동쪽지구의 남쪽에는 주목할 만한 묘지와 함께 거대한 관청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교하고성은 13세기 칭기스칸에 의한 몽골의 침입 이후 마침내 버려지게 되었다.



그림 8. 교하고성 대불사터

교하고성 뒷부분에는 수많은 사원 유적이 산재해 있다. 투르판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통해 소승불교가 유행했으며, 당시 주변의 언기국 쿠차국에도 소승계불교가 성행하고 있었기에 투르판에도 역시 소승불교가 전해졌을 것으로 학자들은 분석한다. 불교 이외 다른 종교도 있었다. 『위서(魏書)』에 “민간인들은 부처님 가르침과 함께 천신을 믿었다”<sup>27)</sup>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로 미루어 민간에서는 재래신앙이 신앙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네스토리우스교(동방 기독교, 경교),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등도 신앙되고 있었다.



그림 9. 아열호 천불동

교하고성의 사원지는 20개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팀이 확인한 숫자만도 15개 정도의 사원지를 탐방 할 수 있었다. 양식은 중

27) 『魏書』「西域傳」“俗事天神 兼信佛法”.



국과 실�크로드 양식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전까지의 실�크로드 지역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아열호 천불동 교하고성의 성곽 밑 부분에 개착한 석굴이다. 위구르 왕조 시대의 유물로 승방굴과 불전굴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유적은 벽화가 조금 남아 있다. 문양은 화려해 9세기 이후의 투르판 지역 불교문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 5-2. 베제크릭 천불동

화염산 중턱에 있는 ‘베제크릭’은 투르판 시내에서 동쪽으로 45km 거리에 있는, 화염산의 무르투 계곡에 자리 잡고 있다. 베제크릭 석굴은 1898년 러시아의 클레멘츠에 의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외관에 비해 내부는 매우 잘 보관돼왔지만 석굴은 20세기 초 대규모의 파괴가 있었다. 베제크릭석굴을 가장 많이 조사한 사람은 독일의 그뤼네베일로 1902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독일의 르 쿡, 일본의 오타니, 러시아의 올젠버그, 영국의 스타인 등이 차례로 드나들며 소장(塑像)이나 벽화를 반출했다. 오타니가 베제크릭석굴에서 뜯어온 벽화 4점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보관돼 있다.

석굴의 숫자는 81개이고 벽화는 40개 정도가 남아있다. 본 연구 팀은 석굴의 비공개 석굴에 대한 조사를 행할 수 있었다. 현재 불상이 남아 있는 석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곳에 남아 있는 문화재들은 6세기부터 당나라 시기의 석굴양식과 위구르 왕조 시기인 9세기 이후의 양식이 남아 있다. 투르판 지역의 특성상 동서문화의 교차지로 양쪽의 문화가 병재한다.



그림 10. 바이시하얼 석굴

바이시하얼(拜錫哈) 석굴은 베제크릭천불동 뒤쪽의 소박한 석굴군이다. 10세기 경 개착되었으며 바이시하얼은 위구르어로 5개를 뜻한다. 현재 남아 있는 5개의 석굴은 승방굴과 불전굴이 모두 남아 있는데 벽화만이 존재한다. ‘유마경변상도’의 흔적이 남아 있어 이 시기 불교신앙을 추정하게 해주는 유적이다.

승금구(勝金口) 석굴은 베제크릭 석굴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석굴이다.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조상들이 다량 출토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석굴도 위구르 왕조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규모가 바이시하얼 석굴에 비해서는 제법 크다. 3호굴은 중심주굴로 베제크릭 석굴과도 유사점이 많다. 다만 보존 상태가 좋지 않고 많은 도굴의 흔적이 보인다.



그림 11. 승금구 석굴

고창고성에는 현장법사가 천축국(지금의 인도)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 고창국 국문태의 초대를 받아 630년 2월경에 도착하여 1개월간 고창국에 들러 이 곳에서 법회를 열어 한 달 동안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을 설법했는데<sup>28)</sup>, 그때 법회를 열었던 건물은 복원을 해 두었다. 벽체는 사각형, 천정은 원형건물로, 음성을 반향시키기 위한 음향 효과를 주기 위한 구조라고 한다. 현장법사는 고창국의 왕 국문태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노잣돈으

로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후 10여 년 유학을 끝내고 불경을 가지고 다시 고창국에 들러 당나라로 귀환을 하려고 했으나, 그때는 이미 현장법사의 모국인 당나라에게 멸망한 뒤였고 사람들도 다 떠난 뒤였다고 한다.

현재 고창성 안에는 불교 유적지가 존재하는데 현장이 머물렀던 대불사나 여타의 사원지가 잔존하고 있다.

## 맺는말

이상을 통하여 2012년 실크로드 학술조사를 통한 주요 조사지역에 관한 개관을 실시해 보았다. 사막남로를 중심으로 한 실크로드지역과 투루판지역의 조사가 조사의 중심축이었으며,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몇 가지 불교문화의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사막남로 지역의 불교문화재는 간다라를 중심으로 한 인도지역으로부터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이 지역 탑의 조성양식이 간다라지역의 탑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또한 니야로부터 누란에 이르는 지역은 누란의 영향권에 있었으며 이 지역 출토 문자가 키로쉬티 문자인 것으로 볼 때 쿠산의 영향력이 이 지역에 강하게 미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사막남로는 지금까지 유사하의 땅으로 알려졌지만 사료와 답사를 통해 수원이 풍부한 지역이 다량 존재하며 특히 누란과 미란을 잇는 지역은 고대 수로교역의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

투루판 지역은 중국과의 연관성이 강해 다른 지역의 불교문화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했을 수 있다.

현재 조사를 통해 얻은 성과를 중심으로 실크로드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실크로드와

28) 『大慈恩寺三藏法師傳』(『大正藏』50, p.225 中) ‘仍屈停一月講仁王經 中間為師營造行服 法師皆許 太妃甚歡 願與師長為眷屬 代代相度 於是方食其節志貞堅如此 後日 王別張大帳開講 帳可坐三百餘人 太妃已下 王及統師大臣等 各部別而聽 每到講時 王躬執香鑪自來迎引 將昇法座 王又低跪為禮 令法師躡上 日日如此’

중국을 잇는 감숙지역 불교문화를 폭넓게 조사한다면 한국불교문화원형에 고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 Consideration of Buddhism Culture through a Regional Survey —Buddhist Culture of Ancient States near the Silk Road

Moon, Mu-wang |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and Social Affairs, Dongguk Univ.

This research paper focuses on the Buddhist cultures along the silk road region which were identified through an academic research in 2012 as its main contents. 10, 2012 until July 29 in 2012 starting from the Republic of Korea. The target region of this time survey is centered the southern desert route expanding its survey area to Turfan district as the final survey zone. The key area where the survey had been implemented are the regions including Kuerle, Loulan, Cherchen, Niya, Dama—district relics, Khotan, Kashgar (Shule Kingdom) and Turfan(Battle of Jushi). In regional terms, these are in the line of extension that connects the south to the west from the eastern exterior boundary of Taklamakan Desert.

The Buddhist relics in Loulan region is a 10.5m height pagoda which remains as damaged currently. The stylobate is square-shaped whereas the whole structure of pagoda is columnarized, showing that the shape of pagoda originated from India has been maintained.

In Miran, there are 15 temples in total and from the 3rd temple ruins, 'Art of the Buddha s Life Story' and 'Angel with wings' were excavated and from the 5th temple ruins, Bonsaeng—do which depict the former lives of the Buddha was excavated. At the time of study by the research team, re-excavation was underway centering the present Buddhist stupa.

At the time of study by the research team in Niya region, we were able to see one unit of Buddhist stupa, the ground of monk's dormitory around the Buddhist stupa, village remains and village house ground. Unlike Loulan region, the cultural relics were not dense but they were scattered. From this fact, it seemed the castle and its annexed structures had been existed in substantial scale along the river of Niya.

Khotan region has severely damaged remains of the Buddhist temple so its unique Buddhist culture could be estimated from the cultural relics newly excavating from Dama—district or Dandan—Uiliq, which reveals the painting style of Wei tribe that was fashioned in Tang Dynasty

Kashgar is a region that had been called as the ancient Shule where Islamization is quite expanded currently so the trace of Buddhist culture is being identified from its

outskirts. Among them, the Mor Stupa reveals the trace of once-prosperous Buddhism in Kashgar region as a large scale temple ground.

Turfan region is a place where there has been a lot of cultural exchanges incurring between the Western regions and China, and its traces are being found from advanced stone caves.

The 2012 academic research on the silk road was implemented as having the research on the silk road region along the southern desert route and Turfan region as its center axes, through which a few characteristics of Buddhist culture were possible for inference. The Buddhist cultural heritages in the region along the southern desert route had been strongly influenced by Indian region centering Gandhara. Such inference was possible from the fact that the construction pattern of stupa in this region was very similar to those in Gandhara region.

In addition, the region extended from Niya to Loulan had been under the influence of Loulan and from the fact that the letters found from this region was Kharosthi letters.

The southern desert route has been known as the land belonged to Liusahe but we could find the trace of ancient trade via water channel in the region that connects Loulan and Miran where has been identified with abundant water source through historical resources and field visits.

Turfan region has a strong association with China, presenting its Buddhist culture had been developed into different pattern from Buddhist cultures of other regions.

Based on the achievement obtained from current research, if wider research could be implemented on the silk road as well as the Buddhist culture of Gānsù region that connects the silk road and China, it would become a new momentum to study the protocol of Buddhist culture in Korea.

## 7-10세기 실크로드 東端에 있어서 불교문화의 역류

석길암 |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 1. 問題의 所在

고대 동아시아 불교세계의 형성과 전개를 논할 때, 한국불교 더 좁게 말하면 신라불교가 점유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 현대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용어 중의 하나는 아마도 ‘求法僧’이지 않을까? ‘求法僧’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 우선 신라 혹은 한국에서 중국 혹은 인도를 포함하는 西域으로 佛法을 求하러 간다는 이미지를 첫 번째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불교 더 좁게는 신라불교는 중국불교를 전해 받은 곧 중국불교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형성된 것이라는 이미지를 지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求法’을 주체적, 능동적 입장에서 해석하여 한국불교는 중국불교를 수동적 입장에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중국불교를 능동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불교라는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의 전파에 있어서 지리적 입지 문제라든가, 문화의 수직적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어찌면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시각 역시 타당할 수 있다. 문화란 것은 수준이 높은 곳에서 수준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또 인도로부터의 지리적 입지를 생각하면 불교가 서역을 거쳐 중국으로 다시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시각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은 일면에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사실인 것으로서 수용되어야 한다는 시각 역시 일면적이라는 점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시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몇 가지 盲點이 있다. 우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지만, 그 높고 낮은 것의 평가가 일정할 수 없는 대상이 곧 문화수준이라는 것의 척도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곧 문화수준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절대적인 것일 수 없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고, 지극히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보해서 객관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를 多衆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화라는 것은 일방적인 영향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는 지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문화의 일방적 전파를 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종종 좀더 보편적인(세계적인) 것과 좀더 특수한(지역적인) 것이 서로 영향관계에 있을 때, 일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오히려 희소하다는 점에서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곧 문화의 일방향적 관계라는 것은 특정 문화를 기

준으로 특정 시점에 한정할 때만 일방향적 영향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의 東漸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같은 문화의 상호접촉 현상은 당연히 용인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求法’이라는 용어는 불교의 東漸과 한국의 불교수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지극히 일면을 평가하는 시각에 그칠 수밖에 없다.

조금 더 특수한 시각에서 말한다면, ‘중국불교’란 것의 범주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좀더 광범위하고 상세한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거칠게 질문을 던지자면 ‘중국불교’는 ‘중국인들의 불교인가’라는 문제가 될 것이다. ‘*Buddhist Conquest of China*(불교의 중국정복)’이라는 유명한 고전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중국불교’는 ‘중국인들의 불교’가 아니라 ‘불교의 중국’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논자가 생각할 때 적어도 중국이라는 지역에 불교가 존재했던 역사 중에서 앞의 반 곧 2세기 중엽에서 10세기 말에 이르는 동안의 ‘형성기의 중국불교’는 ‘중국인들의 새로운 불교’라기보다는 ‘불교인들의 새로운 중국’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불교인들의 새로운 중국’[논자는 그것을 ‘동아시아 불교’라는 용어로 더 많이 표현한다]은 다양한 불교인들의 참여에 의해서 형성되고 전개되었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5~8세기 사이 장안과 낙양을 중심으로 삼아서 모여들었던 인도인들과 서역인들과 동아시아인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불교’를 중핵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폭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漢族’이라고 하는 ‘文化的 共同體’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을 부정할 생각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쉽사리 간과하는 부분, ‘불교인들의 새로운 중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다른 많은 動力因들’에 대해서 환기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그러한 ‘다른 많은 동력인들’ 중의 하나로써 ‘신라불교’ 나아가 ‘한국불교’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이 불교의 전파에 있어서 실크로드 좁게는 붓다루트의 동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 域內的 불교문화가 아니라 域外에 투사된 영향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함에 있어서, 그 영향의 방향이 東漸이 아닌 반대의 西漸이기 때문에 ‘逆流’라는 이름 아래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7~10세기 중국불교의 전개에 있어서 한국불교의 영향이라고 하는 문제는 본고에서 전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범주는 아니기 때문에 해동불교문헌의 중국 전파 문제, 불교인들의 중국 내에서의 활동양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몇몇 사례에 특정하여 검토한다.

## 2. 7세기~8세기 초 新羅佛敎와 長安佛敎의 間

### 1) 7세기 장안불교계에서 신라승들의 활동

隋·唐 시기에 장안에서 활동한 신라승려들의 수는 적지 않다. 陳景富에 의하면, 한국 구법활동의 흥성기(590~907)에 입당한 승려의 수가 185명이라고 한다. 이 중에 隋代에 入中한 승려가 4명이다. 唐 초기 측천무후 시대까지 입당한 승려는 43명인데, 이 중에 신라승이 40명

이고, 고구려승이 2명, 백제승이 1명이라고 한다. 곧 7세기에 중국에 들어가 활동한 해동 출신 승려는 모두 44명이 되는 셈이다. 다음의 8세기 100년 간(705~805) 중국에 들어가 활동한 승려는 모두 44명이며, 9세기(806~907)에 중국에 들어가 활동한 승속은 모두 98명에 이른다고 정리하고 있다.<sup>1)</sup> 李映輝에 의하면, 高僧傳에 등장하는 唐 前期 고승의 총수가 440명이고, 그 중에 외국국적의 고승은 45명이다. 다시 그 외국 국적의 고승 중에 서방천축국 출신이 16명이고, 康居·吐火羅 등이 8명, 해동 출신이 20명(신라 17명), 南海·河陵 출신이 1명이라고 한다.<sup>2)</sup> 고승전에 등재되어 기록에 남아있는 승려를 기준으로 한 숫자인 만큼, 기록에 남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sup>3)</sup>

대체로 唐代에 명망을 가지고 활동한 승려들의 5% 남짓한 숫자이고, 다시 외국 출신 고승 2~3명 중의 1명은 신라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당나라 불교에서 신라 불교인들의 비중은 상당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들 승려들의 주요 활동 내역을 들자면, 무엇보다도 ‘求法’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7세기 입당유학승의 가장 큰 목적이 중국의 불교를 수입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 원효와 의상의 2회에 걸친 입당 시도는 당시 신라 불교인들의 구법열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엿보게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학생들이 그러한 것처럼, 唐代 유학승들의 활동 도한 구법에만 머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귀국하여 유학 동안에 배운 불법을 신라에 전하기도 하였지만, 귀국하지 않고 그대로 체류하면서 唐 불교계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전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慈藏(590~658년경)과 義湘(625~702)이라면, 후자를 대표하는 인물은 圓測(613~696)일 것이다.

이들 7세기~8세기 초에 당에서 활동하였던 신라 출신 승려들의 주된 활동 영역 중의 하나로 주목되는 부분은 譯場 참여이다. 陳景富는 이들 신라 승려들 중 역장에 참여한 인물들을 검토하여 정리한 바 있다. 陳景富는 불경의 번역시기를 크게 西晉 이전까지의 제1기, 東晉~南北朝까지의 제2기, 唐初~貞元 연간까지의 제3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제3기 동안에 번역된 경론의 수는 435부 2476부에 이른다고 한다.<sup>4)</sup>

이 제3기 동안 唐의 주요 譯場에서 筆受나 證義의 역할을 담당한 신라승으로 神昉, 智仁, 圓測, 勝莊, 玄範, 無着, 慧超, 慧日 등이 있다.

神昉은 玄奘(602~664) 문하의 四英 중의 한 사람으로, 현장이 645년 弘福寺에서 번역을 시작할 때부터 證義로 참여하였으며, 그 후에도 몇 차례 筆受를 맡았으며, 『大乘大集地藏十輪經』의 경우에는 筆受와 함께 經序를 짓기도 하였다.<sup>5)</sup> 또한 神昉에게는 『十輪經抄』의 저술이 있었다.<sup>6)</sup>

1) 陳景富, 『中韓佛教關係一千年』, 宗教文化出版社, 1999, pp.22~25.

2) 李映輝, 『唐代佛教地理研究』, 湖南大學出版社, 2004, p.49.

3) 김병곤은 7세기 당에서 활동했던 해동승려로 신라승 30명, 고구려 2명, 백제 2명을 들고 있다.(김병곤, 「나당동맹의 성립과 신라 구법승의 역할」, 『한중불교교류사연구』, 불교시대사, 2010, pp.140~143 참조)

4) 陳景富, 앞의 책, p.79.

5) 道倫의 『瑜伽論記』에는 ‘新羅昉師’라 하였고(T(大正藏)42, p.746a), 唐慈恩寺에 神昉法師의 塔이 세워졌다.(西本照眞, 『三階教の研究』, 春秋社, 1998, p.102) 또한 『釋門自鏡錄』에는 「慈悲寺僧神昉, 少小已來聽學十輪經, 精勤苦行特異常人, 著糞掃衣, 六時禮懺, 乞食為業, 每講十輪經」(T51, p.806b)이라는 기사가 실려있다.

6) 懷惑의 『釋淨土郡疑論』에는 「神昉法師十輪經抄云」(『淨土宗全書』6, p.188)이라고 하여 神昉의 『十輪經抄』의 내용

智仁은 현장이 647년 『因明入正理論』을 번역할 때와 649년 『般若波羅密多心經』과 『因明正理門論本』을 번역할 때 筆受로 참여하였다. 현장이 입적한 664년 이후에는 장안의 光明寺에 주석하며, 『十一面經疏』를 비롯한 저술을 남겼지만 신라로 귀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sup>7)</sup>

원측의 활동은 별도로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익숙한 인물인데, 長安 西明寺를 중심으로 유식교학을 크게 흥포한 인물이다. 원측은 만년이었던 측천무후 시기에 세 차례에 걸쳐서 譯場에 證義로서 참여하고 있다. 첫 번째는 地婆訶羅의 譯場에서, 두 번째는 達摩流支가 『佛說寶雨經』을 번역할 때, 세 번째는 實叉難陀가 불수기사에서 80권본 『華嚴經』을 역출할 때이다.

이외에도 勝莊은 義淨(635~713)의 譯場에 證義로 참여하였고, 玄範은 實叉難陀의 역장에 筆受로 참여하였고, 無着은 西明寺 善無畏의 역장에 筆受로 참여하였고, 8세기 중반의 慧超는 金剛智의 역장에서 筆受를 맡고 있다.

陳景富는 8명의 신라 승려들이 玄奘, 義淨, 地婆訶羅, 實叉難陀, 達摩流支(菩提流支), 金剛智 등의 6개 譯場에서 번역에 참여했던 경전은 76부 1,237권을 헤아리며, 그 중에 『대반야경』, 『대비바사론』, 『대보적경』, 『화엄경』의 대경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8)</sup>

이 같이 7세기~8세기 초반의 기간 동안에 입당하였던 신라 승려들은 활동은 역장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의정이 지은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입전된 56명의 승려 중에 신라 승려가 8명이나 된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곧 이 시기 신라불교는 교학적 기반을 정비하는 시기였다는 점이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6세기 중반에 천축으로부터 귀국하는 玄奘의 新譯經論들은 7세기 중반 이후의 동아시아 승려들의 구법의지를 자극했기 때문에, 義淨이 현장의 구법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신라 승려들의 천축 구법이나 역장 참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천축구법이나 역장에의 참여는 새로운 불교조류 혹은 새롭게 번역되는 불전을 신속하게 입수하는 지름길이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신라불교가 교학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한 7세기 중반 무렵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 역장에 참여한 서역천축 출신 승려들과 중국승려를 제외한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중국불교의 발전에 신라불교인들의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 2) 장안불교에 미친 신라불교문헌의 영향

7세기에 신라 승려로서 당 장안의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는 누구보다도 원측과 元曉(617~686)를 먼저 꼽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장안과 낙양에서 활동하였던 원측보다는 원효의 저술들이 중국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한다.

을 인용하고 있다.

7) 김상현,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pp.303~307.

8) 陳景富, 앞의 책, pp.78~87.

원효의 저술들이 중국불교에 미친 영향 전반에 관해서는 福土慈稔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다.<sup>9)</sup> 중국 불교문헌에 있어서 원효 저술의 인용은 7세기 말의 법장부터 근현대에까지 이어질 정도이다.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인데, 1126년 고려의 사신들이 四明 延慶寺의 梵光(1064~1143)을 방문하여 法衣 1점과 원효가 찬술한 論疏 200권을 전하여 중국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기록<sup>10)</sup>은 원효의 저술이 중국불교계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7~8세기의 인용례를 중심으로 원효 저술의 중국 유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전해져서 폭넓게 인용되고 있는 것은 단연 『起信論疏』와 『華嚴經疏』를 들 수 있다.

『화엄경소』의 인용은 法藏(645~712)의 『華嚴經探玄記』에서 古來의 十家の 교관을 들면서 일곱 번째로 ‘唐朝海東新羅國元曉法師’의 四敎判을 들고 있고,<sup>11)</sup> 다시 동일한 내용이 李通玄의 『新華嚴經論』에 그대로 전재되었고,<sup>12)</sup> 法藏의 제자인 정법사 慧苑 역시 『續華嚴經略疏刊定記』에서 사교관에 관한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다.<sup>13)</sup> 이 외에도 澄觀과 宗密 역시 『華嚴經疏』와 『起信論疏』를 인용하고 있다. 특히 『起信論』의 3대 주석서로 불리는 『起信論疏』는 法藏이 『起信論義記』를 저술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곧 법장의 『義記』는 원효의 『起信論疏』를 비판적으로 취급하여 수용한 데서 가능했다고 吉津宜英은 지적하고 있다.<sup>14)</sup>

이 외에도 법장은 『探玄記』에서 『無量壽經宗要』를 대폭 참조하고 있고, 『五敎章』「斷惑義」에서는 원효의 『二障義』를 참조하고 있는 점, 『五敎章』「三性同異義」에서는 『十門和諍論』을 참고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어 있다. 또 慧沼(650~714)의 『成唯識論了義燈』에서는 원효의 『判比量論』이 인용되어 있다.<sup>15)</sup> 이 외 良賁(717~777)의 『仁王護國般若波羅密多經疏』에는 원효의 『능가경』 관련 저술과 『起信論疏』가 ‘海東解云’이라는 형태로 인용되어 있다.<sup>16)</sup>

이처럼 7~9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의 많은 중국 저술들에서 원효의 저술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의 태도가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 중에서도 원효 저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은 중국 화엄종의 제3조로 일컬어지는 법장이다. 특히 법장은 자신의 화엄 중심 교관을 체계화하는데 있어서 원효 『起信論疏』의 발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sup>17)</sup>

이처럼 원효의 저술들 대부분은 8세기 초반 무렵이면 이미 중국에 전해져서 인용되고 있는

9) 福土慈稔, 『新羅元曉研究』, 大東出版社, 2004, pp.185~230.

10) 『乾道四明圖經』11 碑文, 「延慶寺圓照法師塔銘」; 『宋代麗史資料集錄』, p.434.

11) T.35, p.111a.

12) T.36, p.734c.

13) X(卍續藏)3, p.578b.

14) 吉津宜英, 「法藏의起信論義記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29-1, 1980.

15) T.43, p.731c 및 p.732a.

16) T.33, p.478c, p.479a 등.

17) 이것은 華嚴別敎一乘優越論을 주장하는 법장의 입장을 체계화하는데, 원효의 『기신론소』에 나타난 여래장 해석을 적극 활용했다는 의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吉津宜英의 『華嚴一乘思想の研究』(大東出版社, 1991), pp.316~324 참조. 다만 이것은 『探玄記』와 『起信論義記』를 포함하는 법장의 전반기 교학에 한정되는 것으로, 여래장계 경론을 집중적으로 주석하는 법장의 후반기 교학은 이 입장과 차이가 있다.(줄고, 「법장 교학의 사상적 전개와 원효의 영향」, 『보조사상』24, 2005를 참조)

데, 다만 『金剛三昧經論』의 인용은 10세기에 활약한 延壽(904~975)의 『宗鏡錄』과 『萬善同歸集』에 이르러서이기 때문에 『송고승전』의 기사와는 달리 일찍 전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한다.

또 원효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順景의 저술 역시 중국에 전해졌다는 사실이 『宋高僧傳』에 전한다. 곧 『송고승전』 「唐新羅國順璟傳」에 “璟在本國稍多著述，亦有傳來中原者，其所宗法相大乘了義教也.”<sup>18)</sup>라고 하였다.

太賢은 8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유가종 승려로 50여 종의 저술을 남겼는데, 장안 大薦福寺의 승려 道峰은 『菩薩戒本宗要』에 붙인 「大賢法師義記序」에서 『瑜伽纂要』 3권, 『唯識決擇』 1권, 『菩薩戒本宗要』 1권, 『本母頌』 100행이 후세에 전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sup>19)</sup> 이것은 『三國遺事』 「賢瑜伽海華嚴」조의 “중국의 학자들도 왕왕 이것으로서 眼目을 삼았다”<sup>20)</sup>는 지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태현의 저술들이 중국에서 널리 유통되었음을 의미한다.<sup>21)</sup>

### 3. 8~9세기 唐 내부의 新羅佛教

신라불교는 7세기 중반까지 교학적 토대를 정비하고, 그 뒤인 7세기 중후반부터 8세기 초반에 이르는 동안에 교학이 성숙되어 그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성과들은 단순히 신라불교 내부뿐만 아니라 인접한 唐 불교계와 일본 불교계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이후 8세기 중반부터 9세기 사이에 신라불교는 그 절정을 맞이한다. 이 시기에 중국 내에서 신라불교인들의 활동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의 佛教聖地の 형성에 신라불교가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9세기 초중반 신라불교가 唐 내부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入唐求法巡禮行記』의 기사를 통해서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 1) 중국불교의 聖地形成과 신라불교

중국불교의 4대 성지 가운데 적어도 두 곳, 지장성지와 관음성지의 형성은 신라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지장성지인 구화산 지장도량의 형성과정과 지장신앙의 확산은 金地藏(696~794)의 行化를 계기로 한다. 김진무는 김지장의 생애를 전하는 가장 이른 기록으로 813년에 費冠卿이 지은 「九華山化城寺記」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을 유추하고 있다.

첫째는 김지장이 왕족 출신으로 신라로부터 도래하였으며, 구화산에서 홀로 수행하였는데,

18) T.50, p.728a.

19) T.45, p.915b.

20) T.49, p.1009c.

21) 이상의 순경과 태현에 관한 부분은 김상현의 「7~8세기 해동 구법승들의 중국에서의 활동과 의의」, 『한중불교교류사』(불교시대사, 2010), pp.102~103에도 이미 지적되어 있다.



알려진 이후로는 신라에서도 많은 이들이 바다를 건너와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김지장의 수행을 계기로 구화산 주변에 많은 檀越들이 형성되고 僧徒들이 군집하였으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化城寺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셋째는 김지장이 좌선수행을 중시하고 노동을 했다는 기사로부터, 지장경전과 삼계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그리고 넷째는 김지장의 입적 후 다양한 神異가 나타나면서 聖人の 化身으로 모셔졌으며, 점차 구화산이 지장보살의 성지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sup>22)</sup>

비관경은 「구화산화성사기」의 말미에 “어렸을 때부터 보고들은 것을 삼가 기록한다(幼所聞見, 謹以錄之)”<sup>23)</sup>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元和 癸巳年 곧 元和 8년(813)의 일이다. 그런데 김지장의 입적년이 794년이기 때문에, 김지장의 입적으로부터 불과 18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기록된 것이므로 신뢰할 만한 기록이라 하겠다. 이 기록에 의하면, 756년 무렵부터는 대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진무는 김지장의 좌선수행과 노동을 했다는 기사에서 삼계교의 영향을 추정하지만, 실제 중국에서의 지장신앙의 유포 자체가 삼계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sup>24)</sup> 동시에 김진무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만,<sup>25)</sup> 김지장 당대에는 이미 禪家에서도 禪農一致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김지장의 좌선 실은 두타행과 노동은 삼계교와 선종 양가의 선례를 따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聖地化의 본격적인 계기는 입적 후 모셨던 函을 열어 탐에 모시고자 했을 때, 얼굴이 살아계실 때와 같았고 옮길 때 골절이 움직여 쇠사슬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는 神異가 비관경의 표현처럼 “아래로는 輪王이요 위로는 聖地에 오를” 것으로 여겨지면서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김지장 본인의 교화력도 교화력이지만, 구화산 성지가 처음 형성될 때, 김지장의 본국인 신라에서도 많은 대중들이 바다를 건너와 무리를 이루었다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김지장뿐만 아니라 신라불교인들 역시 지장성지의 형성에 크게 일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구화산지장신앙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중국불교의 4대 명산이 되기까지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조영록에 의하면,<sup>26)</sup> 구화산이 중국불교의 4대 명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明清代에 이르러서이며, 오월 시대에서 북송 초기에 이르는 동안 贊寧이 『宋高僧傳』에 立傳한 것이 구화산 지장신앙의 제1단계 전파라고 볼 수 있다.

보타산 관음성지의 형성 역시 신라와 관련이 있다. 보타산 관음도량의 성립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徐兢이 지은 『高麗圖經』의 「海道」편 「梅岑」조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신라 상인 오대산에 가서 관음상을 조성하여 본국으로 모셔가려고 바다에 나갔으나, 배가 좌초하여 나아

22) 김진무, 「중국 지장신앙의 연원과 김지장」, 『정토학연구』15, 2011, pp.77~103.

23) 費冠卿, 「九華山化城寺記」, 『全唐文』 권694.

24) 홍재성(법공)은 失吹慶輝의 『三階教之研究』(東京: 岩波書店, 1927) pp.638~640을 인용하여 삼계교와 지장신앙을 핵심으로 하는 『지장십륜경』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삼계불법』 4권 중 『십륜경』의 인용수가 120회에 달하는 것, 둘째 삼계교적 중에 특히 『십륜경』으로부터 경증집성(經證集成)이 보이고 있는 것, 셋째 현장의 신역 『십륜경』에 대해서 문하의 신방법사는 삼계교지에 의해 『십륜경』에 序를 붙여서 제삼계불법의 지남으로 삼았던 것, 넷째 정토교로부터 삼계교를 비난한 자은(慈恩)撰, 『西方要決』과 善道道鏡이 共集한 『念佛經』에서 삼계교를 지장교라 불렀던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홍재성, 『삼계교사상사의 연구』, 미간행고.)

25) 김진무, 앞의 논문, p.89.

26) 조영록, 『동아시아 불교교류사 연구』, 동국대출판부, 201, pp.367~385.

가지 못하므로 관음상을 바위위에 내려놓았는데, 上院의 승려 宗岳이 전각 안으로 모셨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해상을 왕래하는 이들의 기도에 감응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후에 오월국의 錢氏가 명주의 개원사로 상을 옮기고, 梅岑에는 다른 관음상을 대치하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내용이다. 不肯去觀音과 관련된 다른 기록은 大中 13년(859)에 일본 승려 惠萼이 오대산의 中臺精舍에서 관음상을 모시고 가려다가 배가 나아가지 않아 梅岑에 모셨다는 기록이다.<sup>27)</sup>

조영록은 불공거관음전이 신라상인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보는 이유로 『고려도경』의 기록이 가장 빠른 것이라는 점, 일본승의 해약 관련 기사에서 관음상을 실은 배가 좌초하는 곳이 新羅礁라는 점, 대중 연간 일본 구법승들의 입당이 주로 신라 상인의 船便과 신라인 통역의 안내에 의해 가능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sup>28)</sup> 이상의 내용에 의하여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중국불교의 성지들이 형성되는 시점에 신라불교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점은 단순히 ‘구법’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보이는 唐 내부에서의 신라불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2)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보이는 신라불교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부터의 연구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唐의 경계 내에서 신라사원과 신라 승려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한다. 그것이 9세기 중반 唐에서의 신라불교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가장 쉽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행기』의 내용 중 셋만 추려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적산원에서 『법화경』 강의를 시작했는데 내년 정월 보름까지가 기한이다. 주위의 여러 곳에서 온 승려들과 인연이 있는 시주들이 와서 참관하는데, 그 중 聖林和尚이 불경을 강의하는 좌주이다. 그 외에 두 사람이 더 강론을 하는데 頓證과 常寂이 그들이다. 남녀와 승려와 속인이 함께 절에 모여,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예불·참회를 하며, 불경과 次第를 들었다. 승려들이 모이는 숫자는 40명이다. 불경의 강의나 예불·참회는 신라의 풍속에 따른다. 다만 황혼과 새벽에 있는 두 차례의 예불·참회는 당나라의 풍속을 따르지만 그 밖의 의식은 신라어로 한다.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승려든 속인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모두가 신라인이며, 다만 승려 3명과 행자 1명 등 우리들만이 일본인이다.<開成 4년(839) 11월 16일>
- (2) 청룡사에는 남인도 삼장인 寶月 등 5명이 있고, 홍선사에는 북인도 삼장인 難陀 1명이 있고, 자은사에는 사자국의 승려 1명이 있고, 자성사에는 일본에서 온 승려 3명이 있고, 여러 절에 신라의 승려들이 있고, 그 밖에 구자국의 승려 등 그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가 없다. 외국인 승려는 모두 21명으로 ...<會昌 3년(843) 정월 28일>
- (3) 우리의 일행 중에는 스무 살 된 승려가 하나 있었다. 그는 장안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들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불문에 들어가 대천복사에서 신

27) 이 기록들은 『寶慶四明志』 「禪院」 鄞縣 開元寺條와 『佛祖統記』 大中 12년조(T.49, p.388b)에 보인다.

28) 조영록, 앞의 책, p.228.

라의 승려를 모시는 상좌승이 되었다. 승려들이 법난을 당하자, 그는 신라의 僧籍에 올라 그 제사야 그 절에 살 수 있었다. 관가에서는 그의 度牒이 신라 승이라는 사실에 따라 그를 신라로 추방하려 했다. 그는 관가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추방을 면할 수 없었다.<會昌 5년(845) 5월 16일>

첫 번째 인용문은 적산원에서의 강경의식에 대한 開成 4년(839) 11월 16일자 일기내용이다. 적산원이라는 좀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당 내에서 신라인들의 독자적인 불교사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승려뿐만 아니라 신도까지도 모두 신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라어로 의식을 진행하는 등의 내용이 보인다.

두 번째 인용문은 회창법난에 즈음하여 장안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승려에 대한 일제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여 명에 이르는 외국 승려 중에 절반이 신라의 승려이며, 엔닌은 신라의 승려들은 여러 절에 머물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여타 외국 승려들의 체류하는 모양새와는 전혀 다른 형태인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인용문은 두 번째의 내용에 대한 일종의 방증일 수 있겠는데, 당나라 출신 승려가 신라 승려를 모심에 따라 그 승적 역시 신라에 속하여서 가족과의 이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에 의하면, 당 조정에서는 신라의 승려들을 별도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별도의 관리를 필요로 했다는 것은 여타의 외국 출신 승려들과는 달리 그만큼 많은 숫자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다는 방증일 것이다.

라이샤위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 시기 在唐 신라인 사회에 대해 별도로 특기하고 있을 정도이지만,<sup>29)</sup> 산둥반도 연안에서 장안에 이르기까지 신라인들의 활동영역을 따라 폭넓게 산재하고 있는 신라불교인들의 존재는 당의 불교 혹은 나아가 중국불교의 전개에 있어서 주요한 동력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4. 10세기 浙東佛教와 高麗佛教

9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해동 출신 불교인들의 중국 내 활동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활동 중심지의 이동이다. 이것은 주로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했다고 보이는데, 한 가지는 중국 불교의 중심 무대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곧 회창법난과 당말의 혼란을 계기로 장안과 낙양 중심의 교학불교가 점차 쇠퇴하고 8세기 말부터 급성장하는 선종이 중국불교를 주도하게 된다. 그런데 이 선종의 중심지가 주로 강남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 내에서 활동하였던 해동 출신 불교인들의 활동 지역 역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실크로드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점차 육로가 쇠퇴하고 해로가 더욱 부각되었다는 측면이다. 이것은 당이 쇠퇴하면서 서역로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여 육로를 통한 교역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29) E.O. Reischauer는 *Ennin's Travels T'ang China*의 전체 9장 중 제8장을 在唐 신라인 사회를 조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조성을 옮김, 『중국 중세사회로의 여행-라이샤위가 풀어쓴 엔닌의 일기』, 한울, 1991)

자연스럽게 해로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중국 동해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불교의 중심이동은 이 같은 배경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해동 불교인들의 활동 지역 역시 9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연안 지역으로 좀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던 것 같다. 본 장에서는 이 같은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고려 초에 있었던 천태 관련 전적의 중국 역수입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몇 가지 사건을 불교문화의 역류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 1) 중국 逸失 불교문헌의 역수출과 중국 천태종의 중흥

『佛祖統記』 「吳越忠懿王錢弘俶」에서 志磐은 오월과 북송 초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천태의 부흥의 경위에 대해 흥미있는 관점의 기사를 서술하고 있다.

사문을 존경하여 天台韶國師와 永明壽禪師를 모두 스승으로서 예우하였다. 또 일찍이 螺溪義寂法師을 초청하였는데, 궁궐에 이르러 강의할 때 智者의 教義를 물었다. 典籍이 온전치 못하였으므로, 개탄하고는 사신으로 하여금 重寶를 갖추어 서신을 보내 고려와 일본에서 구하게 하였다. 이에 一家의 教卷이 다시 나타나 全盛하였다. 螺溪가 얻어서 寶雲에게 전수하고, 寶雲은 四明에게 전하니, 法智(四明)가 드디어 온전히 중흥하였다. 근원을 상고해보면, 거기에는 실로 忠懿王의 護敎의 功이 많았다고 하겠다.<sup>30)</sup>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같은 『불조통기』의 諦觀傳과 義寂傳에도 보이는데, 각기 고려와 일본에 전적을 구하는 사신을 보낸 것으로 되어있다. 아마도 두 군데 모두에서 전적을 구하여 복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 인용문 바로 앞의 諦觀傳에 좀더 상세한 경위가 보인다.

法師 諦觀은 고려국인이다. 처음에 오월왕이 『永嘉集』을 열람하다가 同除四住라는 말을 덕소국사에게 물었다. 덕소국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教義이니, 天台義寂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곧 불러서 그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智者의 妙玄의 位妙 가운데의 문장인데—妙玄은 이미 산실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연유인지 알릴 수 없었다. 분명 의적법사는 일찍이 殘編만 보았을 것이다.— 唐末에 教籍이 해외에 흩어져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오월왕은 사신으로 하여금 서신과 50종의 보배를 갖추어서 고려로 보내어 그것을 구하였다. 그 나라는 諦觀에게 敎乘을 받게 하되 『智論疏』 『仁王疏』 『華嚴骨目』 『五百門』 등은 금하여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제관에게 경계하기를 “중국에서 스승을 구하여 질문을 하되 답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敎文을 빼앗아 돌아오라”고 하였다. 제관법사가 도착하여서 螺溪가 강의를 잘한다는 것을 듣고서 가서 강의를 들었다. 한번 보고 심복하여서는 예로서 스승으로 삼았다. 일찍이 지어놓은 『四敎儀』를 상자에 넣어두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었다. 법사가 螺溪에 머문 지 10년이 되던 어느 날 坐亡 하였다. 後人이 상자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열어보니 이 책만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諸方에 널리 전해졌으니 초학자의 發蒙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sup>31)</sup>

30) 『佛祖統紀』卷10, 「尊事沙門, 若天台韶國師, 永明壽禪師, 皆待以師禮. 又嘗召螺溪寂法師, 至金門建講, 問智者教義. 以典籍不全, 慨然遣使齎重寶, 求遺書於高麗日本. 於是—家敎卷復見全盛. 螺溪得以授之寶雲, 寶雲得以傳之四明, 而法智遂專中興之名. 推原其自實忠懿護敎之功為多也.」(T.49, p.206c.)

31) 『佛祖統紀』卷10 諦觀傳, 「法師諦觀, 高麗國人. 初吳越王因覽永嘉集, 同除四住之語以問韶國師. 韶曰, “此是教義,

두 인용문 모두 오월 시기에서 북송 초기에 이르는 천태종의 중흥이 고려와 일본에서 唐末에 산일된 天台敎籍을 구해 복원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관의 渡來는 천태교학의 복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관이 渡海할 때 고려에서는 『智論疏』 『仁王疏』 『華嚴骨目』 『五百門論』 등은 아예 배제하여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智論疏』는 智者의 저술로 추정되는 것이고, 『仁王疏』는 智者 入滅 후에 저자된 것으로 추정되며, 『華嚴骨目』과 『五百門論』은 담연의 저술로 각각 화엄의 敎觀과 법상종 규기의 『법화현찬』을 비판한 것이다. 이들 논소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고려불교계 내부의 종파간의 異見 문제와 고려의 護敎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2)</sup>

제관이 渡海한 것은 광종 11년(960)으로 오월에는 이듬해에 도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관보다 10여 년을 앞서서 천태덕소 국사의 문하로 투신한 승려가 바로 寶雲義通(927~988)이다. 보운의통은 고려에서 출가한 뒤 947년경에 渡海하여 천태덕소의 문하로 입실하고 있다. 의통이 천태덕소의 문하로 간 것은 덕소와 동문이었던 고려 慧巨國師(899~974)의 인연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sup>33)</sup> 그런데 의통은 제관이 나계 의적의 문하에 투신한 2년 후에 의적의 제자가 된다. 이것은 『佛祖統記』 歷代傳敎表 제9에 “건륭 2년(961), 고려국에서 沙門 諦觀을 보냈는데, 天台論疏를 가지고 螺溪에 이르렀다. 건덕원년(963), 15조 나계 의적법사가 通법사를 위해 지관법문을 설하였다.”<sup>34)</sup>는 기록에서 확인된다. 곧 의통의 의적법사 문하로의 투신은 제관의 渡海 다시 말해 제관이 天台敎籍을 의적법사에게 전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앞서 두 차례의 인용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월에서 북송 초기에 이르는 동안의 천태종의 중흥은 나계 의적-보운의통-사명지례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비롯된다. 결국 북송 초기의 천태종 중흥은 고려 제관에 의한 천태교학의 역수출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제관은 동아시아 불교 諸宗에서 입문교과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天台四敎儀』를 남김으로써 그 중흥의 가속도를 더한 셈이 된다.

## 2) 해동불교문헌 및 승려전기의 전파

10세기 초중반의 불교문화의 역류를 이야기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 중의 하나로, 이 시기에 많은 해동불교전적들이 중국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 대한 재인식과 『송고승전』에 있어서 원효전기의 형성을 중심으로 언급한다.

고려 광종 연간(949~975)을 전후하여 고려 승려들의 집중적으로 渡海하고 있는데, 이미

可問天台義寂.”即召問之，對曰，“此智者妙玄位妙中文(妙玄既散失不存，未審何緣知之，必寂師先曾見殘編耳)，唐末敎籍流散海外，今不復存。”於是，吳越王遣使致書，以五十種寶往高麗求之。其國令諦觀來奉敎乘，而智論疏仁王疏華嚴骨目五百門等，禁不令傳。且戒觀師，“於中國求師問難，若不能答，則奪敎文以回。”觀師既至，聞螺溪善講授即往參謁。一見心服遂禮為師。嘗以所製四敎儀藏於篋，人無知者。師留螺溪十年，一日坐亡。後人見故篋放光，開視之唯此書而已。由是盛傳諸方，大為初學發蒙之助云。(T.49, p.206a.)

32) 이영자, 「天台四敎儀의 成立背景과 그 特徵」, 『불교학보』23, 1986, pp.121~122.

33) 조영록, 「의통보운의 절동 구법과 전교」, 『동아시아불교교류사연구』, 동국대출판부, 2011, pp.170~172.

34) T.49, p.249b.

앞에서 언급한 의통과 제관 외에도 광종이 永明延壽(904~975)의 문하로 智宗(930~1018)과 36명의 승려가 한꺼번에 유학을 간 경우, 혜거의 제자인 英俊이 광종 19년(968)에 영명연수의 문하로 유학 간 경우 등 단순히 합산해도 40에 가까운 숫자가 渡海하고 있다. 이 많은 숫자의 유학생들은 영명연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논자가 주목하는 것은 영명연수의 저술들 『종경록』과 『만선동귀집』에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이 처음으로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논고에서 언급한 바 있다. 연수가 『종경록』에서 『경론』과 결부하여 원효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한 사례는 후쿠시 지닌(福土慈稔)의 연구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후쿠시는 『종경록』과 『만선동귀집』에서 원효와 원효의 저술을 인용하고 있는 사례들<sup>35)</sup>을 검토한 다음, “화엄종 이외의 제사(諸師) 중에서...후세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저술 중에서 원효전을 수록하고, 이름을 명기하여 『금강삼매경론』 및 『기신론소』를 인용하고 있는 연수이다. 즉 원효에 대한 인식이 ‘대오(大悟)한 원효’라는 인식으로 형성되는 것은 『종경록』으로부터인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원효의 저술 가운데 연수 이전까지는 『기신론소』를 중심으로 인용되었지만, 『종경록』에서 처음으로 원효의 이름 및 『금강삼매경론』 서명의 인용이 시작되면서 이후에 다른 저술에 대한 인용이 시작되는 것”<sup>36)</sup>이라고 지적한다. 또 간략하기는 하지만 『종경록』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최고(最古)에 해당하는 원효의 전기가 수록되고 있다<sup>37)</sup>는 점도 지적한다.<sup>38)</sup>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중국 선종사에서 본격적으로 원효를 재인식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의 중요성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오(大悟)한 원효’라고 하는 인식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중국불교인들이 원효를 단순히 교가(敎家)가 아니라 ‘활연대오(豁然大悟)’<sup>39)</sup>한 선가(禪家)의 인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활연대오’라는 어구는 오월 시대 법안종이라는 새로운 선종의 대표자였던 연수가 『종경록』을 찬술한 960년대의 상황이라면 이 용어는 완전히 선적인 입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sup>40)</sup>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식을 영명 연수에게 전하고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재인식하게 한 경로는 어떤 것일까? 아무래도 영명연수가 활동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渡海했던 고려 승려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들에 의해서 활연대오한 인물로서의 원효라는 이미지와 禪典으로서의 『금강삼매경론』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결부되어 영명연수에게 전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바로 직후에 활동하는 贊寧(919~1002)에 이르러 확장 재조합되면서 『宋高僧傳』의 「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sup>41)</sup>이라는 이름 아래 『금강삼매경』의 연기

35) 福土慈稔, 앞의 논문, pp.211~214. 후쿠시는 『종경록』과 『만선동귀집』에서 원효가 인용된 사례로 『경론』 인용 5회, 『기신론소』 인용 1회, 『능가경종요』 인용 1회와 원효전 1회를 지적하고 있다.

36) 福土慈稔, 앞의 논문, pp.220~221.

37) T.48, p.477ab. 여기에는 원효가 의상과 함께 입당유학을 시도하던 중 悟道하였다는 것과 오도의 내용이 간략히 기사화 되어 있다. 이 전기의 내용은 『송고승전』의 「원효전」이 아니라 「의상전」으로 계승되고 있다.

38) 福土慈稔, 같은 논문, p.213.

39) T.48, p.477a.

40) 참고, 「중국선종사에 보이는 원효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한국선학』15, pp.376~377.

설화로서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저술의 전파라는 문제만으로 형성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연수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과 『기신론소』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단순히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고려 승려들에 의해 원효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둘러싼 반복되는 口傳을 전제로 해야만 『송고승전』 원효전과 의상전에 나타나는 ‘원효’를 둘러싼 이미지 그리고 『금강삼매경』의 출현을 둘러싼 연기설화의 형성 문제가 좀더 쉽게 납득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해동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동 불교의 이미지가 유학승들을 통해 중국에 전해지고, 다시 반복 재생산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종의 문화체계가 이식되고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 5. 結論

이상으로 7~10세기 사이의 중국불교 전개과정에서 해동 불교인 나아가 해동의 불교전적은 어떻게 기여하였을까 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실크로드 동단에서 벌어진 불교문화의 역류를 검토해보았다. 사실 이와 같은 검토는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불교의 새로운 중국’이라는 전체태는 애초에 서역천축의 불교인과 중국의 불교인, 해동의 불교인을 구분하여 염두에 둔 채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점 때문에 본고는 ‘불교의 새로운 중국’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국불교의 능동적인 개입이 어떠한 형태로 그 ‘불교중국’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보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7~10세기에 이르는 동안 실크로드 동단에 있어서 불교문화의 교류는 장안-경주를 축으로 하는 선에서 점차 중국 연해지방과 한국을 잇는 축선으로 변화해간다는 점이다. 이것은 唐의 쇠퇴로 인한 육상 실크로드의 약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던 해상실크로드의 강화와 연관이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불교중국의 성장에 대한 능동적 참여자의 위치가 강했던 해동 불교가 후대로 내려갈수록 중국불교와 서로 상호보완의 관계를 형성해간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화의 교류에 있어서 일면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도 이해된다.

셋째, 동일한 한문문화권이라는 측면에서 기인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불교중국’의 전개라는 측면에 있어서 해동 불교인들의 활동은 여타 다른 외국 불교보다 압도적으로 능동적인 참여자였다는 점은 새삼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 The Countercurrent of Buddhist Culture in Eastern Extremity of Silk Road in 7th to 10th Century

Seok, Gil-am | GCBS, Geumgang Univ.

This dissertation covers the problem of 'Shilla Buddhism', or 'Korean Buddhism' as one of many other efficient causes that had formed and developed Chinese Buddhism. In other words, it studies about how Korean buddhism in 7th to 10th century had helped developing Chinese buddhism in the aspect of the activities of Shilla buddhists in China, and the reexport of Haedong(Korean) Buddhism literature and its influence to China.

After the 7th century, Shilla Buddhism had moved away from the perception that they were merely a recipient of Chinese Buddhism. Shilla Buddhism still positively accepted multifaceted outcomes of Chinese Buddhism, but the outcomes from Shilla also started to have effect on Chinese Buddhism after that time. The two major influences are as follows.

First, the outcomes of the idealistic aspect of Shilla Buddhism had effected Chinese Buddhism. The second is that the Shilla buddhists had broadened their boundaries in China from not only 'seeking buddhist dogma(求法)' but also to reformation and teaching. The reexport of early Goryeo Tiantai Buddhism texts and the actions of Jaegwan and Uitung, mentioned at the end of this dissertation, had been a crucial opportunity for Chinese Tiantai scholars, which was declining because of the Hui Chang oppression, to restore and also revive.

The influence of Haedong Buddhism on Chinese Buddhism reached its peak in late 12th century when Uicheon published collections of annotations of buddhist scriptures. However, Haedong Buddhism was already an active participant before then, and was in an reciprocal relation with China in buddhist culture.



## 동아시아 고성(古城)의 형성과 불교전래의 연관성 재고 -실크로드 사막남도와 동아시아의 고성 비교

한 지 연 |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 1. 머리말

불교가 탄생한 인도, 이곳의 문명에 관해 월 듀런트는 인도의 모든 문명을 볼 때 명심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종교는 처음부터 인간의 무지는 영원하고 인간의 힘은 덧없다고 보았으므로 종교를 과학보다 더 심오하게 생각한 ‘중세’사람들이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이는 지극히 인도인들의 종교성에 대해 표현한 것이고 그 종교성이 지금의 인도 문명을 이해하는데 작용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이러한 성향은 사실상 실크로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크로드 상에 위치한 고대 오아시스 국가들의 건국설화에서만 아니라 후대 남겨진 문헌 상에도 역시 인도의 언어와 풍습 등이 고스란히 전해져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도와 실크로드 문화를 비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슬람 문화권으로 재탄생하게 실크로드는 고대 문명의 파괴로 인해 온전한 형태는 기록에서 부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크로드 상의 고대도시, 고성의 흔적 속에서는 반드시 불탑 혹은 사원지가 발견되고 있어 공통점으로서의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고대 국가와 종교 수용 과정에서 수많은 결과물이 산출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교가 국교라는 공통점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당연한 결과물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크로드 상의 이러한 결과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상 아래 산출된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떤 파급력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고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시도를 통해 고대 동아시아 국가에서 외래 종교였던 불교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고성 성립의 모습을 통해 문화교류 성격의 단면을 밝혀보고자 한다.

실크로드 상에 위치한 고대 오아시스 국가의 건국은 수로(水路)의 형성, 교역에서의 중심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교역로가 곧 천산남북로와 사막남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가 흥망에 있어서는 두 번째 조건인 교역의 중심점에 있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즉, 수로를 끼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교역로라 한다면 이 가운데서도 교역의 중심점이 되는 국가의 경우는 주변 강국이나 흉노족을 비롯한 강성한 이민족이 교역의 거점을 차지하고자 하는 야심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천산남로의 구자국이나 고창국, 선선국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다른 오

1) Will Durant, 왕수민·한상석 옮김, 『문명이야기』(서울:민음사, 2011), p.304.

아시스 국가들에 비해 국가 존속기간이 짧고, 존속기간 중에도 주변 강국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침략을 겪는 등 상당한 고초를 겪는 국가들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사막남도에 위치한 우전국(현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 화전시)을 낀 주변 소국들의 경우 교역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위험성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리적 위치상 남북으로 각기 곤륜산맥과 사막을 끼고 있어 주변국이나 이민족의 접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전국이 사막남도 상에서는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소국들을 침략하기보다는 조공을 통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사막남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건립된 국가에는 반드시 王城이 축조되었고, 이들 왕성은 현재도 각각의 유적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고성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몇 가지 발견되고 있는데 불탑지가 존재한다는 점도 한가지로 꼽을 수 있겠다.

동아시아 왕성 축조에 있어 대략 7세기 이후부터는 왕성 내에 불탑, 사원지가 발견되는 예는 거의 없다. 이에 비해 7세기 이전 시기의 중국 왕조 내부에서의 왕성 축조, 고구려 및 신라 왕성의 경우 그 안에 불탑 혹은 사원지가 형성되어 있음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가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불교가 전래된 이후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났다는 정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막남도에 형성되어 있는 고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왕성과의 연관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다만 본격적인 전개에 앞서 미리 밝혀둘 점은 본고에서 거론되는 일부 지역은 사막남도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크로드 전반에 걸쳐 고성 축조의 한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막남도와 더불어 살펴본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 2. 사막남도 상의 현존 고성 구조와 특성

엄격한 의미에서의 사막남도 현존 고성은 미란고성과 니야고성을 들 수 있다. 누란고성의 경우 이들 고성과 근접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으나 실제 사막남도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대 우전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이라는 점을 본다면 이들 3개 고성에는 역사적 연관성이 있으며, 불교라는 매개체를 통한 간접적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 ① 미란고성

미란고성은 전체 면적 12평방킬로미터로 2세기 무렵의 불탑이 현존한다. 또한 토번시기(8세기 중엽)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성터가 현재 발굴 중에 있다. 또한 미란불탑 역시 발굴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기존 지층면에서 약 1.5m 가량 아래부분에 탑의 기단부로 보여지는 부분이 드러나 있다. 발굴·복원 중에 있는 성터의 경우 토번시기에 새롭게 축조된 것인지, 미란

불탑이 형성된 동일시기에 축조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미란 고성의 정확한 좌표점은 위도 39도 13분 38초, 경도 88도 58분 14초에 해당되며 고도는 925m에 위치해 있다. 미란 불탑의 경우는 위도 39도 13분 44초, 경도 88도 57분 6초이며 고도는 922m이다. 현재 토번시기의 고성의 기초가 불탑 조성시기와 동일한 시점이라고 가정한다면 미란 불탑은 고성보다 북서 방향에 위치한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 ② 누란고성

전체 정방형正方形인 누란고성은 현 유적지 내에서는 민가民家로 추정되는 다수의 유지와 관사, 그리고 불탑지, 묘지군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확한 왕궁은 아직 추정되는 바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민가 유지, 서역장사부西域長史府, 불탑에 대한 데이터로 왕성 내에서의 불탑 위치를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불탑지는 위도 40도 30분 59초, 경도 89도 54분 53초, 고도 795m에 위치해 있다.

민가임이 확실시되는 유지 가운데서도 북단에 위치한 것의 경우 위도 40도 30분 34초, 경도 89도 54분 50초, 고도 791m에 해당되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서역장사부의 경우 위도 40도 30분 57초, 경도 89도 55분 7초, 고도 793m에 위치한다. 즉 민가 유지나 서역장사부에 비해 불탑지가 북동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란고성에서의 왕궁지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불탑지의 위치가 고성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비교적 북동쪽에 치우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누란 불탑에서 남남동 방향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상당한 규모의 잘 지어진 건물이 스타인 발굴 당시(1906년)까지 현존해 있었다.<sup>2)</sup> 현재는 스타인의 기록과 같은 대규모 건물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건물 기초의 일부가 남아 있고, 그 주변에서 염주 등이 발견되고 있어 승방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또한 탑의 높이가 10.5m임을 감안해본다면 스타인의 기록처럼 대규모 승방이 주변에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누란국(선선국)에서 불교가 국교화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뿐만 아니라 왕성 규모에 비해 탑과 승방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커 불교의 성행을 짐작해볼 수 있다.

## ③ 니야고성

니야는 『한서』에서 정절국精絶國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지이다. 니야고성은 그 사이트가 상당히 길게 형성되어 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으로 길게 뻗은 니야고성은 주요 건물지가 남쪽에 치우쳐 있다. 고대 니야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나루터 지역<sup>3)</sup>을 비롯해 포도장원<sup>4)</sup>, 일부의 민가<sup>5)</sup>가 남쪽 유지 가운데서도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Aurel Stein은 이들 민가(N.XIII.iii<sup>6)</sup>)에서 도기과편과 집에서 보통 사용되는 용기들을 발견했고, 거실로 보여

2) AStein, *Serindia: Detailed report of Explorations in Central Asia and Westernmost China vol.1*(London:Oxford, 1921), p.371.

3) 북위 37도53분26초, 동경 82도43분20초, 고도 1255m

4) 북위 37도54분29초, 동경 82도43분11초, 고도 1264m

5) 북위 37도54분27초, 동경 82도43분17초, 고도 1265m

지는 넓은 공간에 난로의 흔적도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다.<sup>7)</sup> 그리고 이곳에서 북서방향으로 이동하여 역시 민가로 추정되는 건물지(N.XXVI)에 대해 높은 채광창이 있는 대규모 건물지가 있고 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불탑지가 있다고 묘사하였다. 불탑지는 1901년에 보았던 것보다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람으로 인해 사구砂丘가 형성됨으로써 불탑지의 위치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는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 남긴 사진과 현재의 불탑 모양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지반부분의 변화 외에 불탑 자체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불탑지<sup>8)</sup>는 포도장원 및 민가구역보다 4분 정도 북쪽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는 민가 혹은 관사<sup>9)</sup>로 보여지는 유지가 남아 있다. 관사지에는 현재 남아있는 나무, 유물이 없으나 스타인이 기록하고 있는 건물지(N.XXVI)에 해당되는 위치라 보여진다. 스타인은 이곳에서 높이 1.72m, 직경 0.3m짜리 나무기둥을 발견하였는데, 민가에 쓰여지고 있는 밋밋한 나무기둥과 달리 조각장식이 새겨진 것이었다.<sup>10)</sup> 게다가 대규모의 건물지라 기록하고 있어 일반 민가가 아닌 관사지 혹은 귀족층의 사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불탑과 3m 가량 북쪽에 위치한 가파른 언덕에는 건축물의 골조로 쓰였던 나무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불탑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건물지가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떤 용도의 건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스타인은 당시 언덕 위에 2개의 작은 건물(N.XXVII)이 존재했다고 밝히고 있다. 목재와 석고를 사용해 만들어졌으며 한 벽면이 약 12~15m에 이르는 작은 건물이라 기록하였다. 그러나 가파른 언덕에 세워진 환경으로 모래바람에 심하게 노출되어 침식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에 관해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였다.<sup>11)</sup> 또한 이 곳에서 발견되는 유물이 없기 때문에 불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건물지에 비해 규모가 작은 점과 불탑과 근접한 거리에 있다는 점은 수행처의 공간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탑지보다 북측에 묘지군<sup>12)</sup>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니야고성이 축조될 당시 왕성을 비롯한 일반 건물을 세우고 묘지가 성 내부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뒤에 언급될 교하고성, 고창고성에서도 보이는 것이어서 불교전과 경로와의 연관성이 존재함을 알려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고성들을 고찰한 이후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 ④ 메리카와트

호탄<sup>13)</sup>의 왕경으로 알려져 있는 메리카와트의 경우 역시 니야, 누란, 미란고성과 동일하게

6) 스타인이 그의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적지 표식과 아래 제시된 유적지 표식에는 차이가 있다. 불탑지 주변의 N1, N2, N9는 스타인 책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며, 지도 상의 표식은 최근 중국에서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타인식 번호와는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7) A Stein, 위의 책, pp.216~217.

8) 북위 37도58분34초, 동경 82도43분14초, 고도 1261m

9) 북위 37도57분17초, 동경 82도42분59초, 고도 1254m

10) A.Stein, 위의 책, pp.234~235.

11) A.Stein, 위의 책, p.237.

12) 위 38:01, 경 82:40

불탑의 위치가 왕궁보다 북서에 위치해 있다. 메리카와트의 경우 왕궁터로 추정되는 일부 유지가 현존하여 다른 유적지에 비해 두 건물지의 위치 비교가 좀 더 수월하다. 그러나 메리카와트 역시 건물의 기층부분만 부분적으로 남아있어 규모나 높이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왕궁과 불탑지와의 거리가 정확히 밝혀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sup>14)</sup>의 위치와 불탑<sup>15)</sup> 위치의 대략적인 방향 관계는 북서향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중요 유적지라 할 수 있겠다.

##### ⑤ 교하고성

교하고성은 차사전왕정車師前王庭, 즉 차사전국의 왕성이다.<sup>16)</sup> 훗날 저거沮渠씨에 의해 들어서서 고창국이 건립되기 이전까지 차사전국은 교하고성을 중심으로 투르판 일대를 지배하였다. 현재의 유지는 5세기 중엽 이전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왕성이다. 그리고 이곳 내부에도 역시 불탑 및 사원지가 형성되어 있다. 차사전국에 불교가 들어온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오타니 [大谷] 콜렉션 가운데 <제불요집경諸佛要集經>이 296년에 서사된 예를 들어 이미 3세기 이전에 불교가 전래되었다 보고 있다.<sup>17)</sup>

왕성의 모양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동서로는 300m의 폭을 가진 형태이다 보니 남북으로 중앙 대로가 형성되어 있고 그 좌우로 관청지, 민가, 군사지 등이 주로 지하에 형성되어 있다. 지상에도 건물지가 존재하지만, 지하층도 거주지로 이용할 만큼 지대가 높은 왕성인 셈이다. 그리고 성의 북쪽에는 대형 불교사원이 존재한다. 사원 중심에는 장방형 기단의 불탑이 세워져 있다. 이외의 소형 불탑지가 이곳 사원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데, 이들 사원지군보다 북쪽에는 묘지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현존하는 묘지군은 서쪽 지역의 아기무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북쪽의 묘지군이 유일하다. 아기무덤의 경우는 차사전국이 멸망하기 직전, 왕성 내부에서 급조한 것으로 국가 존속기간에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묘지군은 아닌 셈이다. 따라서 북쪽의 묘지군 만이 정상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차사전국의 왕성 역시 내부에 1개 대형 사원이 존재하였고, 사원 내부에 불탑이 안치되었으며 왕성 전체에서 북측에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탑이 있는 대불사는 왕성 내에서 가장 큰 건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불전, 승방, 정원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거론되었던 미란, 누란, 니야의 왕성 축조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어 불탑 및 사원지에 대한 왕성 내에서의 위치가 동일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 ⑥ 고창고성

고창고성은 진군 연간(440~450) 저거안주沮渠安周가 즉위하면서 국가 형태를 띠게 된 고창국의 왕성이다. 『북사』에서는 한·漢나라 때 이 땅에 고창루高昌壘가 있었고 이것을 국호로

13) 『北史』『西域傳』

14) 북위 36도56분39초, 동경 79도53분53초, 고도 1531m

15) 북위 36도56분42초, 동경 79도53분48초, 고도 1527m

16) 『漢書』『西域傳』

17) 임영애, 『서역불교조각사』(서울:일지사, 1996), pp.238~239.

삼은 것이라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sup>18)</sup> 저거씨를 시작으로 장張, 마馬, 국麴씨에 의해 지배되었고, 마지막 국씨고창은 당나라에 멸망 당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고창고성은 교하고성에 비해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왕성은 내성, 외성, 중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원지는 약 60여 곳이 발견되고 있다. 많은 불교사원지 가운데서도 규모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중성 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원지 가운데 북측 사원지는 15m 높이의 탑이 형성되어 있어 고창국의 중심사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러한 구조가 사막남도 상에 형성된 고성구조와 동일하다는 점 외에도 고창고성에서 출토된 불상의 형식이 호탄, 쿠차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과 양식이 동일하다는 점은<sup>19)</sup> 고창국과 천산남도 및 사막남도와 직접적 교류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고창국이 왕성을 축조할 때 역시 교류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왕성 내에 불교 사원지 및 불탑이 북쪽에 안치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막남도 상에 위치한 각각의 고대 오아시스 국가들은 확일적으로 왕경 내에 왕궁, 관사, 민가와 더불어 북측<sup>20)</sup>에 불탑이 반드시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누란고성과 미란고성의 경우 특히 주변에 건물지가 남아 있는데, 이는 불탑을 중심으로 한 사원지가 형성되었고 왕성 전체 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5세기 이전 실크로드 상의 불교 성행을 짐작케 한다.

방향성에 대한 공통점 이외에 니야고성과 교하고성의 경우 불탑지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왕궁을 비롯한 민가가 형성되어 있고 북쪽에는 묘지가 발견되고 있는 특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당시 실크로드 상에서 생활하던 민족들의 종교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불교에 대한 인식이 사후세계에 대해 추선공양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중국 내에서 석굴을 조성하거나 혹은 불상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죽은 조상의 사후 복을 바라는 발원문이 함께 명기되는 예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사원지를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왕궁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발견되는 중국의 예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원지를 중심으로 남북에 위치한 왕성과 묘지군에 대한 종교적 발원이 이와 같은 왕궁 축조를 이끌어냈다고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 3. 중국 북위시대 왕성의 축조 방식

중국 북위北魏(386~531)는 탁발족이 건립한 이민족 국가이다. 북위가 불교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은 이미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연구성과로 제시되어 있다.<sup>21)</sup> 북위 태

18) 『北史』「西域傳」. “亦云 其地有漢時高昌壘 故以爲國號”

19) 임영애, 위의 책, pp.283~285.

20) 주로 북서방향에 위치하고 있지만 간혹 북동방향의 유지도 발견되고 있다.

21) 塚本善隆, 『支那佛教史研究』(동경:清水弘文堂書房, 소화44년), 謙田茂雄 著, 장휘옥 역, 『中國佛教史』3(서울:장



조는 평성平城을 도읍지로 정하고 중국식 도성을 축조하였다. 도읍지 평성에는 산동 6주 주민들을 이주시켜 채웠는데,<sup>22)</sup> 이에 대해 북위의 호한胡漢정책이라는 견해가 있다.<sup>23)</sup>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과 맞물려 불교를 도입한 흔적이 천흥天興 원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불교를 도입한 것은 곧 불사佛事로 이어져 경성京城 안에 불상을 만들고 절을 지어 믿는 무리들이 머물게 하라고 명하고 동시에 5층탑과 기사굴산耆闍崛山과 수미산전須彌山殿을 짓기 시작했다. 이로 강당, 선당, 사문좌를 갖추도록 하는 칙령을 내렸다.<sup>25)</sup> 이러한 과정 속에 법과法果라는 중심 인물이 존재했고, 산동에서 활동하던 승량의 영향 하에 북위의 불교가 시작되었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탁발족 출신이었던 태조가 불교문화까지 흡수하는 것은 비단 고승들과의 조우만을 이유로 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진다.

최근 학계에서는 불상과 사천지역 연관성을 밝히면서 산동지역까지 불교교세 및 문화가 확장된 이유를 밝히는 논문이 나왔다.<sup>26)</sup> 이에 따르면 호탄 남쪽에 위치해 있는 곤륜산의 서왕모 신앙과 국가권력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웠던 사천 및 산동지역에서의 서왕모 신앙의 연관관계가 확장되어 초기 불교도상 및 불상이 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실크로드 사막남도상의 문화와 산동 및 사천의 문화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 같은 주장이 타당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처럼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는 실크로드의 불교문화가 여러 경로를 통해 북위 왕조에까지 영향력을 미쳐 왕성 내부에 사원 및 불탑이 반드시 건립된다는 점은 교류사적 측면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북위가 낙양으로 천도(太和17; 493년)하기 이전, 왕성 내부에 사원과 불탑이 건립되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낙양 천도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낙양 천도는 철저한 한화정책漢化政策 속에서 이루어졌고<sup>27)</sup> 낙양으로의 천도 이후에는 한족의 전통을 계승하는 왕조로 탈바꿈하였다. 따라서 사원이나 불탑을 짓는 것도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되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방식의 차원에서 변화가 있을 뿐, 북위가 표방하는 종교성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승, 1996), 李英夷, 「北魏의 佛教政策에 관한 研究」(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1994), 문무왕, 「北魏時代 國家권력과 불교와의 관계」(『불교연구』19, 2003, 한국불교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성과를 볼 수 있다.

22) 『魏書』卷2, 「帝紀」第2, 太祖紀 “徙山東六州民吏及徒何, 高麗雜夷三十六萬, 百工技巧十萬余口, 以充京師”

23) 李英夷, 위의 논문.

24) 『魏書』卷114, 志 第20, 「釋老志」 “太祖平中山 經略燕趙 所逕郡國佛寺 見諸沙門道士 皆致精敬 禁軍旅無有所犯 帝好黃老 頗覽佛經 但天下初定 戎車屢動 庶事草創 未建圖宇 招延僧衆也 然時時旁求 先是 有沙門僧朗 與其徒隱于泰山之琨王而谷 帝遣使致書 以繪素施闕銀鉢禮 今猶號曰朗公谷焉”

25) 『魏書』卷114, 志 第20, 「釋老志」 “天興元年 下詔曰 夫佛法之興 其來遠矣 濟益之功 冥及存沒 神蹤遺軌 可依憑 其勅有司 於京城建飾容範 修整宮舍 令信向之徒 有所居止 是歲 始作五級佛圖 耆闍崛山及須彌山殿 加以續飾 別構講堂 禪堂及沙門座 莫不嚴具焉”

26) 임영애, 『교류로 본 한국불교 조각』(서울:학연문화사, 2008).

27) 『魏書』卷19, 「列傳」第7, 任城王雲 “但國家興自北土 徙居平城 雖富有四海 文軌未一 此間用武之地 非可文治 移風易俗 信為甚難 崑函帝宅 河洛王里 因茲大舉 光宅中原 任城意以為何如”, 勞榘지음, 『魏晉南北朝史』, 金榮煥 옮김(서울:예문춘추관, 1995), p.103., 문무왕, 『北魏佛敎와石窟造營 研究』(동국대학교 대학원 불敎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2005), pp.60~65.

낙양 천도 이후 불교문화 형성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었던 왕성 내부에 사원의 존재여부이다. 문헌상 북위시대 사원조성은 성내 1곳, 외성에 비구니사찰 1곳, 나머지는 모두 외성 밖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sup>28)</sup> 현재 북위시대 낙양의 사원건립과 관련된 기록은 양현지의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를 찾아볼 수 있다.

북위 시대 성내 사원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영녕사永寧寺, 건중사建中寺, 장추사長秋寺, 요광사瑤光寺, 경락사景樂寺, 소의니사昭儀尼寺, 호통사胡統寺, 수범사修梵寺, 경림사景林寺로 총 9 군데이다. 이 가운데 조칙 하에 건립된 곳은 영녕사와 요광사이다. 또한 이들 두 개 사원에서는 각기 9층탑과 5층탑이 조성되어 있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두 개 사원지는 모두 북서방향에 위치한 창합문闕闔門 안의 남쪽과 북쪽에 각기 위치해 있으며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존재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영녕사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호통사가, 동쪽에는 경락사가, 서북쪽에 장추사와 건중사가 각각 위치해 있다. 그 외의 소의니사와 수범사는 동남쪽에 위치한 동양문東陽門 안쪽에 있고, 경림사는 남쪽의 개양문開陽門 안쪽에 위치한다. 즉, 북위 시대 중심 사찰과 그 밖의 거의 대다수 사찰이 왕성 내 서북방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sup>29)</sup>

이와 같은 왕성 내 사원건립은 7세기 이후부터는 왕성 밖으로 건립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다. 물론 북위시대 수많은 사원의 난립으로 말미암아 민중의 붕괴 등이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중국 고유사상의 정립도 불교사원이 성외로 밀려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인도 혹은 실크로드 상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시기에는<sup>30)</sup> 왕성 내에 사원이 건립될 때, 그 방향성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졌다고 보여진다.

#### 4. 맺음말

실크로드 사막남도에 위치한 고대 오아시스 국가와 중국 남북조시대, 그리고 한국의 삼국시대는 ‘불교’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불교의 전파 과정에서 불법과 불교문화는 동시에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도 및 서북인도에서의 불교사원은 왕성과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초 8기 탑을 제외한 불탑은 아쇼카왕 때 불교전파라는 목적성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아시아와 같이 왕성 내부와 외부로 구별하여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가 동전東傳하면서 경유하는 실크로드의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왕성의 축

28) 『魏書』卷114, 志 第20, 「釋老志」“故都城制云 城內唯擬一永寧寺地 郭內唯擬尼寺一所 餘悉城郭之外”

29) 이는 평성시대 왕성의 구조와 영녕사의 위치가 명확치 않은 관계로 낙양 천도 이후에 국한되어 있는 것임을 밝혀둔다.

30) 실크로드와 북위와의 직접적 연관성 문제는 宿白 역시 그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平城における國力の集中と<雲岡樣式>の形成と發展」(『雲岡石窟』제1권, 平凡社, 1990), pp.177~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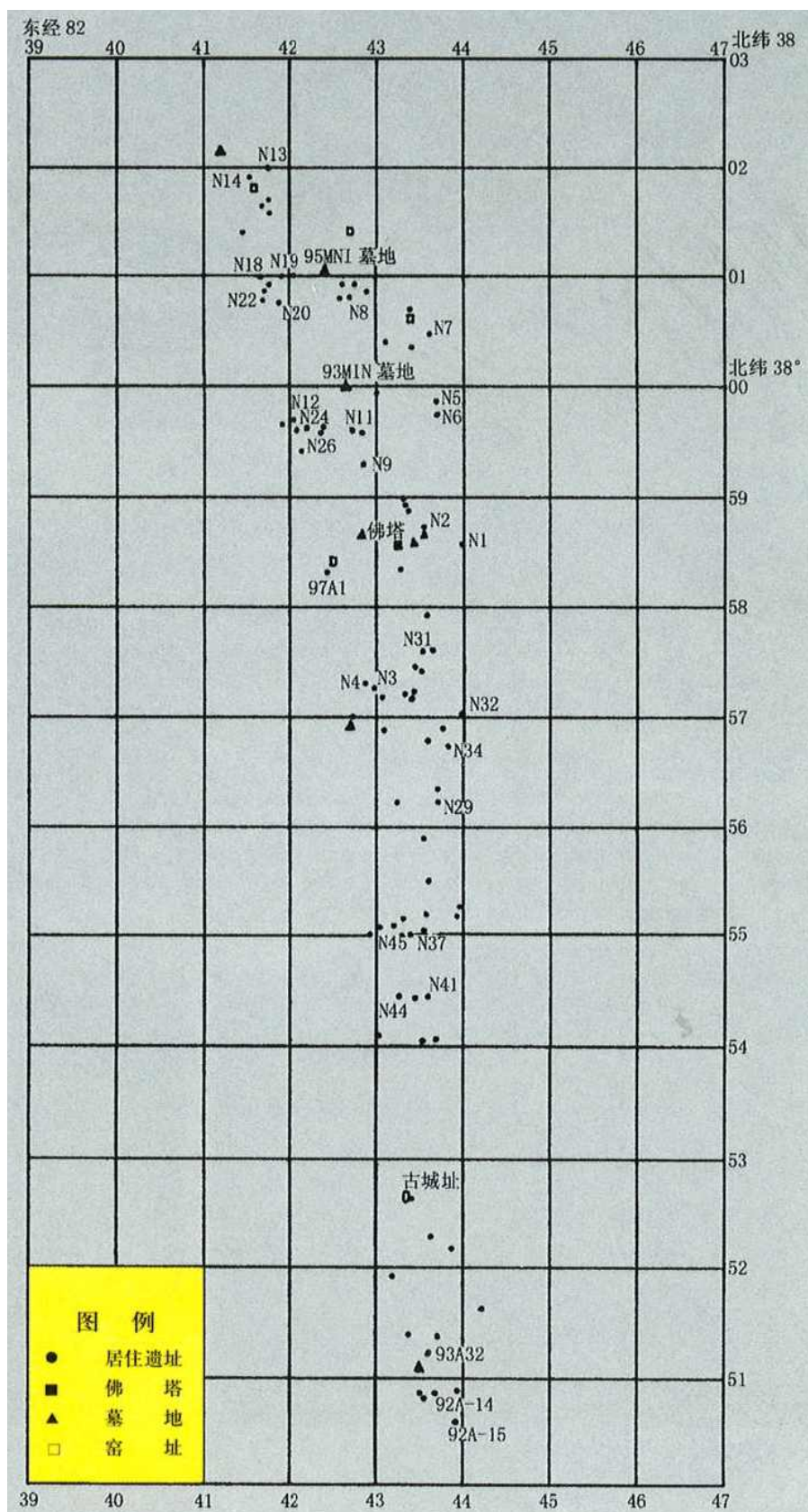
조가 협소한 공간에 이루어지고, 국교國敎로 공인된 불교 사원지는 자연스럽게 왕성 내부에 자리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본문에서 제시된 미란, 누란, 니야, 교하, 고창고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니야, 교하고성의 경우에는 최북단에 묘지군이 남아 있고, 인접한 남쪽에는 불탑 및 사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묘지군과 불탑과의 관계는 두 가지의 예만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고대 왕성을 축조할 때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남아있다 하겠다.

불교사원지의 위치는 묘지와 관계뿐만 아니라 왕궁터로부터 북서방향에 존재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묘지군과 이들의 위치는 북쪽부터 묘지군 - 불탑 혹은 불교사원지 - 왕궁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사후세계와 불교, 그리고 왕실 및 국가 번영과 불교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 종교에 의지하고 영원한 흔적이 곧 왕성 축조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실크로드 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왕성 축조 방식은 중국 남북조시대, 특히 북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낙양 천도 이후 성내 사원지의 위치가 대부분 왕궁의 북서방향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위시대를 거쳐 이후에 축조된 왕성에서 이와 같은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북위시대 불교문화형성이 다른 지역의 것이 이식된 사실 즉, 실크로드와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고대 한국에서도 역시 왕성 내에 사원이 형성되어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sup>31)</sup> 본고에서는 실크로드와 중국 북위시대에 한하여 주로 다루었으나, 지금까지 연구된 고대 한국 왕성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실크로드와의 연관성을 찾는 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며 글을 마친다.

31) 대표적으로 김복순,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체계」(『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제27집, 2006)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신라 왕경 내의 사찰을 총망라하여 정리하면서 7처가람 형식이 가지는 의미, 각각의 사찰에 대한 고찰이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 Rethinking on the Association between Formation of Ancient Cities and Introduction of Buddhism in East Asia

-Comparing the dessert southern route of silk road and the ancient cities of East Asia

Han, Ji-Yeon | Center for Buddhist Studies, Geumgang Univ.

The ancient oasis nations located at the dessert southern route of silk road, the era of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of China and the era of Korean Three Kingdoms had a common denomination that was 'Buddhism'. Also these regions had shown a tendency to simultaneously absorb the Buddhist teachings and the buddhist culture in the transmission course of Buddhism. The relationship of the king's castle with buddhist temples of India and the West Northern India would not be taken into account. The Buddhist Pagodas except the first 8 ones had been established in combination with the finality of transmission of Buddhism during the time of the King Ashoka thereby they were formed with no differentiation between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of the king's castle unlike East Asia

However, in case of the silk road which had been the route along which Buddhism had been spread to the East, the construction of the king's castle was done in a very narrow space due to its ge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t seemed Buddhist temples were placed inside the king's castle naturally as it was recognized as the national religion. This had been identified from the ruins of ancient cities including Miran, Loulan, Niya, Jiaohe and Gaochang as presented in the text. In addition, the remains of ancient tomb land are located at the northernmost site of the ancient cities of Niya and Jiaohe whereas it had been identified that the buddhist pagodas and temples were formed in adjacent southern reg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omb lands and the buddhist pagodas cannot be confirmed by these two cases only. However, it is safe to mention that there is a room to interpret them as the ideas of death and the afterlife were accepted in religious perspectives when constructing the ancient king's castles.

The locations of Buddhist temples also had enabled to identify the actual existence of them toward north west direction from the ruins of the king's castle in addition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tomb lands. The locations of aforementioned tomb lands and the Buddhist temples deemed as constituted in order of the tomb lands – Buddhist pagodas or temples – the king's castle from the north side. This may imply that there had been relationship established between the afterlife and the Buddhism, and the relationship established between the prosperities of royal family as well as the nation and Buddhism.

Therefore, this had been deemed as the marks of depending on and longing for the religion in connection to the present as well as for the future had been reflec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king's castle.

Like th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way to construct the king's castle as revealed along the silk road had direct impact on the era of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of China, in particular, the Northern Wei so that the locations of intra-castle temples after moving the capital to Luo-yang cheng were mostly concentrated to the northwestward direction of palace. The fact that such format had not been found from the king's castle that had been constructed after the era of Northern Wei can be interpreted that the Buddhist culture during the era of Northern Wei had been formed by implantation of other regional cultures, meaning it had direct association with the silk road through ceaseless exchanges.

Also, in the ancient Korea, it was possible to find the cases of temples being formed within the king's castle and the researches on them had been conducted vigorously. Although this paper had dealt limited to the silk road and the era of Northern Wei in China, but made its conclusion leaving the finding of association with the silk roa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ncient Korea's king's castles that had been studied so far as a future task.

## 제3부

발표 10. 『高僧法顯傳』의 刊本에 관하여  
:: 임상희 \_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발표 11. 魏晉南北朝時期的西域佛教  
위진남북조 시기의 서역불교  
:: 王 欣 \_中國 陝西師範大學 西北民族研究中心 教授

발표 12. Taxila-Gateway to Sub-Continent-  
亞大陸으로 가는 관문-탁실라  
:: Abdul Nasir Khan \_Pakistan Taxila Museum curator







## 『高僧法顯傳』의 刊本에 관하여

임 상 희 |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 1. 들어가며

불교가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전해지면서 불교 문헌도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에 渡來僧이었던 安世高, 支婁迦讖, 康僧會 등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불교 문헌의 번역 작업은 점차 조직화되어갔다. 이에 따라 아직 전해지지 않은 새로운 불교 문헌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런 관심은 漢人僧들의 求法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3세기 중엽에 朱士行은 于闐(Khotan)으로 구법행을 떠나서 『放光般若經』의 原本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唐代까지 수많은 승려들에 의해 시도된 求法行은 경전의 漢譯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고, 求法의 최종 목적지도 西域을 넘어 印度로까지 확대된다. 이런 구법행의 부산물 가운데 현존하는 最古의 문헌이 法顯의 『高僧法顯傳』이다.<sup>1)</sup>

당시 중국의 求法僧들은 특정 경전에 대한 보다 좋은 텍스트를 구해서 본국의 불교에 대한 이해와 수행에 기여하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법의 여정 가운데 불교 聖地를 방문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었다.<sup>2)</sup> 법현은 律藏을 구해서 이를 중국에 유통시키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구법행을 떠났으며, 험난한 구법 여정 끝에 소정의 목적을 이룬 후 중국으로 돌아와 경전의 번역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sup>3)</sup> 따라서 『高僧法顯傳』은 ‘求法’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불교 聖地에 대한 ‘巡禮’를 겸한 기록인 ‘求法巡禮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高僧法顯傳』은 5세기경의 서역의 여러 나라와 인도 및 스리랑카에 대한 見聞記라기 보다는 求法巡禮記인 것이다.<sup>4)</sup>

이 『高僧法顯傳』은 宋代에 간행된 大藏經<sup>5)</sup>에 編入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유포되며,

- 1) 3세기부터 11세기말까지 이름이 알려진 구법승은 140여명이다. 이 가운데 구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록을 남긴 이는 5명이다. 法顯 이후 7세기의 기록으로는 玄奘의 『大唐西域記』·『大慈恩寺三藏法師傳』, 義淨의 『南海寄歸內法傳』·『大唐西域求法高僧傳』이 있으며, 8세기의 기록으로는 慧超의 『往五天竺國傳』과 悟空의 『悟空入竺記』가 있다. 이외에 6세기의 기록으로는 使行記의 성격을 띤 『宋雲行紀』가 있다.
- 2) E. Zürcher(2007), *The Buddhist Conquest of China: The Spread and Adaptation of Buddhism in Early Medieval China*, Leiden, pp.61-62 ; 최연식 역(2010), 『불교의 중국정복』, 씨아이알, p.100.
- 3) 법현은 6부 63卷의 경전을 번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大般泥洹經』 6권, 『方等泥洹經』 2권, 『摩訶僧祇律』 40권, 『僧祇比丘戒本』 1권, 『雜阿毘曇心論』 13권, 『雜藏論』 1권이다. 이외에 인도에서 가져온 5부의 경전은 법현이 직접 번역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 의해서 번역되었다.[鎌田茂雄(1996), 『中國佛教史: 南北朝의 佛教(上)』 3(章輝玉 譯, 장승), pp.72-78 참조.]
- 4) 고대 동아시아인들의 국외여행의 양상 및 기록에 대해서는 권덕영(2010)의 「고대 동아시아인들의 國外旅行記 撰述」(『東國史學』 49, 동국사학회)을 참조.
- 5) 大藏經의 사전적인 정의는 ‘經·律·論의 三藏을 중심으로 한 불교 典籍의 總集’이다. 大藏經은 언어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는데, 동아시아권에 유통된 大藏經은 중국에서 번역된 佛典을 지칭하므로 구체적으로는 漢文大藏經이라고

그와 동시에 다양한 刊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지역에 유통된 大藏經은 20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전부 남아있지는 않다. 『高僧法顯傳』은 15종의 대장경에 編入되어 있는데, 다른 중국 찬술 문헌에 비해 수록된 대장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어떤 대장경에 수록된 刊本이 善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찍부터 있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일본의 足立喜六<sup>6)</sup>과 長澤和俊<sup>7)</sup> 중국의 章巽<sup>8)</sup>은 『法顯傳』의 여러 刊本을 검토한 이후에 刊本의 계통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長澤和俊은 高麗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北宋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사람의 검토는 현재까지의 대장경 관련 연구 성과와 연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로 大藏經에 수록된 『高僧法顯傳』 刊本의 종류와 계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高麗本과 다른 刊本에 대한 문헌학적인 검토를 통해 長澤和俊의 평가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2. 『高僧法顯傳』의 명칭과 刊本

『高僧法顯傳』은 다양한 명칭으로 동아시아권에 유통되었는데, 長澤和俊은 14종의 문헌에 나타나는 명칭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sup>9)</sup> 14종의 문헌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불교 문헌은 隋代부터 唐代까지 편찬된 6종류의 경전 목록[經錄]으로, 여기에는 『佛遊天竺記』, 『歷遊天竺記傳』, 『法顯傳』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반 문헌은 北魏 때부터 唐代까지 편찬된 문헌으로, 여기에는 『法顯傳』과 『佛國記』로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불교 문헌에서는 『法顯傳』 또는 『佛(歷)天竺記』로 불려지고, 일반 문헌에서는 주로 地理部로 분류되어 『佛國記』로 수록되어졌다.

한다. 方廣鎬는 漢文大藏經에 대한 정의를 대장경의 3요소인 선택 기준, 구조 체계, 외부 표식을 연결시키고 있다. 즉 漢文大藏經은 기본적으로 歷代 漢譯佛典을 망라하고 이것을 중핵으로 하며, 일정한 구조 기준에 의거하며, 일정한 외부 표식을 갖춘 한문불교전적 및 여기에 관한 문헌의 총서이다.[方廣鎬(2007), 「漢譯大藏經의 定義, 時期區分およびその特徴」, 『中國宗教文獻研究』(京都: 臨川書店), pp.3-7 참조.]

6) 足立喜六은 1936년에 『考證 法顯傳』(東京: 三省堂)을 발간한 이후 1940년에 이 책의 再版増補本인 『法顯傳: 中亞·印度·南海紀行の研究』(東京: 法藏館)을 발간하였다. 이 책의 序說 부분에서 다양한 刊本에 대해서 다루면서 校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7) 長澤和俊은 1970년에 「宮内庁書陵部圖書寮本『法顯傳』校注」(『鹿兒島短期大學研究紀要』 第6號)에서 宮内庁書陵部圖書寮本인 北宋本을 底本으로 南宋本과 高麗本을 對校하고 있다. 이어서 1971년에 北宋本의 번역본인 『法顯傳, 宋雲紀行』(東京: 平凡社)를 발간한 이후 1996년에는 이전 번역본의 내용과 자료를 보완하여 『法顯傳 譯註解説』(東京: 雄山閣出版)을 발간하였다.

8) 章巽은 1985년에 足立喜六과 長澤和俊의 연구 성과에 근거해서 『法顯傳校註』(上海: 上海古籍出版社)를 발간하였다. 이후 吳玉貴는 1996년에 『佛國記』(大樹郷: 佛光山宗務委員會)를 발간하였는데, 이전의 연구 성과를 별다른 검토 없이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9) 僧祐의 『出三藏記集』에는 『佛遊天竺記』 1권으로, 法經의 『衆經目錄』에는 『法顯傳』 1권으로, 費長房의 『開皇三寶錄』과 道宣의 『大唐內典錄』에는 『歷遊天竺記傳』으로, 智昇의 『開元釋教錄』과 圓照의 『貞元新定釋教目錄』에는 『歷遊天竺記傳』 1권, 『法顯傳』 1권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 『水經注』에는 『法顯傳』으로, 『隋書』의 經籍志에는 『法顯傳』 2권, 『法顯行傳』 1권(史部)과 『佛國記』 1권(地理部)으로, 『重校說郛』 66, 『秘冊彙函』, 『津逮秘書』, 『學津討原』에는 『佛國記』 1권으로 기록되어 있다. [長澤和俊(1970), pp.1-2 ; 長澤和俊(1971), pp.207-210 ; 長澤和俊(1996), pp.183-184 참조.]

이러한 경향은 후대에도 이어져서 대장경류에서의 명칭은 『高僧法顯傳』, 『法顯傳』, 『昔道人法顯從長安行西至天竺傳』이지만, 清代의 대표적인 총서류인 四庫全書<sup>10)</sup>에서는 地理書로 분류되어 『佛國記』로 수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高僧法顯傳』은 점차 ‘佛國 및 異國의 地理에 대한 기록’으로 인식되면서 『佛國記』 또는 『三十國記』<sup>11)</sup>로도 지칭되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法顯傳』과 『佛國記』라는 두 가지 명칭으로 유통되었지만, 국내에서는 『高僧法顯傳』이라는 명칭으로만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足立喜六은 일본에서 유통된 『法顯傳』의 刊本을 北宋版(東寺本과 宮內省圖書寮本), 南宋版(増上寺本), 高麗版(舊版과 新版), 寫經(石山寺本과 南禪寺本), 『佛國記』(原刻秘冊彙函과 原刻津逮秘書本)로 분류하고 있다.<sup>12)</sup> 이 가운데 高麗版의 舊版은 1232년에 소실되었으므로 8종의 刊本을 검토한 셈이다. 長澤和俊도 足立喜六의 연구 성과를 이어서 주로 4종의 刊本(北宋本, 南宋本, 高麗大藏經本, 石山寺本)을 검토하고 있다.<sup>13)</sup> 이 가운데 北宋本은 東禪寺本과 開元寺本으로 나뉘는데, 東禪寺本(東寺藏)은 앞부분이 결락되어 있어서 開元寺本인 宮內廳書陵部圖書寮本을 저본으로 南宋本과 高麗大藏經本을 對校하고 있다.<sup>14)</sup>

章巽은 중국과 일본에서 유통된 『法顯傳』의 刊本을 最早 印本 6종과 古鈔本 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最早 印本 6종은 東本, 開本, 圓本, 資本, 磧本, 金本으로, 古鈔本 3종은 石本(石山寺本), 鎌本(鎌倉初期本), 禪本(南禪寺本)으로 약칭하고 있다. 東本은 北宋 때에 福州 東禪寺에서 刊刻된 崇寧萬壽大藏 또는 崇寧藏이다. 開本은 北宋에서 南宋에 걸쳐 福州 開元寺에서 刊刻된 毘盧藏이다. 南宋 때에 刊刻된 思溪藏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湖州 思溪 圓覺禪院에서 刊刻된 것은 圓覺藏이고, 湖州 思溪 法寶資福禪寺에서 刊刻된 것은 資福藏이다. 圓本은 思溪 圓覺藏이고, 資本은 思溪資福藏이다. 磧本은 平江府 磧砂 延聖院에서 刊刻한 磧砂藏이다. 金本은 金代에 刊刻된 趙城藏이며, 최근에 山西 趙城縣 廣勝寺에서 발견되었다.<sup>15)</sup>

足立喜六과 長澤和俊은 주로 초기 刊本大藏經에 해당하는 北宋本, 南宋本, 高麗大藏經本만을 검토했다. 이에 비해 章巽은 磧本과 金本을 추가하여 범위를 넓히기는 했지만 高麗大藏經本을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세 사람들이 선별한 『法顯傳』의 刊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欽定四庫全書』 國立故宮博物院藏本の 影印本인 『(影印)文淵閣 593: 史部(351): 地理類』(臺灣商務印書館, 1983)에 釋法顯 撰의 『佛國記』가 수록되어 있다.

11) 釋法顯 撰, 1985, 『佛國記: 卽三十國記』(北京: 中華書局); 釋法顯 撰, 1967, 『三十國記』(中國: 藝文印書館) 참조.

12) 足立喜六(1940), pp.10-23 참조.

13) 長澤和俊(1996), pp.184-185 참조.

14) 長澤和俊(1970), pp.7-45; 長澤和俊(1996), pp.289-326 참조.

15) 章巽(1985), pp.13-24 참조.

표 1.

足立喜六과 長澤和俊의 분류		章巽의 분류	藏名
北宋本	東禪寺本(東寺本)	東本	崇寧藏
	開元寺本(宮內廳本)	開本	毘盧藏
南宋本	—	圓本	思溪圓覺藏
	思溪藏本(増上寺本)	資本	思溪資福藏
高麗大藏經本	新版(増上寺本)	—	—
—	—	磧本	磧砂藏
—	—	金本	趙城藏

그러나 기존 연구 성과에서 『法顯傳』의 刊本 가운데 高麗大藏經本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長澤和俊은 北宋本の 開元寺本인 宮內廳圖書寮本을 높이 평가하면서 高麗大藏經本은 守其에 의해 자의적으로 교정된 것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章巽 역시 高麗大藏經本은 金本과 유사한 계열의 刊本으로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高麗大藏經本에 대해 이들의 평가가 타당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7종의 刊本과 현존하는 刊本大藏經에 편입된 『法顯傳』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존하는 刊本大藏經 가운데 『高僧法顯傳』은 15종에 편입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7종은 주로 宋代까지의 刊本이며, 근현대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면 8종이 추가된다. 이 15종의 刊本을 대장경의 刊刻 시기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6)

藏名		刊刻 時期	書名
崇寧藏		1080~1103	『法顯傳』
毘盧藏		1103~1172	『法顯傳』
思溪藏	圓覺藏	1126	『法顯傳』
	資福藏	1175	『法顯傳』
趙城藏		1149~1173	『昔道人法顯從長安行西至天竺傳』
高麗藏 再雕本		1236~1251	『高僧法顯傳』
磧砂藏		1216~1322	『法顯傳』
洪武南藏		1372~1401	『法顯傳』
永樂北藏		1421~1440	『法顯傳』
清藏	龍藏	1733~1738	『法顯傳』
	乾隆藏	1733~1738	『法顯傳』
卍正藏		1902~1905	『高僧法顯傳』
頻伽藏		1909~1913	『高僧法顯傳』
大正藏		1912~1925	『高僧法顯傳』
中華藏		1984~1995	『昔道人法顯從長安行西至天竺傳』

15종의 刊本 가운데 11종은 影印된 大藏經에 수록되어 있으며,<sup>17)</sup> 4종의 刊本은 별도로 단행본에 수록되어 있다.<sup>18)</sup> 이 15종의 刊本 가운데 淸藏으로 분류된 龍藏과 乾隆藏은 동일한 刊本이며, 中華藏은 趙城藏을 底本으로 한 刊本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刊本大藏經에 편입된 『高僧法顯傳』의 刊本은 13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시대 순으로 나열하면 北宋版인 崇寧藏本과 毘盧藏本, 南宋版인 思溪圓覺藏本과 思溪資福藏本, 趙城藏本, 高麗藏 再雕本, 宋元版인 磧砂藏本, 明版인 洪武南藏本과 永樂北藏本, 淸版인 龍藏本, 근대의 鉛印本인 頻伽藏本, 현대의 編刊本인 卍正藏本과 大正藏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北宋本이 가장 이른 시기의 刊本이 되며, 高麗藏 再雕本과의 차이도 100여년 이상이 나게 된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1930년대에 발견된 金藏인 趙城藏이 최초의 刊本大藏經인 開寶藏의 復刻藏인 것으로 판명되었다.<sup>19)</sup> 開寶藏은 開寶 4년(971)에 雕造되기 시작하여 太平興國 8년(983)에 완료되었으며, 刻成된 經板은 印經院에 안치되어 인쇄·유통되기 시작하였다.<sup>20)</sup> 현재 開寶藏은 일부만 남아 있어서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復刻藏인 趙城藏의 발견으로 인해 開寶藏의 면모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미 趙城藏本の 유사본으로 분류된 高麗藏 再雕本은 初雕本이 소실된 이후 高宗 23년(1236)부터 38년(1251)까지 대장도감에서 간행된 것이다. 高麗藏 初雕本은 金藏과 마찬가지로 開寶藏의 復刻藏이며, 高麗藏 再雕本은 開寶藏의 修訂復刻本으로 구명되었다. 또한 守其는 高麗藏 再雕本을 교감하여 雕造할 때에 底本과 對校本을 이용하였으며, 宋本을 제1차적인 底本으로 삼은 다음 이 宋本을 國本·丹本과 對校하고 國本·丹本에 의거해서 宋本을 교감하여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sup>21)</sup> 이로써 高麗藏 再雕本 역시 신뢰할 만한 자료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련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趙城藏本과 高麗藏 再雕本은 자료적인 가치가 높은 刊本이 되며, 趙城藏本은 北宋本보다 시기가 앞서게 된다. 따라서 北宋本이最早的 刊本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함께 高麗藏 再雕本이 開寶藏의 修訂復刻本이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다른 刊本大藏經 역시 이전의 대장경을 참조

16) 이 표의 작성에는 유부현(2011)의 『한문대장경의 문자이동 연구』(서울: 한국학술정보)에서 ‘역대 간본대장경 조인상향 일람표’(p.12)가 참조되었으며, 송녕장부터 청정까지의 刊刻 시기는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외에 方廣鎬(1991)의 『佛敎大藏經史(八-十世紀)』(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와 李富華·何梅(2003)의 『漢文佛敎大藏經研究』(北京: 宗教文化出版社)이 참고되었다.

17) 高麗藏 再雕本은 『高麗大藏經』 32(東國大學校, 1975)에, 趙城藏本은 『趙城金藏』 92(北京圖書館出版社, 2008)에, 磧砂藏本은 『宋磧砂大藏經』 30(新文豐出版公司, 1987)에, 洪武南藏本은 『洪武南藏』 167(四川省佛敎協會, 1999)에, 永樂北藏本은 『永樂北藏』 151(線裝書局, 2000)에, 龍藏本은 『龍藏』 82(華藏淨宗學會, 2005)에, 乾隆藏은 『乾隆大藏經』 111(傳正有限公司, 1997)에, 卍正藏本은 『卍正藏經』 57(新文豐出版公司, 1980)에, 頻伽藏本은 『頻伽大藏經』 87(九洲圖書出版社, 1998)에, 大正藏本은 『大正新修大藏經』 51(大正一切經刊行會, 1928)에, 中華藏本은 『中華大藏經』 61(中華書局, 1993)에 수록되어 있다.

18) 崇寧藏本, 毘盧藏本, 思溪資福藏本은 長澤和俊(1996)의 『法顯傳 譯註解說』(東京: 雄山閣出版)에 수록되어 있다. 思溪圓覺藏本은 1955년에 중국의 文學古籍刊行社에서 발간한 『法顯傳』으로, 중간 부분(pp.52-59)은 필사되어 있다.

19) 李富華·何梅(2003), pp.91-118 참조.

20) 開寶藏은 『蜀版大藏經』 혹은 『北宋勅版大藏經』으로도 불리며, 당시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에도 하사되었기 때문에 대장경 간행의 선구가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유부현(2003)의 「開寶勅版大藏經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5(서지학회), pp.105-128을 참조.

21)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의 성격에 대해서는 유부현(2001)의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3(한국도서관·정보학회), pp.117-147 참조.

하여 校訂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런 추정 하에 『高僧法顯傳』의 高麗藏 再雕本을 底本으로 해서 14개의 刊本을 對校해 보았다. 교감의 결과에 따르면 趙城藏本<sup>22)</sup>과 北宋版인 崇寧藏本과 毘盧藏本是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닌 刊本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趙城藏本은 行字數가 일정하지 않았는데, 특히 夾註의 형태로 글자가 증가된 곳이 무려 36곳이나 된다.<sup>23)</sup> 다음으로 北宋版인 崇寧藏本과 毘盧藏本에는 다른 刊本에는 다 수록되어 있는 ‘放弓仗 설화’가 빠져 있다. 따라서 초기의 刊本大藏經은 처음부터 완결된 형태로 刊刻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장경 자체가 조금씩 완비된 형태로 변화해나가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추정은 대장경이 寫本에서 刻本으로 발전해나간 것으로 파악하는 方廣鎬와 유부현에 의해 뒷받침된다.

方廣鎬는 중국 서적의 변화과정에 근거해서 한문대장경의 역사를 4시기로 구분한다. 즉 寫本 시대, 刻本 시대, 근현대인쇄본 시대, 디지털화 시대이다. 寫本 시대는 다시 준비 단계, 형성 단계, 구조체계화 단계, 전국통일화 단계, 刻本과 병존 단계, 純功德 단계의 6단계로 나뉜다. 寫本 시대에는 寫經의 기본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行款·界欄 및 전체적인 風格의 차이, 문자의 차이, 經文의 차이, 分卷의 차이, 내용과 구조의 차이가 드러난다.<sup>24)</sup> 유부현은 역시 대장경의 발전 과정을 寫本 시대와 刊本 시대로 나누고 있다. 寫本 시대는 다시 준비 단계, 형성 단계, 체계화 단계, 통일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sup>25)</sup> 이는 方廣鎬가 제시한 6단계 가운데 앞의 4단계와 유사하다.

方廣鎬의 구분에 의한다면 『高僧法顯傳』의 趙城藏本·崇寧藏本·毘盧藏本은 寫本 시대 가운데 刻本과 병존하는 단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寫經의 특징인 行款·界欄 및 전체적인 風格의 차이 및 문자의 차이가 刻本에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3종의 刊本은 寫本이 刻本으로 바뀌는 과도기의 刊本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刻本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점차 行字數가 일정해지고 문자의 차이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 시대에 해당되는 『高僧法顯傳』의 刊本은 思溪圓覺藏本, 思溪資福藏本, 高麗藏 再雕本, 磧砂藏本, 洪武南藏本, 永樂北藏本, 龍藏本の 7종이다. 思溪圓覺藏本과 思溪資福藏本에는 간혹 글자가 1자씩 늘어난 곳이 있지만, 高麗藏 再雕本 이후에는 行字數가 일정해지고 있다. 근현대 인쇄본 시대에는 刻本을 저본으로 삼거나 對校本을 定本으로 삼으면서 異體字가 正字로 바뀌게 된다. 이 시대에 해당되는 刊本은 頻伽藏本, 卍正藏本, 大正藏本の 3종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대장경의 역사에 따라 『高僧法顯傳』의 刊本을 세 시기로 구분하면

22) 『趙城金藏』과 이를 저본으로 한 『中華大藏經』은 동일한 金藏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글자의 차이는 없지만 行字數가 다르다. 『趙城金藏』은 12行 14字이며, 『中華大藏經』은 23行 14字이다.

23) 『趙城金藏』 92, p.111, p.113, p.115, p.117(2곳), p.118(4곳), p.119, p.121, p.123(2곳), p.124(2곳), p.126, p.128, p.132(4곳), p.133(2곳), p.134, p.135(3곳), p.140, p.141(2곳), p.142, p.143(2곳), p.144, p.146(2곳). ; 『中華大藏經』 61, p.170(2곳), p.171, p.172(7곳), p.173, p.174(4곳), p.175, p.176, p.177(7곳), p.178(3곳), p.179, p.180(4곳), p.181(3곳), p.182.

24) 寫本 시대의 6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준비 단계는 불교가 처음 전래된 이후부터 釋道安의 시대까지이고, ②형성 단계는 釋道安부터 南北朝의 晚期까지이고, ③구조체계화 단계는 隋代부터 會昌廢佛까지이고, ④전국통일화 단계는 會昌廢佛부터 北宋의 開寶藏 刊刻까지이고, ⑤刻本 병존 단계는 開寶藏의 刊刻부터 北宋 말기까지이고, ⑥순교덕화 단계는 南宋 이후 明清까지이다.[方廣鎬(2007), pp.7-11 참조.]

25) 유부현(2011), pp.28-31 참조.

寫本 시대에는 3종, 刻本 시대에는 7종, 근현대 인쇄본 시대에는 3종이 배대된다. 이를 통해 『高僧法顯傳』의 刊本은 각 시기의 刊本大藏經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高僧法顯傳』 刊本の 계열

足立喜六은 『法顯傳』의 刊本을 (A)北宋本の 東禪寺本 또는 開元寺本系, (B)南宋本の 思溪藏本系, (C)高麗新版大藏經本系로 나누고 있다. 이들 세 계열의 관계에 대해서는 A계열은 東禪寺本(1104) → 開元寺本(1148) → 石山寺本(?)으로, B계열은 思溪藏本(1239) → 元藏本(1290) → 南禪寺本(1400) → 明藏本(1600)으로, C계열은 高麗本(1246)으로 파악하고 있다.<sup>26)</sup>

長澤和俊은 足立喜六의 견해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刊本の 계열을 크게 (A)東禪寺本과 (B)高麗大藏經本로 나누고 있으며, (A')思溪藏本系를 A계열의 異本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시 말해 A계열은 東禪寺本에서 開元寺本으로, 開元寺本에서 A'계열(思溪藏本 → 元藏本)로 분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27)</sup>

章巽은 長澤和俊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法顯傳』 刊本の 계열을 크게 南統과 北統으로 나누고 있다. 南統은 東本(=開本)에서 圓本(=資本)으로 파악하면서 이후 磧本은 元·明의 諸本으로 분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北統은 金本은 麗本の 祖本으로 파악하고 있다.<sup>28)</sup>

長澤和俊과 章巽은 대체로 『法顯傳』 刊本을 두 계열로 나누고 있다. 이를 참조하면서 竺沙雅章의 대장경의 분류에 따라 13종의 刊本을 나눠 보려고 한다. 竺沙雅章은 宋元版大藏經을 版式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第1類藏經은 開寶藏系이며, 第2類藏經은 契丹藏이며, 第3類藏經은 江南諸藏이다.<sup>29)</sup> 이를 13종의 『高僧法顯傳』 刊本에 적용시키면 第1類藏經에 5종(趙城藏本, 高麗藏 再雕本, 頻伽藏本, 卍正藏本, 大正藏本)이, 第3類藏經에 8종(崇寧藏本, 毘盧藏本, 思溪圓覺藏本, 思溪資福藏本, 磧砂藏本, 洪武南藏本, 永樂北藏本, 龍藏本)이 배대된다. 다시 말해 13종의 刊本은 크게 趙城藏本 계열과 崇寧藏本 계열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계열 안에서도 刊本 간의 차이는 있다.

趙城藏本 계열은 開寶藏의 영향을 받은 刊本으로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A)趙城藏本, (B)高麗藏 再雕本, (C)頻伽藏本·卍正藏本·大正藏本이다. (A)와 (B)는 유사하지만, (B)는 (A)에 비해 23행 14자로 안정되어 있고 도중에 글자가 늘어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비슷한 계열이지만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C)는 모두 근현대의 인쇄본이라서 같은 그룹으로 묶었지만 조금씩 그 성격이 다르다. 頻伽藏은 일본의 縮刷藏 가운데 일본 찬술문헌을 제외한 40帙이 중국 상해에서 간행된 것이다.<sup>30)</sup> 縮刷藏은 増上寺에

26) 足立喜六(1940), pp.27-29 참조.

27) 長澤和俊(1970), pp.3-4 ; 長澤和俊(1971), pp.212-213 ; 長澤和俊(1996), p.185 참조.

28) 章巽(1985), p.22.

29) 竺沙雅章(2000)의 『宋元佛教文化史研究』(東京: 汲古書院), pp.271-291 참조.

소장된 高麗藏을 定本으로 삼았으므로, 頻伽藏本도 (B)와 관련이 있지만 글자의 차이가 있다. 卍正藏本은 일본의 麗明對校本을 正本으로 간행된 것이지만 校訂된 本이므로 (B)와 약간씩 글자의 차이가 있다.<sup>31)</sup> 大正藏本은 (B)을 底本으로 하면서 異體字를 正字로 바뀌었지만, 11 곳에 저본과 다른 글자가 들어가 있다.<sup>32)</sup> 따라서 (C)는 (B)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崇寧藏本 계열은 주로 江南諸藏 지역의 刊本으로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A)崇寧藏本·毘盧藏本, (B)思溪圓覺藏本·思溪資福藏本, (C)磧砂藏本·洪武南藏本·永樂北藏本·龍藏本으로 구분할 수 있다. (A)는 北宋版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放弓仗 설화’가 빠져 있고 두 刊本은 병존한 것으로 보인다. (B)는 南宋版으로 교감한 결과에 따르면 圓覺藏本과 資福藏本은 단 3곳에서만 글자가 다르다. (C)의 4종은 글자 차이가 약간씩 있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高僧法顯傳』 刊本の 계열을 趙城藏本 계열과 崇寧藏本 계열로 구분하고, 각 계열 안에서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점은 『高僧法顯傳』 刊本이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해나갔다는 것이다. 따라서 崇寧藏本 계열인 北宋本과 南宋本은 유사하지만 趙城藏本 계열인 高麗藏 再雕本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守其는 당시의 여러 刊本을 對校해서 보다 유려하게 校訂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高麗藏 再雕本과 守其의 교정에 대한 長澤和俊의 언급은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우선 “高麗藏 再雕本을 교감의 저본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오히려 서로 다른 계열의 刊本을 對校해서 정확한 校訂本을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守其가 자주자주 경문을 隨意로 改竄하고 읽기 쉽게 피해가고, 거듭 나오는 표현을 고친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sup>33)</sup> 여러 刊本과의 對校를 통해 守其가 교정한 부분을 찾아서 문맥에 부합하는 교정인지를 판별해야 할 것이다.

#### 4. 나가며

『高僧法顯傳』은 법현의 구법 여정을 담은 문헌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동아시아권에서 유포되었다. 문헌 역시 화석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변화를 거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른 문헌의 변화 과정을 추적해야만 그 문헌의 본래 모습에 다다를 수 있을

30) 縮刷藏은 大日本校訂縮刷大藏經의 약칭이며, 일본 최초의 금속활자본 대장경으로 明治 13년(1880)부터 18년(1885)까지 東京에 있는 弘教書院에서 간행된 대장경이다. 頻伽藏에 대해서는 李富華何梅(2003), pp.536-549 참조.

31) 李富華何梅(2003), pp.606-612 참조.

32) 『大正藏』 51, p.858, p.859(2곳), p.860, p.862, p.863, p.865(4곳), p.866.

33) 長澤和俊이 北宋本과 高麗本을 비교하면서 제시한 예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異體字, ②字句의 증감, ③張掖王愍愍의 번역, ④國主安頓 供給法顯等於僧伽藍의 번역, ⑤祇洹精舍大院各有二門의 번역, ⑥고유명사의 變改(施遮摩那, 羅汰私迷)이다.[長澤和俊(1970), pp.4-6 ; 長澤和俊(1971), pp.213-216 ; 長澤和俊(1996), pp.186-187 참조.] 이 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검토해보려고 한다.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高僧法顯傳』의 刊本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高僧法顯傳』의 刊本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분석해서 정리한 다음에, 각 시기의 大藏經과 『高僧法顯傳』의 刊本을 연계시켜서 검토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高僧法顯傳』의 명칭, 『高僧法顯傳』 刊本の 종류, 『高僧法顯傳』 刊本の 계열이다.

먼저 『高僧法顯傳』의 명칭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보완하는 선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권에서 『(高僧)法顯傳』과 『佛國記』으로 유통되었는데, 후대로 갈수록 『佛國記』, 『三十國記』 등이 많이 쓰인다. 이런 명칭의 변화는 문헌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이는 이 문헌이 점차 地理書로 인식되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高僧法顯傳』 刊本の 종류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종래에는 北宋本の 開元寺本인 宮內廳圖書寮本을 가장 이른 시기의 刊本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발견된 趙城藏이 최초의 刊本大藏經인 開寶藏의 復刻本인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이런 입장은 재고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장경의 역사에 따라 『高僧法顯傳』의 刊本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高僧法顯傳』의 刊本은 각 시기의 刊本大藏經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高僧法顯傳』 刊本の 계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와 새로운 연구 성과를 결합시켰다. 大藏經을 版式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에 의해 13종의 刊本을 趙城藏本 계열과 崇寧藏本 계열로 나누었다. 趙城藏本 계열은 開寶藏의 영향을 받은 刊本으로, (A)趙城藏本, (B)高麗藏 再雕本, (C)頻伽藏本·卍正藏本·大正藏本으로 나누었다. 崇寧藏本 계열은 주로 江南諸藏 지역의 刊本으로, (A)崇寧藏本·毘盧藏本, (B)思溪圓覺藏本·思溪資福藏本, (C)磧砂藏本·洪武南藏本·永樂北藏本·龍藏本으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두 계열 간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각 刊本 간의 미세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高僧法顯傳』의 刊本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서로 다른 계열의 刊本을 對校해서 정확한 校訂本을 작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후의 과제로 守其의 교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남겨두었다.

## [참고문헌]

### \_단행본

- 유부현, 2011, 『한문대장경의 문자이동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 E. Zürcher, 2007, *The Buddhist Conquest of China: The Spread and Adaptation of Buddhism in Early Medieval China*, Leiden ; 최연식 역(2010), 『불교의 중국정복』, 씨아이알.
- 鎌田茂雄, 1996, 『중국불교사』 3, 장휘옥 역, 장승.
- 足立喜六, 1936, 『考證 法顯傳』, 東京: 三省堂.
- , 1940, 『法顯傳: 中亞·印度·南海紀行の研究』 再版増補本, 東京: 法藏館.
- 長澤和俊, 1971, 『法顯傳, 宋雲紀行』, 東京: 平凡社.
- , 1996, 『法顯傳 譯註解説』, 東京: 雄山閣出版.
- 竺沙雅章, 2000, 『宋元佛教文化史研究』, 東京: 汲古書院.
- 沖本克己·菅野博史 編, 2010, 『佛教の東伝と受容』, 東京: 佼成出版社.
- 方廣錫, 1991, 『佛教大藏經史(八—十世紀)』,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富華·何梅, 2003, 『漢文佛教大藏經研究』,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 吳玉貴, 1996, 『佛國記』, 大樹鄉: 佛光山宗務委員會.
- 梁啓超, 1988, 『中國佛教研究史』, 上海: 上海三聯書店.
- 章巽, 1985, 『法顯傳校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湯用彤, 1955, 『兩漢魏晉南北朝佛教史』 上·下, 北京: 中華書局.

### \_연구논문

- 권덕영, 2010, 「고대 동아시아인들의 國外旅行記 撰述」, 『東國史學』 49, 동국사학회.
- 유부현, 2001,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 2003, 「開寶勅版大藏經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5, 서지학회.
- 梶浦晉, 1992, 「近代の漢譯大藏經編纂と大藏經研究」, 『大谷學報』 Vol.71 No.2, 大谷大學 大谷學會.
- 方廣錫, 2007, 「漢譯大藏經の定義, 時期區分およびその特徴」, 『中國宗教文獻研究』, 京都: 臨川書店.
- 長澤和俊, 1970, 「宮内庁書陵部圖書寮本「法顯傳」校注」, 『鹿兒島短期大學研究紀要』 第6號.

## About Printings of A 『*Record of Buddhistic Kingdoms*』

Lim, Sang-Hee | Center for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rintings of a Record of Buddhistic Kingdoms(高僧法顯傳), which had been circulated in East Asia with various forms.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studies by other researchers, and then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the printings and a Tripitaka(大藏經) in each period. The conclusion could be summarized in three as follows.

First, the study regretfully reconfirmed previous arguments about the origin of the title of a Record of Buddhistic Kingdoms. While the book was being circulated as Bubhyunjun(法顯傳) or a Record of Buddhist Country(佛國記) in East Asia, it used titles such as a Record of Thirteen Countries(三十國記) as the generation went by. This chang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book, a phenomenon which reflects people's recognition of the book as a geographic journal.

Secondly, the paper criticized for the previous researches about the types of its printing. Generally Northern Song's Kaiyuansi version(開元寺本) was considered to be the earliest printing. Yet the study suggested a reconsideration on this common belief since recently discovered Zhaocheng Tripitaka(趙城藏) was proved to be the reprinted version of Kaibao Tripitaka(開寶藏), the first printed Tripitaka. Additionally, it showed a Record of Buddhistic Kingdoms possessed an organic relation with printed Tripitaka through analysis of printings of the book within the history of Tripitaka.

Lastly, the paper attempted to combine its argument with the previous researches. It examined 13 different editions of Tripitaka by dividing into two categories, a Zhaocheng Tripitaka and Chongning Tripitaka(崇寧藏本) style. This method illustrated the difference between two styles, including minute difference between those 13 printings of the books.



## 魏晋南北朝时期的西域佛教

王 欣 | 中国 陕西师范大学 西北民族研究中心 教授

佛教自公元前1世纪前后传入西域以后，在魏晋南北朝时期得到了广泛地传播与发展，并对西域各国产生了重大的影响。于阗、疏勒、龟兹和高昌等地当时都是佛教中心。据研究，早期传入西域的佛教以小乘为主，而到魏晋时期则大小乘并存。鄯善、焉耆皆习小乘，而于阗则多习大乘。<sup>1)</sup>到了南北朝时期，大乘佛教逐渐占了优势，但小乘在各地仍然存在。佛教在西域的进一步传播，对这一时期西域各国的文化思想产生了极为深远的影响。众多高僧在西域各国出现，广弘佛法，有的还自创教义，所以西域的佛教已与印度的有所区别。<sup>2)</sup>他们或西去求法，或东行布道，传译经典，不仅促进了当地佛教的发展，而且还对中原佛教的兴盛起到了推波助澜的作用。

### 一、鄯善之佛教

魏晋时期，鄯善国从国王到平民都信奉小乘佛教，国内僧侣达4千多人，<sup>3)</sup>如果以西汉时该国的总人口1.41万计(《汉书·西域传》鄯善条)，僧人就占1/4强，可见当时鄯善佛教之繁盛。小乘佛教在鄯善的流行，恐与这里的居民原从印度西北的早期小乘佛教中心—犍陀罗地区迁入有关。不仅如此，这里的佛教艺术也深深地打上了犍陀罗早期文化影响的烙印。如斯坦因在米兰废墟中就曾发现有这一时期的多座佛寺、佛塔遗址，遗址中有许多壁画保存下来，其内容多属佛传故事。其中有一幅木板水彩画，所描绘的是一个带翼天使的形象，其风格完全是罗马式的。壁画中所绘善牙太子和王妃所驾马车也是罗马式的驷马车，而壁画在技法上和埃及法雍的罗马绘画同属一个体系，采用的均是透视学上的渲染法，故米兰壁画受早期犍陀罗艺术影响很大，所以具有浓厚的罗马风格。<sup>4)</sup>近年来，新疆考古工作者在米兰西寺地下残存壁画中也发现了带翼天使的形象。

鄯善国内佛教流行的情况在佉卢文书中也有反映。当时鄯善僧界制定有自己的一套规章，并指派专人管理僧界之一切活动。任何僧人需在规章所允许的范围内活动，如有违犯，将视其情节轻重，给予不同程度的处罚。在一篇赞美浴佛的长篇佉卢文书中写道：“愿世间时刻祈祷丰食衣足；愿奉

1) 《法显传校注》，章巽校注，上海古籍出版社，1985年，7、8、13页。

2) 吕澂：《中国佛学源流略讲》，中华书局，1979年，40页。

3) 《法显传校注》，上海古籍出版社，1985年，8页。

4) 参见沈福伟：《中西文化交流史》，上海人民出版社，1985年，102页。沈先生认为米兰壁画属早期犍陀罗艺术，所言甚是。但同书认为壁画可能早到2世纪，似有不妥。鄯善国入早在公元前2、3世纪迁入这里，故深受早期犍陀罗艺术的影响，此后犍陀罗艺术在印度西北部虽有发展，但对鄯善影响不大。所以这一地区在魏晋时期仍保持着早期犍陀罗艺术的风格。从佉卢文书的时代看，这些佛寺属魏晋时期，故其壁画亦当为这一时期，只不过在风格上仍保持着早期犍陀罗艺术的特征而已。

献之主释天增多雨水；愿五谷丰登，王道昌盛；愿彼在诸神之佛法下永生。”表达了古代信奉佛教的鄯善人民的美好愿望。<sup>5)</sup> 佉卢文书中还有一些对佛供奉和祭祀的记载。在楼兰遗址中还发现有一些婆罗迷文的文书，这显然是印度佛教文化影响的结果。此外，佉卢文书中还暗示鄯善国民间存在对“巫”的原始信仰，文书中多处有杀死女巫和对女巫进行惩罚、禁止其活动的诏令，这恐怕是佛教排斥和打击的缘故。

## 二、高昌之佛教

佛教传入吐鲁番地区的确切时间，我们无法得知。日本大谷探险队在吐峪沟所获汉文《诸佛要集经》是月支高僧法护于西晋元康二年(292年)在洛阳译出的，这部佛典是元康六年(296年)写本，此后不久由内地传入高昌，是我们目前所知出土佛典中时间最早的。联系到上文所述前秦建元十八年(382年)车师前部王国师献胡本《大品般若经》的史实，我们认为佛教至少在公元3世纪末4世纪初就已传入了吐鲁番地区。阿斯塔那13号墓中出土有《佛说七女经》写本，属十六国时期，也说明了这一点。<sup>6)</sup>

魏晋南北朝时期的高昌佛教，一方面受到印度、龟兹等地的影响，另一方面内地汉化佛教的西传也是一个重要因素；同时，当地所固有的汉魏时期中原文化的传统，也对高昌佛教的形成和发展起到了不可忽视的作用。

高昌僧侣多有西行印度、龟兹等地求法者。北凉时有一僧人智猛尝赴印度求法，得胡本《大涅槃经》十卷五品，回国途中曾留住高昌一段时间。当时年仅19岁的高昌僧人法盛受其影响，与同门29人共赴印度，在北凉作《菩萨投身饿虎起塔因缘经》一卷。(《名僧传钞》、《开元释教录》卷四)高昌僧人法郎在北魏武帝灭佛以后，亦曾赴佛国龟兹，并受其国王礼遇，最后圆寂于此。(《梁高僧传》卷十五)又有高昌高僧道普尝游历西域诸国，巡拜佛教圣迹。据云他本人不仅通梵书，还知晓六国语言。(《梁高僧传》卷二)北齐时高昌高僧法惠曾两次赴龟兹修学禅律，并拜龟兹高僧直月为师悟道，回国后广弘禅法，僧俗咸归之，(《名僧传》)对大乘佛教在高昌的流布做出了很大的贡献。此外还有印度僧人东来高昌者。如589年南印度沙门达摩笈多曾经北道诸国到高昌，留住达二年之久。尽管“未尝有宣述”，但他的到来，无疑对当时高昌佛教产生一定的影响。高昌僧人的西行求法及印度沙门的东来，一方面把许多佛教典籍的原本引入高昌，如本世纪末德国探险队在交河故城、胜金口等地曾发现大批梵文佛经写本，如《杂阿含经》、《法集颂》、《俱舍论本颂》、《妙法莲华经》、《相应阿含》、《比丘尼戒本》、《大般涅槃经》等；另一方面也将求法所获教义在高昌弘扬，使印度、龟兹佛教在高昌的影响逐渐扩大。

佛教在传入内地之后，又有回传高昌的迹象。前述吐峪沟所发现的元康六年(296年)汉文《诸佛要集经》写本，就是法护元康二年(292年)在洛阳所译，后又传入高昌的。此后又有许多高昌僧人

5) T. 贝罗《新疆出土佉卢文残卷译文集》，王广智译，载《尼雅考古资料》，1988年，乌鲁木齐。

6) 《吐鲁番出土文书》第一册，文物出版社1981年，第218—221页。

前往内地求法，如北凉凉州高僧法进之弟子法郎、僧遵均为高昌人；南朝宋之高僧道普，在西蜀精励禅定与颂经之法绪亦为高昌人。此外还有宋明帝时来长安灵基寺说法之高昌人智村，他是《成实论义疏》的作者、高僧道亮的弟子。（均见《梁高僧传》）北魏末年，高昌王曾派遣沙门慧嵩入魏习法。嵩颇通昆县、成实等论，时人称之“昆县孔子”。（《续高僧传》卷七）尽管最后慧嵩未还其国，但大量高昌僧人的东西习法，无疑是汉传佛教影响高昌的结果之一。汉传佛教对高昌的影响以玄奘西行达到高峰。这从一个侧面也反映出汉传佛教在当地已产生了深远的影响。

中原佛教在高昌地区的影响从本世纪初以来在这里发现的大量汉文佛教文献中亦可以得到证明。仅德国人在这里所获各种佛教典籍写本和刻本已整理的就达153种，约2300余号。其中有许多佛典译于或写于4世纪初到7世纪中，它们除了部分可能在高昌译成汉文外，大部分则是在内地译成汉文或是中原高僧的撰述，后又传入高昌的。据研究，早在东晋十六国时期，吐鲁番的佛教教团便与内地佛教教团有着密切的联系，传承内地的佛教典籍，接受内地佛教的影响，而这种联系主要是通过敦煌来实现的。<sup>7)</sup>

佛教在高昌的影响及其扩大也是一个渐进的过程。在高昌郡时期佛教的信奉者主要是外地前来布道的僧侣和统治阶级上层，中原文化的影响在民间仍占据主导地位。进入高昌国时期，尤其是麴氏王朝时期，佛教不但为高昌王所信奉并由其所提倡，其影响已及民间，并与当地原有的汉文化传统相结合，共同影响到高昌人民的日常生活之中。这一点在麴氏高昌国时期的随葬衣物疏中表现得至为明显。高昌郡时期的这类文书中只见有“左青龙、右白虎、前朱雀、后玄武”和“急急如律令”、“敬移五道大神”等道教用语，而到高昌国时期，又多加入“持佛五戒，专修十善”、“佛弟子”、“大德比丘”等佛教用语，表明佛教已为当地人民普遍接受并与汉民族传统文化相融合。

高昌佛教的兴盛一方面是因为众多佛教徒虔诚地布道，另一方面则与历代高昌统治者的大力提倡有很大关系。北凉沮渠氏王族就是佛教的虔诚教徒和热情传布者。本世纪初德国探险队在高昌故城“可汗堡”旁的佛寺遗址中曾发现了承平三年(445年)《凉王大沮渠安周功德碑》中有“一念之善，成菩提之果”之语，记述了北凉余裔在高昌造寺之事。在麴氏高昌王国时期，由于麴氏诸王的大力提倡，佛教在高昌的传播和发展达到了一个高潮。日本大谷探险队所获《佛说仁王般若波罗密经》写本的题记中记有“延昌三十三年(593年)癸丑，八月十五日白衣弟子高昌王”。此时正是高昌第七代王麴乾固执政时期。本世纪初，德国的格伦威德尔、勒柯克及英国的斯坦因也发现了此王供奉抄写的各种佛经写本，表明至迟在乾固时，高昌王族已皈依佛教，并成为佛教的推广者。麴氏高昌王族对佛教的尊崇在乾固之孙、第九代高昌王麴文泰时达到了一个无以复加的地步。正是因为高昌诸王的度诚信奉与大力提倡，高昌佛教在这一时期有了长足的发展。据保守估计，仅高昌城附近就有“佛寺三百余座，僧尼逾三千人”。<sup>8)</sup>从吐鲁番所出高昌时期文书中所见大量僧尼名籍和施舍财物疏，我们就可以看到当时高昌佛教的兴盛状况。

高昌佛教在吸收印度、龟兹佛教和中原汉传佛教的基础上，还融合了当地汉魏以来汉文化的某些因素，从而形成了独具特色的高昌佛教文化，并在民间产生了广泛的影响。高昌佛寺多以姓氏名

7) 参见方广钊：《吐鲁番出土汉文佛典述略》，《西域研究》，1992年第1期。

8) 吴震：《寺院经济在高昌社会中的地位》，《新疆文物》，1990年第4期。

之。如出土文书所见麴氏、马寺、张寺、阚寺、阴寺、唐寺、李寺、韩寺、朱寺、王寺、高寺、贾寺、赵寺、陈寺、苏寺、崔寺、靳寺、裴寺、周寺、罗寺、董寺、程寺等等，反映出当时高昌聚族兴建佛寺和家族信仰佛教的情况。有的佛寺则以官职名之。如抚军寺、和郎中寺、和虎威寺、都郎中寺、绾曹寺、宿卫寺、公主寺、太后寺、大司马寺、田地公寺等。由于这些建寺的官吏本身就是当时各个世家大族的代表人物，因此这些寺实际上与前类寺性质相同。这些以族姓或官职命名的佛寺，反映出佛教传入高昌以后，与当地原有的汉魏以来的门阀制度相融合。也就是说，佛教在高昌的传播，适应了当地传统的汉文化，并借助家族的力量在民间发展起来，从而出现了佛寺“像庙星罗，僧榄云布”的局面，并具备了家族化的特征。

高昌佛教在民间则与道教信仰相结合，出现了佛、道信仰并行的情况。前已述及，在这一时期的大量随葬衣物疏中，不仅保留有前期同类文书中道教祛鬼神的各种咒语，又融入了佛教的一些术语，墓主人同时也是佛教徒，表明佛教的影响已深入人心并与原来的道教信仰结合在一起。在这里，佛陀已成为死者进入天堂的护身神灵，与道教神祇无异，反映出汉民族对外来文化吸收时的独特的实用心理。

具有地方特色的高昌佛教文化对当地的少数民族也产生了一定的影响，尤其是家俗信仰的习俗亦同样为他们所接受。在高昌佛寺中可见九姓粟特人所建的安寺、史寺、曹寺等，还有车师人的车寺及鄯善人的鄯寺、龟兹人的白寺，还有突厥人的珂寒(可汗)寺、提懃(特勤)寺、天竺人的竺寺等，表明高昌少数民族在佛教的信仰上已某种程度地高昌化了。

值得注意的是，由于佛教的传入及历代高昌王广弘佛法，使佛教文化的影响在民间日益深入，形成高昌国时期佛、道二教在民间并行，共为百姓所信奉的现象，二者出现了相互融合的趋势。反映在这一时期的随葬衣物疏中则多见“大德比丘”、“佛弟子”、“持佛五戒”、“专修十善”等佛教用语，复又见“敬移五道大神”、“若欲求海东头，欲觅海西壁，不得奄遏留停，急急如律令”等道教术语，反映出墓主人生前既信佛又崇道的事实，表明当时佛教、道教两种文化信仰在高昌相汇聚，共同成为具有地方特色的高昌文化的一个重要组成部分。

### 三、于阗之佛教

佛教最初是通过印度西北部曾深受希腊文化影响的犍陀罗(今阿富汗白沙瓦附近)、罽宾(迦湿弥罗)等地传入西域的，而于阗则首当其冲。由于地理上的原因，于阗自古以来就与这一地区保持着密切的联系，在政治、经济、文化等方面受其影响较大。我们知道，迦湿弥罗国最初曾是小乘佛教的中心，故早期于阗佛教似以小乘为主。<sup>9)</sup>进入魏晋以后，这一情况发生了较大的变化。

曹魏甘露五年(260年)，作为中原西行求法第一人的朱士行，因求大乘经典《道行经》之梵文原本，从雍州(今西安市西北)出发，涉流沙，抵于阗，并如其所愿获梵文正本90章60余万字，并由其弟子弗如檀送回中原，于水南寺由于阗僧人无叉罗、印度僧人竺叔蓝和中原的祝太玄、周玄明等共

9) 羽溪了谛著，贺昌群译：《西域之佛教》，商务印书馆1956年，第211页。



同译出，这就是著名的《放光般若经》。从朱士行的于阗之行来看，曹魏时期于阗已有大乘佛教在此流传了。但小乘佛教的势力仍然很大，《朱士行传》中曾记有“于阗小乘学众”之语。朱士行在得大乘经典之后欲传送中原，曾受到当地小乘教徒的反对，并请国王阻之。（《梁高僧传》卷四）此事虽经士行多方努力才得以成行，但也表明于阗当时大乘教派势力较弱，其国王似也信奉、支持小乘佛教。所以，在这一时期，于阗佛教处于大乘、小乘并行而以小乘为主的阶段。从晋太康七年（286年）曾携《光赞般若》梵文本入中原的于阗沙门祇多密罗所译佛典来看，既有属大乘派的华严部、方等部、般若部经典，也有属小乘派的阿含部经典，也从侧面反映出大小两乘佛教流行于阗的事实。

至少到公元5世纪初期，大乘佛教的势力在于阗已占了上风，而小乘教派则退居次要地位。后秦弘始二年（400年），中原高僧法显西行天竺求法，次年抵于阗，并在此留住三月。据《法显传》记载，这时于阗已“多大乘学”，大乘佛教已为于阗王所敬重和推崇。法显所居之瞿摩帝寺即为著名的大乘寺，有3000多名僧侣，规模很大，在于阗诸寺中地位亦很高。在当地每年4月1日所举行的大规模“行像”佛事活动中，因“王所敬重”，故“最先行像”。于阗王“脱天冠，易著新衣，徒跣，持华香”，率侍从亲自出城迎接，并“头面礼足，散华烧香”。可谓虔诚之至了。这种“行像”活动一般从每年的4月1日起，至14日才结束，时间长，规模大（倾城出动，行像遍及当时的所有14个大寺），就其实质而言，已超出了一般佛事活动的意义，而成为于阗举国上下的一大节日。可见，当时佛教，尤其是大乘佛教在于阗由于其王的提倡已深入人心，并已影响到于阗国民日常生活的某些方面，成为于阗文化的一个重要组成部分。法显到于阗时，这里已有数万僧人，民间亦虔心奉佛，每家门前景皆有佛塔，最小的也有两丈高。此外还有14个大的伽蓝，小的则无以数计。于阗上自国王，下至平民均为佛教徒，佛教显然已成为国教。

大乘佛教在于阗的兴盛还表现在各种大乘典籍的流行上。如晋代沙门支领在于阗求得之梵本《四分律》和《六十华严》，昙无讖在这里所获之梵本《大般若涅槃经》均为大乘经典。北凉沮渠京声到于阗时，在瞿摩帝寺尝遇天竺大乘高僧佛驮斯纳弘传教义，遂从受禅法，并获《禅法要解》、《禅秘要治病经》各二卷。

然而，大乘佛教在于阗的发展也并非一帆风顺。据吐蕃文《西藏传》记载，公元420—430年间在位之于阗王Vijayadharma信奉小乘教。其弟旦德刺斯从印度请来了小乘说一切有部之高僧曼特喜德，并为之建索梯尔寺，弘传小乘教义。而前面所提到的沮渠京声从于阗带回中原的佛教典籍中，虽然有大量的大乘经律，但小乘经律也为数不少。这一时期于阗小乘佛教有复兴的迹象，其原因仍然是受到了迦湿弥罗的影响。<sup>10)</sup>要之，在公元5世纪20—30年代，小乘佛教在于阗曾一度复苏，其势力虽然没有压倒大乘，但它仍然与大乘并行一直到唐初。

Vijayadharma王之后，Vijayasemha即位，时间大概在五世纪中叶。此时，于阗佛教随着王国势力的扩张开始进入了向外发展的阶段。当此王时，于阗曾战败邻近的迦萨格王，其王以信奉佛教为代价才免遭杀身之祸，并以女阿里迦嫁给于阗王。阿里迦本人不仅皈依佛门，而且还在苏纳（即疏勒，今喀什噶尔）大力传播佛教。所以，在这一时期，于阗佛教的发展已超越了本国的范围，并对

10) 羽溪了谛著，贺昌群译：《西域之佛教》，商务印书馆1956年，第221页。

周边诸城郭小国产生了直接的影响。此外,据《于阗教法史》的载,Vijayasimha的继任者Vijayakirti时,于阗曾与库赞(Gu-Zan)、迦膩迦(Kanika)等国联合入侵印度,征服索克德城(So-Kid),掠夺许多舍利,归国后建弗洛尼(Phro-Nyo)寺而藏之。当此王时,于阗佛教随着其国势的强盛而进入了历史上的一个鼎盛时期。此后,于阗外患不断,国力受到严重打击,而佛教也在不同程度上受到破坏。

北魏太平真君六年(445年),吐谷浑为北魏所败,其王慕利延西渡流沙,经且末入于阗,杀其王及许多平民,一年后才离开,于阗损失惨重。(《魏书·吐谷浑传》)北魏献帝末年(471年),柔然侵犯于阗,于阗王遣使素目伽向北魏求援未果,于阗从此沦为柔然的附庸。由于柔然亦信奉佛教,估计对于阗佛教不会造成太大的破坏,但对其国力终究是一次打击。公元5世纪末,嚙哒(Ephthalitai)兴起,并取代了柔然对于阗的统治。《于阗教法史》记载,曾有Druggu部之A-no-shos人侵入于阗,将牛角山(Gośrṅga)南部的伽蓝大部分都烧毁,对于阗佛教打击很大。有人认为,这些人当为不信佛教的嚙哒人。<sup>11)</sup>此后,于阗佛教已具衰势。519年,惠生、宋云曾到这里,然而在流传下来的《宋云行纪》中对当时于阗佛教的流行情况几无记录。玄奘644年到达此国时,其国僧人仅5千余人,远不如法显时的数万人,而且许多伽蓝久无人住,业已荒废。

值得注意的是,大约在Vijayakirti王统治时期,于阗已有密教流行的情况。《历代三宝记》曾载,宋元徽三年(473年),沙门法献巡礼西域,在于阗尝求得《妙法莲花经提婆达多品》及《观世音忏悔除罪咒》经原本备一卷,说明密教已传入这里,而且一直存在至唐代。如于阗沙门提云般若,唐天授二年(691年)来到中原,在魏国东寺译华严部、密教部之经典各二部。其人通晓大、小两乘及咒术禅门。羽溪了谛认为,唐代于阗华严部、密部教之经典最为流行。要之,则密教在于阗的传播当发端于南北朝时期。

#### 四、龟兹之佛教

进入魏晋时期,龟兹(今库车)已兼并了姑墨、温宿、尉头等城郭国,政治、经济亦由之得到了较大的发展,国势日益壮大,成为丝路北道上的一个大国,在这一时期西域政治、经济、文化舞台上所起的作用更加令人瞩目。以佛教文化为中心,结合当地文化传统的“龟兹文化圈”逐渐形成,并以其独具特色的佛教石窟艺术在西域文化史上大放异彩。

据记载,龟兹国以延城(今库车皮朗古城)为都城,城有三重,中有佛塔庙千所,其王坐金狮子床,显示出浓厚的佛教文化的色彩。(《晋书》卷九十七、《魏书》卷一百二)一般认为,佛教大约在公元前1世纪前后经中亚传入龟兹,到这一时期经过二三百年的发展,进入了一个鼎盛时期,并在龟兹政治、文化等方面产生了深远的影响。佛教已成为龟兹的国教,并受到龟兹历代诸王的崇信和弘扬,其影响近及周边诸国,远达中原内地。在这一历史时期之初,众多的龟兹高僧、居士东行中原弘法,由此揭开了龟兹佛教文化的新一页。

11) 羽溪了谛著,贺昌群译:《西域之佛教》,商务印书馆1956年,第221-225页。

《开元释教录》卷二记载，在曹魏时期，有龟兹沙门白延游化洛阳，于甘露三年(258年)在白马寺译出大乘经典《无量清静平等觉经》二卷及小乘经典《除灾患经》一卷等。一般认为，龟兹之初传佛教以小乘为主，但从白延所译佛经的情况来看，大、小二乘经典均有，表明至少在曹魏时期，龟兹已有大乘教义在流布。西晋永嘉中(307—312年)有龟兹王世子帛尸梨蜜多罗出家后来中原，在建初寺中传译密教经典，并于晋元帝年间译出《大孔雀王神咒》一卷和《孔雀杂神咒》一卷，使密教开始在中原流传。(《高僧传》卷一)帛尸梨蜜多罗的布道活动说明，龟兹国内除了大、小二乘外，还有密教在流行，并得到了其某些王族成员的信奉。此外，晋武帝太康五年(284年)沙门法护所译之《阿维越致遮经》，其梵文原本是他在敦煌从龟兹副使美子侯处得来的，而法护在太康七年(286年)译《正法华经》时，参与校对的人中就有龟兹居士帛元信。(《出三藏记集》卷七、八)以上事实一方面说明龟兹佛教对中原影响很大，另一方面，大量龟兹僧侣中原弘法亦表明当时龟兹佛教当是十分兴盛的。

尽管白延带入中原所译的佛经中，有大乘经典四部，小乘经典仅一部，但大量的材料表明，龟兹在公元3—4世纪时仍然是一个以小乘佛教为主的地方。本世纪初，西方探险家在这里发现的用龟兹文(即所谓的乙种吐火罗语)所写的佛经中，多数属小乘说一切有部的写本。用本地的语言、文字译写佛经，足以说明当时佛教，尤其是小乘佛教已在龟兹深入人心。白延之后，在西晋惠帝时(290—306年)又有龟兹沙门帛法巨与汉僧法立共译佛典4部12卷，其中仅《大方等如来藏经》属大乘经典，余3部均为小乘经典。故日人羽溪了谛氏认为“龟兹古来一方面盛行大乘学，而同时小乘学亦甚占势力，故其所译虽多属小乘经典，亦为当然之事。”<sup>12)</sup>总之，尽管龟兹传统上是一个以小乘佛教为主的国家，但在魏晋时期也有大乘在流行，并在一定程度上有密教在流布。

公元4世纪中叶，随着龟兹高僧鸠摩罗什(343—413年)的大力弘扬及其声望的日益提高，大乘佛教的影响在龟兹有扩大的迹象。罗什时代，龟兹大乘佛教虽经其大力弘扬，影响有所扩大，然因小乘势厚，故不像于阗那样，最终取得主导地位。而小乘佛教在龟兹仍占优势。除罗什回国后在王新寺习诵大乘教义，龟兹佛寺大都为佛图舌弥所统，比丘尼亦受其法戒。佛图舌弥本人就是龟兹的小乘高僧，习阿含学。罗什幼时亦曾师之。(《出三藏记集》卷十一)罗什在龟兹的弘法活动，虽使大乘佛教的影响有所扩大，但并未动摇小乘佛教在龟兹的统治地位，罗什本人亦处于小乘势力的包围之中。鸠摩罗什离开之后，龟兹再无一能与小乘相匹敌的大乘高僧。大约在585年前后，南印度沙门达摩笈多到达龟兹时，其国王笃信大乘佛教，(《唐高僧传》卷二)说明大乘佛教在龟兹一直还是有一定影响的。也就是说，魏晋南北朝时期，龟兹佛教的发展是大小二乘并行，而以小乘势力为主的时期。据对拜城克孜尔石窟涅槃壁画的研究，其题材大多出于小乘经典，但也有大乘经典的内容，甚至有大小经典的不同题材，同出现于一个画面的情况。<sup>13)</sup>从而从一个侧面证明了这一点。

于阗是丝路南道的佛教中心，而龟兹则是丝路北道的佛教中心。这里寺院林立，僧尼众多。据《梁高僧传·罗什传》的记载，罗什时代龟兹的僧尼多达一万人。羽溪了谛对此不以为然。<sup>14)</sup>但结合龟兹作为一个佛教中心的地位以及当时有许多中亚和西域诸国僧尼挂锡于此的事实，加上其属国

12) 羽溪了谛著、贺昌群译：《西域之佛教》，商务印书馆1956年，第271页。

13) 参阅韩翔、朱英荣：《龟兹石窟》，新疆大学出版社1990年，36—39页。

14) 羽溪了谛著、贺昌群译：《西域之佛教》，商务印书馆1956年。

姑墨、温宿、尉头等国的僧尼，这个数字即使未必准确，但也说明了龟兹佛教的繁盛。《出三藏记集》所收《比丘尼戒本所出本末记》载：“拘夷(龟兹)国，寺甚多，修饰至丽，王宫雕镂立佛形像与寺无异。”著名的大寺有达慕蓝，有僧170人；致隶蓝剑，有僧50人；剑慕王新蓝，有僧60人；温宿王蓝，有僧70人；王新僧加蓝，有僧90人，鸠摩罗什在此习诵大乘之学。此外还有三座比丘尼寺，如阿丽蓝，有180比丘尼；输若干蓝，有50比丘尼；阿丽跋蓝，有30尼道。专为比丘尼设独立的佛寺似为龟兹所独有，葱岭以东王侯妇女多来此出家，这恐怕也是龟兹吸引境外僧尼的一个重要原因。龟兹还有东西雀离大寺、金华寺、阿奢理贰伽蓝、法华寺等见诸史乘，小者则难以数记。库车地区现在亦保存有大量的佛寺遗址和石窟寺，如克孜尔石窟群，已编号的有236个洞窟；库木吐拉石窟群，已编号的有112个洞窟；森木撒姆石窟群，已编号的有52个洞窟；克孜尔哈石窟群，已编号的有46个洞窟；玛扎伯哈石窟群，现存较完整的有41个；托乎拉克埃肯石窟群，今新和县境内，现存14个洞窟；台台尔石窟群，仅存8个已残破的洞窟。还有苏巴什等佛寺遗址，有的石窟群还伴随有佛寺遗址。这些规模宏大的佛教洞窟和佛寺遗址，基本都开凿或建造于魏晋南北朝时期，由此也可反映出这一时期龟兹作为北道佛教中心规模之一斑。

龟兹作为丝路北道的佛教中心，不仅表现在其国内佛教的兴盛方面，更重要的还在于龟兹佛教对中原及西域周边诸国的影响上。龟兹佛教文化是开放的。这种开放性一方面表现在本国僧侣西去印度、罽宾、犍陀罗等地区求法，如佛图澄、鸠摩罗什和其母耆婆，以及对西来布道高僧的礼遇，如鸠摩罗炎、佛陀耶舍、盘头达多、卑摩罗叉、昙摩密多、达摩笈多等。另一方面则表现在龟兹高僧的东行弘法，使龟兹佛教文化传播中原及西域诸国，如白延、帛法祖、尸梨密、佛图澄、鸠摩罗什等，以及龟兹佛教文化的独特魅力，引起周边国家僧尼的向往，如前面所提的龟兹所特有的比丘尼寺，引得葱岭以东王侯妇女多来此出家，温宿王寺很可能亦为温宿王在龟兹求法时所立之寺。龟兹佛教在西域尤其对高昌产生了重大的影响。据《梁高僧传》记载，公元4世纪中叶，高昌僧法朗曾赴龟兹，并受龟兹王礼遇。北齐时，又有高昌高僧法惠先后两次赴龟兹修学禅律，回高昌后从事布教，教导民众。（《名僧传》）玄奘在630年到龟兹时，“有高昌人数十于屈支(龟兹)出家，别居一寺。”由此亦可见高昌僧侣与龟兹关系之密切，他们去龟兹修学，回高昌布道，把龟兹佛教文化直接引入高昌。本世纪初德国探险队在吐鲁番所获大量汉文佛教典籍，其中有不少是龟兹名僧的译经，如鸠摩罗什所译的有《摩诃般若波罗密经》、《小品般若波罗密经》、《阿弥陀经》、《中论》等至少14种佛经；还有帛尸梨密多罗译的《大灌顶经》，帛法祖译的《佛般泥洹经》。<sup>15)</sup>这些汉文佛经尽管有可能从内地传入，但这些龟兹高僧的译经无疑曾流行于龟兹，它们在高昌地区的出现，反映了龟兹佛教对这里的影响。高昌伯孜克里克石窟中供僧人坐禅修行的“毗诃罗窟”，在形制上与龟兹的类似，而被称为“龟兹式”的中心柱支提窟在高昌石窟中亦可以看到，可见龟兹佛教对高昌的影响是很深的。

## 五、焉耆与疏勒之佛教

15) 施密特、梯楼：《汉文佛教文献残卷目录》二卷，载《柏林吐鲁番文献丛刊》，1985年。

除龟兹外，疏勒(又称佉沙、竭叉，今喀什噶尔)、焉耆(又称乌耆、阿耆尼，今焉耆)亦主要为流行小乘佛教的地区，其文化与龟兹、于阗一样，也表现为浓厚的佛教文化的色彩。法显在5世纪初到疏勒时，亦记此国“尽小乘学”。虽然在585年前后，南天竺沙门达摩笈多留住疏勒二年之久，讲税《说破论》、《如实论》等大乘经典，但影响甚微。(《续高僧传》卷二)直至玄奘到这里时，疏勒国僧徒仍然均习小乘教说一切有部。所以，在魏晋南北朝时期，疏勒国基本上是一个纯小乘佛教的地区，小乘佛教在这里的影响可谓根深蒂固，虽有大乘名僧须利耶苏摩、达摩笈多的对大乘教义的宣扬，亦实难动摇其根基。

疏勒国有许多佛教圣物。道安《西域记》中记载，在公元4世纪中叶，疏勒国中有赤真檀木所作的佛浴床，在王宫中受到其王的供养。(《水经注》卷二引)鸠摩罗什从罽宾求法归国途中，在留住疏勒期间，曾见此国有佛钵，并受其母启示参拜悟道。(《梁高僧传》卷二)公元5世纪初，中原僧侣智猛巡礼佛迹，也在疏勒见到了罗什所参悟的佛钵，并对之详细描述道：“(佛钵)光色紫紺，四际尽然，猛花香供养，顶戴发原，钵若有应，能轻能重。既而轻重，力遂不堪；及下案时，复不觉重，其道心所应如此。”(《出三藏记集》卷十五)法显400年到竭叉(疏勒)时，则记“其国中有佛唾壶，以石作之，色似佛钵。又有一佛齿，其国中人为佛齿起塔。”(《法显传》卷一)465年前后，疏勒王遣使中原，曾献一件释迦牟尼佛袈裟，此袈裟“置于猛火之上，经日不然”。(《北史》卷九十七)从以上史实观之，疏勒国有收集、尊崇佛之圣物的传统，并借此参拜悟道，这可谓是疏勒佛教比较突出的一个特点。

与于阗、龟兹等国一样，佛教在疏勒也得到了其国王的信奉和支持。前面述及的佛浴床就被疏勒王置于王宫之中，悉心供养。罗什在疏勒时亦曾受其王之请，讲说《转法轮经》。法显曾对疏勒王崇奉、弘扬佛教的情况详细地记载道：“其国王作般遮越师。般遮越师，汉言五年大会也。会时请四方沙门皆来云集。集已，庄严众僧座处，悬缯幡盖，作金银莲花，著缯座后，铺净坐具。王及群臣如法供养，或一月二月，或三月，多在春时。王作会已，复劝诸群臣设供供养，或一日、二日、三日、五日，乃至七日。供养都毕，王以所乘马，鞍勒自副，使国中贵臣重臣骑之，并诸白犢、种种珍宝、沙门所需之物，共诸臣发愿布施。布施已，还从僧赎。其地山寒，不生余谷，唯熟麦耳。众僧受岁已，其晨辄霜，故其王每赞众僧，令麦熟然后受岁。”其虔诚之心，可谓细致入微。正是由于疏勒王的虔心奉佛，大力弘扬，佛教在疏勒得到了很大的发展。至玄奘时，疏勒僧徒已由法显时的千余人增加到一万余人，伽蓝亦有数百所，僧徒在人数上已超过了同期的龟兹等国，俨然成为了一个佛教大国。

焉耆也是一个以小乘佛教为主的地区。5世纪初，这里有4千余僧人，均习小乘学。(《法显传》卷一)至7世纪上半叶，焉耆有伽蓝十余所，僧徒2千余人，仍然尽习小乘学一切有部。(《大唐西域记》卷一)在这200余年的时间里，由于史料缺乏，我们虽然不知道焉耆佛教发展的详细情况，但小乘佛教贯穿于魏晋南北朝时期焉耆历史文化发展的始终，并居主导地位的这个事实当不会有什么太大的变化。焉耆和龟兹在文化上有着密切的联系，两个地区在风俗、婚姻、丧葬、物产等方面大致相同。(《北史》卷九十七)焉耆语(Tocharian A)和龟兹语(Tocharian B)均属印欧语系Centum语

支，都使用婆罗迷字母斜体书写，二者的区别只是在于方言的不同。本世纪初，西方探险家曾在焉耆发现有龟兹文的写本，反映出龟兹文化在这里的影响。1950—1960年代，中国考古工作者在焉耆古代佛寺遗址中也发现有大量具有犍陀罗艺术风格的佛教造像。<sup>16)</sup>犍陀罗艺术影响及此，显然也是受龟兹佛教文化影响的结果。

魏晋南北朝时期，西域佛教经过三四百年的发展，在丝路南道形成了以于阗为主的大乘佛教中心；在丝路北道则形成了以龟兹为主，包括焉耆、疏勒在内的小乘佛教中心。二者共同构成西域佛教文化圈。而在这两个中心里，我们均可以看到有小乘或大乘流行的情况。所以，这里的“中心”也不是绝对的。在这个文化圈中，尽管佛教文化居主导地位，并深深地影响到当地人民日常生活的各个方面，但它们无一不是中西文化与本地文化传统相结合的产物。易言之，以于阗、龟兹为中心的西域佛教文化圈，亦为中西方文化在西域汇聚、交融，并经过当地人民的吸收和改造而形成的具有各自地方特色文化圈，是这一历史时期西域文化的一个重要组成部分。

---

16) 原物现藏新疆博物馆。

## 위진남북조 시기의 서역 불교

왕 신 | 중국 섬서사범대학 서북민족연구센터 교수

불교는 기원전 1세기에 서역으로 전해진 후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르러 더욱 광범위하게 퍼지고 발전되며 서역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당시 于闐, 疏勒, 龜茲, 高昌 등지는 불교의 중심지였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초기에 서역으로 전해진 불교는 소승 위주였고 위진 시기에 이르면 대승과 소승이 병존한다. 鄯善, 焉耆는 모두 소승을 익혔고 우전은 대부분 대승을 익혔다.<sup>1)</sup> 남북조에 이르면 대승불교가 점점 우세를 점하나, 소승 불교 역시 각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불교는 서역에 본격적으로 전파된 이후 당시 서역 각국의 문화와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수많은 고승들이 서역 각국에 등장하여 불법을 널리 펼치고 스스로 교리를 만들기까지 하여 서역 불교는 이미 인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sup>2)</sup> 그들은 구법을 위해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도를 베풀기 위해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경전을 번역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들이 그 지역에서 불교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중원 불교의 번성에도 많은 자극을 주었다.

### 1. 鄯善의 불교

위진 시대에 선선국은 국왕에서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소승불교를 신봉했으며 나라에 승려만도 4천 명이 넘었다.<sup>3)</sup> 서한 시대 이 나라의 인구를 14,100명으로 본다면(『漢書』「西域傳」‘鄯善’조) 승려가 그중 1/4 가량을 차지하는 것이다. 당시 선선국에 불교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알 만하다. 소승불교가 선선에 유행한 것은 이곳의 주민이 원래 인도 서북 지역 초기 소승불교 중심지인 간다라 지역의 이주민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의 불교 예술 역시 간다라 초기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흔적이 있다. 예를 들어 스타인이 米蘭 유적에서 당시의 불사와 불탑의 유지를 여러 군데 발견한 적이 있는데, 이곳에 남아있는 많은 벽화들의 내용이 바로 불교 고사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그중 목판 수채화 한 폭에 그린 날개달린 천사의 형상은 완전한 로마 풍이다. 벽화에 그려진 善牙太子와 왕비의 마차 역시 네 마리 말이 끄는 로마식 마차이다. 그리고 벽화 기법은 이집트 파이움의 로마 회화와 동일한 체계에 속하여 모두 투시학의 과장법을 사용했으며, 옛 미란 벽화는 초기 간다라 예술의 영향을 크게 받아 로마 풍이 농후하다.<sup>4)</sup> 근래에 新疆의 고고학자는 미란 서쪽 사원의 지하에 남아있던 벽

1) 『法顯傳校注』, 章巽 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85년, p.7, p.8, p.13.

2) 呂澂, 『中國佛學源流略講』, 中華書局, 1979년, p.40.

3) 『法顯傳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85년, p.8.

화에서 날개 달린 천사의 형상을 발견했다.

선선국에서 불교가 유행한 상황은 佉盧의 문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당시 선선의 僧界에서는 자신들만의 규정을 만들고 전담자를 파견하여 승계의 모든 활동을 관리토록 했다. 어떤 승려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했으며, 이를 어기면 상황의 경중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이 주어졌다. 浴佛을 찬미하는 거로의 한 장편 문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세상에 있는 동안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기를, 봉헌의 주인 釋天께서 많은 비를 내려주시길, 오곡이 풍성하고 왕도가 창성하기를, 諸神의 불법 아래 영생하기를.” 불교를 신봉한 고대 선선인들의 아름다운 바람을 표현한 것이다.<sup>5)</sup> 거로의 문서 중에는 부처를 받들고 제사지내는 것에 대한 기록도 있다. 樓蘭의 유적에서는 브라흐미(Brahmi) 문자로 된 문서도 발견되었다. 이는 인도 불교문화의 영향이 가져온 결과임에 분명하다. 이 외에 거로의 문서에는 선선국 민간에 '巫'에 대한 원시 신앙이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기록도 있다. 문서의 여러 곳에서 무녀를 죽이고 벌주고 그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령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이는 아마 불교가 이들을 배척하고 공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 2. 高昌의 불교

불교가 정확히 언제 투루판 지역으로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일본 오오타니(大谷) 탐험대가 吐峪溝에서 획득한 한문 『諸佛要集經』은 月支의 고승 법호가 西晉 元康 2년(292)에 낙양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불전은 원강 6년(296)의 사본으로,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창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출토 불전 중 가장 이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前秦 建元 18년(382)에 車師國 前部王의 국사가 胡本 『大品般若經』을 바친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는 불교가 최소한 서기 3세기 말이나 4세기 초에 이미 투루판 지역으로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스타나 13호 고분에서 출토된 『佛說七女經』 사본이 16국 시대에 속한다는 사실 역시 이 점을 설명해준다.<sup>6)</sup>

위진남북조 시기의 고창 불교는 한편으로는 인도와 구자 등지의 영향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漢化된 중국 본토 불교의 西傳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아울러 그 지역 고유의 漢魏 시기 중원문화 전통이 고창 불교의 형성과 발전에 미친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고창의 승려들 중에는 인도, 구자 등지로 구법을 떠난 이들이 많았다. 北涼 때 智猛이라는

4) 沈福偉, 『中西文化交流史』, 上海人民出版社, 1985년, p.102. 米蘭의 벽화가 초기 간다라 예술에 속한다는 심선생의 견해는 대단히 타당하다. 그러나 같은 책에서 벽화가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선선국은 기원전 2-3세기에 이미 이곳에 들어와 초기 간다라 예술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이후 간다라 예술은 인도 서북부에서 발전했지만 선선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위진 시대에 여전히 초기 간다라 예술의 풍격을 보존하고 있었다. 佉盧 문서의 시대를 보면 이들 불사가 위진 시대에 속했기 때문에 벽화 역시 이 시기의 것이 마땅하다. 다만 풍격에 있어서 초기 간다라 예술의 특징을 보존하고 있을 뿐이다.

5) T. 貝羅, 「新疆出土佉盧文殘卷譯文集」, 王廣智 역, 『尼雅考古資料』, 1988년, 우루무치.

6) 『吐魯番出土文書』 제1책, 文物出版社, 1981년, pp.218-221.



승려는 인도로 구법의 길을 나서 호본 『大涅槃經記』 10권 5품을 얻고, 돌아오는 길에 고창에서 일정 기간 머물렀다. 당시 나이 겨우 19세였던 고창 승려 法盛이 그 영향을 받아 동문 29명과 함께 인도로 가고 북량에서 『菩薩投身餓虎起塔因緣經』 1권을 지었다(『名僧傳鈔』, 『開元釋教錄』 卷4). 고창 승려 法郎은 北魏 武帝가 불교를 멸하자 불국 구자로 떠나 국왕의 예우를 받고 그곳에서 입적했다(『梁高僧傳』 권15). 또 고창 승려 道普는 서역의 여러 나라를 돌며 불교의 성지를 순례했다. 그는 梵書를 잘 알 뿐 아니라 6개국어에 능통했다고 한다(『양고승전』 권2). 北齊 때 고창의 승려 法惠는 두 차례 구자로 가서 禪律을 수학하고, 구자의 고승 直月을 스승으로 삼아 도를 깨우치고, 돌아와서는 널리 선법을 펼쳐 속승들이 모두 그에게 귀의토록 하고(『名僧傳』), 고창에서 대승불교의 전파에 막대한 공헌을 했다. 이 외에도 인도의 승려 중에도 동쪽의 고창으로 온 자들이 있었다. 589년 남인도의 사문 달마굽타는 北道の 여러 나라에서 고창까지 2년 정도를 머물렀다. 비록 “널리 펼쳐 말한 적은 없지만” 그의 방문은 고창 불교의 탄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고창의 승려가 서쪽으로 구법을 떠나고 인도의 사문이 동쪽으로 오면서 수많은 불교 전적의 원본이 고창으로 흘러들어왔다. 20세기 말 독일 탐험대가 交河의 옛 성과 勝金口 등지에서 대량으로 발견한 범어 불경 사본 『雜阿含經』, 『法集頌』, 『俱舍論本頌』, 『妙法蓮華經』, 『相應阿含』, 『比丘尼戒本』, 『大般涅槃經』 등이 그 예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법을 통해 얻은 교리를 고창에서 널리 펼쳐 인도와 구자 불교의 고창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갔다.

불교가 중국 본토로 들어온 후 다시 고창으로 전해진 흔적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토욕구에서 발견된 원강 6년의 한문 『제불요집경』 사본은 法護가 원강 2년에 낙양에서 번역한 후 다시 고창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후에도 고창의 많은 승려들이 구법을 위해 중국 본토로 들어갔다. 北凉 凉州의 고승 法進의 제자 法郎, 僧遵은 모두 고창 사람이다. 남조 宋나라의 고승 道普, 西蜀에서 정진에 힘쓰고 경문을 찬송한 法緒 역시 고창 사람이다. 그밖에도 송 明帝 때 장안의 靈基寺로 와서 설법을 한 고창 사람 智村은 『成實論義疏』의 저자이자 고승 道亮의 제자이다(모두 『양고승전』을 참고). 북위 말년에 고창의 왕은 사문 慧嵩을 위나라로 보내 불법을 익히도록 했다. 혜승은 昆曇, 成實 등의 논이에 정통하여 당시 사람들은 그를 ‘昆曇孔子’라 불렀다(『속고승전』 권7). 결국 혜승은 귀국하지 못했지만 고창의 많은 승려들이 동서에서 불법을 익힌 것은 중국에서 전해진 불교가 고창에 영향을 준 결과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중국에서 전해진 불교의 고창에 대한 영향은 현장의 서행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른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역시 중국에서 전해진 불교가 현지에서 이미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고창 지역에서의 중원 불교의 영향은 20세기 초 이래로 이곳에서 발견된 대량의 한문 불교 문헌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독일인이 이곳에서 획득한 각종 불교전적 사본과 각본을 정리한 것만도 153종, 약 2300여 건에 이른다. 그 중 수많은 불교 전적이 4세기 초에서 7세기 사이에 번역되거나 기록되었다. 이 전적들 중 고창에서 한문으로 번역되었을 일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 내륙에서 한문으로 번역되거나 중원의 고승들이 지은 후 고창으로

전해진 것들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미 東晉 16국 시기에 투루판 불교 교단은 내륙의 불교 교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내륙의 불교 전적을 전승하고 내륙 불교의 영향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주로 둔황을 통해 이루어졌다.<sup>7)</sup>

고창에서의 불교의 영향과 발전 역시 하나의 점진적 과정이었다. 고창군 시기에 불교 신봉자는 주로 외지에서 도를 펼치기 위해 온 승려와 통치계급 상층부였으며, 중원 문화의 영향은 민간에서 여전히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다. 고창국 시기, 특히 麴氏 왕조 시대가 되면서 불교는 고창왕이 신봉하고 제창하는 종교로서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원래의 현지 漢 문화 전통과도 결합하여 고창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함께 영향을 미쳤다. 이 점은 국씨 고창국 시기에 사자와 함께 묻은 衣物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말해준다. 고창군 시기의 문서들에는 ‘左青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와 ‘急急如律令’, ‘敬移五道大神’ 등의 도교 용어만 보이나, 고창국 시대에 이르면 ‘持佛五戒, 專修十善’, ‘佛弟子’, ‘大德比丘’ 등의 많은 불교 용어가 들어간다. 이는 불교가 이미 현지 백성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원래 漢민족의 전통문화와 서로 어울리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고창 불교의 흥성은 한편으로는 많은 불교도들이 경건하게 불법을 전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창의 역대 통치자들이 모두 불교를 적극 제창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북량 저거沮渠씨 왕족이 바로 불교의 충실한 신도이자 열정적 전파자였다. 20세기 초 독일 탐험대는 고창 고성 ‘可汗堡’ 부근 불사 유적의 承平 3년(445) 「凉王大沮渠安周功德碑」에서 “一念之善, 成菩提之果”라는 말을 발견하고, 북량의 후예들이 고창에서 불사를 조성한 일을 기술했다. 일본 오오타니 탐험대가 획득한 「佛說仁王般若波羅密經」 사본의 제기에는 “延昌三十三年(593) 癸丑, 八月十五日白衣弟子高昌王”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때가 바로 고창 제 7대왕 鞠乾固의 집권기이다. 20세기 초 독일의 그룬베델(Albert Grunwedel)과 르 코크(Albert von Le Coq) 그리고 영국의 스타인(Aurel Stein) 역시 이 왕이 바친 각종 불경 사본들을 발견하고, 최소한 乾固 때까지는 고창 왕족이 이미 불교에 귀의하고 불교를 널리 보급했음을 밝혔다. 鞠氏 고창 왕족의 불교에 대한 숭상은 건고의 손자이자 제 9대 고창왕인 鞠文泰 때에 이르러 절정에 다다른다. 고창의 여러 왕들이 진심으로 신봉하고 제창했기 때문에 고창의 불교는 이 시기에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적게 잡아도 고창성 부근에만 “불사 3백여 좌에 승려는 3천 명이 넘었다.”<sup>8)</sup> 투루판에서 출토된 고창 시기 문서 중에는 승려의 명부와 보시 물품의 기록이 대량으로 남아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고창 불교의 번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고창 불교는 인도, 구자 불교와 중원에서 전해진 불교의 기초 위에 漢魏 시대 이후 현지 문화의 요소들까지 융합되어 독특한 고창 불교문화를 형성하고 민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고창의 불사는 대부분 성씨로 이름을 지었다. 예를 들어 출토 문서에서 보이는 麴氏, 馬寺, 張寺, 闕寺, 陰寺, 唐寺, 李寺, 韓寺, 朱寺, 王寺, 高寺, 賈寺, 趙寺, 陳寺, 蘇寺, 崔寺, 靳寺, 裴寺, 周寺, 羅寺, 董寺, 程寺 등의 이름은 당시 고창의 가족 불사와 가족 신앙 불교의 정황을

7) 參見方廣錫, 「吐魯番出土漢文佛典述略」, 『西域研究』, 1992年 第1期.

8) 吳震, 「寺院經濟在高昌社會中的地位」, 『新疆文物』, 1990年 第4期.

반영한다. 어떤 불사는 관직으로 이름을 지었다. 撫軍寺, 和郎中寺, 和虎威寺, 都郎中寺, 綰曹寺, 宿衛寺, 公主寺, 太后寺, 大司馬寺, 田地公寺 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사찰을 지은 관리들 자신이 당시 각 세족의 대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 사원은 앞에서 언급한 사원들과 성격이 같다. 씨족의 성과 관직으로 이름을 지은 불사들은 불교가 고창으로 들어온 이후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한위 이래의 문벌제도와 융합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불교가 고창으로 전파되어 현지의 전통 한문화와 융합하고 가족의 힘으로 민간에서 발전을 이루어, “불상과 사당이 별처럼 많고, 승려와 감람이 구름처럼 펼쳐진” 불사의 모습이 등장하고 가족화된 불교의 특징을 갖추게 된 것이다.

고창 불교는 민간에서 도교 신앙과 결합하여 佛, 道 신앙이 병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이 시기에 대량으로 수장되었던 옷과 물건에 대한 기록 중에는 이전 시기 같은 종류의 문서에 보이는 도교 귀신의 각종 주문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불교 용어까지 섞여 있어 주인이 불교신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불교의 영향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원래의 도교 신앙과 결합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부처는 천당으로 들어가는 死者를 지켜주는 호신의 신령으로서 도교의 신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이는 외래문화를 실용적으로 받아들이는 漢族의 독특한 심리를 반영한다.

지방색을 띤 고창 불교문화는 현지의 소수민족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가족 신앙의 습속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고창 불사 중에는 九姓 소그드인이 지은 安寺, 史寺, 曹寺 등이 있으며, 車師인의 車寺, 선선인의 鄯寺, 구자인의 白寺 그리고 돌궐인의 珂寒(可汗)寺, 提懃(特勤)寺, 천축인의 竺寺 등도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고창 소수민족이 불교 신앙에서 어느 정도 高昌化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의 깊게 볼 것은, 불교가 전해지고 고창의 역대 왕들이 불법을 널리 펼치면서 불교문화의 영향이 민간에서 갈수록 깊어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창 시기에는 불교와 도교가 민간에서 함께 신봉되고 서로 융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당시 무덤에 수장된 옷과 물건의 기록들 중에는 ‘大德比丘’, ‘佛弟子’, ‘持佛五戒’, ‘專修十善’ 등의 불교용어가 흔히 보이고, 또 ‘敬移五道大神’, ‘若欲求海東頭, 欲覓海西壁, 不得奄遏留停, 急急如律令’ 등의 도교용어도 보인다. 이는 무덤의 주인이 생전에 불교도 믿고 도교도 숭상했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당시 불교와 도교 두 가지 문화와 신앙이 고창에서 함께 모여 고창 지방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 3. 于闐의 불교

불교는 최초에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은 인도 서북부 간다라(지금의 아프카니스탄 페샤와 부근)와 계빈(闐賓, 카슈미르) 등지를 통해 서역으로 전해졌으며, 우전은 그 첫 번째 대상이었다. 지리적 이유 때문에 우전은 예로부터 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정치, 경

제, 문화 등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주지하듯이 처음에 카슈미르국은 소승불교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초기 우전 불교는 소승 위주였다.<sup>9)</sup> 그러나 위진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크게 변한다.

曹魏 甘露 5년(260), 중원에서 서쪽으로 구법을 떠난 첫 번째 인물인 朱士行은 대승경전 『道行經』의 범어 원문을 구하고자 雍州(지금의 시안 서북쪽)를 출발하여 流沙를 건너 우전에 이르렀다. 여기서 소원대로 범어 원문 90章 60여만 자를 얻고 제자 弗如檀 편에 중원으로 보낸다. 원문은 水南寺에서 우전 승려 無叉羅, 인도 승려 竺叔藍, 중원의 祝太玄과 周玄明 등이 공동으로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放光般若經』이다. 주사행의 우전 행에서 보이듯이 조위 시대 우전에는 대승불교가 이미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승불교 세력 역시 여전히 커서 『朱士行傳』에는 ‘于闐小乘學衆’이라는 말이 보이기도 한다. 주사행은 대승 경전을 얻은 후 중원으로 보내려 하다가 현지 소승 교도들의 반대를 받아 국왕에게 그들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양고승전』권4). 이 일은 주사행이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써서 이루어지긴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시 우전에 대승 교파의 세력이 약했고, 국왕 역시 아마도 소승불교를 신봉하고 지원했을 것임을 말해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당시 우전 불교는 대승과 소승이 병행하되 소승이 위주인 단계에 있었다.晉 太康 7년(286)에 『光贊般若』 범어 본을 들고 중원으로 들어온 우전의 사문 기다밀라가 번역한 불전을 보면 대승파에 속하는 華嚴部, 方等部, 般若部 경전도 있고, 소승파에 속하는 阿含部 경전도 있다. 이 역시 대승과 소승의 두 불교가 우전에서 유행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늦어도 기원전 5세기 초기까지는 대승불교 세력이 우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소승 교파는 그 아래로 밀려난다. 後秦 弘始 2년(400), 구법을 위해 천축으로 떠난 중원의 고승 法顯은 이듬해에 우전에 이르러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문다. 『법현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우전은 이미 “대승의 학문이 많았고” 우전왕도 대승 불교를 중시하고 추존했다. 법현이 머물던 瞿摩帝寺가 곧 유명한 대승 사원이다. 규모가 대단히 컸던 이 사원은 3000명이 넘는 승려들이 있었으며 우전의 여러 사찰들 중에서도 위상이 아주 높았다. 이곳에서는 매년 4월 1일에 대규모의 ‘行像’ 활동을 거행했는데, “왕이 존경하고 중시한” 까닭에 “이 행상을 가장 먼저 한 것이다.” 우전왕은 “天冠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맨발을 벗고, 華香을 켜 채” 시종들을 이끌고 직접 성을 나와 그를 영접하고 “머리를 조아려 발에 대고, 꽃을 뿌리고 향을 피웠다.” 경건함의 극치라 할 만하다. 이런 ‘행상’ 활동은 보통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14일에 끝났다. 기간도 길고 규모도 커서(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나서 당시 14개 대규모 사원 모두에 행상이 퍼졌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불사 활동의 의미를 넘어선 우전의 거국적 명절이 되었다. 이처럼 당시 불교, 특히 대승 불교는 우전왕의 제창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으며, 우전 백성들의 일상생활 각 방면에 영향을 주어 우전 문화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 되었다. 법현이 우전에 도착했을 때는 수만 명의 승려가 이미 그곳에 있었고, 민간에서도 진심으로 부처를 받들어 집 대문마다 최소 2丈 높이의 불탑이 세워져 있었다. 그밖에도 14곳의 대규모 가람에

9) 羽溪了諦 著, 賀昌群 譯, 『西域之佛教』, 商務印書館, 1956年, p.211.

작은 것은 부지기수였다. 우전은 위로는 국왕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교를 신봉했다. 불교가 이미 국교가 된 것이다.

우전에서의 대승불교의 흥성은 각종 대승 전적의 유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晉代의 사문 支頡이 우전에서 얻은 범어 본 『四分律』과 『六十華嚴』, 曇無讖이 이곳에서 얻은 범어 본 『大般若涅槃經』은 모두 대승 경전이다. 북량 沮渠의 京聲은 우전에 이른 후 瞿摩帝寺에서 교리를 펼치던 천축의 대승불교 고승 佛馱斯納를 만나 선법禪法의 가르침을 받고 『禪法要解』, 『禪祕要治病經』 각 2권을 얻었다.

그러나 대승불교가 우전에서 순조롭게 발전한 것만은 아니었다. 吐蕃文 『西藏傳』의 기록에 따르면, 서기 420-430년에 재위한 우전왕 Vijayadharma는 소승 불교를 신봉했다. 그의 동생 且德刺斯는 인도에서 소승 說一切有部の 고승 曼特喜德을 모셔와 그를 위해 索梯爾寺를 짓고 소승의 교리를 널리 전파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저거의 경성이 우전에서 중원으로 가져온 불교 전적은 대승의 경률이 많았으나 그 중에는 소승의 경률 또한 적지 않았다. 이 시기의 우전 소승불교는 부흥의 흔적이 보이는데, 그 원인은 여전히 迦濕彌羅(카스미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sup>10)</sup> 요컨대, 서기 5세기 20-30년대에 소승불교는 우전에서 부활을 알렸고, 그 세력은 비록 대승을 압도하진 못했으나 여전히 대승과 함께 唐代 초까지 이어졌다.

Vijayadharma 왕 이후 Vijayasemha가 대략 5세기 중엽에 즉위했다. 이때 우전의 불교는 왕국의 힘이 확장되면서 외부로 발전해가는 단계에 이른다. 이 왕이 재위에 있는 동안 우전은 인접한 迦薩格王을 전쟁에서 물리쳤다. 가살격왕은 불교를 신봉하는 대가로 간신히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딸 阿里迦를 우전왕에게 시집보냈다. 아리가는 스스로 불문에 귀의할 뿐 아니라 蘇納(즉 疏勒, 지금의 카스가일)에서도 불교를 적극 전파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전 불교의 발전은 이미 본국의 범위를 넘어서 주변 여러 작은 나라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밖에 『于闐教法史』의 기록에 따르면, Vijayasemha의 후계자 Vijayakirti 때 우전은 庫贊(Gu-Zan), 迦膩迦(Kanika) 등의 나라와 연합하여 인도를 침입하고 索克德(So-Kid)성을 점령하여 수많은 사리를 약탈하고 귀국 후 弗洛尼(Phro-Nyo) 사원을 지어 보관했다. 바로 이 왕의 집권기에 우전 불교는 국력이 강성해지면서 역사적으로 절정기에 이르렀다. 이후 우전은 끊임없는 외환으로 국력이 큰 타격을 입었고 불교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북위 太平眞君 6년(445)에 吐谷渾이 북위에 패하고 국왕 慕利延은 서쪽으로 流沙를 건너 且末을 지나 우전으로 들어갔다. 그가 이때 우전의 왕과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1년 후에 돌아가면서 우전은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된다(『魏書』「吐谷渾傳」). 북위 獻帝 말년(471)에 柔然이 우전을 침범한다. 우전은 素目伽를 북위로 보내 구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때부터 우전은 유연에 종속된다. 유연 역시 불교를 신봉한 터라 우전의 불교가 크게 파괴되진 않았을 것이나 국력은 분명 큰 타격을 입었다. 서기 5세기 말에는 嚙噠(Ephthalitai)이 흥기하여 유연을 대신해 우전을 통치했다. 『우전교법사』의 기록에 따르면, Druggu部の A-no-shos인이 우전에 쳐들어와 牛角山(Gośrṅga) 남부의 가람 대부분을 불태워서 우전 불

10) 羽溪了諦 著, 賀昌群 譯, 『西域之佛教』, 商務印書館, 1956年, p.221.

교에 막대한 타격을 가했다. 혹자는 이들이 불교를 신봉하지 않은 嚙嚙인일 것이라고 했다.<sup>11)</sup> 이후 우전의 불교는 쇠락의 길로 들어선다. 519년, 惠生과 宋雲이 이곳으로 왔다. 그러나 후대에 전해진 『宋雲行紀』에는 우전 불교의 유행 상황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현장이 644년에 이 나라에 왔을 때, 승려는 5천여 명에 불과해서 법현 때의 수만 명에 훨씬 못 미쳤다. 게다가 그토록 많던 가람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아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대략 Vijayakirti 왕의 통치시기에 우전에 이미 밀교가 유행한 상황이 보인다는 것이다. 『歷代三寶記』에 따르면, 宋 元徽 3년(473)에 사문 法獻이 서역을 순례하면서 우전에서 『妙法蓮花經提婆達多品』과 『觀世音懺悔除罪咒』 경전 원본을 한 권씩 손에 넣었다. 이는 밀교가 이미 그곳에 들어왔음을 말해준다. 이 밀교는 唐代까지 그대로 존재한다. 우전의 사문 提雲般若는 당 天授 2년(691)에 중원으로 들어와 魏나라 東寺에서 화엄부와 밀교부 경전 각 2부를 번역한다. 그는 대승과 소승 두 교파와 주술, 禪門에 모두 통달했다. 羽溪了諦는 당대에 우전에서 화엄부와 밀교부의 경전이 가장 유행했다고 본다. 요컨대, 밀교의 우전에서의 전파는 남북조 때에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4. 龜茲의 불교

위진 시대가 되어 구자(지금의 쿠차)는 이미 姑墨, 溫宿, 尉頭 등의 도시 국가를 합병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치와 경제 역시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국력은 날이 갈수록 강해져 실크로드 北道 상의 대국이 된다. 이 시기에 구자는 서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무대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역할을 수행했다.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현지의 문화전통을 결합한 ‘구자 문화권’이 점차 형성되었고, 구자의 독특한 불교 석굴예술은 서역 문화사에서 색다른 빛을 발휘했다.

기록에 따르면, 구자국은 延城(지금의 쿠차 皮郎 고성)을 도성으로 삼았다. 성은 3중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佛塔廟 천 곳이 있었으며, 왕은 금사자 침상에 앉았다. 이렇듯 구자국의 도성은 불교 문화적 색채가 농후했다(『晉書』 권97, 『魏書』 권102). 일반적으로 구자의 불교는 대략 기원전 1세기 전후에 중앙아시아를 거쳐 들어왔고, 2-3백년의 발전을 거쳐 절정기에 이르러 구자의 정치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불교는 구자의 국교가 되어 역대 왕들의 숭상을 받으며 전파되었고, 그 영향이 주변국 뿐 아니라 멀리 중원까지 미쳤다. 이 시기 초반에 구자의 많은 고승과 거사들이 동쪽의 중원으로 와서 불법을 널리 펼치면서 구자 불교문화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開元釋教錄』 권2의 기록에 의하면, 曹魏 시대에 구자의 사문 白延은 낙양으로 가서 사람들을 교화하고 甘露 3년(258)에 白馬寺에서 대승 경전 『無量清淨平等覺經』 2권과 소승 경전 『除災患經』 1권 등을 번역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구자로 전해진 불교는 소승 위주였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백연이 번역한 불경을 보면, 대승과 소승의 경전이 모두 있었고 최소한 조위

11) 羽溪了諦著, 賀昌群譯, 『西域之佛教』, 商務印書館, 1956年, pp.221-225.

시기에는 구자에 이미 대승의 교리가 퍼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진 永嘉(307-312년) 때 구자의 왕세자 帛屍梨蜜多羅가 출가 후 중원으로 와 建初寺에서 밀교 경전을 번역하고, 진 元帝 연간에 『大孔雀王神呪』 1권과 『孔雀雜神呪』 1권을 번역해서 밀교가 중원에 전해지도록 했다(『고승전』 권1). 帛屍梨蜜多羅의 포교 활동은 구자국에서 대승과 소승 외에 밀교도 유행하고 있었고 일부 왕족이 이를 신봉하기까지 했음을 말해준다. 이 외에 진 武帝 太康 5년(284)에 사문 법호가 번역한 『阿維越致遮經』의 범어 원본은 그가 돈황에 있을 때 구자의 부사 美子侯에게서 얻은 것이다. 법호가 태강 7년(286)에 『正法華經』을 번역할 때 교정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구자 출신의 거사 帛元信이 있었다(『出三藏記集』 권7,8). 이상의 사실들은 구자의 불교가 중원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구자의 많은 승려들이 중원에서 불법을 펼친 것 또한 당시 구자 불교가 대단히 흥성했음을 말해준다.

비록 백연이 중원으로 가져와 번역한 불경 중에는 대승 경전이 네 부, 소승 경전은 한 부뿐이었지만, 많은 자료들이 서기 3-4세기에 도 구자는 여전히 소승 불교 위주의 지방이었음을 밝혀준다. 20세기 초 서방의 탐험대가 이곳에서 발견한 구자문(이른바 을중 토하라어)으로 쓴 불경 중 다수가 소승 說一切有部에 속하는 사본들이다. 현지의 언어와 문자로 불경을 번역한 점은 당시의 불교 특히 소승 불교가 구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해준다. 백연 이후 서진 惠帝(290-306년) 때에도 구자 사문 白法巨와 중국 승려 法立이 불전 4부 12권을 공역했는데, 그중 『大方等如來藏經』만 대승 경전에 속하고 나머지 3부는 모두 소승의 경전이였다. 그래서 일본의 羽溪了諦는 “구자는 예로부터 대승학이 성행했지만 동시에 소승학도 상당한 세력이 있었다. 그리하여 번역한 것이 대부분 소승 경전에 속했지만, 이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고 했다.<sup>12)</sup>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통적으로 구자는 소승 불교 위주의 국가였으나 위진 시기에는 대승도 유행하고 있었고 밀교 또한 어느 정도 유포되고 있었다.

서기 4세기 중엽 구자의 고승 구마라집(343-413년)이 널리 퍼뜨린 데다 그의 명망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구자에서의 대승 불교의 영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구마라집 시대에 구자의 대승 불교가 크게 퍼지고 영향력도 확대되었지만, 소승의 세력이 워낙 두터워 결국 우전처럼 주도적 위치까지는 점하지 못했다. 대신 소승 불교가 구자에서 여전히 우세를 점했다. 구마라집이 귀국 후 王新寺에서 대승의 교리를 익히고 읊은 것을 제외하면, 구자의 불사는 대부분 佛圖舌彌가 통솔하고 비구니들도 그의 법계를 받았다. 불도설미는 본인이 구자 소승의 고승으로서 阿含學을 익혔다. 구마라집도 어렸을 때는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出三藏記集』 권11). 구마라집이 구자에서 불법을 펼침으로써 대승불교의 영향이 확대되긴 했지만, 그것이 구자에서 소승불교의 주도적 위치를 흔들진 못했으며, 구마라집 본인도 소승 세력의 울타리 속에 있었다. 구마라집이 떠난 후 구자에는 소승과 필적할 만한 대승의 고승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략 585년 전후 남인도 사문 달마굽타가 구자에 왔을 때 국왕은 대승불교를 독실히 믿고 있었다(『唐高僧傳』 권2). 이는 대승 불교가 구자에서 일정한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었음

12) 羽溪了諦 著, 賀昌群 譯, 『西域之佛教』, 商務印書館, 1956年, p.271.

을 보여준다. 즉, 위진남북조 시대는 구자의 불교가 대승과 소승이 함께 발전하면서도 소승의 세력이 주가 된 시기라는 것이다. 拜城 키질석굴 열반벽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 제재는 대부분 소승 경전이나 대승 경전의 내용도 있으며, 심지어 대승과 소승 경전의 서로 다른 제재가 한 화면에 출현하기도 한다.<sup>13)</sup> 이 한 가지 사례로도 대승과 소승이 병행 발전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우전은 실�크로드 남도의 불교 중심이고, 구자는 실�크로드 북도의 불교 중심이다. 이곳에는 사원들이 즐비하고 승려들도 수없이 많았다. 『梁高僧傳』 「羅什傳」의 기록에 따르면, 구마라집 시대에 구자의 승려는 1만 명에 달했다. 羽溪了諦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sup>14)</sup> 그러나 불교 중심으로서의 구자의 위치와 당시 수많은 중앙아시아와 서역 여러 나라의 승려들이 바로 이곳의 사찰에서 거주했다는 사실, 여기에 속국인 姑墨, 溫宿, 尉頭 등지의 승려들까지 감안하면, 이 숫자는 비록 정확하지는 않아도 구자의 불교가 그만큼 번성했음은 충분히 설명해준다. 『出三藏記集』에 수록된 『比丘尼戒本所出本末記』에는 “구자국은 절이 무척 많은데 그 장식이 지극히 아름다우며, 왕궁에서 立佛의 형상을 조각해 놓은 것이 불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기록이 있다. 유명한 대사원으로는 승려 170명의 達慕藍, 50명의 致隸藍劍, 60명의 劍慕王新藍, 70명의 溫宿王藍, 90명의 王新僧加藍이 있었다. 구마라집은 이 王新僧加藍에서 대승의 학문을 익혔다. 그밖에도 세 곳의 비구니 절이 있었다. 阿麗藍에는 180 비구니가 있었고, 輸若干藍에는 50비구니가, 阿麗跋藍에는 30비구니가 있었다. 비구니를 위한 전문 불사는 구자에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葱嶺 동쪽의 왕후와 부녀자들 중 다수가 이곳으로 와서 출가했다. 이 역시 구자가 국외의 승려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구자는 또 東西 雀離大寺, 金華寺, 阿奢理貳伽藍, 法華寺 등이 여러 사서에 보이며 작은 것은 부지기수이다. 庫車 지역은 지금도 대량의 불사 유적과 석굴 사원이 보존되어 있다. 예를 들어 키질 석굴군은 이미 번호를 붙인 것만 236개이고, 쿠무투라 석굴군은 번호를 매긴 것이 112개 동굴, 선무삼 석굴군은 번호를 붙인 것이 52개 동굴, 키지가하 석굴군은 번호를 붙인 것이 46개 동굴, 마자보하 석굴군은 비교적 온전한 동굴만 41개, 토라크아이컨 석굴군은 지금의 新和縣 경내에 14개 동굴이 현존하며, 타이타이얼 석굴군은 이미 부서진 동굴 8개만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파스 등의 사찰 유적도 있고, 어떤 석굴군은 사찰 유적을 함께 갖고 있다. 규모가 대단히 큰 이들 불교 동굴과 사찰 유적은 기본적으로 위진남북조 시기에 개착되거나 지어졌다. 이를 통해 당시 구자가 북도의 불교 중심으로서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알 수 있다.

구자가 실�크로드 북도의 불교 중심이 된 것은 구자국 자체 불교의 흥성을 대표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구자 불교가 중원 및 서역의 주변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자의 불교 문화는 개방적이었다. 이런 개방성으로 인해 본국의 승려, 예를 들어 佛圖澄, 구마라집과 그의 어머니 耆婆 등은 서쪽의 인도와 罽賓, 간다라 등지로 구법을 떠날 수 있었고, 鳩摩羅炎, 佛陀耶舍, 盤頭達多, 卑摩羅叉, 曇摩密多, 達摩笈多 등 불법을 전하기 위해

13) 參閱韓翔, 朱英榮, 『龜茲石窟』, 新疆大學出版社, 1990年, pp.36-39. 참고.

14) 羽溪了諦 著, 賀昌群 譯, 『西域之佛教』, 商務印書館, 1956年.



서쪽에서 온 고승들을 예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白延, 帛法祖, 屍梨密, 佛圖澄, 구마라집 같은 구자의 고승들이 동쪽으로 불법을 널리 퍼뜨리면서 중원과 서역의 여러 나라들에 구자의 불교문화를 보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자 불교문화의 독특한 매력은 주변 국가 승려들을 불러들였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구자의 독특한 비구니 사원은 葱嶺 동쪽의 왕후와 부녀자들의 출가를 부추겼고, 溫宿王寺는 온숙왕이 구자에서 불법을 구할 때 세운 사찰일 가능성이 크다. 구자 불교는 서역 특히 고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양고승전』의 기록에 따르면, 서기 4세기 중엽에 고창 승려 法郎이 구자로 와서 구자 왕의 예우를 받았다. 북제 때는 역시 고창의 고승 法惠가 두 차례 구자로 와서 禪律을 배우고 돌아가 불법을 전파하고 백성들을 교도했다(『名僧傳』). 현장이 630년에 구자에 왔을 때 “고창인 수십 명이 屈支(구자)에서 출가하여 한 절에 따로 거주했다.” 이를 통해 고창의 승려와 구자의 관계가 대단히 밀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구자로 가서 학문을 닦고 고창으로 돌아와 불도를 펼치고 구자의 불교문화를 직접 고창으로 가져왔다. 20세기 초에 독일 탐험대가 투루판에서 획득한 대량의 한문 불교 전적 중에 적지 않은 양이 구자 명승들의 譯經이었다. 그 중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으로는 『摩訶般若波羅密經』, 『小品般若波羅密經』, 『阿彌陀經』, 『中論』 등 최소 14종이 있었고, 帛屍梨密多羅가 번역한 『大灌頂經』, 帛法祖가 번역한 『佛般泥洹經』도 있었다.<sup>15)</sup> 이들 한문 불경은 중국 본토에서 전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이들 구자 고승들이 번역한 경전은 분명 구자에서 유행하고 고창 지역에도 있었다. 이는 구자의 불교가 이곳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고창 베제클리크 석굴에서 승려들이 좌선 수행을 하도록 제공된 ‘비가라 굴’은 구조가 구자의 것과 유사하며, ‘구자식’이라 일컬어지는 中心柱 支提窟은 고창의 석굴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구자의 불교는 고창에 대단히 깊은 영향을 미쳤다.

## 5. 焉耆와 疏勒의 불교

구자 외에 疏勒(佉沙, 竭叉라고도 하며, 지금의 카슈가르이다), 焉耆(烏耆, 阿耆尼라고도 하며, 지금의 焉耆이다) 역시 소승불교가 주로 유행한 지역이다. 이곳의 문화는 구자, 우전과 마찬가지로 불교문화의 색채가 농후하다. 범현은 5세기 초에 소록에 왔을 때 “모두가 소승학이다”라는 말로 이 나라를 기록했다. 비록 585년 전후에 남천축 사문 달마굽타가 소록에 2년여를 머물면서 『說破論』, 『如實論』 등의 대승 경전을 강설했지만 그 영향은 미미했다(『속고승전』 권2). 현장이 올 때까지 소록의 승려들은 계속 소승의 說一切有部를 익혔다. 그러므로 위진남북조 시대의 소록국은 기본적으로는 순전히 소승불교 지역이었으며, 소승불교의 이 지역에 대한 영향은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대승학의 명승 須利耶蘇摩와 달마굽타가 대승의 교리를 널리 알렸지만 기존의 뿌리를 흔들 만큼은 아니었다.

소록국에는 수많은 불교 聖物이 있었다. 道安의 『서역기』에 따르면, 서기 4세기 중엽에 소

15) 施密特, 梯樓, 『漢文佛教文獻殘卷目錄』二卷, 『柏林吐魯番文獻叢刊』에 실림, 1985년.

특국에는 赤眞檀木으로 만든 佛浴床이 있어서 왕궁 안에서 왕의 공양을 받았다(『水經注』 권2에서 인용). 구마라집은 계빈에서 불법을 구하고 귀국하던 도중 소록에 머물며 이 나라에 있던 부처의 발우를 보고, 그 모친의 계시를 받아 참배하고 도를 깨우쳤다(『양고승전』 권2). 서기 5세기 초에 중원의 승려 智猛은 불교 유적을 순례하고, 역시 소록에서 구마라집이 깨우쳤던 부처의 발우를 보았다. 아울러 이 발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묘사했다. “(부처의 발우는) 자줏빛 감색으로 빛이 났는데 사방이 모두 그랬다. 맹렬한 꽃향으로 공양하고 경건히 발원하자 발우가 감응을 한 듯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였다. 이윽고 그 경중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고, 상에서 내리자 다시 무거움이 느껴지지 않았으니, 그 道心の 감응이 이와 같았다.”(『出三藏記集』 권15) 법현은 400년에 竭叉(소록)에 가서 이렇게 적었다. “그 나라에 부처의 唾壺가 있는데, 돌로 만들었고 색은 부처의 발우와 비슷했다. 또 부처의 치아도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이 부처의 치아를 위해 탑을 세웠다.”(『법현전』 권1) 465년 전후에 소록왕은 중원으로 사신을 보내 석가모니불의 가사 한 벌을 바쳤다. 이 가사는 “활활 타오르는 불에 놓아도 종일토록 그슬리지 않았다.”(『北史』 권97) 이상의 史實로 보건대, 소록국에는 부처의 성물을 수집하고 숭상하는 전통이 있었고, 또 그것에 의탁하여 참배를 하고 도를 깨우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소록 불교의 상당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전, 구자 등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록에서도 불교는 국왕의 신봉과 지지를 얻었다. 앞서 언급한 佛浴床이 바로 소록 왕이 왕궁에 두고 온 마음으로 공양을 드린 것이다. 구마라집은 소록에 있을 때 국왕의 요청으로 『轉法輪經』을 강설했다. 법현은 소록 왕이 불교를 숭상하고 널리 전파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했다. “국왕은 般遮越師를 만들었다. 반차 월사는 중국어로 하면 5년의 대회이다. 대회 때 사방의 사문이 모두 초청되어 구름같이 모였다. 전부 모이면 승려들이 앉는 자리를 장엄했다. 비단 幡蓋를 걸고 금은의 연화를 만들어 비단 자리에 붙인 후 坐具를 깨끗이 깔았다. 왕과 군신들은 법공양의 경우 1월, 2월 혹은 3월로 대부분 봄에 했다. 왕은 대회를 마치면 다시 군신들에게 함께 공양할 것을 권하였는데, 1일, 2일, 3일, 5일 내지 7일까지 이어졌다. 공양이 모두 끝나면 왕은 자기가 타는 말에 안장을 깔고 고삐를 묶어 스스로 시중을 들고 貴臣과 重臣들로 하여금 그것을 타도록 했다. 아울러 흰 고삐와 갖가지 진귀한 보물, 사문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로 신하들과 함께 발원하고 보시했다. 보시가 끝나면 승려를 따라 속죄했다. 그곳은 땅이 차서 다른 곡식은 나지 않고 오직 익은 보리만 있었다. 승려들이 나이를 받으면 그 새벽에는 곧 서리가 내렸다. 그래서 왕은 매번 승려들을 칭찬하며 보리가 익은 후에 나이를 받도록 했다.” 그 경건한 마음이 얼마나 세심했는지 알 만하다. 이처럼 소록 왕이 진심으로 부처를 신봉하고 힘껏 퍼뜨렸기 때문에 불교가 소록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현장 때까지 소록의 승려는 법현 때의 천여 명에서 1만 여명으로 늘었고 가람도 수백 곳이나 되었으며, 승려의 수는 같은 시기 구자 등의 나라를 이미 넘어섰다. 명실상부 불교의 대국이 된 것이다.

焉耆 역시 소승 불교 위주의 지역이다. 5세기 초에 이곳에는 4천여 명의 승려가 있었으며 모두 소승학을 배웠다(『법현전』 권1). 7세기 상반기까지도 언기에는 10여 곳의 가람에 2천여

명의 승도가 여전히 소승학의 일체유부를 익혔다(『대당서역기』 권1). 사료의 부족으로 2백여 년 사이에 연기 불교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상세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소승불교가 위진남북조 시대 연기의 역사문화 발전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며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연기와 구자는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두 지역은 풍속, 혼례, 장례, 물산 등의 모습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북사』 권97). 연기어(토하라어 A)와 구자어(토하라어 B)는 모두 인도 유럽어계의 Centum어에 속하며, 둘 다 브라흐미 자모의 기울임 글씨를 사용한다. 둘의 차이점은 방언의 차이 밖에 없다. 20세기 초 서방 탐험가들은 연기에서 구자문의 사본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이는 연기에 대한 구자 문화의 영향을 반영한다. 1950-1960년대 중국 고고학 연구자들은 연기의 고대 불사 유적에서 간다라 예술 품의 불교 조각상을 대량으로 발견했다.<sup>16)</sup> 간다라 예술의 영향이 여기까지 미친 것은 구자 불교문화가 영향을 준 결과임에 분명하다.

위진남북조 시기 서역 불교는 3-4백년의 발전과정을 거쳐 실크로드 남도에서는 우전이 주가 된 대승불교의 중심을 형성하고, 실크로드 북도에서는 구자가 주가 되면서 연기와 소륙을 포함한 소승불교의 중심을 만들어냈다. 이 둘이 함께 서역 불교의 문화권을 형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중심 속에서 우리는 소승 혹은 대승의 유행 상황을 모두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곳의 ‘중심’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문화권 내에서 불교문화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채 현지 백성들의 일상생활 각 방면에 깊은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이들 문화는 하나같이 中西 문화와 현지 문화 전통 결합하여 만들어진 산물이다. 바꿔 말하면, 우전과 구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역 불교문화권 역시 중국과 서방의 문화가 서역에서 모이고 융합하고 현지 사람들의 흡수와 개조를 거쳐 각자의 지방 특색을 지닌 채 형성된 문화권으로서 당시 서역 문화의 중요한 구성성분이었던 것이다.

번역 : 정광훈

16) 유물은 현재 신장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TAXILA—Gateway to Sub-Continent

Abdul Nasir Khan | Pakistan Taxila Museum curator

Taxila is situated about 32 kilometers North West of Capital Territory Islamabad. Taxila is the name of the region to south east of ancient Gandhara across the Indus. This name was use for the first time in the classical sources. The original name of the city was Takshasila, which is Sanskrit word and combination of two words, Taksha and Sila, which mean serpent and hills. Another idea is that the area was ruled by the Naga King, hence the name given meaning the hills of the serpents. Chinese pilgrim Fa Hian visited to Taxila in 400 A.C. called to Taxila in his account Chu Sha Shi lo. Another very famous Chinese visitor Hiuen Tsang, who visited Taxila in the 7th century A.C. He names the region of Taxila as Ta Chi Shilo.

The Taxila valley is almost bowed in shape, lying at the foot of the Muree hills. From northern and southern sides the valley is closed to the long wings of the Sarda and Margalla hills.

The legendary history of Taxila goes back to the remotest antiquity. The Ramayana gives glowing accounts of the wealth and magnificence of the city and reveals that Taxila and Pushkalavati were founded simultaneously by Bharata who was the younger brother of Rama. He nominated his son on Taksha as a ruler of Takshasila and another son Pushkala as the ruler of Pushkalavati.

The Buddhist literatures tell us that Taxila was a great center of education and the house of world famous teachers. Thus the legendary history of Taxila goes back to millions of years, I will discuss the legends in light of actual discoveries as a result of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s and on the bases of cultural material and circumstantial evidences available to us as a result of serious efforts of the research scholars.

In proto historic period Taxila was not Indus city, but it has great contribution during the formative stage, popularly known as early Harappan or the Kot Dijian culture. The proto historic period of Taxila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first phase is Pre

Bronze Age Culture, before 2800 B.C., second phase is Bronze Age Culture, 2800 to 1500 B.C. and third phase is Late Bronze and Early Iron Age Culture dating 1000 B.C. The evidence of Neolithic culture and Kot Dijian culture was found at Sarai Khola on the main Grand Trunk Road. Another very important site in the Taxila valley is the Hathial site situated one kilometer east of the Taxila Museum covered three important occupational periods, Kot Dijian Period, Gandhara Grave level and early Historic period.

The historic period of Taxila begins with the conquest of the region by the Achaemenian of Persia in the 6th century B.C. In an inscription going back to 519 B.C. in the time of Darius 1, Gandhara was included in the Persian Empire. In 3rd century B.C. Alexander the Great conquer the Achaemenain Empire and gradually marched to India. Alexander defeated Darius III in 330 B.C. and smoothly marched to Afghanistan and India. He only faces some resistance from the people of Swat. In 326 B.C. he crossed the Indus and entered in the kingdom of Raja Ambhi. According to Alexander historian in that time Taxila city was the greatest city that laid between the river Indus and Jehlam. Raja Ambhi was a local king and he was a wise person knew that he cannot offer any type of resistance and he invited Alexander and well come him. The historic association of Taxila with Greece has great importance. Greek historian who accompanied Alexander the Great on his way to India give useful detail of the greatness and prosperity of Taxila. It was at Taxila that Alexander the Great stopped and refreshes his army before resuming punitive advance on Porus.

Before leaving Taxila Alexander appointed Philip as a representative with a garrison of soldiers. In 325 B.C. Philip was murdered by his own army. Greek ruled only three years in Taxila. When Alexander died in 323 B.C. Taxila again came into independent under the King Ambhi. In 317 B.C. Chandragupta founder of Maurya Dynasty captured Taxila. Chandaragupta Maurya captured most part of India and he established one of greatest empire in that time, which extended from Afghanistan to Bengal. Mauryan rule in Taxila is very clear but when they exactly captured Taxila is unknown. We can say that within ten years of from departure of Alexander Taxila was an integral part of the Mauryan Empire. According to Jain tradition Chandragupta Maurya was succeeded by his son Bindusara. During this period Asoka son of Bindusara was nominated as Governor of Taxila. After a death of Bidusara his son Asoka came into power.

After Kalinga war, in which more than 100,000 people were killed brought great

change in Asoka and he converted to Buddhism in about 262 B.C. Asoka was not only a great ruler but also he was a great philosopher. He dedicated his life to the propagation of Buddhism. He redistributed the Ashes of Buddha in hundreds of stupas. According to Tibetan tradition Asoka died at Taxila in 232 B.C. and his son Kunala came into power. After the death of Asoka Maurya Dynasty slowly and gradually became weak and last Mauryan king was murdered by his own General Pushyamitra in about 184 B.C. who founded Sunga Dynasty.

Indo Greek came to Taxila in 160 B.C. Manender has extended the Greek kingdom to Kabul and the whole of Punjab. During the period from 160 B.C to 140 B.C. In 189 B.C. Demetrius succeeded his father Euthydemus and proceeded to conquer Gandhara the Punjab and Indus valley. He made Taxila his capital. Manendar was a great Indo Greek king. He was a brilliant general and a successful administrator. Several kings of Bactrian Greek ruled in Taxila and they also established Sirkap the 2nd city of Taxila which was typical Greekcity.

Greek rule ended with the invasion of the Scythians Sakas. Sir Jan Marshall wrote that Taxila captured by Scythians in 80 B.C. The most famous king of Sakas was Maues who established himself in Gandhara. In 50 B.C. Parthians defeated Indo Greek and took control in Afghanistan. Sir Jon Marshall writes that “the opening of trade routes through Parthia connected India with the Mediterranean and facilitated the import of trade articles. The import from the west was of Graeco Roman manufacture and reached Taxila by great trade routes from Syria and Egypt. Among those imported into India included in particular silk from China linen from Syria and Egypt gold and silver jewelry.

Around 75 A.C one of the tribe Kushan under the leadership of Kujula Kadphises take control of Gandhara and other part of present Pakistan. The Kushan period is considered the golden period of Gandhara. Kanishka was a great king of Kushana period and after Asoka he was the most vocal and great patron of Buddhism. It was mainly due to him that the Buddhist religious art received support of royal house and elite equally. During this period thousands of Buddha and Bodhisattvas images were created and hundreds of Jatakas were narrated by sculpting the soft schist stone. The capital city again transferred from Sirkap to Sirsukh during Kushan rule. Marshall has mentioned important rules of the great Kushan, which include Kaniska I, Vasashka, Kanishka II, Huvishka, and Vasudeva.

Sassanian captured Taxila in the 3rd century A.D. and it was the time when Buddhism received setback for some time. According to Marshall, Ardashir-i-Babagan was the founder of the Sassanid dynasty of Persia. Sassanians could not establish themselves in the region and sometime later Shapur II invaded Kabul valley, Gandhara and Punjab in 350 and 358 A.D. and established Persian kingdom in Taxila. Soon another branch of the Kushan known as the Kidara Kushan re captured the Taxila and once again Buddhism found official patronization. In the early Kushan period Gandhara was famous for stone sculptures but in the late Kushan period Taxila specially greatly excelled in stucco and artists produced highly specimen of religious art in stucco. Buddhist religion and art both received harsh treatment at the hands of the White Huns when this tribe from Central Asia invaded this region in 5th century A.C. They destroyed mostly the Buddhist Stupas and monasteries and killed thousands of Buddhist population. When Chinese pilgrim Haun Tsang visited Taxila in 7th century A.D. in that time Buddhism was declined and the third city of Taxila Sirsukh was destroyed by White Huns and mostly the stupas and monasteries also destroyed by White Huns. Some scholars are sure that the Hindu played very vital role in eliminating Buddhist religion and their religious establishments.

The most important period of Taxila is Buddhist period. Buddhism was founded by Gautama Buddha in 6th century B.C. When Asoka converted to the Buddhism in 262 B.C. Buddhism received the dignity of a state religion and spread to other parts of the Sub Continent. Asoka had sent Buddhist missionaries to preach Buddhism in various parts of his kingdom and even beyond his borders. Madhyantika, a Buddhist monk sent by Asoka to Gandhara and Kashmir in 256 B.C. to introduce a new faith among his subjects on the North West Frontier. With the efforts of the monk Buddhism became the popular religion of Gandhara. Buddhism received a temporary setback after the death of Asoka, but soon the faith found new patrons amongst the Greek who succeeded the Mauryan around 185 B.C.

The Greek rule lasted after one hundred years ruling and they followed by Scythians in 1st century B.C. The new dynasty also support the Buddhism and continued to patronize this religion. The short rule of Parthian also continue to flourished Buddhism and Buddha faiths. The Kushan arrival to Gandhara gives new life to the Buddhism and its faith. The most important changed of this period was that of the shifting of the capital from Bactria to Gandhara, which occurred great changes in Gandhara culture.



During the Kushana period, Kanishka was the strongest king, who devoted his life and efforts to the promotion of Mahayana Buddhism and the Buddhist art of Gandhara.

Religion has always been great source of art. The Buddhist sanctuaries now mostly in complete ruin have produced a large number of sculptures and higher precious art specimen of the great period between 1st to 7th century A.D. Gandhara art was mixture of east and west. Some motifs and techniques have been borrowed from western classical art.

Taxila was very sacred place of Buddhism and here were several Buddhist sanctuaries were attracted people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 search of reality, monks from other countries used to visit these monasteries to get knowledge and collect Buddhist scriptures. Taxila is still attractive for the followers of Buddhism, while the art lovers die for Gandhara art specimens, which attract th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 THREE CITIES OF TAXILA.

#### BHIR MOUND:—

The city of Bhir Mound was founded by Achaemenian Persian Empire in the 6th century B.C. It was a very big city but very small portion of the site has been excavated. According Marshall Bhir Mound looked similar to present day Pakistani village. Drains in the street seem to be for rain water only. There were no well in the city, so water was carried from the river, east of the site. Alexander the Great stayed in this city in 3rd century B.C. He was invited by local king Raja Ambhi. Alexander was halted for some time in this city and he refreshed his army before attack on Raja Porus.

#### SIRKAP:—

The second city of Taxila was established by Indo Greek in the 2nd century B.C. When Indo Greek came into power in Taxila they transfer their capital from Bhir Mound to Sirkap. Sirkap was typically Greek city. It is situated 3 kilometers northeast of Taxila museum.

The city was surrounded by a wall. Total length of this wall was five kilometers, it was 6 to 9 meters high and 6 meters thick, with square bastions. The main street of the city was 700 meters long and started offset from the main entrance to the north gate.

The city is divided into blocks and almost in every block there was a Jain or Buddhist stupa. The large Buddhist apsidal temple takes up an entire block, and was rebuilt over the ruins of an earlier temple after the earthquake of 30 AD. A block away, on the same side was a Shrine of the double-headed eagle, only the base survives. This first century AD stupa shows a mixture of Greek and Indian influences in decoration. The double-headed eagle motif was found in early Babylon and in Sparta, which was later adopted by the Scythians

#### SIRSUKH:—

It was the third and last of Taxila's three cities, which thrived between 2 AD to 5 AD. Sirsukh was the regional capital of the Kushans. The site is 5 kilometers from the Museum along the main road towards Khanpur. A signpost in English reads 'Sirsukh remains', where you turn left; half a kilometer later the road ends and you walk another half. However you can drive all the way too, the gravel track is not bad.

Sirsukh City was a 1.5 x 1.5 kilometers square, laid-out on flat ground and surrounded by a wall. Only a section of the southeast corner of the outer city wall has been excavated. It was originally 6 meters (20 feet) thick and neatly faced in limestone, with semi-circular bastions at 30-meter (100 feet) intervals, which were several stories high and had slits on every floor for shooting arrows. The quality of workmanship is evident from 10 feet high and wider base that remains of the wall.

The Kushans had built this new city for three reasons:

- A plague had wiped out half the population of Sirkap soon after their arrival.
- The Kushans of Mongol origin were not accustomed to the Greek City plan.
- It was an accepted tradition and a matter of prestige, that conquerors should establish a new city.

## [BIBLIOGRAPHY]

- Ahmad, Nazimuddin, 1967. A fresh study of the fire temple at Taxila, *Pakistan Archaeology*, 4, 153–9.
- Allchin, Bridget, and Alchin, F. R., 1982. The rise of civilization in India and Pakistan.
- Alchin, F.R., 1968. Archaeology and the date of Kanishka: the Taxila evidence in Besham, A.L. paper on the date of Kanishk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enter of Oriental Studies, Oriental monographs Series, iv, Leiden, 4–34
- Berger, E. and ph. Wright (1941) Excavation in Swat and Exploration in the Oxus Territories of Afghanistan. A Detailed Report of the 1938 Excavation. MASI, 64. Calcutta.
- Brown, P., Indian Architecture (Buddhist and Hindu Period), 3rd ed, Bombay 1959.
- Burgess, James, 1899. Gandharan sculptures, London.
- Callieri, P. Saidu sharif I, The Buddhist Sacred Area. The Monastery, 1989.
- Callieri, Pierfrancesco, 1984a. A potsherd with Greek inscription from Bir–Kot Swat. *Journal of Central Asia*, VII. 49–53.
- Callieri, P. Saidu sharif I, The Buddhist Sacred Area. The Monastery, 1989.
- Craven, Roy, C. Indian Art. A Concise History. 1980.
- Dani, A.H., Excavation at Chat Pat. Ancient Pakistan, Bulletin of the Department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Peshawar, Vol., IV – 1968–1969.
- Dani, A.H., Excavation at Andan Dheri. Ancient Pakistan, Bulletin of the Department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Peshawar, Vol. IV, 1968–1969.
- Dr. Khan Ashraf, M. Buddhist Shrines in Swat
- De Marco G. The Stupa as a Funerary Monument. New Iconographical Evidence. In East and West (Rome), Vol. 37, 1987, pp. 191 – 246.
- Faccenna, Domenico, Butkara I (Swat Pakistan) 1956–1962, Part 2 1980.
- Faccenna, Domenico. Butkara I (Swat Pakistan) 1956–1962, Part 3, 1980.
- Faccina, Dommennico, Ahmad Nabi Khan. Panr I (Swat Pakistan), 1993.
- Faccena, domminico, Reports on the Campaign 1956–1958 in Swat (Pakistan).
- Mission Scientific, Kyoto University. Gandhara, Preliminary Report, on the comprehensive Survey of Buddhist sites in Gandhara. 1983–1984.
- Marshall, J. Tixala, Structural Remains, Vol., I– 1951.
- Marshall, Sir, John, 1960. The Buddhist Art in Gandhara, Memoirs of the Department of Archaeology in Pakistan. Cambridge.
- Marshall, Sir, John, 1920, Excavation at Taxila, 1914–15,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n, Annual Report, 1914–15 Calcutta, 1–35.
- Nabi Khan, A., Buddhist art and architecture in Pakistan, Islamabad 1976.
- Olivieri, M.L. Bir–Kot–Ghwandai Interim Report I, the Survey of the Bir Kot Hill, 2003.
- Qamar, Mian Said. A preliminary report on the Excavation of the Buddhist site at Nawagai, Tehsil Barikot, Swat. East and West.

- Qamar, M.S. – Khan M.A. Preliminary Report on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s of Buddhist site in Swat N.W.F.P. 1998–90. In *Journal of Central Asia*, Vol. No. 2, 1991, pp. 173–234.
- Rahman, A. Butkara III. A preliminary report. In *South Asian Archaeology 1987*. Vol. LXVI, Rome Part 2 1990.
- Stein, M. A. (1930) *An Archaeological Tour in Upper swat and Adjacent Hill Tracts*. MASI, 42. Calcutta.
- Tucci, G. (1958) Preliminary Report on an Archaeological Survey in Swat (Pakistan) EW, 9, 4, pp. 279–328.
- University Kyoto, Scientific Mission to Gandhara. Gandhara. ` Preliminary Report on the Survey of Buddhist Sites in Gandhara, 1983–1984.

## 亞大陸으로 가는 관문-탁실라

압둘 나지르 칸 | 파키스탄 탁실라 박물관 큐레이터

탁실라(Taxila)는 이슬라마바드 수도권에서 북서쪽으로 32km에 위치하고 있다. 탁실라는 고대 간다라의 남동부로 인더스 강 건너편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다. 이 지명은 고전 자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도시의 본래 지명은 큰 뱀을 의미하는 딱샤(Taksha)와 고지(高地)를 의미하는 실라(Sila), 이 두 단어의 결합인 딱샤실라(Takshasila)이다. 지명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는 이 지역이 나가(Naga)왕에 의해 통치되었던 적이 있어서 큰 뱀들의 고지(高地)라는 의미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중국인 순례승 법현(法顯)은 기원후 400년에 탁실라를 방문하였고, 탁실라를 Chu Sha Shi lo라고 불렀다. 다른 유명한 중국인 순례승 현장(玄奘)은 기원후 7세기에 탁실라를 방문하였고, 탁실라 지방을 Ta Chi Shi lo라고 불렀다.

탁실라 계곡은 거의 활 모양으로 휘어진 형태로 머리(Murree)언덕의 기슭에 펼쳐져 있다. 탁실라 계곡은 북쪽과 남쪽에 사르다(Sarda)언덕과 마르갈라(Margalla)언덕의 긴 능선에 접해있다.

탁실라의 전설적인 역사는 가장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마야나(Ramayana)』는 그 도시의 찬란했던 풍요로움과 장엄함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라마의 남동생이었던 바라타(Bharata)가 딱샤실라(Takshasila)와 뿌쉬칼라와띠(Pushkalavati)를 동시에 건설했다고 밝히고 있다. 바라타는 그의 두 아들 중 딱샤를 딱샤실라의 통치자로 임명하였고, 뿌쉬칼라를 뿌쉬칼라와띠의 통치자로 임명하였다.

불교 문헌들은 탁실라가 교육의 최고중심지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승들의 본고장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탁실라의 전설적인 역사는 수백만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본고에서는 고고학적 발굴로 인한 실제 발견물들에 비추어, 그리고 학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한 문화적 자료와 추정적 증거들에 기초하여 전설들을 검토할 것이다.

원사시대(原史時代)에 탁실라는 인더스 강 유역의 도시는 아니었지만, 초기 하라파(Harappa)와 코트 디지(Kot Diji) 문화로 널리 알려진 형성기동안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탁실라의 원사시대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원 전 2800년 전인 초기 청동기 시대 문화이고, 두 번째 단계는 기원전 2800년에서 1500년까지의 중기 청동기시대 문화이며,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기원전 1000년경의 후기 청동기와 초기 철기시대 문화이다. 신석기시대 문화와 코트 디지 문화의 증거는 Grand Trunk Road에 있는 사라이 콜라(Sarai Khola)에서 발견되었다. 탁실라 계곡의 또 다른 중요한 유적은 탁실라 박물관에서 동쪽으로 1km에 위치하는 하티알(Hathial) 유적이다. 이것은 중요한 세 점령기인 코트 디지 시대와 간

다라 묘장(墓葬) 문화 단계, 그리고 초기 역사시대를 다 포함한다.

탁실라의 역사시대는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Achaemenes) 왕이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시작된다. 다리우스(Darius) 1세 시대인 기원전 5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 비문에 따르면, 간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 포함되었다. 기원 전 4세기에 알렉산더(Alexandros) 대왕은 아케메네스 제국을 정복하고 서서히 인도로 진군하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0년에 다리우스 3세를 물리치고 아프가니스탄과 인도를 향해 순탄하게 진군하였다. 스왓(Swat)지방 사람들만 그에게 저항했을 뿐이었다. 기원전 326년에 그는 인더스강을 건너 암비왕(Raja Ambhi)이 다스리는 왕국에 진입하였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의 사학자에 따르면, 탁실라는 인더스 강과 젤룸 강 사이에 있는 최고의 도시였다. 작은 지방을 다스리던 암비왕은 어떤 식으로도 알렉산더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알렉산더를 초대하여 반갑게 맞이하였다. 탁실라와 그리스와의 역사적 결합은 대단히 중요하다. 알렉산더 대왕을 수행하던 그리스인 사학자는 인도로 오는 길에 탁실라의 위대함과 번영에 대해 상세히 말해주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포루스(Porus) 왕을 향한 진격을 재개하기 전에 진격을 멈추고 그의 군대를 재정비하였던 곳이 탁실라였다.

알렉산더는 탁실라를 떠나기 전에 필립(Philip)을 주둔병의 대표로 임명하였다. 기원전 325년에 필립은 자신의 군대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그리스는 탁실라에서 3년밖에 통치하지 못하였다.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더가 사망했을 때 탁실라는 다시 암비 왕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기원전 317년에 마우리아(Maurya) 왕조의 창시자인 찬드라굽따(Chadragupta)가 탁실라를 점령하였다. 찬드라굽따 마우리아는 인도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과 벵골에 이르는 당시로서는 최대의 제국 중 하나를 창건하였다. 탁실라에서 마우리아 왕조가 통치를 했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언제 탁실라를 점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알렉산더가 떠난 후 10년도 안되어서 탁실라는 마우리아 제국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자이나교 전통에 따르면, 찬드라굽따 마우리아는 그의 아들 빈두사라(Bindusara)에게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 시기에 빈두사라의 아들인 아소까(Asoka)는 탁실라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빈두사라의 사망 후에 그의 아들 아소까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십만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깔링가(Kalinga) 전투를 통해 아소까는 크게 변화하게 되어 기원전 262년경에 불교에 귀의하였다. 아소까는 훌륭한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철학자였다. 그는 그의 삶을 불교 포교에 바쳤다. 그는 수백 개의 스투파에 붓다의 사리를 재분배하였다. 티벳 전통에 따르면, 아소까는 기원전 232년에 탁실라에서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꾸날라(Kunala)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아소까의 사망 후에 마우리아 왕조는 서서히 쇠퇴하였고, 마우리아 왕조의 마지막 왕은 자신의 군사령관이자 기원전 184년에 숭가(Sunga) 왕조를 창건한 뿌샤미뜨라(Pushyamitra)에 의해 살해되었다.

인도-그리스인은 기원전 160년에 탁실라에 들어왔다. 기원전 160년에서 140년에 걸쳐 메난드로스(Menander)는 카불과 뽕잡 전체에까지 그리스 왕국을 확장시켰다. 기원전 189년에 데메트리오스(Demetrius)가 그의 아버지인 에우티데모스(Euthydemus)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였고, 간다라 지방과 뽀잡 지방, 그리고 인더스 강 유역을 계속해서 정복하였다. 데메트리오스는 탁실라를 수도로 정하였다. 메난드로스는 훌륭한 인도-그리스 왕으로, 뛰어난 장군 이면서 훌륭한 행정관이었다. 박트리아-그리스의 몇몇의 왕들도 탁실라에서 통치를 했으며, 그들 또한 탁실라의 두 번째 도시이자 전형적인 그리스 도시였던 시르캅(Sirkap)을 건설하였다.

그리스의 통치는 스키타이의 사카족(Saka)의 침략으로 막을 내렸다. 존 마샬(John Marshall)은 탁실라가 기원전 80년에 스키타이족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사카의 가장 유명한 왕은 간다라에 자리매김한 마우에스(Maues)였다. 기원전 50년에 파르티아족은 인도-그리스를 정복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존 마샬은 “파르티아를 통한 통상로의 개통은 인도를 지중해와 연결하였고 무역 상품의 수입을 촉진하였다. 서양으로부터의 수입품은 그리스 로마 제품하였고, 시리아와 이집트에서 거대한 통상로를 통해 탁실라에 들어왔다.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중국산 비단과 시리아와 이집트산 아마 섬유, 그리고 금은 세공품이 포함된다.”라고 기록하였다.

기원전 75년경에 쿠줄라 카드피세스(Kujula Kadphises)가 이끌던 꾸산족(Kushan)이 간다라와 현재 파키스탄의 한 부분을 장악하였다. 꾸산 왕조 시대는 간다라의 황금기라고 간주된다. 까니쉬까(Kanishka)는 꾸산 왕조 시대의 위대한 왕이었고, 그는 아소까 다음으로 불교의 큰 후원자였다. 불교의 종교적 예술이 왕실과 엘리트 계층의 후원을 받은 것도 대부분 그로 인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수천 개의 불상과 보살상이 조성되었고, 수백 개의 본생경(本生經)이 부드러운 편암에 새겨졌다. 수도는 꾸산 통치 동안 시르캅에서 시르수흐(Sirsukh)로 다시 옮겨졌다. 마샬은 꾸산 왕조의 위대한 통치자들 즉, 까니쉬까 1세, 바시쉬까(Vasishka), 까니쉬까 2세, 후비쉬까(Huvishka), 그리고 바수데바(Vasudeva)에 대해 언급하였다.

사산족(Sassan)은 기원후 3세기에 탁실라를 점령하였는데, 불교가 한동안 타격을 받았던 때가 이때였다. 마샬에 따르면, 아르다시르 이 바바간(Ardashir-i-Babagan)이 페르시아 사산 왕조의 창시자였다. 사산족은 그 지역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했는데, 기원후 350년과 358년에 샤푸르(Shapur) 2세가 카불 계곡과 간다라, 그리고 뽀잡을 침입하였고 탁실라에 페르시아 왕국을 건설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끼다라 꾸산(Kidara Kushan)으로 알려진 꾸산의 또 다른 분파가 탁실라를 재점령하였고, 다시 불교는 공식적인 후원을 받게 되었다. 초기 꾸산 왕조 시대에 간다라는 석조각으로 유명하였으나, 후기에 접어들면서 탁실라는 특히 치장벽토에서 두각을 나타내었고, 예술가들은 치장벽토에서 우수한 종교적 예술작품을 내놓았다. 불교의 종교와 예술은 기원후 5세기에 중앙아시아에서 이 지역으로 침입해 온 훈족으로부터 심하게 압박을 받았다. 훈족은 불탑과 사찰을 파괴하고 수천의 불교도를 살해하였다. 중국인 순례자 현장(玄奘)이 기원후 7세기에 탁실라를 방문하였을 그 당시에 불교는 쇠퇴하였고, 탁실라의 세 번째 도시인 시르수흐가 훈족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대부분의 불탑과 승원 또한 그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힌두교도가 불교와 불교시설물을 제거하는 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다고 확신한다.

탁실라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불교관련 시기이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에 고파마 붓다에 의해 창시되었다. 아소카가 기원전 262년에 불교로 귀의하였을 때 불교는 국교로 숭상되었고 아(亞)대륙의 다른 지역에도 퍼져 나갔다. 아소카는 불교를 포교하려고 그의 왕국의 다양한 지역과 심지어 국경 너머에 있는 지역까지 불교 포교자들을 보냈다. 아소카는 기원전 256년에 북서 국경지방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앙을 전하고자 간다라와 카슈미르에 불교 승려 마드얀띠까(Madhyantika)를 보냈다. 승려들의 노력으로 불교는 간다라의 민중종교가 되었다. 불교는 아소카의 사망 후에 일시적인 퇴보가 있었지만 오래지 않아 기원전 185년경에 마우리아 왕조를 이은 그리스인들 가운데 새로운 후원자들을 찾았다.

그리스인의 통치는 100년간 계속되었고, 기원전 1세기에 스키타이족들이 뒤를 이었다. 이 새로운 왕조 또한 불교를 옹호하여 불교를 계속적으로 후원하였다. 파르티아족의 짧은 통치 때에도 불교와 불교 신앙은 계속해서 번성하였다. 간다라에 꾸산족의 도래는 불교와 불교 신앙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박트리아에서 간다라로 수도를 옮긴 것인데, 이것은 간다라 문화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꾸산 왕조 시대에 까니쉬카는 가장 강력한 왕으로, 그는 대승불교와 간다라 불교미술의 발전에 그의 일생을 바쳤다.

종교는 항상 예술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왔다. 현재 완전히 폐허가 된 불교 성지에서 기원후 1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수많은 조각 작품들과 아주 귀중한 미술 작품이 나왔다. 간다라 미술은 동서의 융합이었다. 어떤 테마나 기법은 서방의 고전 미술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탁실라는 불교의 성지이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불교 성소가 몇몇 있다. 다른 나라의 승려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불교 경전을 수집하려고 이 승원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탁실라는 여전히 불교도의 이목을 끌고 있고 한편 미술 애호가들은 온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킨 간다라 미술 작품에 매료되었다.

### 탁실라의 세 유적지

비르 마운드(Bhir Mound):

비르 마운드의 도시는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황제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것은 아주 큰 도시였으나 아주 작은 부분의 유적만 발굴되었다. 마샬에 따르면, 비르 마운드는 오늘날의 파키스탄 마을과 유사하다고 한다. 거리의 배수시설은 빗물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도시에는 우물이 없어서 도시 동쪽에 있는 강에서 물을 끌어왔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세기에 그 지방의 왕이던 암비에게 초대되어 이 도시에 머물렀다. 알렉산더는 이 도시에서 잠시 군대를 머무르게 하고 포루스 왕을 공격하기 전에 그의 군대를 재정비하였다.

시르캅(Sirkap):

탁실라의 두 번째 도시는 기원전 2세기에 인도-그리스인에 의해 건설되었다. 인도-그리스인이 탁실라의 정권을 장악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수도를 비르 마운드에서 시르캅으로 옮겼



다. 시르캅은 전형적인 그리스 도시였다. 그것은 탁실라 박물관에서 북동쪽으로 3km에 위치하고 있다.

시르캅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성벽은 총 길이가 5km이고, 높이는 6-9m, 그리고 두께는 6m이며 정방형 요새를 갖추고 있었다. 그 도시의 중심도로는 길이 700m이고 북문으로 가는 중앙 출입구에서 갈라져 나왔었다.

그 도시는 블록으로 구획되었고 거의 한 블록마다 자이나교나 불교의 사리탑이 모셔져 있었다. 거대한 불교 사원인 압시달(apsidal)은 한 블록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원후 30년에 있었던 지진 이후에 옛 사원터 위에 재건축된 것이다. 한 블록을 지나면 같은 쪽에 쌍두취탑(雙頭塔驚)이 있는데 기단만 남아있다. 기원후 1세기의 불탑은 장식에 있어서 그리스와 인도 영향의 융합을 보여준다. 쌍두취(머리가 두 개인 독수리)라는 주제는 이전의 바빌론과 스파르타에서도 발견되는데, 이것은 이후에 스키타이족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 시르수흐(Sirsukh):

시르수흐는 탁실라의 세 유적지 가운데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시로서 기원후 2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번창했었다. 시르수흐는 꾸샨의 지역적 수도였다. 이 유적은 칸뿌르(Khapur)쪽으로 나있는 중심 도로가의 박물관에서 5km지점에 있다. 왼쪽 방향 표기가 되어있는 꺾은 말은 영어로 “Sirsukh remains(시르수흐 유적)”이라고 써어 있고, 500m를 가면 도로가 끝이 나므로 500m를 다시 걸어오면 된다. 자갈길이 험하지는 않으므로 차로 운전해서 갈 수도 있다.

시르수흐 도시는 1.5평방킬로미터이고 평평한 땅에 펼쳐져 있으며 성곽에 둘러싸여져 있었다. 도시 외곽의 남동쪽 모퉁이의 일부만이 발굴되었다. 그것은 원래 6m 두께로 석회암을 반반하게 깎은 것이고 30m의 간격을 둔 반원형의 요새를 갖추고 있는데 이 요새는 대여섯 층의 높이에 각 층마다 화살을 쏘기 위한 구멍이 있다. 제작 기술은 10피트 높이와 성곽의 잔존물인 넓은 기단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꾸샨족은 세 가지 이유로 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었다.

1. 그들의 도래 이후 바로 시르캅의 인구의 반이 역병으로 죽었었다.
2. 몽골출신 꾸샨족은 그리스 도시 계획에 익숙하지 않았다.
3. 정복자들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한다는 것은 일반화된 전통이었고 위신의 문제였다.

번역 : 김서리